

2016 통일 의식 조사

정근식 · 김병로 · 장용석 · 정동준 · 최규빈 · 김병조 · 송영훈 · 황정미 · 황창현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8

2016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7. 2. 10
발 행 2017. 2. 10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정근식
저 자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가 격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6) 통일의식조사 /	
저자: 정근식, 김병로, 장용석, 정동준, 최규빈, 김병조, 송영훈, 황정미, 황창현.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28)	
ISBN 979-11-955093-7-9 93340 : 비매품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查)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700346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28

2016 통일의식조사



목차

서장	18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88
제1부 기초분석		1. 서론	88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30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91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32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99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37	4.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112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44	5. 소결	119
4. 통일과 민주주의	48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22
5.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52	1. 서론	122
6. 소결	54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24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58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141
1. 남북한 관계 인식	60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152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66	5. 소결	161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68		
4. 북한의 위협 의식	73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80		
6. 소결	83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인식	166
1. 서론	166
2.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분석방법	169
3.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 : 절대평가	171
4.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 : 상대평가	176
5. 남북책임론 및 미중책임론과 통일, 대북 및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	182
6. 소결 : 정책적 시사점	190
제6장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194
1. 서론	194
2. 분석 방법	198
3. 분석과 결과	201
4. 소결	220

7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수용성	224
1. 서론	224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정책 인식	228
3.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통일·북한 인식	242
4. 다문화 수용성, 이주자 인식과 탈북자 사회통합	251
5. 소결	255

결장	260
----	-----

부록	270
----	-----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이유	35	〈표 1-4-12〉	중국의 국가이미지	148
〈표 1-1-2〉	통일의 추진 방식	38	〈표 1-4-13〉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149
〈표 1-1-3〉	통일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 교차분석	40	〈표 1-4-1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151
〈표 1-1-4〉	통일의 가능 시기	42	〈표 1-4-15〉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152
〈표 1-1-5〉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49	〈표 1-4-16〉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53
〈표 1-1-6〉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51	〈표 1-4-17〉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55
〈표 1-1-7〉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52	〈표 1-4-18〉	북한과 미국의 가상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156
〈표 1-2-1〉	한국인의 대북인식과 유관 변수(2016)	62	〈표 1-4-19〉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2007-2014)	158
〈표 1-2-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6)	83	〈표 1-4-20〉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159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125	〈표 1-4-21〉	정치성향별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160
〈표 1-4-2〉	주변국 친밀도 선호도	127	〈표 2-5-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	172
〈표 1-4-3〉	성별 주변국 친밀감	127	〈표 2-5-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책임	173
〈표 1-4-4〉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129	〈표 2-5-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 책임	174
〈표 1-4-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34	〈표 2-5-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 책임	175
〈표 1-4-6〉	성별 주변국 위협인식	136	〈표 2-5-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한국	177
〈표 1-4-7〉	연령대별 대북 위협인식	137	〈표 2-5-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한국 vs 미국	178
〈표 1-4-8〉	미국의 국가이미지	142	〈표 2-5-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한국 vs 중국	179
〈표 1-4-9〉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143	〈표 2-5-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미국	179
〈표 1-4-10〉	일본의 국가이미지	145	〈표 2-5-9〉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중국	180
〈표 1-4-11〉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146	〈표 2-5-10〉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미국 vs 중국	181

표 목차

〈표 2-5-1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통일필요성(2016)	183	〈표 2-6-11〉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218
〈표 2-5-1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통일이유(2016)	184	〈표 2-6-12〉 정부 평가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218
〈표 2-5-1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북한인식(2016)	185	〈표 2-6-13〉 정부 평가 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2011-2016)	219
〈표 2-5-1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북한 정권인식(2016)	186	〈표 2-7-1〉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2016)	234
〈표 2-5-1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개성공단 재가동(2016)	187	〈표 2-7-2〉 통일 및 남북관계와 세대 구분	245
〈표 2-5-1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한국 핵무장(2016)	188	〈표 2-7-3〉 “접촉” 변인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16)	249
〈표 2-5-1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바람직한 통일정책(2016)	189	〈표 2-7-4〉 북한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2016)	250
〈표 2-5-1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중요한 대외정책(2016)	190	〈표 2-7-5〉 통일 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16)	250
〈표 2-6-1〉 당파별 빈도 분포 추이(2011-2016)	202	〈표 2-7-6〉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2016)	254
〈표 2-6-2〉 당파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204	〈표 2-7-7〉 다문화 수용성과 통일에 대한 의견(2016)	254
〈표 2-6-3〉 당파성 결정요인들의 영향력 검정(Likelihood-Ratio 테스트)	205		
〈표 2-6-4〉 정당 지지집단 간 차별화 검정(Wald 테스트)	206		
〈표 2-6-5〉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208		
〈표 2-6-6〉 통일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209		
〈표 2-6-7〉 통일 인식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2011-2016)	211		
〈표 2-6-8〉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213		
〈표 2-6-9〉 대북정책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213		
〈표 2-6-10〉 대북정책 인식 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 (2011-2016)	215		

그림 목차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32	〈그림 1-3-5〉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96
〈그림 1-1-2〉 연령별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40	〈그림 1-3-6〉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율	97
〈그림 1-1-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 남한사회와 개인	45	〈그림 1-3-7〉 경제 상황 만족도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율	98
〈그림 1-1-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47	〈그림 1-3-8〉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도움됨)	100
〈그림 1-2-1〉 한국인의 대북인식	61	〈그림 1-3-9〉 대북지원의 북한주민 생활 기여도 인식	101
〈그림 1-2-2〉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63	〈그림 1-3-10〉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 인식(시급함)	102
〈그림 1-2-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65	〈그림 1-3-11〉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도움됨)	103
〈그림 1-2-4〉 연령별 북한 '적대상' 인식	66	〈그림 1-3-12〉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계승 주장 동의 여부	104
〈그림 1-2-5〉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70	〈그림 1-3-13〉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한 인식	105
〈그림 1-2-6〉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71	〈그림 1-3-14〉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에 대한 인식	106
〈그림 1-2-7〉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72	〈그림 1-3-15〉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인식	108
〈그림 1-2-8〉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76	〈그림 1-3-16〉 대북 빼라 살포 중단 주장에 대한 인식	109
〈그림 1-2-9〉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77	〈그림 1-3-17〉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인식	110
〈그림 1-2-1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79	〈그림 1-3-1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인식(크다)	111
〈그림 1-2-11〉 북한사회 인지도	81	〈그림 1-3-19〉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112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92	〈그림 1-3-20〉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인식	114
〈그림 1-3-2〉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율	93	〈그림 1-3-21〉 지지정당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2016)	115
〈그림 1-3-3〉 대북정책 만족도 : 연령대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	94	〈그림 1-3-22〉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	116
〈그림 1-3-4〉 학력수준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95	〈그림 1-3-23〉 보수층의 친밀한 국가인식에 따른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	117

그림 목차

〈그림 1-3-24〉 친밀한 국가 인식별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118	〈그림 2-7-11〉 통일의 이익과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2007-2016)	242
〈그림 1-4-1〉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130	〈그림 2-7-1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2014-2016)	243
〈그림 1-4-2〉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31	〈그림 2-7-13〉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합산점수) 시계열 추이 (2007-2016)	244
〈그림 1-4-3〉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132	〈그림 2-7-14〉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합산점수) : 세대별 변화 (2007-2016)	246
〈그림 1-4-4〉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138	〈그림 2-7-15〉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세 가지 요인	248
〈그림 1-4-5〉 정치성향별 대북위협도	139	〈그림 2-7-16〉 다문화 수용성의 시계열 변화(2012-2016)	253
〈그림 1-4-6〉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140		
〈그림 2-7-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연령별 분포(2016)	229		
〈그림 2-7-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가구소득수준별 분포(2016)	230		
〈그림 2-7-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교육수준별 분포(2016)	230		
〈그림 2-7-4〉 탈북자와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2016)	232		
〈그림 2-7-5〉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 연령 및 교육수준별 (2016)	235		
〈그림 2-7-6〉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2007-2016)	237		
〈그림 2-7-7〉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 (2007-2016)	238		
〈그림 2-7-8〉 ‘탈북자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에 대한 의견 (2007-2016)	238		
〈그림 2-7-9〉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2007-2016)	239		
〈그림 2-7-10〉 ‘탈북자들은 남북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의견(2007-2016)	239		



서 장



서장

박근혜 정부 4년 차, 김정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2016년은 북한의 급속적인 4차 핵실험과 남한의 강경대응으로 양국 간 대립구도가 심화된 한 해였다. 작년 8.25 남북합의 이후 제한적으로나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2016년은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다가올 7차 당 대회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4차 핵실험, 연이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에 적신호가 드리웠다. 3-4년 주기로 행해졌던 실험이 올 한 해만 두 차례나 진행됐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핵·미사일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때 2017년 새해에는 핵보유국으로써 지위를 확보하고자 핵·미사일 실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양국 간 대결 구도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남한의 대응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남한 정부는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자 이를 뒤 8일 대북 심리전 확정

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였다. 지난해 북한의 목함 지뢰 매설 도발로 11년 만에 시행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 고위급 접촉으로 8.25 합의를 이뤄내면서 중단되었지만, 올해 초 핵실험 도발로 넉 달 만에 재개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2004년 처음 가동된 이후로 '통일의 마중물', '남북경협을 옥동자' 등으로 불리며 지금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에도 멈추지 않았던 남북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자 상생협력의 공간이었던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그 운행을 멈춘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남북 당국 간 소통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악화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북한이 생존과 안보를 계속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대북지원과 각종 교류 사업에 대한 잠정적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도 2016년 들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제3국을 통한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만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 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의 중단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점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7월 13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정부와 언론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중국

이 사드 배치 철회 또는 연기를 위해 경제를 비롯한 각종 제재의 수단을 예고함으로써 한중관계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이해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들의 군비경쟁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북한을 핵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낼지, 그리고 성숙한 외교력으로 중국을 설득해가며 미·중 간 기울어진 외교를 복원해나갈지 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북핵 위협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2일에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로 불리는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10월 17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였다. 5차 핵실험 이후인 11월 30일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 2270호를 보완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12월 19일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 최종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의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 추가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된 2016년의 남북관계가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올해로 어

느덧 열 번째를 맞이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유난히도 많은 일이 있었던 올해의 통일의식과 함께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변화는 예외성과 동시에 지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올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화를 주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가 지난 10년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연 올해의 조사결과가 어떠한 부분에서 연속적인 변화의 경향성을 보였고,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올해만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의식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해마다 어떻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경향과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서 이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안 관련 문항 신설이 요구되지만, 해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통일과 북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내용과 항목이 일관적일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모든 수

요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쟁점 이슈에 대해서 소수의 문항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원칙은 조사 문항의 기본적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2016년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부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정책들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태도, 남북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지식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향후 안정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조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이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개성

공단의 재가동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대북 전단 살포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 항목이다.

조사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이다.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먼저 온 통일’이라 일컫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은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면서, 올해의 국내 입국자 수는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렇게 탈북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시각 역시 달라지고 있다. 남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와 관련하여, 점차 이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 설문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태도와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넘어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문항들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위상이 무엇이며 이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의 바탕을 이루는 다섯 가지 영역 이외에도 통일 의식조사는 기초적인 배경변수로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기초적인 배경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교차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인구학적 배경변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교차 분석과 심층 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는 통일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타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질문들은 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평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지 여부, 정당지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통일의식조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 동안 시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충청남도의 권역에 포함하였다. 2015년 조사부터는 모집단의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하에서 74세 이하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의식 형성에서 고령층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효 표본의 수는 1,200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계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

하였다. 표본추출은 2016년 6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인구비율이 낮은 제주도와 강원도는 충분한 통계분석이 가능할 만큼 우선 할당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할당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였다. 면접원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 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질문항목 별 기본 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다. 통일의식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하여 설문지와 코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제1부 기초분석

-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지 만 10년이다. 일 년에 한 번 조사하는 정기조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단기간 통일의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의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한 세대 동안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변화하는 측면과 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수처럼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의 정세와 정책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도발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은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는 경향도 보여왔다.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사회상과 구현해야 할 가치들을 염두에 두면서 보다 실용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의 패턴을 보여왔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통일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통일정책은 정부가 기초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초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 추진력을 상실하는 것도 당연하다. 현 정부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등을 내세우고 대대적인 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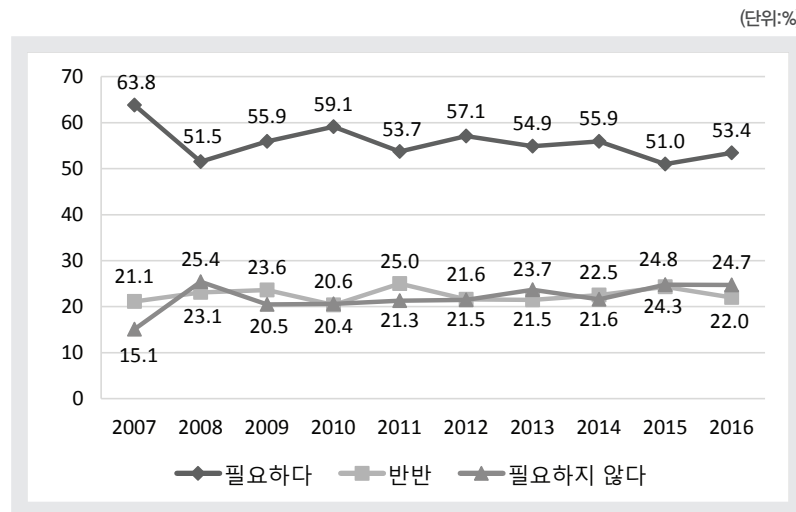
이 글에서 기술된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과 다를 수 있다.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국사회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상황이 앞으로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내년도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2016년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 시기의 기대와 추진 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집단적, 개인적 기대감,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 한국의 정치사회체제 등과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에 어떤 경향성을 보여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15년 조사결과보다 2.4%p 증가한 53.4%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과 2008년 다음으로 낮은 결과이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9.5%,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33.9%였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항상 절반을 넘었지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였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34.4%였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7%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국내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통일 관련 사업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과 2016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 관련 사업이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한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통일사업들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낙관적으로 하기 어렵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의 차이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4년에는 61.9%, 2015년 54.9%, 2016년 61.4%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14년에는 49.6%, 2015년에는 46.9%, 2016년에는 45.0%였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남성의 응답률은 여성의 응답률보다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응답의 차이는 해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4.5%였으나 2016년에는 54.5%로 10%p의 차이가 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강원도와 충청권의 응답률이, 2015년 조사에서는 호남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지역별 샘플의 차이 때문일 수 있지만 강원도(74.2%)와 제주(70.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영남권은 4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의 특징은 20대와 30대, 50대와 60대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점차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과 2016년에 20대와 30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7-14%p까지 낮아진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약 65.0%와 74.0% 정도로 변함이 없었다. 40대는 약 55% 정도로 두 그룹의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응답의 특징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낮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별 응답의 특징과 교육수준별 응답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경제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통일의 이유

남북한이 통일 해야 하는 이유를 당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거나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응답자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일의 현실적 이유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1-1-1〉 통일의 이유

(단위:%, N)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의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 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합계 (N)
2007	50.7	8.9	19.2	1.8	18.7	0.7	1197
2008	58.7	6.6	14.5	2.9	17.2	0.1	1206
2009	44.3	8.5	23.5	4.2	18.7	0.8	1195
2010	43.3	7.0	24.2	4.0	20.8	0.6	1193
2011	41.9	7.2	27.3	4.8	17.7	1.1	1197
2012	46.0	9.1	25.3	4.4	14.5	0.8	1199
2013	40.4	8.3	30.8	5.5	14.2	0.8	1198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2015	40.7	12.3	26.3	6.3	14.0	0.4	1198
2016	38.6	11.8	29.8	5.0	14.2	0.7	1200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감소하여 38.6%였다. 2007년 조사에서는 50.7%가 이와 같은 당위적 측면에서 통일의 이유를 찾고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면서 12.1%p가 감소되었다. 한편,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전년보다 증가하여 29.8%이다. 역시 2007년의 19.2%와 비교할 때, 10.6%p가 증가하였다. 당위적 측면에서의 통일을 이해하는 응답이 줄어든 만큼 현실적 측면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통일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약 2.9%p 증가하였다.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을 해

야 한다는 응답은 3.2%p 증가하였으며,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p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경향은 국민들이 남북한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바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에 대응하여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남북한의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의 의식을 ‘현실주의적 통일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통일 담론과 달리 현재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전쟁 위협의 해소에서 통일의 이유를 찾고 있다고 보면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대와 40대는 다른 세대들보다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지만,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전쟁 위협 해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당위적 차원의 통일 담론이 더 우세함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민족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통일의 당위성을 포기하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결과들은 국민들이 통일을 민족적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국제적 사건으로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용적

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서도 남북한의 통일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지난 10년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의 과정과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급격한 통일보다는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상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응답을 해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에는 70.6%, 2016년에는 54.1%로 16.5%p 감소하였지만,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여전히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다.

〈표 1-1-2〉 통일의 추진방식

(단위:%, N)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세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6	64.8	17.1	8.5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7.0	16.1	6.9	1,200
2011	9.7	67.0	15.2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199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8	57.5	21.8	8.9	1,200
2016	13.1	54.1	23.2	9.6	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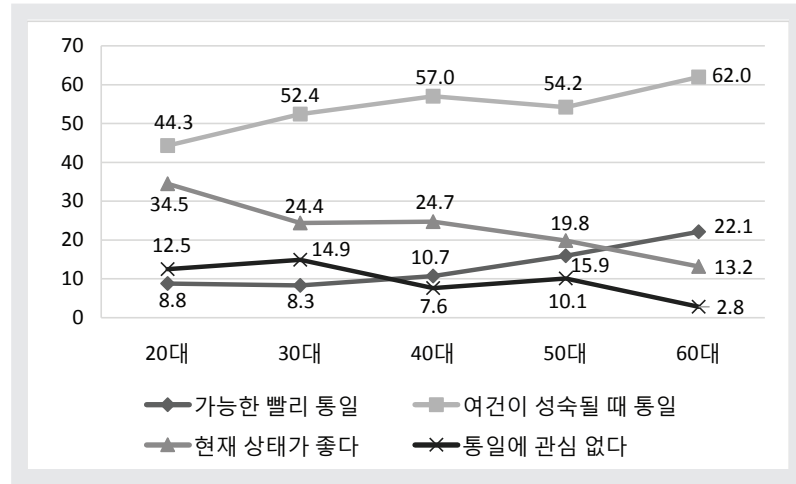
응답자 중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10년 동안 약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에 통일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경우 그 어떠한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 통일이 다른 가치들의 희생을 대가로 성취해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 지지는 않고 있다. 반면 ‘현재 이대세가 좋다’고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007년 11.8%에서 2016년 23.2%로 증가하고 있다. ‘통일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7.0%에서 9.6% 사이에서 해마다 다르지만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아직까지 절반을 넘지만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현재의 남북한 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로 통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남북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운영, 자유롭고 안전한 왕래가 보장되는 수준의 통일을 이루는 실천적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상이 여러 층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20대의 44.3%, 30대의 52.4%, 40대의 57.0%, 60대의 62.0%가 점진적 통일의 과정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20대에서는 34.5%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24.4%, 24.7%였고, 50대와 60대는 19.8%와 13.2%로 나타났다.

〈그림 1-1-2〉 연령별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단위:%)



통일의 추진 방식 유형별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남성 응답자들 중에는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하는 것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을 하자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 응답자들 중에는 ‘현재대호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에 그들의 인식과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표 1-1-3〉 통일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 교차분석

(단위:%)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 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12.4	37.1	3.3	0.5
반반/그저그렇다	0.7	11.0	7.7	2.6
통일이 필요없다	0.0	6.0	12.0	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에 의하면 두 문항 간의 상관성이 높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하였을 때, Pearson's R의 값은 0.641이고 Spearman Correlations의 값은 0.650이다. 다시 요약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점진적 통일을,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자들은 남북공존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응답의 특징은 10년 동안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조속한 통일을 바라는 호남권 응답자(28.5%)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영남권 응답자는 여전히 작년(8.0%)에 이어 5.0%로 가장 낮았다. 점진적 통일에 대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응답은 각각 55.5%와 55.3%로 영남권(49.9%)과 호남권(48.7%)의 응답보다 높았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응답자 70% 이상이 점진적 통일 과정을 선호하였다.

2) 통일의 가능 시기

통일이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일부에서는 통일이 임박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혹은 내일이라도 통일이 올 것처럼 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10년의 조사 기간 동안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4.0%를 넘지 못하였다.

〈표 1-1-4〉 통일의 가능 시기

(단위:%, N)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합계
2007	3.7	23.5	30.9	14.7	13.9	13.4	1,198
2008	2.3	13.4	22.3	14.8	25.1	22.1	1,213
2009	2.7	17.0	27.7	16.3	16.5	19.8	1,202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7	21.4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2	13.7	22.8	18.2	19.7	23.5	1,200
2015	3.5	17.8	25.5	13.9	19.6	19.7	1,199
2016	3.5	14.0	25.1	15.2	17.9	24.4	1,201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통일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2007년 23.5%에서 2016년에는 14.0%로 지난 10년 동안 약 10%p 감소하였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2007년 13.4%에서 2016년 24.4%로 지난 10년 동안 10%p 증가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20년 이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25.1%로 가장 많았으나, '불가능하다'는 응답과 불과 0.7%p 차이 밖에 없었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앞선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는 남성 응답률이 여성 응답률보다 5% 가량 높게 나타났지만, '30년 이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사라지고, '30년 이상' 혹은 '불가능하다'는 여성 응답

자가 남성 응답자들보다 많았다.

통일 가능 시기를 '30년 이내'라는 응답자들은 연령별 차이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는 통일을 먼 미래에 있음직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통일을 가까운 미래에 실현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극단적으로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20대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지만, 50대와 60대 응답자는 6.6%와 7.0%였다.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0대의 34.3%, 50대와 60대의 19.2%와 18.2%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은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미래상이 있더라도 현재 한국의 모습과 분단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미래상에 맞게 나아갈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된 한국이 하루아침에 현재의 한국과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과 통일된 한국을 연결하는 인식의 통로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의 통로는 실천적 통일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정부의 교체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도 통일의 추진 방식과 시기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의 세부 추진 전략이 바뀔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정책의 기초가 너무 단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국내적으로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기초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의 통일정책은 정부의 정치적 입장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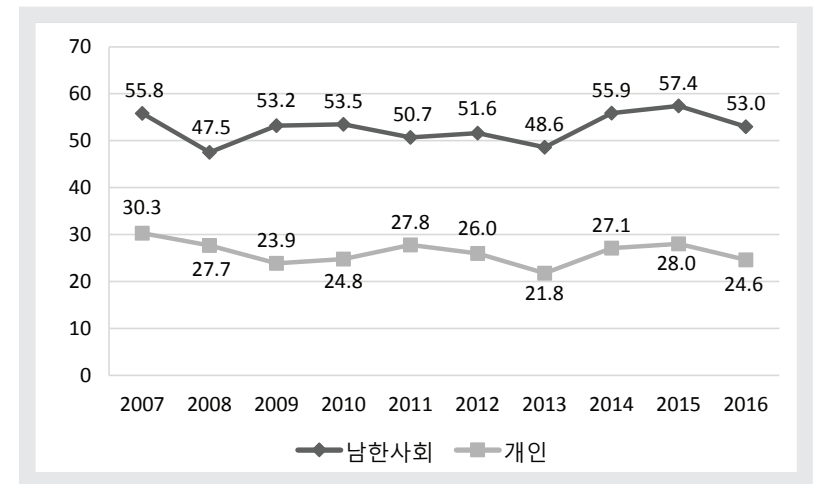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은 최소 70년 이상 분단된 채 경쟁을 해왔던 두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통일이 가져올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실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통일에 따른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평가하고 이익을 크게 평가한다면 통일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통일에 대한 편익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가 또는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올 편익을 크게 평가하는 응답자들이 개인에 가져올 편익을 크게 평가하는 응답자들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통일의 이익이 무엇인지 개인적 차원에서 불분명하지만, 통일에 따른 비용은 세금 인상 등 개인이 구체적으로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1-1-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 남한사회와 개인

(단위:%)



지난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관되게 공동체에 대한 편익을 개인에 대한 편익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50%를 넘었다. 반면, ‘통일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07년 30.3%였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6년에는 24.6%를 기록하였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하여 두 범주의 모두 긍정적인 응답이 줄어들었다.

남한사회에 대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는 평균 26.5%p이다. 평균적으로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두 범주 간의 격차는 각각 29.4%p와 28.4%p이

며, 2012년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남성의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56.8%,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27.4%이다. 여성은 각각 49.1%와 21.8%이다.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이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49.2%와 48.5%를 기록하였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53.6%와 55.1%를 기록하였다. 반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20대가 18.7%, 60대가 20.9%를 기록한 반면, 30대, 40대, 50대의 응답은 27.4%, 26.8%, 27.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두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약 두 배 정도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중졸 이하 학력과 그 이상의 학력에서 약 5%의 차이가 있다. 중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 중 46.8%가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고, 16.3%만이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고졸과 대재 이상 학력의 응답자들 중 55.2%와 51.8%가 집단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고, 25.6%와 25.7%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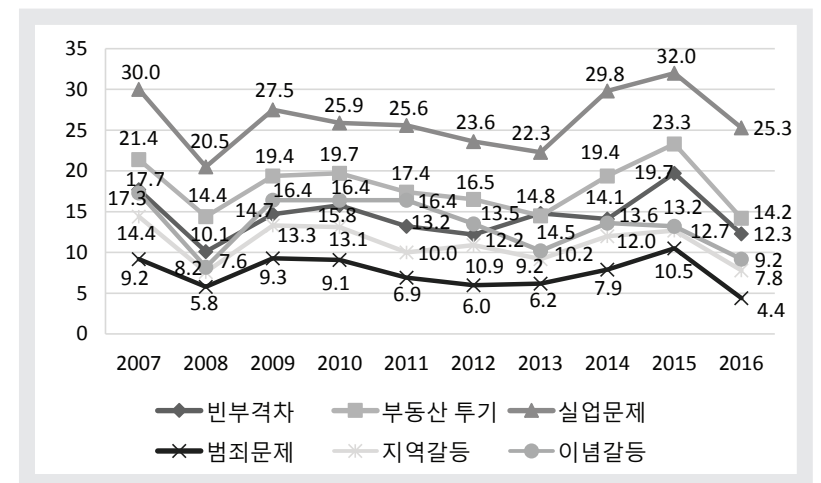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집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지는 추상성 때문에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기대감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남한사회 혹은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라

는 질문이 가진 집합성과 추상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측정하였다.

〈그림 1-1-4〉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단위:%)



〈그림 1-1-4〉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통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응답자들이 많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통일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 2016년에는 4명 중 1명만이 기대를 하고 있다. 통일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담론이 실업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통일이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

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등과 관련 문항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통일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 및 통일 담론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통일은 다가올 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다면 오늘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통일의 비용과 이익을 평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정책이 오늘의 문제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통일 한국은 지금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가 아니다. 통일한국은 현재의 한국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발전적으로 재구성되는 국가이다. 즉, 통일은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역사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제해결과 국제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재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미래 지향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이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과 정치체제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통일을 이루는 것과 남북한의 민주적 발전 혹은 민주화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에게 질문하였다. 우선,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23.8%,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50.1%였다.

〈표 1-1-5〉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19.9	20.0	19.3	18.1	19.7	23.6	23.6	27.0	23.0	23.8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31.3	23.5	31.2	29.8	25.1	24.8	26.1	23.2	29.1	26.1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없음	48.7	56.6	49.5	51.9	55.3	51.7	50.3	49.8	48.0	50.1

‘지난 10년 동안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0% 정도였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과거에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두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통일과 민주주의의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이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통일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다 보면 민주주의를 위한 가치들이 희생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통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빈번하게 나타났던 민주주의 왜곡 현상을 경험하였던 국민들 혹은 통일의 문제보다 민주주의 실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 세대들에게서 통일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는 통일정책이 민주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연령별 특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응답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민주주의가 완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30대의 경우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25.2%)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24.4%)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에서는 중도적 성향의 응답률(30.3%)이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22.1%)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21.5%)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의 선도 효과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북한 내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27.8%, ‘통일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28.7%이다. 북한체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국내외 언론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통일이 북한의 민주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주장에는 30% 미만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15.1%p 증가한 43.6%이다.

〈표 1-1-6〉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와의 관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28.7	34.3	37.6	38.7	34.7	39.9	38.2	28.7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27.8	33.5	29.4	32.0	33.0	27.0	33.3	27.8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없음	43.6	32.2	33.0	29.3	32.3	33.1	28.5	43.6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며,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나이가 적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20대는 ‘북한의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8.5%로 ‘통일이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응답 30.8%보다 컸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과 북한 민주화의 중요성을 비슷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의 경우,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수 45.0%, 중도 38.6%, 진보 38.3%로 나타났다. 북한의 민주화 선행에 대한 인식은 보수 27.1%, 중도 32.2%, 진보 27.4%로 나타났다. 작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통일의 선도효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지고 북한 민주화 선행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에 비해 응

답자들이 북한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민족공동체통일안은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남한 체제 중심의 통일, 북한 체제 중심의 통일, 제3의 절충형 통일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1-7〉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한의 현체제 유지	43.6	44.4	48.9	44.2	43.6	44.9	48.1	47.3
남북한 체제의 절충	39.1	38.8	35.6	37.7	35.4	37.9	33.5	34.5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	13.3	12.6	12.3	15.1	16.9	13.2	13.6	14.4
어떤 체제도 무방	4.0	4.2	3.2	3.0	4.1	4.1	4.8	4.0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7.3%로 가

장 많았다. 조사 기간 동안 약 43-48% 정도로 응답 비율이 거의 변함이 없었다. 두 번째로 많은 국민들이 선택한 응답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것으로 34.5%였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 모델에 대한 선호도도 약 35% 내외에서 변화가 없었다. 통일의 추진 방식에서 남북한 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남북한 두 체제의 절충형과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었다.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도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두 체제가 절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통일 이후에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통일의 과정에서 체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고 그 결과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체제도 지금 한국의 모습과는 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 응답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30대의 응답자들은 남한의 현 체제 유지(41.1%)와 남북한 체제의 절충(40.6%)에 대한 의견이 거의 비슷하였다. ‘남한의 현 체제 유지’에 대해 20대(53.1%)와 60대 이상(52.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두 체제의 절충’ 견해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지난해에는 40대였

지만 올해는 30대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의 현재 체제 유지'에서는 보수 50.0%, 중도 45.3%, 진보 49.5%로 나타났으며, 진보적 성향 응답자들이 작년에 비해 9%p 더 증가하였다. '남북한 두 체제 절충'에서는 보수 30.2%, 중도 36.6%, 진보 34.1%로 작년에 비해 중도와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조금씩 증가한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은 줄어들었다.

6. 소결

통일인식조사 10년을 맞으면서 지난 10년 동안의 조사에 나타난 통일 인식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통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통일 담론을 주도하면서 여러 가지 통일의 모습을 그려내지만, 국민들에게 그것이 온전히 전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의 통일에 대한 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통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통일에 대해 일관성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인식의 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국민들은 통일을 더 이상 민족 중심주의적 담론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이유가 반드시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거나 선

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통일이 실용적, 도구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우려할 것도 아니다.

국민들은 통일을 민족적 사건임과 동시에 국제적 사건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통합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이 남한사회에 대해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통일인식의 지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로 인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많지 않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일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정책의 단기전략과 중장기전략을 달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현상이 이념적 인식의 차이와 세대 간 인식의 차이였다. 최근에는 통일 관련 이념적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대간 인식의 차이는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현상이 통일문제와 관련된 인식과 태도에 국한된 것인가는 따져볼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대가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 이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민족의 역사에 대

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그들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
한지 재평가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른 사회문제에 대한 20대의 인식과 태도가 통일의식 분야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 이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
도 혹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국민들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없는 현실과 유리된 통일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
나는 현상일 수 있다. 통일 관련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통일의 미래상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통일의식은 대북정책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요구된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구분된다 말하기도 어렵다. 북핵실험과 그에 따른 대북
제재 등은 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동
시에 고려하는 통일 거버넌스의 운영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
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식조사 시점과 달리 2016년 하반기 한국사회는 소위 비선실세
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으로 매주 연속되는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
한 탄핵소추결의안이 통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특
별검사의 조사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한국의 정치 지
형은 급변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에서도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이 민간인에
의해 중단되면서 통일정책의 타당성이 의심을 받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이 요구된다.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2016년 한국인의 북한인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작년 한 해 동안 분단·광복 70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매우 컸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급랭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작년 8월에 조성된 남북 간 물리적 충돌 상황을 ‘8.25합의’로 가까스로 모면하고 이 상황을 10월과 11월 남북이산가족상봉으로까지 이어갔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2016년 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과 ‘인공위성’ 로켓발사(2016년 2월7일),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2016년 2월10일),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동결 및 인원추방(2016년 2월11일)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이 발효(2016년 3월2일)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법안 H.R.757을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서명(2016년 2월18일)을 받아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적극 실행하였다. 한미 연합군사훈련(2016년 3-4월)에서는 한미공동 상륙 및 내륙진격 작전, 김정은 참수작전, 전략무기 배치 등 위협적인 군사작전을 공개하며 북한을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군최고사령부 중대성명(2016년 2월 23일)을 통해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 2차 타격대상은 아·태지역 미군기지 및 미국본토”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에 대응하였다.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4월7일)과 유럽 내 북한 노동당 자금 총책의 잠적(6월), 영국주재 북한 태영호 공사의 망명(8월17일) 등 핵심계층의 탈북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와 북한체제의 균열 내지 붕괴를 전망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북한 내부적으로도 작년 10월 당창건 70주년 행사를 치렀으며 올해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 5월 9일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는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리는 행사로 김정은의 제도적 통치기반을 마련하였다.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당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6월 2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3기 4차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신선했던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2009년 후계자 지명 이후 추진했던 김일성·김정일 수준으로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제도화 작업을 일단락 지었다. 유엔과 한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 환경 속에서 북한은 격렬한 대남, 대미 비난을 전개하며 대내 주민동원을 시도하였다. 이번 조사는 7월 1-22일에 실시됨으로써 정부의 사드배치결정(7월8일)이 국내외적으로 초래한 갈등국면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태영호 북한공사의 망명 보도(8월16일)나 북한의 SLBM 발사(8월24일), 5차 핵실험(9월9일)과 같은 내용들도 이번 조사 이후 발생한 사건들로 이번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건들과 환경을 유념하면서 조사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3.7%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21.6%, ‘적대대상’ 응답은 14.8%, ‘지원대상’ 11.6%, ‘경쟁대상’ 8.2% 등의 순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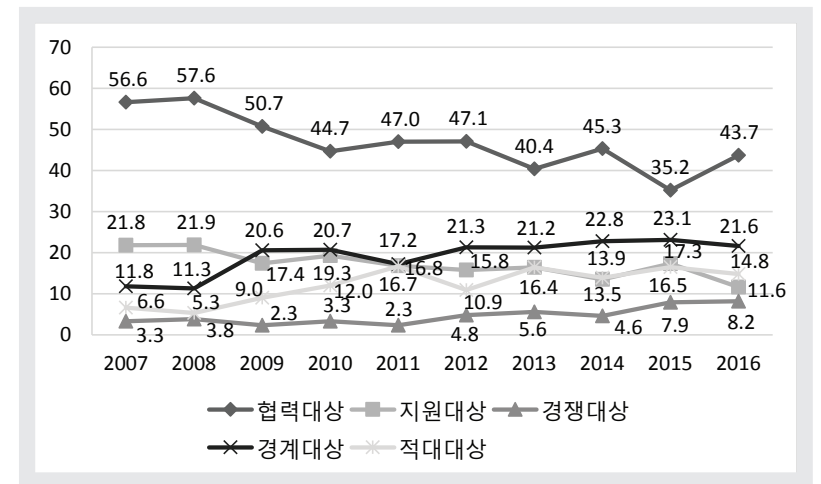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35.2%→43.7%로 8.5%p 상승했으며, 작년에 13.9%→16.5%로 상승했던 ‘적대대상’은 16.5%→14.6%로 다시 내려갔다. 한국인의 대북인식이 지난 1년 사이 협력적으로 변화된 이유는 작년 8월 남북 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8.25합의’가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금년 북한의 당창건 70주년과 제7차 당대회 등 내부 관련 보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던 위기에서 남북한 지도부가 마라톤 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 결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작년 하반기의 상황이 국민들에게 매우 인상 깊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데 따른 피로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위기와 갈등국면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조사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소식(2016년 8월24일)이나 5차 핵 실험(2016년 9월9일)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이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북한발 위협이나 긴장고조에 심각한 피로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2-1> 한국인의 대북인식

(단위:%)



남북한 관계 인식은 성별, 직업, 교육 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 종교, 연령, 소득수준, 사회계층, 도시화, 정치성향, 지지정당 등은 아래의 <표 1-2-1>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교육 변수에서 대북인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올해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역, 종교, 소득, 정치성향 등에 따라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1-2-1〉 한국인의 대북인식과 유관 변수(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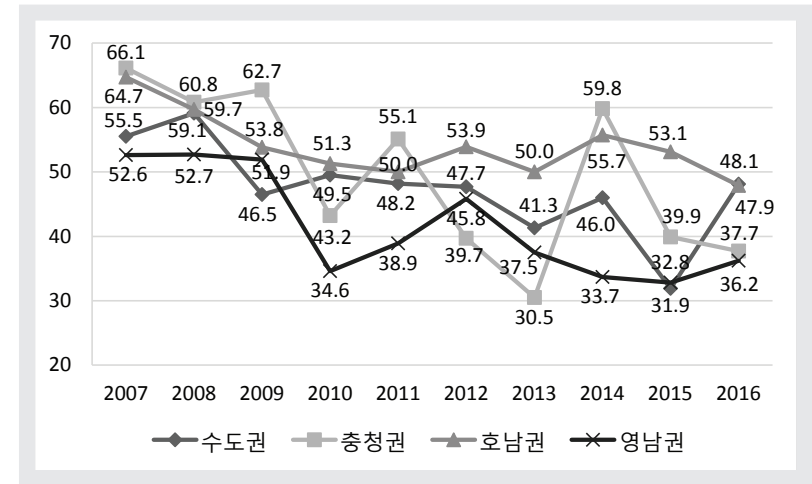
(단위:%)

변수 구분	협력·지원·경계·적대 등 대북인식	
지역	$\chi^2=55.399$	$p=0.0000$
종교	$\chi^2=46.028$	$p=0.000$
연령	$r=-0.077$	$p=0.007$
가구소득	$\chi^2=31.050$	$p=0.013$
가구소득계층	$\chi^2=45.485$	$p=0.000$
사회계층(상/중/하)	$\chi^2=36.298$	$p=0.014$
도시화(대도시/중소도시/읍면)	$\chi^2=29.844$	$p=0.0000$
정치성향	$\chi^2=30.858$	$p=0.014$
지지정당	$\chi^2=27.806$	$p=0.033$

지역변수는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며, 2016년의 경우, 대북인식의 지역별 차이는 $\chi^2=55.399, p=0.0000$ 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영남권과 충청권이 각각 36.2%, 37.7%, 수도권과 호남권은 48.1%, 47.9%로 영남·충청권과 호남·수도권으로 나뉘었다. 영남권과 충청권은 북한에 대해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각각 30.7%, 25.8%로 높은 반면, 호남권과 수도권은 각각 19.2%, 17.2%로 낮았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보면 〈그림 1-2-2〉에서 볼 수 있듯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의 대북 협력인식이 하락하고,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대북 협력인식이 31.9%→48.1%로 16.2%p가 급상승한 이유는 남북 간에 극적으로 타결된 ‘8.25합의’와 이후 남북 간에 진행된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변화된 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2-2〉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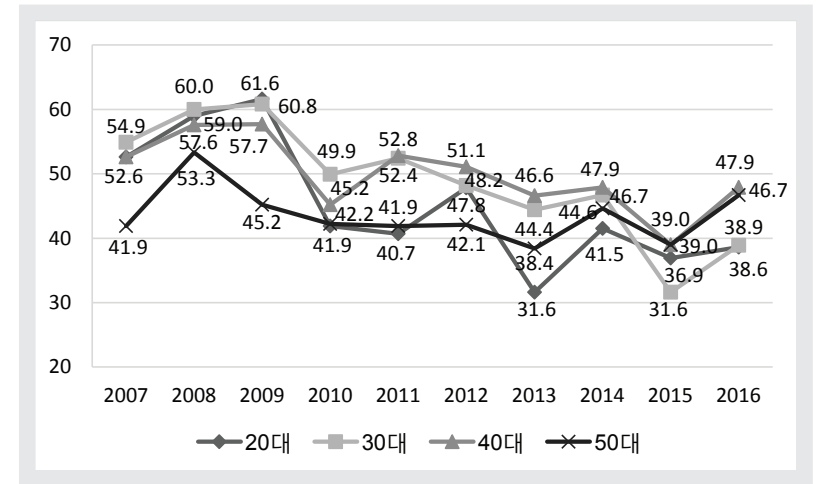
종교별 대북인식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협력대상’ 인식은 불교(49.8%)와 기독교(48.9%)에서 높고 천주교(37.1%)와 무종교(40.0%)에서 낮으며, ‘경계대상’ 인식은 불교(22.6%)와 무종교(23.8%)에서 높고 기독교(18.6%)와 천주교(18.6%)에서 낮다. 기독교(16.0%)는 다른 종교(불교 6.6%, 천주교 12.9%, 무종교 11.2%)보다 북한은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또 저소득층(21.8%)은 중간층(15.8%, 15.2%)이나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11.9%)보다 대북 적대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거주자(48.9%)는 중소도시(40.8%)나 농촌(33.6%) 거주자에 비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 거주자(32.6%)는 중소도시(19.4%)나 농촌(21.1%) 거주자에 비해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는 작년만큼 뚜렷하게 드

러나지는 않았다. 작년에는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진보(40.6%) > 중도(35.3%) > 보수(35.1%)의 순으로, 대북 적대대상 인식은 보수(21.3%) > 중도(15.7%) > 진보(13.2%)의 순으로 뚜렷하였으나, 올해는 협력대상에서 보수(49.9%) > 진보(46.0%) > 중도(39.9%)로, 적대대상에서 보수(18.8%) > 진보(14.7%) > 중도(13.3%)로 정치성향별 대북인식이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올해는 진보보다 보수가 오히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조성되었다.

대북인식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20대(38.6%)=30대(38.9%) < 60대(45.2%) < 50대(46.7%) < 40대(47.9%) 등의 순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20대와 30대에서 낮고, 40대와 50대, 60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40대가 50대나 60대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1-2-3>에서 볼 수 있듯이 30대의 대북 협력인식이 최저치로 내려갔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여 20대와 30대의 대북인식이 거의 비슷해졌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는 작년과 비교할 때 상당한 폭으로 협력인식이 상승하였다. ‘8.25합의’에 대한 안도감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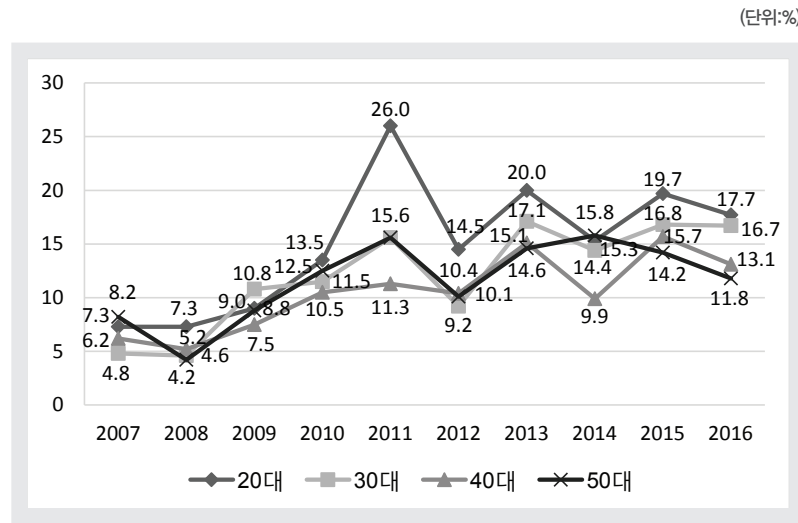
<그림 1-2-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20대와 30대의 젊은층에서 여전히 높다. <그림 1-2-4>에서 보듯이, 20대(17.7%) > 30대(16.7%) > 60대(15.9%) > 40대(13.1%) > 50대(11.8%) 순으로 20대의 대북 적대의식이 가장 높고 50대에서 가장 낮다. 대북 ‘경계대상’ 인식도 20대(24.8%)와 30대(24.2%)에서 높고 40대(19.7%)와 50대(19.3%)에서 낮으며 60대(21.1%)는 중간에 위치한다. 지난 1년 동안 대북 적대의식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30대를 제외한 각 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림 1-2-4〉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이 62.9%로 ‘변하고 있다’(37.1%)는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38.2%→37.1%로 소폭 줄었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은 61.7%→62.9%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체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 정치성향, 지지정당, 직업, 계층 등의 변수와는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교육수준($\chi^2=23.892, p=0.004$), 종교($\chi^2=35.740, p=0.000$), 소득수준($\chi^2=28.002, p=0.006$), 지역($\chi^2=47.715, p=0.000$), 도시화수준($\chi^2=17.754, p=0.007$)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은 중졸(24.2%) < 고졸(38.3% ≒ 대재이상(39.3%))으로 차이가 있었다. 무종교인(33.0%)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불교 38.2%, 기독교 43.2%, 천주교 41.8%)이 최근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종교별로는 천주교(17.9%)가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다’에 다른 종교(불교 4.8%, 기독교 9.2%)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고, 전반적으로 기독교(개신교 43.2%) > 천주교(41.8%) > 불교(38.2%)의 순으로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충청권(50.3%)이 다른 지역(수도권 37.7%, 호남권 32.2%, 영남권 33.1%)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하였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서는 진보(35.2%), 중도(37.7%), 보수(37.9%)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정권안정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이 60.0%로 안정될 것(9.7%)이라는 응답보다 6배가 많았다. 30.3%는 ‘그저 그렇다’라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불안정해질 것이다’라는 평가는 변동이 없는 반면, ‘안정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14.4%→9.7%로 감소하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5.7%→30.3%로 늘었다. 즉 북한정권 안정화에 대한 미래예측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안정화’는 지역($\chi^2=67.866, p=0.000$), 종교($\chi^2=30.861, p=0.014$), 교육수준($\chi^2=22.274,$

p=0.035), 지지정당($\chi^2=31.888$, p=0.010)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적으로는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영남권(13.0%)에서 가장 높고, 수도권(9.7%) > 호남권(6.3%) 순으로 낮으며,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는 호남권이 72.6%로 가장 높으며, 수도권(61.4%) > 충청권(55.9%) > 영남권(51.8%) 순으로 낮다. 북한정권을 안정될 것으로 보는 호남권의 인식은 15.5%→11.7%→6.3%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수도권의 안정화 의식도 17.9%→9.7%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영남권의 북한정권 안정화 전망은 9.9%→13.0%로 높아졌다.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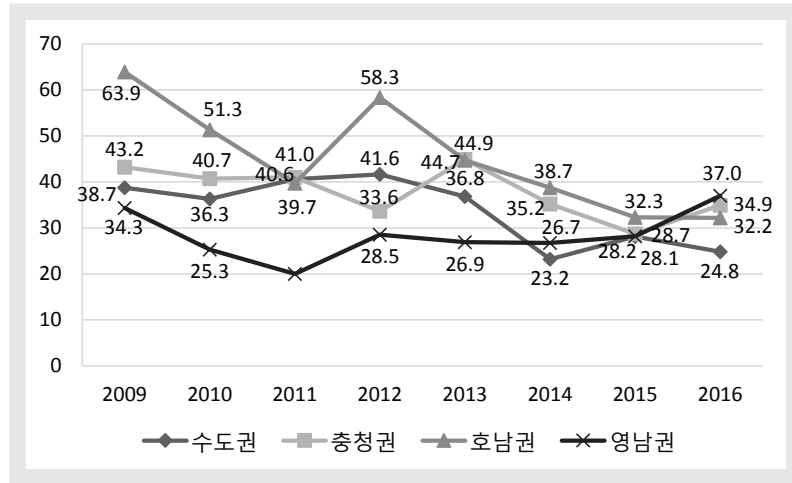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신뢰도)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9.5%로 ‘가능하다’(30.5%)는 응답보다 2배가량 많았다.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의견이 2배나 많은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28.7%→30.5%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소폭 상승하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40.9%)

이래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2년 39.3%로 반등했다가 2014-2016년에 각각 27.5%, 28.7%, 30.5%로 떨어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대북신뢰도는 지역($\chi^2=50.399$, p=0.000), 도시화수준($\chi^2=22.352$, p=0.001), 가구소득($\chi^2=28.774$, p=0.004), 정치성향($\chi^2=45.560$, p=0.000), 지지정당($\chi^2=49.462$, p=0.000)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림 1-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 신뢰도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역 간 차이가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던 수도권이 작년에 23.2%→28.1%로 올라섰으나 올해 다시 24.8%로 내려앉았다. 호남권은 32.3%→32.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충청권과 영남권은 각각 28.7%→34.9%, 28.2%→37.0%로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충청권과 영남권의 북한정권 신뢰도가 상승한 것은 북한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북한과의 대화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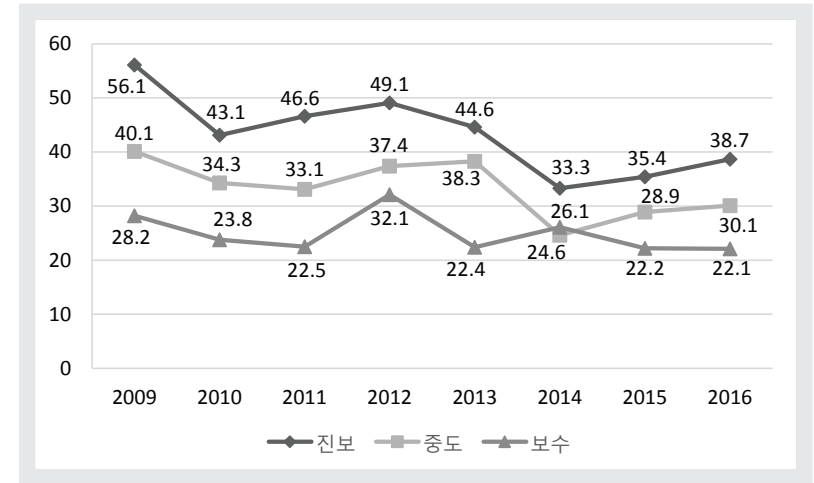
〈그림 1-2-5〉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단위:%)



〈그림 1-2-6〉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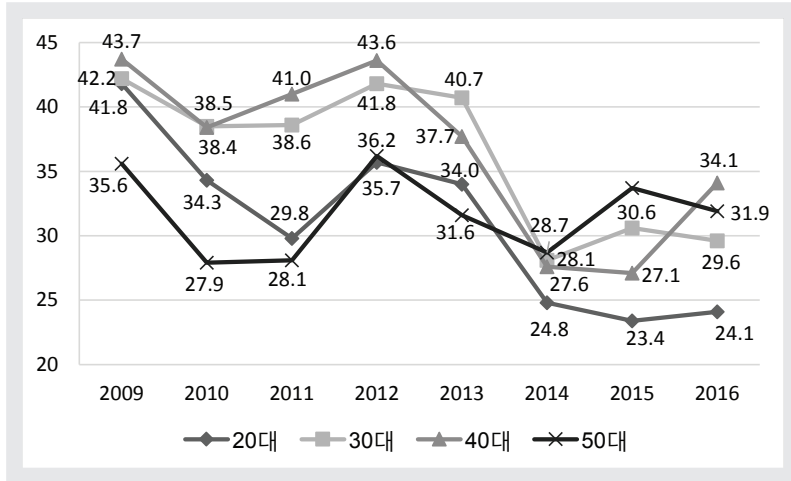
(단위:%)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관련성($\chi^2=45.560$, $p=0.000$)을 보였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1-2-6〉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신뢰도는 이념성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을 유지하였고 2014년에 중도가 보수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작년에 다시 중간으로 되돌아왔고 올해도 기존의 전형적인 패턴을 유지하였다. 지난 수년 동안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중간을 차지하는 양상이 복원된 것이다.

세대별 인식의 차이는 $\chi^2=19.545$, $p=0.076$ 으로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r=-0.065$, $p=0.025$ 로 관련성이 드러났다. 〈그림 1-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년에는 각 세대별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였으나 올해는 각 연령대별로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20대(24.1%)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반면, 30대(29.6%) < 60대(31.6%) ≙ 50대(31.9%) < 40대(34.1%) 순으로 40대가 가장 높은 신뢰를 표시하였다.

〈그림 1-2-7〉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가능 (단위:%)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3.8%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으며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4월 개정 헌법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3월부터 ‘경제-핵 개발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기 개발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다. 북한은 2016년 들어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을 한테 이어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84.6%, 88.0%, 86.3%, 83.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변수와의 상관성($\chi^2=44.432, p=0.001$)은 높은 편이나 그 편차는 수도권 82.7%,

충청권 88.6%, 호남권 85.3%, 영남권 83.5%로 크지 않았다. 지난 1년 사이 호남권의 회의적 시각이 93.4% → 85.3%로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이 71.7%→83.7%로 12%p 늘어났으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2013년에는 85.9%→84.6%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4차 핵실험을 단행한 2016년에도 86.3%→83.8%로 오히려 낮아졌다. 핵실험의 차수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북한의 위협 의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7.2%, ‘다소 위협을 느낀다’ 52.3%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던 2013년 78.4%와 비슷한 수치이다. 올해는 4차 핵실험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89.3%)이나 2015년(84.0%)에 비해 오히려 핵무기에 대한 위협의식이 낮아졌다. 북한의 핵실험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안감은 1차 때 가장 컸으며 핵실험이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3차 핵실험이나 4차 핵실험의 경우, 북핵에 대한

위협외식이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9월 9일 단행한 북한의 5차 핵실험도 국민들의 안보불안 외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외식은 지역($\chi^2=39.499$, $p=0.001$), 정치적 성향($\chi^2=31.855$, $p=0.001$), 직업($\chi^2=35.687$, $p=0.002$), 도시화수준($\chi^2=24.763$, $p=0.000$) 등의 변수와 상관성이 있다. 지역적으로 영남권(85.1%)과 충청권(84.1%)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으며, 진보(83.7%)가 보수(80.3%)와 중도(77.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시계열로 보면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 61.3%→74.3%로 70%대에 올라선 후, 천안함 사건 이후 2011년에 73.8%→80.7%로 급등했으며, 재작년에 89.4%로 최고로 높아졌다가 작년에 84.0%로 낮아진 후 올해 79.5%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작년(55.8%)보다 조금 낮아진 52.9%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핵무기 보유 의견에 공감하였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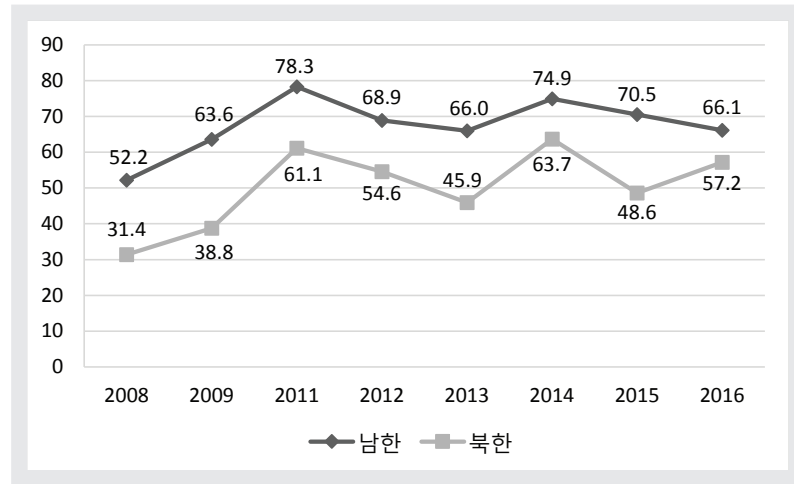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6.1%로 '없다'(33.9%)는 응답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작년의 70.5%에 비하면 4.4%p 떨어졌다. 74.9%로 높아졌던 재작년의 수준에서 작년과 올해 각각 4.4%p씩 떨어졌다. 휴전선에서의 지뢰폭발과 북한의 대북확성기 타격 위협, 핵실험

협과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작년 '8.25합의' 이후 하반기에 조성되었던 남북교류와 화해무드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반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위협이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작용하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국민들의 외식은 북한주민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를까? 북한주민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57.2%가 '있다'고 응답하여 '없다'(42.8%)는 응답보다 높았다. 즉,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비슷하게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그림 1-2-8>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외식은 48.6%→57.2%로 소폭 높아졌다.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외식이 낮아진 것과는 반대로 북한주민들의 경우에는 안보불안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이는 휴전선에서 발생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심각하게 전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수위로 끌어 올렸으며 이를 내부결속에 활용하였다.

〈그림 1-2-8〉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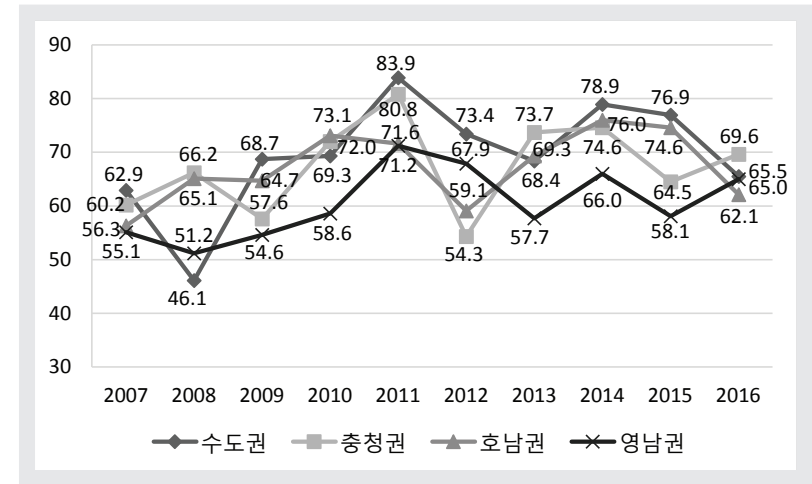
(단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지역($\chi^2=71.587, p=0.000$), 도시화수준($\chi^2=15.843, p=0.015$), 직업($\chi^2=27.205, p=0.027$), 교육($\chi^2=16.949, p=0.50$), 정치성향($\chi^2=31.340, p=0.002$) 등의 변수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북한발 무력도발 불안은 전반적으로 4.4%p 낮아진 가운데, 영남권과 충청권의 안보불안인식은 높아진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림 1-2-9〉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1년 동안 영남권과 충청권의 북한발 안보불안인식은 58.1%→65.0%, 64.5%→69.6%로 각각 6.5%p, 5.1%p 높아진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은 76.9%→65.5%, 74.6%→62.1%로 각각 11.4%p, 12.5%p 낮아졌다.

〈그림 1-2-9〉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chi^2=52.310, p=0.000$)가 있고, 대북정책 만족도는 지역과 높은 상관관계($\chi^2=72.876, p=0.000$)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발 안보불안인식은 정권에 대한 지지와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체로 정권을 지지하는 지역에서는 정권에 대한 신뢰가 작용하여 안보불안인식이 낮은 반면,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은 높은 안보불안인식을 보였다.¹⁾ 그

1] 안보불안에 대한 정권교체 효과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안보위기 인식이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진보정권 집권 기간에는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진보정권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발 안보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보수세력은 진보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보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보수세력은 보수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북한발 안보위기를 낮게 보지만, 진보세력은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북한과의 무력충돌과 그로 인한 안보위기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박명규·김병로·김병조 외, 『2008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08), pp. 51, 64; 『2009 통일외식조사』, pp. 51~52; 『2014 통일외식조사』, pp. 87~91.

러나 올해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즉 영남권과 충청권에서 북한발 안보불안인식이 높아진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두 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하나는 영남권과 충청권에서는 안보불안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 있는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책임을 덜 묻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영남권과 충청권이 북한의 도발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위협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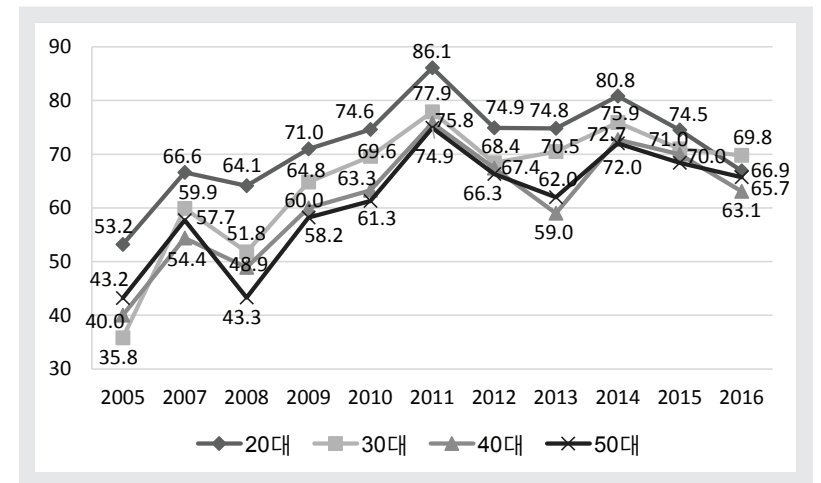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과 북한발 안보불안은 $\chi^2=31.340$, $p=0.002$ 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중도(66.8%) ≒ 진보(66.5%) > 보수(64.3%)로 보수가 진보나 중도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북한발 안보불안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안보불안인식은 정치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하는 반면, 보수는 본인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진보정권 하에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차이는 안보불안이 높아질수록 줄어들며, 안보불안이 낮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연령별 변수에 따른 북한발 안보불안의 차이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으나 트렌드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에는 20대가 가장 높은 불안인식을 보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30대가 69.8%로 안보

불안감을 가장 크게 표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대 젊은층이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였던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추세다.²⁾ <그림 1-2-10>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까지는 20대의 안보불안감이 가장 높게 유지되었으나, 올해는 30대가 20대(66.9%)보다 더 높은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그림 1-2-1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2)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0.032), 성별(0.044), 직업(0.036), 가구소득(0.005), 지역(0.000), 정치적 성향(0.006) 변수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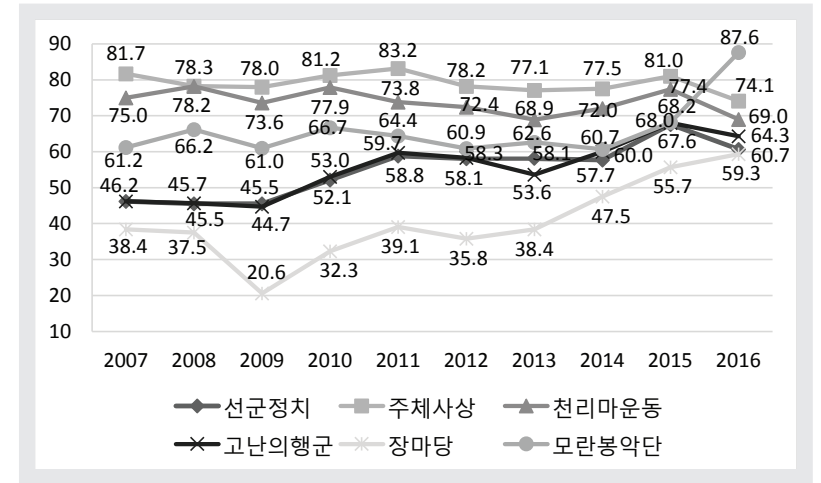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는 장마당을 제외하고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등 모든 분야의 대북인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1-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군정치 인지도는 67.6%→60.7%로 6.9%p 낮아졌고, 주체사상 인지도는 81.0%→74.1%로, 천리마운동은 77.4%→69.0%로, 고난의 행군은 68.0%→64.3%로 각각 낮아졌다. 반면 장마당에 대한 인지도는 55.7%→59.3%로 3.6%p 높아졌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에 처음 조사한 항목인데 첫 조사에서 87.6%가 나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모란봉악단을 제외하고 한국인의 북한사회 인지도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상승하던 북한관련 인지도가 지난 1년 사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북한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남북왕래와 교류가 극도로 단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2-11> 북한사회 인지도

(단위:%)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북한관련 경험은 지난 1년 동안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였다. 금강산·개성·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은 3.7%→2.1%로 줄었고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만나본 경험은 18.4%→14.2%로 줄었다.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은 23.2%→21.6%로 줄었고,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은 0.6%→0.6%로 변함이 없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중단되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평양방문이 제한된 데다 금년 2월 11일 개성공단 마저 폐쇄됨으로써 남북교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탈북자의 국내입국 수가 2009년 2천9백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5년 1,275명으로 급감하였고, 2016년 6월말 현재 749명을 기록하고 있다. 탈북자를 만나본 경험이

줄어든 것은 국내 입국 탈북자 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터넷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는 차단되어 있어 북한의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할 기회도 감소하고 있다. Youtube를 통한 북한방송과 소식이 개방되어 있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2.4%), 사회복지(94.9%), 언어사용(81.3%), 생활품급(77.8%), 가족중시(64.6%)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이질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한주민들의 남북 이질성 인식 평균은 82.2%로, 10명 중 8명은 남북 간의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다. 올해 설문 항목에서는 ‘역사인식’을 없애고 ‘생활수준’ 대신 ‘사회복지’를, ‘가치관’ 대신 ‘가족중시’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작년에 ‘가치관’의 차이를 물었을 때에는 91.0%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는데 올해 ‘가족중시’의 차이로 물었을 때 64.4%만이 ‘있다’고 답하여 전체의 평균을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남북이질성 인식의 평균은 작년 87.6%에서 올해 82.2%로 낮아졌으나, 이는 실제적 변화라기보다는 문항조정으로 생겨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한주민의 이질성 인식을 북한주민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남북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부분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항조정으로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보다 남북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측정항목만 보더라도 선거방식이나 언어사용, 생활품급 등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이질성 인식이 더 높다.(<표 1-2-2>) 이는 북한주민의 표본으로 선정한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사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

특히 언어생활과 같이 피부로 느끼는 차이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표 1-2-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6)

(단위:%)

	남한	북한
선거방식	92.4	94.2
사회복지(생활수준-북)	94.9	96.4
역사인식	-	94.9
언어사용	81.3	93.5
생활품급	77.8	89.1
가족중시(가치관-북)	64.6	90.6
평균	82.2	93.1

6. 소결

2016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첫째, 대북 ‘협력의식’이 높아지고 ‘적대의식’은 낮아졌다. 즉,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35.2%→43.7%로 8.5%p 상승한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16.5%→14.8%로 소폭(1.7%p) 하락하였다. 지난 1년의 변화만을 보면 대북 협력의식이 강화되고 적대의식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작년에 대북협력의식이 35.2%까지 내려간 것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길게 보면 작년이 예외적인 경우였고 올해는 다시 재작년 수준(45.3%)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2016년 들어 4차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북 협력의식이 높아진 데에는 한편으로는 작년 8월 극적으로 타결된 '8.25합의'가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발 위기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북한발 안보불안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소폭 완화되었다. 재작년 74.9%로 상승했던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은 작년 70.5%로 떨어졌고 올해 다시 66.1%로 떨어져 북한이 무력을 도발할 것이라는 불안의식이 조금 해소되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대북신뢰도' 역시 28.7%→30.5%로 소폭 높아졌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무력대응 위협 등으로 안보위기와 대북 불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 북한실세 3인방의 전격방문, 2015년 8월의 극적인 남북합의, 그리고 이어진 10-11월의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굵직한 남북 대화와 협력이 국민들에게 높은 안도감과 기대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보 불안 해소와 대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완화됨으로써 세대, 지역, 계층, 정치성향, 도시화 등 여러 갈래의 의식이 뚜렷하게 분화하는 현상이 진행되었다. 재작년에는 안보불안이 여러 변수의 차이를 잠식하여 통일의식의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작년과 올해에는 세대, 지역, 정치성향에 따른 의식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작년부터 50대와 60대 이상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각 세대별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즉, 20대와 30대가 한 묶음으로 묶이고 40대와 50대가 다른 한 묶음으로, 그리고 60대 이상이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40대(47.9%)는 50대

(46.7%)와 함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높게 인식하는 반면, 20대(17.7%)와 30대(16.7%)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높으며 60대 이상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40대(34.1%)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63.1%)을 가장 낮게 보는 반면, 20대는 북한정권을 가장 불신하며, 30대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69.8%)을 가장 높게 우려하는 세대로 드러났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북 '협력대상' 인식에서 수도권(48.1%)과 호남권(47.9%)이 비슷하게 높고, 충청권(37.7%)과 영남권(36.2%)은 낮으며, 수도권과 호남권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지난 1년 동안 매우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충청권과 영남권은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상반된 의식이 형성되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신뢰도는 영남권(37.0%)과 충청권(34.9%), 호남권(32.2%)이 높고 수도권(24.8%)은 낮다. 작년에 충청권이 영남권과 비슷한 대북인식을 형성한 후 지난 1년 동안 대체로 그 추세를 유지한 반면, 수도권은 작년에 인식을 같이 했던 영남권·충청권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섯째, 대북인식, 정권신뢰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식의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지금까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정권신뢰도' 항목에서 재작년에 처음으로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는데, 작년에 다시 보수-중도-진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의식의 차이가 뚜렷이 형성되었고, 올해도 기존의 전형적인 정치적

향의 패턴이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2016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이 소폭 완화된 가운데 협력적 대북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분화가 작년에 이어 더 깊게 진행되었다. 40대가 50대와 함께 가장 긍정적인 대북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30대는 20대와 맥을 같이하는 의식의 흐름이 형성되었고, 수도권의 '이탈'과 정치성향별 의식격차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북인식의 긍정적 변화가 진행된 것은 남북 간에 극적으로 이루어진 '8.25합의'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북한발 위기가 반복되는데 따른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SLBM발사와 5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적 행동이 '안보피로감'을 다시 압도하여 대북의식의 수렴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향후 1년 간 세대, 지역, 이념 간 의식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서론

2016년은 북한 주민 결핵 치료를 위한 인도 지원을 제외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승인 하에 진행되던 모든 남북교류협력력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면서 2010년 5.24조치 이후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교류의 공간마저 사라졌다.

이는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적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6년은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신형 미사일 엔진 테스트 그리고 5차 핵실험까지 남북관계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북한이 공세적이고 공개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 해였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7차 당대회도 변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내놓은 내부 이벤트였다.

북한의 공세적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

의 유엔회원국 자격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³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법 제정⁴과 김정은을 비롯해 당과 보안기관 등에 대한 제재⁵, 특히 북한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⁶ 등은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고강도 제재들이다. 여기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변화를 선택하기보다 기존의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남한과 맞서려는 태도를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되었고 5차 핵실험을 통해서도 표준화된 핵탄두를 완성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도 마감단계라고 하고 있다. 동방의 핵강국이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래식 전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건설

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16. "S/RES/2321 (2016)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vember 30.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S/RES/2321.

4] U.S. Congress, "H.R.757 -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2016.2.18).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757>.

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6. "Treasury Sanctions North Korean Senior Official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Abuses," July 2.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releases/Pages/j10506.aspx>.

6]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d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Jurisdiction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2016.6.2). https://www.fincen.gov/sites/default/files/federal_register_notices/2016-08-02/2016-13038.pdf.

을 독려하면서 선제공격도 서슴없이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노출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자강력 제일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와 같은 퇴행적이고 고립적인 구호들이 강조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그럭저럭 버텨나가면서 경제 상황이 일부 호전되는 기미마저 보인다. 양호한 기상의 영향이 컸겠지만 북한의 2016년도 곡물 생산량은 2015년보다 7%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⁷

이러한 동향들은 결국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을 둘러싸고 긴장만 고조시키는 듯한 현상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6년도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과 흐름들을 배경으로 출범 4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7) 농촌진흥청, “북한 수해피해에도 곡물생산량 전년보다 7% 증가,” (2016.12.21).
http://www.rda.go.kr/board/board.do?catgId=&menu_id=pun&boardId=farmprmninfo&searchKey=&userJumin=&searchVal=&searchSDate=&prgId=day_farmprmninfoEntry&portletKind=default&portlet_rowCnt=4&mode=view&portlet_gubun=1&currPage=1&CONTENT2=&searchEDate=&CONTENT1=&nckUserNm=&list_kind=news&CONTENT3=&dataNo=100000728828&CONTENT5=&menu_nm=%C8%AB%BA%B8%B4%BA%BD%BA&totalSearchYn=Y#scri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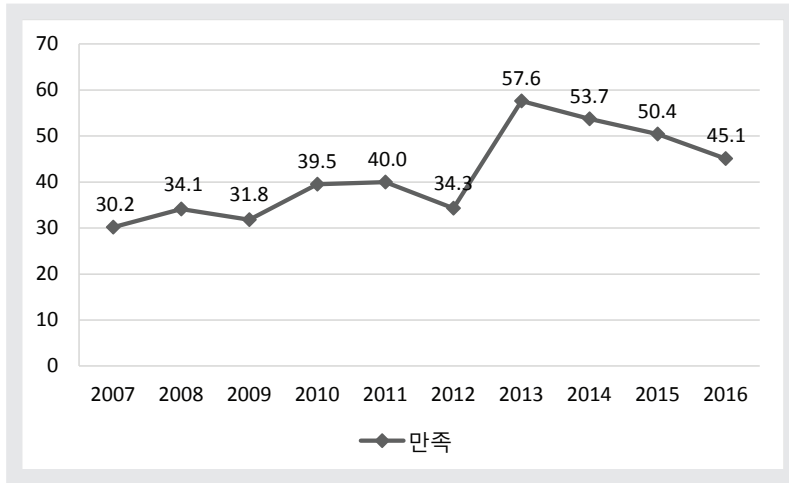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출범한 지 4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5.1%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보다 5.3% 하락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조사의 57.6%보다는 11.6% 하락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직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구상이 난관에 봉착한 이후 통일대박론을 거쳐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의 탈북과 남한 입국을 촉구할 정도로 북한붕괴론에 따라 소위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갈수록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가시적인 성과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이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나 이명박 정부에 비해 여전히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국민들이 전례 없이 공세적인 북한의 도발적 행태로 인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더라도 집권 4년 차까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높아지는 긴장과 그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한 피로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가 기대나 예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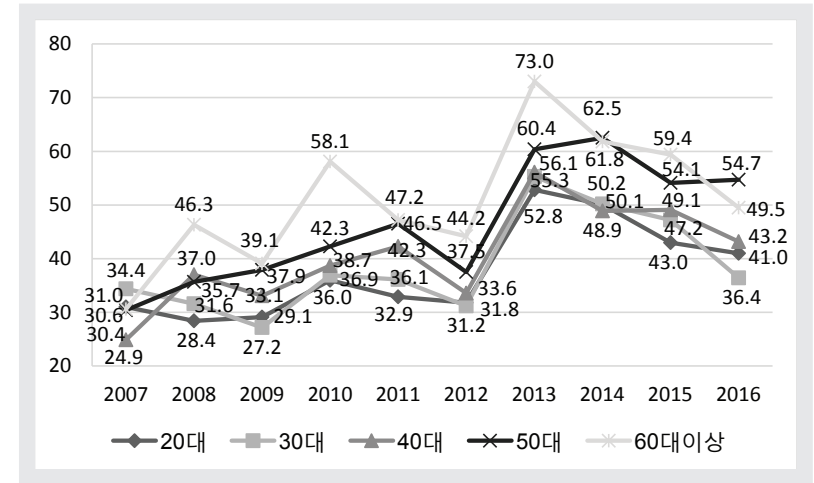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에서 0.6% 상승하여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 외에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대 -10.8%, 60대 이상 -9.9%, 40대 -5.9%, 20대 -2.0%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60대 이상에서 9.9%나 하락한 것이다. 여전히 50대 이상의 세대에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이 그 이하 세대보다 높게 나오고 있으나, 이는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집단에서조차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긴장만 높아지고 문제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1-3-2〉 연령대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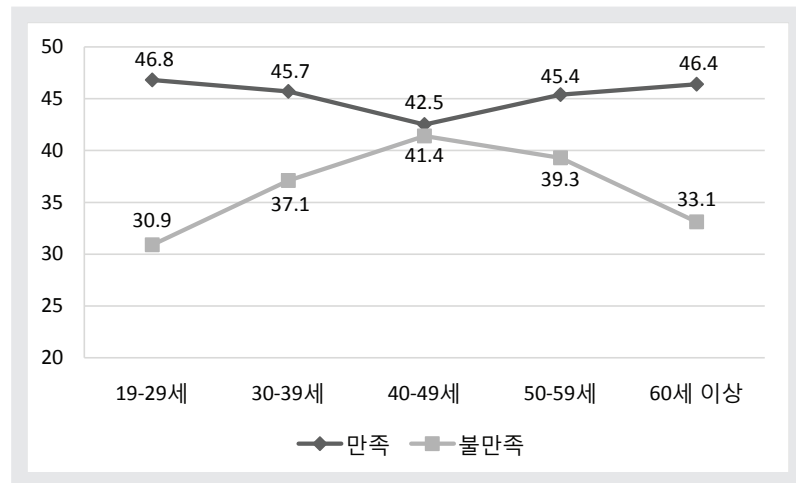
(단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비율에서 이는 일부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층일수록 세대와 무관하게 교류협력 중단에 찬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 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40대의 경우 40% 초반대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양상이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층과 불만족층 간에 북한 핵문제 해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의 차이가 20대의 경우 15.9%이고 60대 이상의 경우도 13.3%나 된다. 전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온 60대 이상 층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9.9% 하락한 가운데, 2015년보다 증가한 60대 이상의 불만족층은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적 중단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서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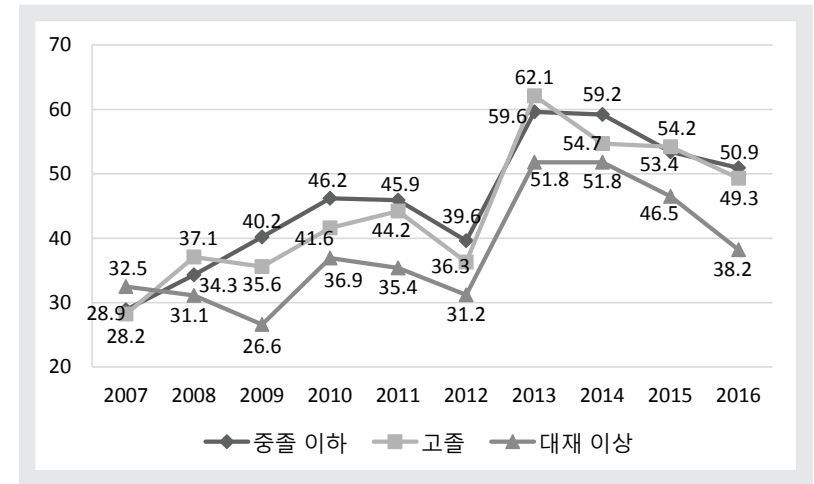
〈그림 1-3-3〉 대북정책 만족도 : 연령대별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 (단위:%)



학력 수준에 따른 대북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07년에는 대재 이상에서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는 비핵개방 3000이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든 대재 이상에서의 지지도가 다른 학력수준보다 낮은 경향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 조사의 경우는 대재 이상층에서 2015년보다 8.3%로 가장 많이 하락하여 30%대에 머물렀고, 고졸이나 중졸 이하에서도 각각 4.9%와 2.5% 하락하여 50% 수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3-4〉 학력수준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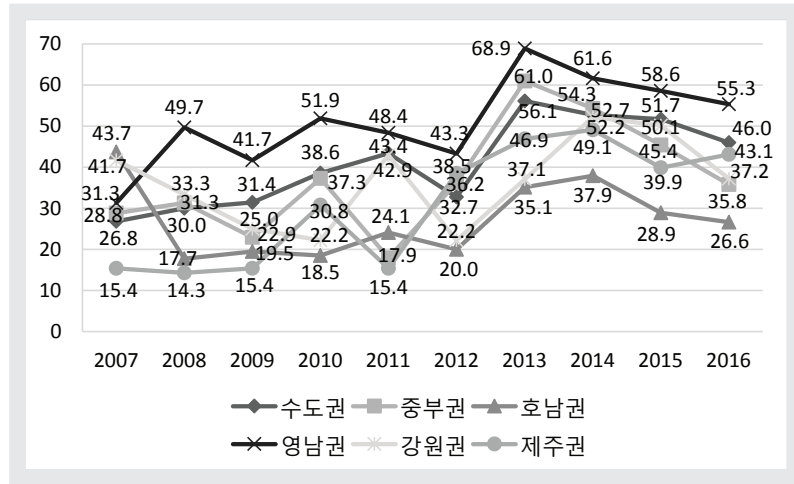
(단위:%)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제주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강원권에서 -12.9%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2016년만 보면 50% 이상의 지지율은 보인 지역은 55.3%를 기록한 영남권이 유일하며 호남권은 영남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6.6%를 기록하였다. 영남권과 호남권이 양극단을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절반 이하인 46.0%를 기록하였다. 영남권과 호남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지 비율이 역전되었고 그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1-3-5〉 지역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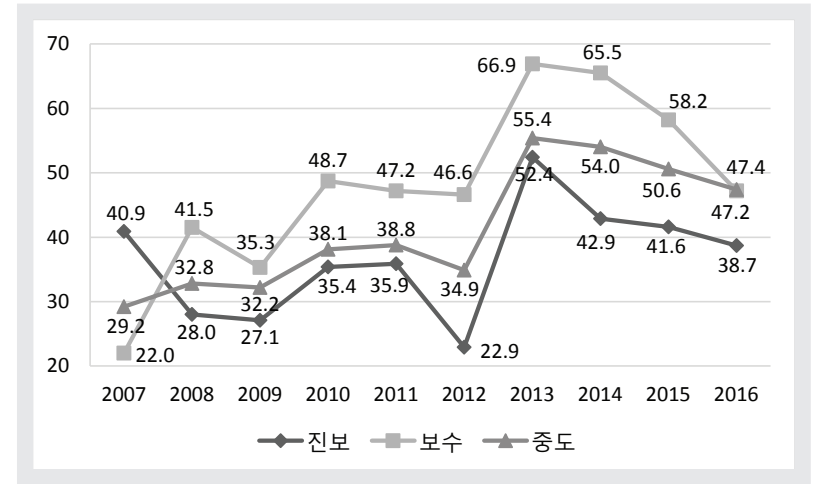
(단위:%)



정치성향에 대한 대북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보수층의 만족 비율이 11.0%나 감소하여 절반 이하인 47.2%를 기록하였고 중도층의 경우도 2015년에 비해 3.2% 하락하여 보수층과 비슷한 47.4%를 기록하였다. 보수와 중도가 47%대 수준에서 수렴되는 양상이다. 이에 비해 진보층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2.9% 하락하여 38.7%를 기록함으로써 보수나 중도층보다 9% 정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보수층의 만족도가 중도나 진보층보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수층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현실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소위 원칙에 입각한 압박에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정세 불안정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3-6〉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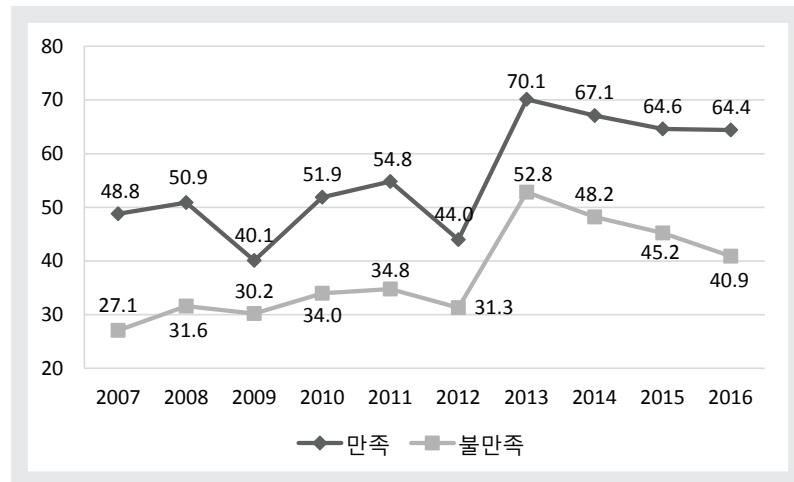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여부에 따라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보수층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층에서는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 증가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층에서는 평화협정체결이 13.3%나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진보층의 경우는 만족하는 경우든 만족하지 않는 경우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6.2%와 9.3% 증가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의 경우는 '2015년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층에서는 평화협정체결이 8.3% 증가하였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층에서는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 7.3%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보수층의 경우 대체로 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평화협정체결과 같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진보층의 경우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 상황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정부나 정책과 무관하게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족층보다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이 2015년과 비슷한 64.4%를 기록한 반면,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은 4.3% 하락한 40.9%를 기록하여 그 격차가 2015년도 19.4%보다 더 벌어진 23.5%로 나타났다.

〈그림 1-3-7〉 경제 상황 만족도별 대북정책 만족 응답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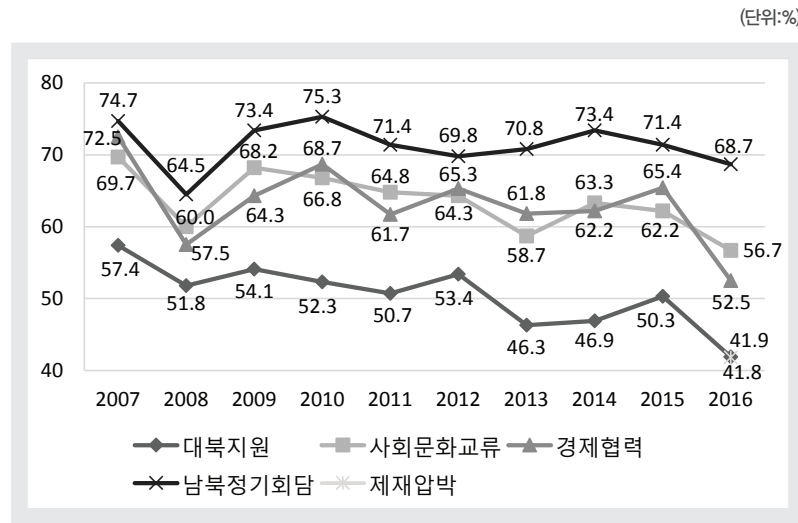


3.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분야별로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가장 높고 대북지원이 가장 낮은 추세가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지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2016년 조사의 경우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 2016년 조사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감소하였다. 이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행태와 우리의 정책으로는 통일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된 제재와 압박은 대북지원과 비슷하게 가장 낮은 4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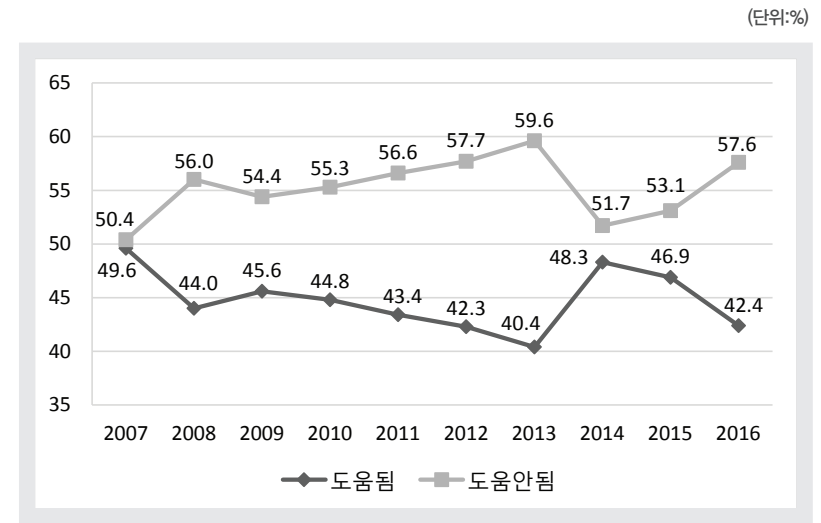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북지원이든 대북제재나 압박이든 그 자체만으로는 통일에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의미한다.

〈그림 1-3-8〉 분야별 통일에 대한 기여도(도움됨)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조사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6%로 2015년에 비해 4.5% 증가하였다.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분배 투명성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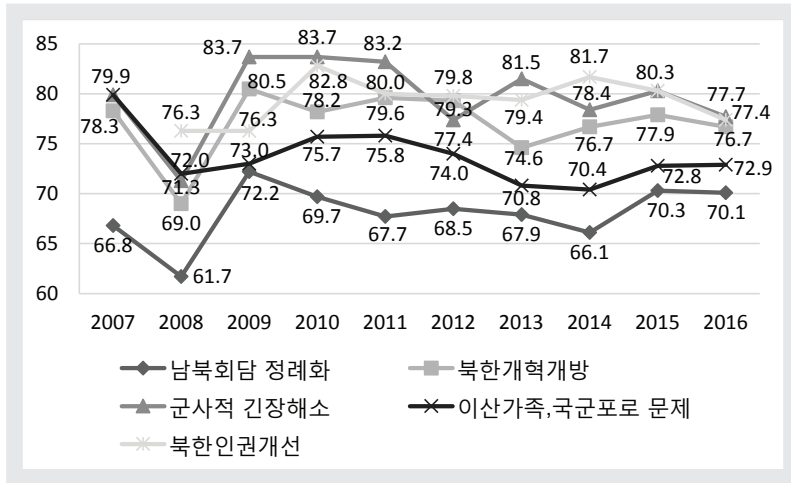
〈그림 1-3-9〉 대북지원의 북한주민 생활 기여도 인식



각 과제가 통일을 위해 얼마나 시급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매우 또는 다수 시급하다’는 응답 비율이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한 양상이다. 이산가족이나 국군포로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시간적 제약이 있음을 감안한 인식이라고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하락한 양상은 과제의 시급성을 떠나 통일 자체에 대한 신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가 77.7%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북한 개혁 개방과 북한 인권 개선도 각각 76.7%와 77.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긴장 고조로 인한 피로감이 증가한 결과이자 결국 문제는 북한이고 그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10〉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 인식(시급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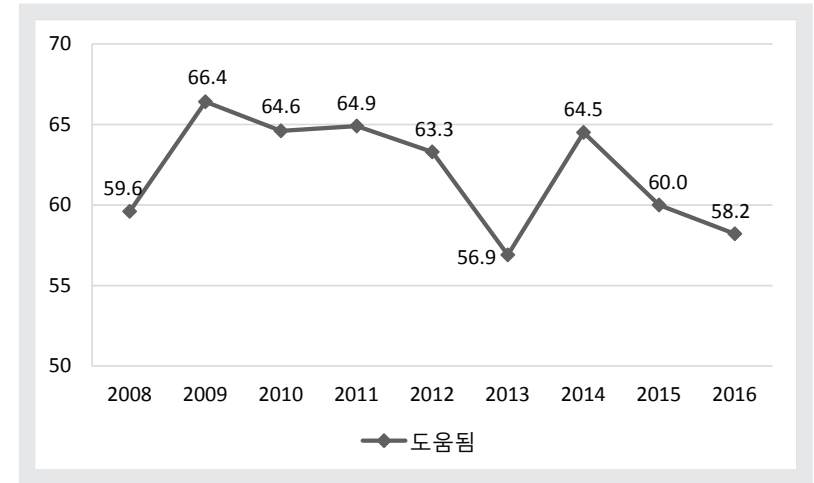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면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매우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60% 전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양상이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1.8% 하락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는 직전 연도보다 6.4% 하락한 바 있다.

〈그림 1-3-11〉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도(도움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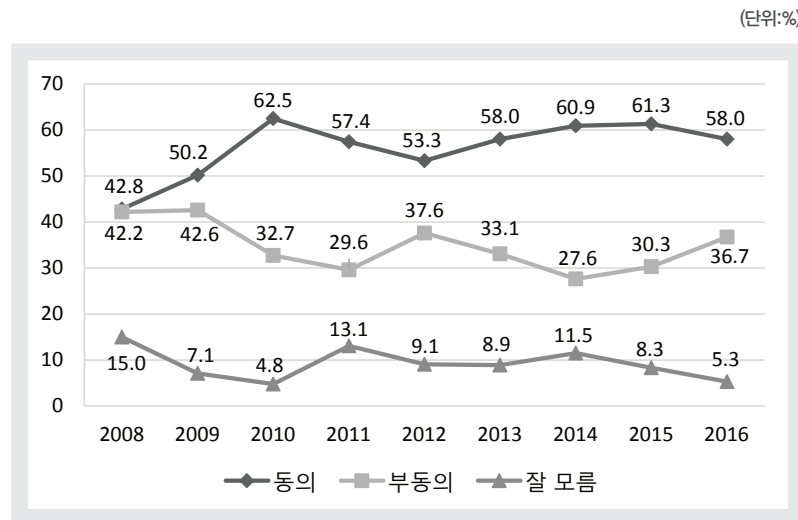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가 2013년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기존 남북합의, 특히 정상 간 합의까지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국민들 다수는 일관되게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이 체결한 합의사항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소 간의 부침이 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남북 간 합의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6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인 3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의 경우를 보면 ‘2015년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 증가한 36.7%를 보였으나, 동의한다는 응답은 3.3% 하락한 58.0%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층에서도

‘남북 간 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2016년의 경우 67.5%로 2014년 67.4%, 2015년 67.8%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기존 합의 존중을 원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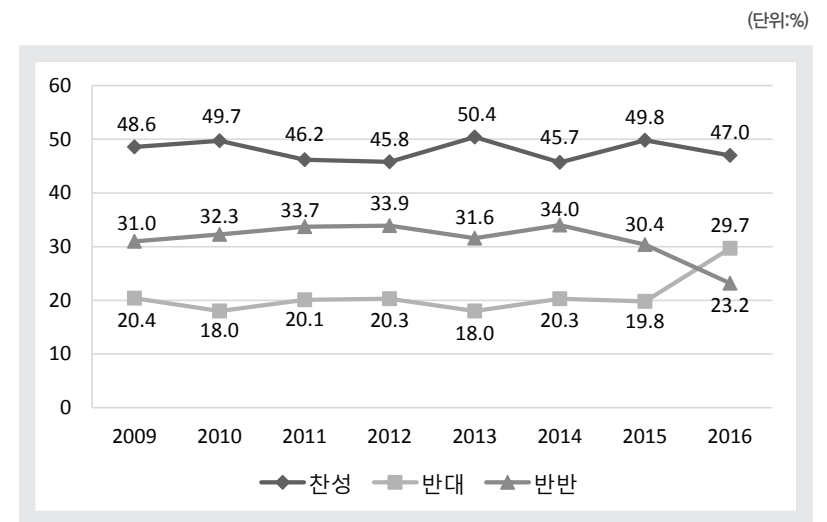
〈그림 1-3-12〉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계승 주장 동의 여부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7.0%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응답 비율인 29.7%보다 17.3% 높게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어 유지에서 재가동으로 질문이 변경되었지만, 대체로 국민의 절반 정도는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조사인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을

보면 20대가 40.5%로 가장 낮고 30대 48.9%, 40대 48.2%, 50대 49.6%, 60대 이상 46.7%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40% 후반의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13〉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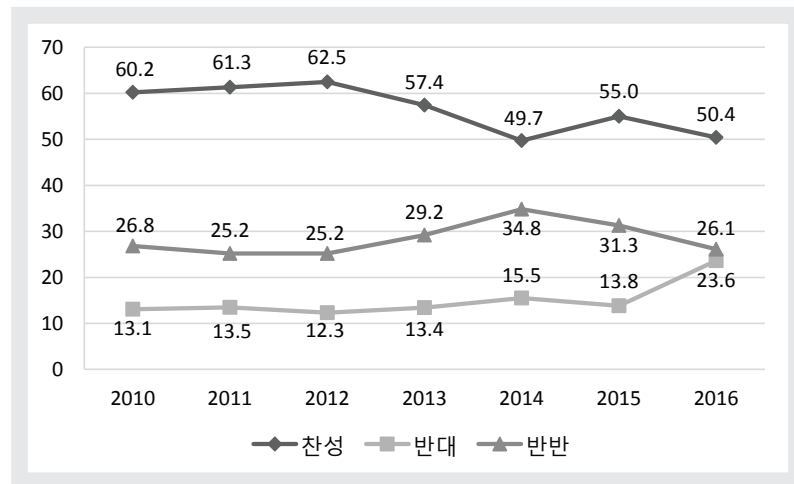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다소 하락하긴 하였으나 대체로 50% 이상이 재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유지나 재개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대북현금유입과 유입된 현금의 핵개발 전용 의혹이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자체에 대한 민족적, 정서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4.6% 감소한 47.0%를 나타냈다. 여전히 절반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응

답은 2016년의 경우 2015년보다 9.8% 증가하여 23.6%를 기록하였으나 찬성 응답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령대별 찬성 비율을 보면 2016년의 경우 20대는 47.5%, 30대는 45.6%, 40대는 49.4%, 50대는 53.8%, 60대 이상은 55.4%로 대체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14〉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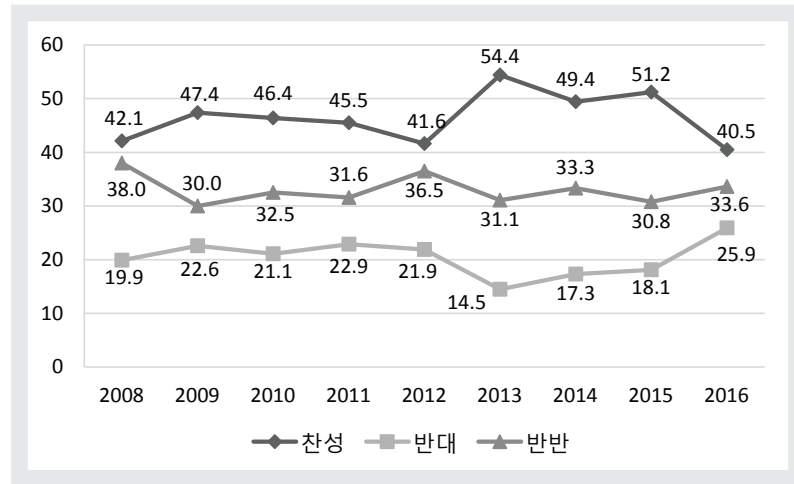


2016년 처음으로 조사가 시행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40.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반반이라는 유보적 입장이 33.6%를 차지하였고 명시적인 반대는 25.6%를 기록하였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기에 2016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민들의 1/3 정도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2010년 시행된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이 이미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도 전면 중단하였다. 그 결과 교류협력 제로 시대에 들어서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어떻게, 어떤 정도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지가 아니라 교류협력 그 자체가 문제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민들도 핵문제와 남북관계-교류협력 사이에서 판단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은 40.5%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대 37.4%, 30대 40.3%, 40대 41.9%, 50대 42.6%, 60대 이상 39.7%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림 1-3-15〉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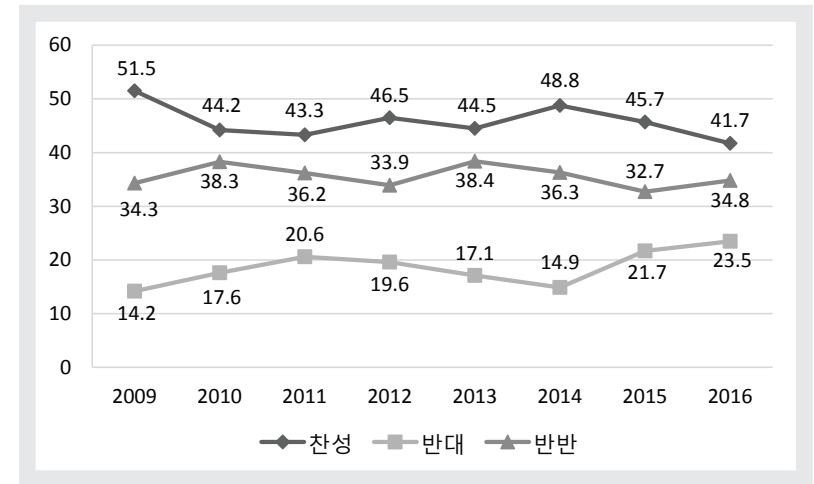


‘대북 빼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찬성하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4.8%를 차지한 반반이라는 응답이며 명시적인 반대는 23.5%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부가 대북 빼라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기에 2016년도 조사를 이전 조사와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대북 빼라 살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약간 줄어든 대신 반대와 판단 유보층이 각각 미세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북한 핵문제 해결 전에는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대북 빼라 살포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여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북정보유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다소 무관하게 빼라 살포가

야기할 수 있는 긴장 고조나 충돌문제까지 고려하면 빼라 살포 문제가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3-16〉 대북 빼라 살포 중단 주장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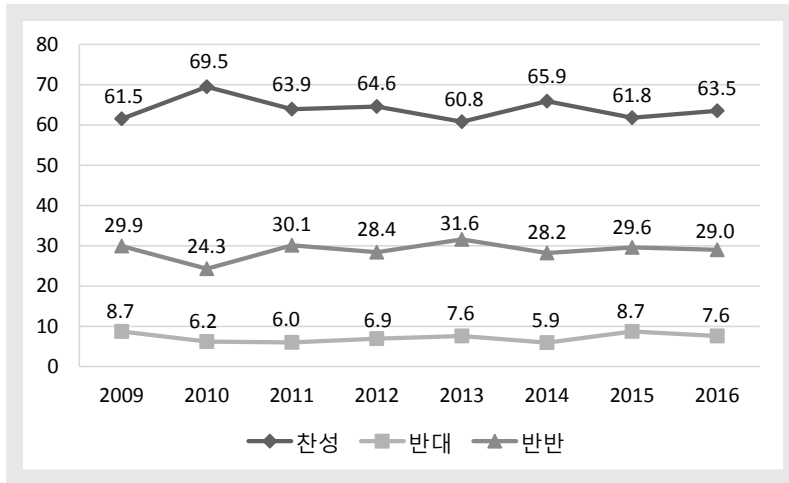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30% 전후의 판단 유보층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찬성하는 주도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여론상으로 보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식의 인식은 설 자리가 매우 협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나

지구적 문제에 대한 주권 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흐름⁸에 대한 공감대가 국내에서도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림 1-3-17〉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지속 제기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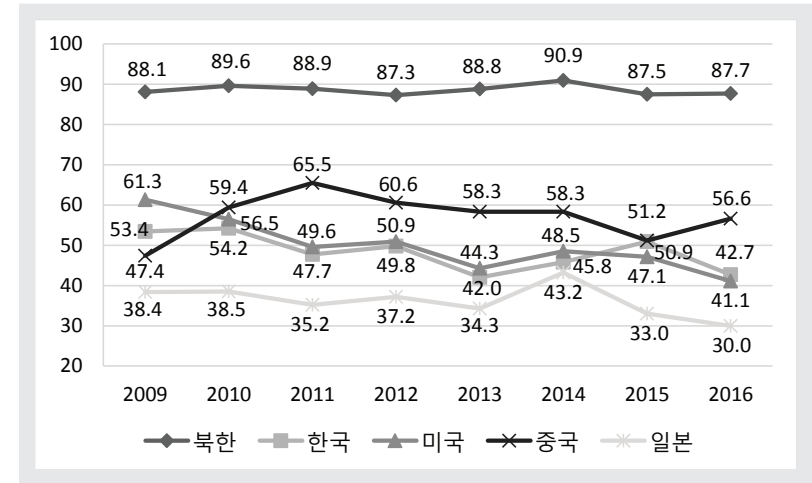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나라별 책임이 크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이 크다’는 응답은 90%에 근접하는 절대적 수준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책임이 크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다.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5.4%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과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 비율은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각각 8.2%와 6.0% 감소하였다. 이는 중국 책임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8] Richard Haass, "World Order 2.0: The Case for Sovereign Obligation,"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17), pp. 2-9.

〈그림 1-3-1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국별 책임 인식(크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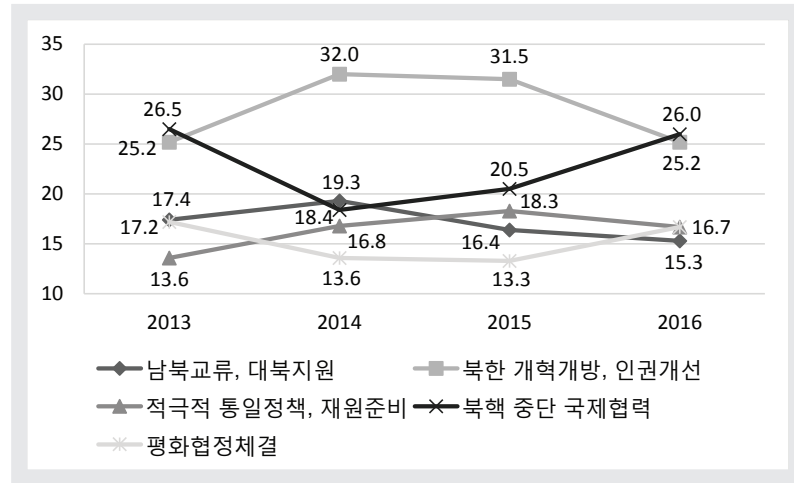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대체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즉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과 평화협정 체결이 각각 5.5%와 3.4% 증가한 반면 북한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은 6.3% 하락하였고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 준비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6년 연초부터 터져 나온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이은 인공위성 발사, 수차례에 걸친 각종 미사일 발사 등과 이에 맞선 한국과 미국의 강경한 대북 압박과 군사적 대비태세 강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한 국민들의 반응일 수 있다. 즉,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먼저 강화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평화정착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19〉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4.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우리도 미국의 확장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5차례 실시하고 기존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외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공공연히 가속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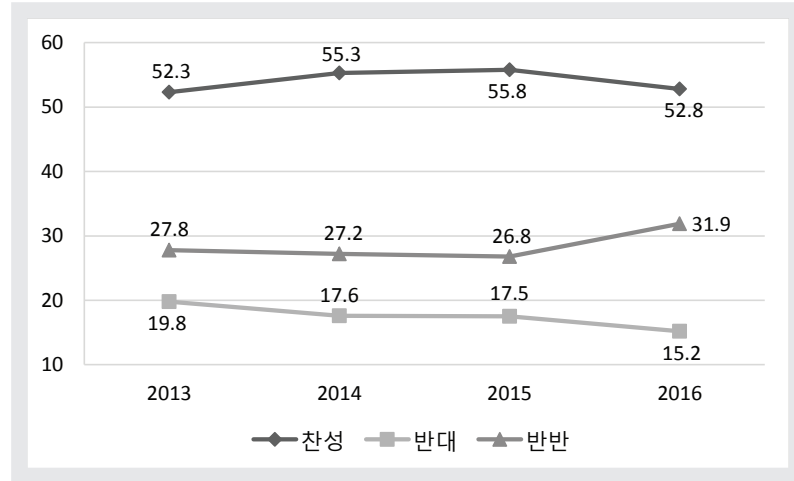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반응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의 지도부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핵개발보다는 1990년대 초 완전히 철수한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자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지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도 2015년에 비해 3.0% 감소하였으나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도 2.3% 감소한 15.2%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찬성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명시적인 반대 응답은 대체로 20%를 넘지 않고 있다. 2016년의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이 줄어든 대신 반반이라는 유보적 응답을 한 비율이 5.1% 증가하였다.

〈그림 1-3-20〉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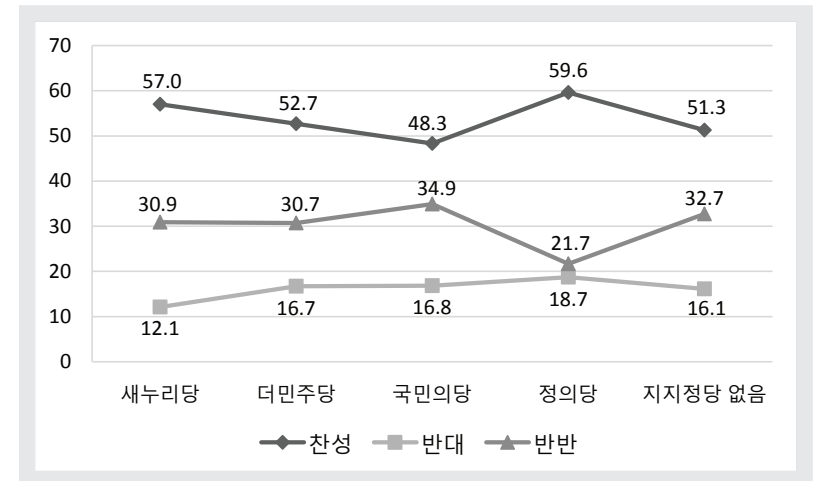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의 경우는 남녀 모두 52.8%로 같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연령대에 따라서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2015년보다 2.3% 증가한 60.8%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30대 54.0%, 50대 52.4%, 40대 52.1%였고 20대의 경우 가장 낮은 44.8%를 기록하였다. 학력 수준별로 찬성 비율을 보면 2016년의 경우 중졸 이하가 59.6%로 가장 높고 고졸과 대재 이상은 각각 51.7%와 52.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강원권이 6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9.7%를 기록한 호남권이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은 54.9%, 영남권은 52.0%, 제주권은 45.6%를 차지하였고 중부권이 35.1%

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층에서 찬성 비율이 58.2%로 가장 높고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에서는 찬성 비율이 50.7%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4년이나 2015년도 조사와는 역전된 결과이기에 소득에 따른 찬성 비율이 일관된 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지지정당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을 보면 2016년 조사에서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정의당이 59.6%로 가장 높고 57.0%인 새누리당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52.7%였고 국민의당이 48.3%로 가장 낮았다.

〈그림 1-3-21〉 지지정당별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2016)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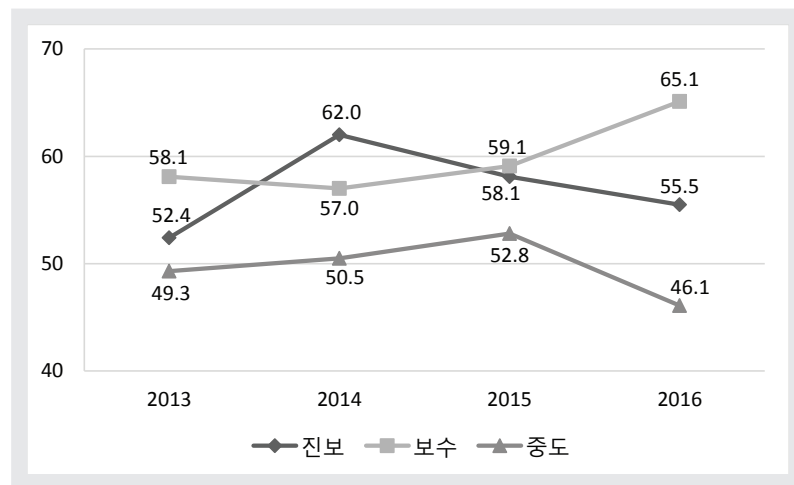


정치성향에 따른 한국의 핵무기 보유 찬성 응답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도를 표방하는 층에서 가장 낮고 진보와 보수층은 서로 교차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어 하나의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2016년의 경우는 2015년에 비해 보수층의 찬성 비율이 6.0% 증가한 65.1%로 가장 높고 진층은 2.6% 감소한 55.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중도층은 6.7% 감소한 46.1%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1-3-22〉 정치성향별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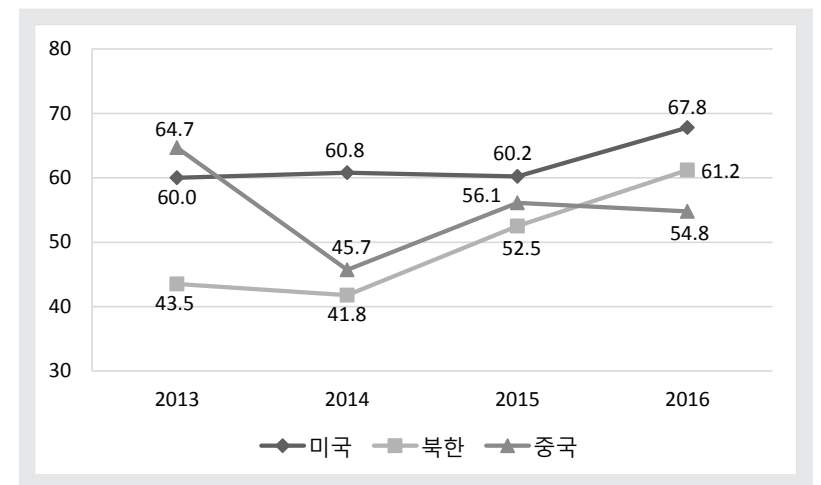


한편 핵무장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보수층의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보수층의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일관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에 북한이 3차와 4차 핵 실험을 실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전략을 천명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맞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확장억제 제공 공약도 꾸준히 강화되었

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 자체보다는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자극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는 미국을 가장 친하게 인식한다는 층에서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가장 불신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3-23〉 보수층의 친밀한 국가인식에 따른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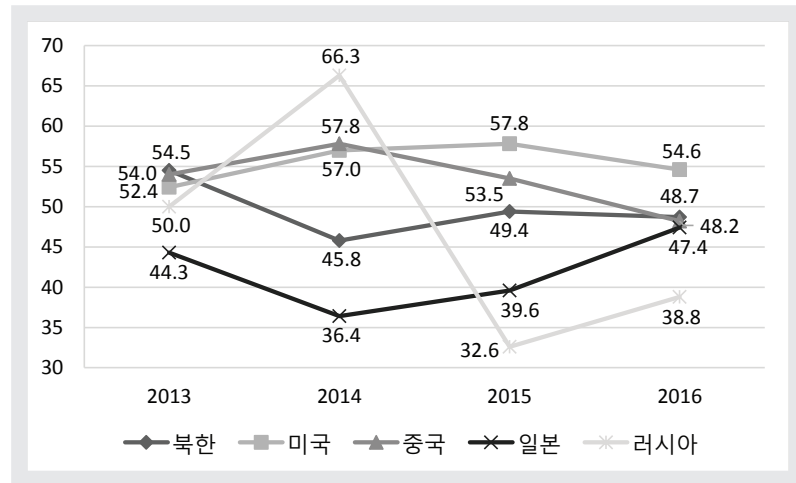
(단위:%)



이러한 현상은 보수층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친밀한 국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등락 폭이 큰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체로 미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층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고 중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층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북한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층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밀하게 생각하면서도 경계하는 인식들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중적 인식이다. 이는 보수층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공약하고 있는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층이 미국의 공약을 가장 불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24〉 친밀한 국가 인식별 자체 핵무기 보유 찬성 비율 (단위:%)



5. 소결

먼저 대북정책 만족도에서 60대 이상과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 이하로 하락하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6년 45.1%로 2015년 50.4%에 비해 5.3% 하락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30대에 이어 60대 이상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60대 이상 층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비율에서도 확인된다. 60대 이상 층에서 2015년보다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층이 증가하였고 이들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 전 교류협력에 찬성하는 비율은 33.1%에 불과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층에서 북핵 문제 해결 전 교류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46.4%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만족층과 불만족층 간의 격차는 20대의 15.9%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3.3%를 기록하였다. 이는 20대만큼이나 60대 이상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공고한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수층의 이탈 현상은 정치성향상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 2016년 조사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2015년에 비해 11.0%나 하락한 데서도 확인된다. 보수층에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하락한 반면 진보나 중도층에서는 각각 2.9%와 3.2% 하락하는 데 그쳤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층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북정책 현안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 증가하였고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한다'는 인식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하는 응답이 각각 1.8%와 4.6% 하락하였고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도 47.0%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북핵 해결 전 교류협력 중단 찬성 비율은 40.5%에 그쳐 2015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51.2%)보다 10.7% 감소하여 교류협력의 전면적 중단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관련국들의 책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감소한 데 비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90%에 근접하는 북한 책임론 다음으로 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책임론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과 결합되어 민족주의적인 정서의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한중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한 장애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에서는 핵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평화정착에 대한 문제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6.3% 감소하였고 북핵 중단 국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이 각각 5.5%와 3.4% 증가하였다. 이는 지나친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와 최소

한의 상황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한 인식에서는 절반을 웃도는 찬성 비율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핵무기 자체 보유를 지지하는 여론이 상당한 정도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자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은 2016년의 경우 2015년보다 3.0% 하락한 52.8%를 기록하였으나 대체로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을 친밀하게 인식하는 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비율이 최고로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미국을 친밀한 국가로 인식한 층에서 찬성 비율이 최고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보수층 가운데 미국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층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층이 미국을 가장 중시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누구보다 크게 갖고 있거나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 서론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한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상당히 지속되었고 북한의 점증되는 핵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간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동아시아의 세력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당면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지속적인 분단관리 및 장기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치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외교조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변화 및 주변국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한국인들의 외부환경에 대한 이해나 주변국가에 대한 이미지에도 변화가 생기는 점에 주목하였다. 한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동북아 정세를 가늠하고 통

일 준비를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주변국 이미지는 개인적인 인식과 태도, 특정 국가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판단에 기초하지만 국제질서의 변화, 주변국과의 상호작용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해 복합적으로 형성된다. 2007년 이후로 진행된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형성된 국가 이미지가 대상에 따라 고착화된 부분도 있지만 유동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한국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북핵위험 증대, 한미동맹 강화, 미국의 아시아 관여 및 재균형 전략 등으로 인해 대미인식은 변화해왔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체제 불안정성, 군사적 도발 및 핵 개발 가속화는 한국인들의 대북위협인식을 증가시켜온 주요 요인이 되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 북한 핵문제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한국인들이 갖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에 영향을 미쳐왔다. 일본의 경우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과 함께 군사력 증강, 보통국가 지향, 평화헌법 개정 등의 우경화 노선은 한국인들의 대일인식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의 북핵문제 해결이나 평화체제 수립 등과 같은 한반도의 사활적인 문제들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주변국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통일과 관련된 주요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게 된다. 관련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

들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조사로 비교하면서 주변국 인식의 특징과 변화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주변국은 미국이었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는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표 1-4-1>에 나타나듯 미국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년 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였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도 그 격차는 현저하게 큼을 알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 78.3%에서 4.5%p 하락하였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70%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깝게 느끼는 대상은 북한이었다.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올해 10.8%로 지난 3년간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북 제재국면,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 지속, 북핵문제에 대한 가중된 피로감에도 대북 친밀도는 하락하기보다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2015년 3.9%에서 2016년 5.2%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친밀도 역시 8.8%에서 9.7%로 소폭 상승하였다.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73.8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3	3.9	5.2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0.8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3	8.8	9.7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0.9	0.4
합계(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200	1,200	1,200

주변국 친밀도를 국가별 선호도로 분석하였을 때 중국과 일본의 이미지에 변화가 확인된다. <표 1-4-2>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변국 친밀도는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으로 고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들어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2014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 북한이 세 번째, 일본에 네 번째의 친밀도를 보였다. 즉 2007-2012년 역대 네 번째 선호도였던 중국의 친밀도가 2014, 2015년 들어 두 번째로 친밀도가 높은 국가가 되었고 같은 기간 세 번째 선호도를 유지했던 일본은 2013년 이래로 네 번째 국가가 되었다.

중국에 대한 친밀감은 2010년 들어 4.2%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아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0.3%까지 상승했다. 나중에 살펴볼 중국에 대한 협력대상 이미지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2008년 5월) 관계 아래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은

2012년 시진핑 정부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성 및 인적교류의 확대, 한중관계를 심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두 번째 투자 상대국이다. 인적교류는 1995년 약 59만명에서 2015년 약 1,035만명으로 증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가입(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철 열병식 참석(2015년 9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발표(2015년 12월) 등은 최고조로 무르익은 한중 협력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반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대일친근감은 아베 정부 이후 위안부와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 양국 간의 빚어진 역사인식에 대한 갈등이 국민감정과 여론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16년에는 다시 북한이 두 번째, 중국이 세 번째가 됨으로 그 선호도는 역전된다. 최근 중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가 한국인의 다른 주변국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은 미미하다.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 동안의 조사에서 친밀도는 1%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수교 25주년을 기해 러시아를 유라시아 시대의 주요 파트너로 상징함으로 한러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2008년 9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을 선언하고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러 철도 연결 사업이 추진되는 등 양국 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다른 주변국에 비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사실이다.

〈표 1-4-2〉 주변국 친밀도 선호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1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4
북한	2	2	2	2	2	2	2	3	3	2
중국	4	4	4	4	4	4	3	2	2	3
러시아	5	5	5	5	5	5	5	5	5	5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큰 차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표 1-4-3〉에서와 같이 미국의 경우 2010년, 2013년, 2015년을 제외하고 남성의 대미친밀도가 여성보다 많게는 2011년 7.4%, 적게는 2016년 1.6%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경우 여성들의 친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표 1-4-3〉 성별 주변국 친밀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남성	54.1	63.0	71.8	70.6	72.5	66.2	75.6	75.7	75.9	74.4
	여성	52.5	58.4	64.8	70.9	65.1	65.6	76.7	74.1	80.6	73.1
북한	남성	25.5	19.7	14.6	15.6	13.6	21.0	10.7	8.0	9.2	11.3
	여성	22.4	21.0	17.3	14.0	18.6	20.2	11.3	9.9	6.9	10.4
중국	남성	9.7	6.5	5.0	4.5	4.8	6.2	7.7	11.3	10.0	9.2
	여성	10.7	9.1	7.2	3.9	5.8	5.4	6.8	9.4	7.6	10.2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2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표 1-4-4〉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20대의 대미친밀감이 46.7%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친밀도를 나타냈지만 2016년 76.9%로 가장 높아졌다.

이는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대미친밀감을 유지해온 60대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07년에서 2016년으로 갈수록 대미친밀도의 세대별 편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인들의 미국친밀도가 세대적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점차적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대의 대북인식의 부정적인 변화도 발견된다. 2012년 이래 대부분의 세대에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50대(14.8%)>40대(11.3%)>60대(11.1%)>30대(8.9%)>20대(7.3%) 순으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냈으며 20대의 대북친밀감은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 지난 10년간 20대의 높아지는 대미친밀감, 낮아지는 대북친밀감을 ‘20대 인식의 보수화’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민족의식의 영향이 덜 하며 국제화 영향에 노출되어 성장한 세대라는 점, 규범적 관점으로 북한 정권을 바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다. 특히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고조되는 안보위협, 개선되지 않는 인권상황,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의 지속, 북핵 문제에 대한 피로감 등이 20대들에게는 부정적 대북인식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⁹⁾ 20대의 대중친밀감에서는 유의미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중친밀감이 가장 낮았던 2010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대중친밀감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20대는 60대 다음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9) 이내영,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5-2015,” 이내영, 유인진,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p. 214. 동아시아연구원이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중앙일보와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20-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북한을 ‘남’ 혹은 ‘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을 지적한다.

〈표 1-4-4〉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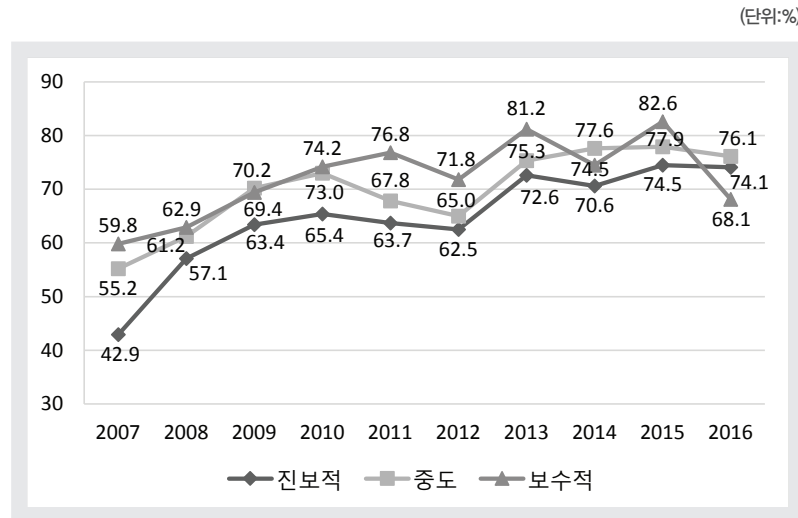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19-29세	46.7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76.9
30-39세	47.4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72.2
40-49세	52.3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74.6
50-59세	64.2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70.2
60대이상	76.5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75.8
북한										
19-29세	21.7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7.3
30-39세	25.0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8.9
40-49세	30.1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11.3
50-59세	20.7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14.8
중국										
19-29세	10.7	6.8	8.0	5.0	4.3	5.1	4.4	8.1	8.8	8.9
30-39세	12.7	10.0	4.5	3.8	4.2	7.1	6.5	10.7	10.5	11.8
40-49세	8.9	7.3	7.9	4.0	6.8	5.5	8.5	8.5	9.5	9.1
50-59세	9.8	7.5	4.2	4.1	7.0	5.4	8.5	13.4	7.5	10.4
60대이상	4.7	6.3	3.5	3.5	1.1	6.3	9.0	10.9	7.8	8.1

정치성향별 미국, 북한, 중국 친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1〉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미친밀도를 한국인들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체로 진보적 성향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대미친밀도는 중도와 보수적 성향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2007년 16.9%, 2011년 13.1%, 2016년 6.0%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친밀도 상승

은 정치적 성향에 무관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은 80%대로, 중도와 진보적 성향은 70%대로 호감도는 각각 상승하였다. 보수적 성향 응답자들의 대미친밀도가 2015년 82.6%에서 2016년 68.1%로 14.5%p 하락한 부분은 향후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1-4-1〉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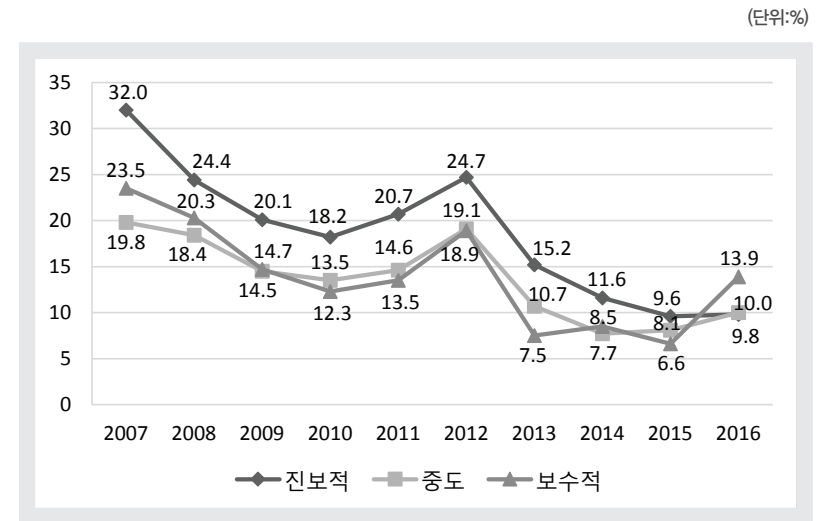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의 대북친밀도는 〈그림 1-4-2〉 나타나고 있듯이 2016년을 제외하고 다른 성향의 응답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3차 핵실험(2013년 2월), 개성공단 폐쇄(2013년 4월), 장성택 처형(2013년 12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공포 정치가 진행된 2013년 이후 대북 친밀도가 하락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¹⁰ 또한 2012년 이후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 친밀도의 격차가 대체로

10] 박명규 외, 『2013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 139.

줄어들었으며 2015년의 경우 10%이하로 수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16년 진보적 성향의 대북 친밀도가 9.8%로 다른 정치적 성향보다도 가장 낮은 응답률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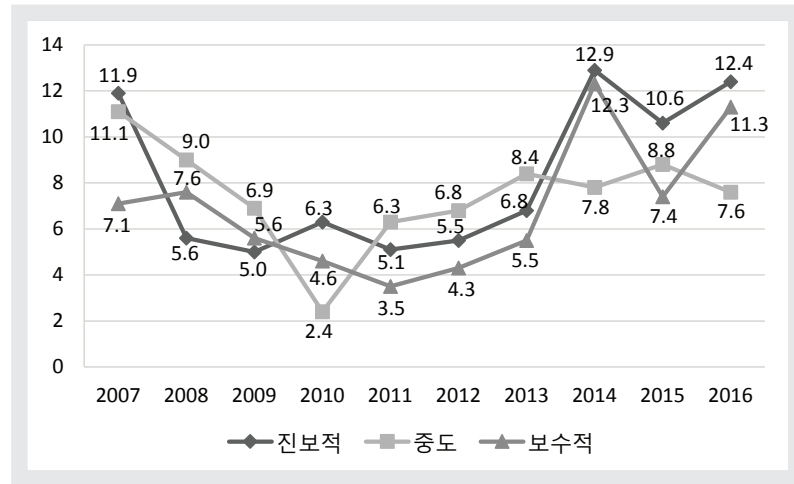
〈그림 1-4-2〉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대중친밀도를 정치성향별로 관찰하였을 때 일관되는 특징이나 추세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단순 응답이라는 설문 구조상 미국과 북한을 제외하였을 때 나머지 국가에 대한 응답 빈도가 많지 않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그림 1-4-3〉에서와 같이 2015년을 제외할 경우 진보와 보수 응답자들의 대중친밀도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중도의 경우 다른 이념성향 응답자들에 비해 변화의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4-3〉 정치성향별 대중친밀도

(단위:%)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이 정서적 호감도나 가까움에 관한 부분이라면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은 개인과 집단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가 상대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특정 국가를 가깝게 여기는 태도나 판단을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 그 국가를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주변국의 실질적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앞선 항목과 같이 단수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6년 66.7%로 2015년 54.8%에서 11.9%p가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이며 대북위협인식이 가장 낮았던 2008년과 비교하였을 때 대략 2배가 증가된 결과이다. 지난 10년의 추세를 관찰할 때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은 남북관계의 전환, 교착, 악화 변화에 상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 무드가 가장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대북 위협인식은 36.1%였으나 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에는 52.9%,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 55.6%, 그리고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에는 56.9%로 증가했다. 2015년 8월 북한 DMZ 지뢰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2월 북한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 등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남한주민은 대다수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중국보다 미국이 더 위협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미위협인식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부터는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위협적이지 않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표 1-4-5〉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21.2	16.0	12.5	8.3	8.6	9.5	4.4	5.4	4.7	4.7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16.0	24.6	16.1	10.0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56.9	49.8	54.8	66.7
중국	15.6	14.6	15.8	24.6	33.6	30.5	21.3	17.6	23.3	16.8
러시아	1.3	1.2	1.1	1.2	0.3	0.4	1.3	2.6	1.3	1.7
합계(N)	1,196	1210	1,199	1,197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2016년의 경우 한국인들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하락하였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1년 33.6%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위협인식을 보였으나 이후 2014년 17.6%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2015년 23.3%로 증가 후 2016년 16.8%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렇듯 대중인식이 최근 3년 동안 증감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유보적임을 의미한다. 급격히 확대된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인적·문화적 교류와 함께 한·중 FTA 타결(2014년 10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가입(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송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2015년 9월) 등은 정치·경제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의 관계 심화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인의 대중위협인식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다오위다우)에서의 중일 갈등(2010년 9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베트남의 함정대치(2012년 4월) 및 영유권 분쟁관련 필리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J) 제소(2013년 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2013년 11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이후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한중간의 이견(異見) 등은 중국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특별히 시진핑 정부 이후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경쟁구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대응, 주변국과의 해양영도분쟁은 중국이 동아시아 평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군사안보와 경제사회문화 축에서 중첩되고 다층적인 이미지가 한국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위협인식 응답률이 10.4%였지만 2014년 24.6%까지 증가하여 북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후 2년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 10.0%까지 하락하여 2010년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아베 정권 이후의 독도, 교과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대일위협인식은 2014년 이후 2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2016년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10.0%는 실제 지난 10년간 낮은 수치이다.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은 과거사 사과 문제와 영토 문제에 있어 한국과 첨예한 갈등 요인이 되었고 특별히 2기 아베 내각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지속되었던 헌법 개정 노력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인정 및 보통국가화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마찰을 가져왔던 주요 요인이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들어 전시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 등으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대일위협인식이 최근 2년

동안 감소한 점은 역사문제에서의 양국 간 의견 차이, 아베 내각의 수정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공존의 대상이며 북한 위협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 한국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일동맹 강화, 북핵위협 증가,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서 일본을 한반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로 보지 않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변국 친밀도에서와 같이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위협인식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표 1-4-6> 나타나듯이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남성과 여성이 매우 비슷한 반면 중국에 경우 남성의 위협인식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이래 남성과 여성의 위협인식은 모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4년 동안 성별 편차는 1.1%에서 2.6% 내외로 큰 변동이 없다.

<표 1-4-6> 성별 주변국 위협인식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남성	20.5	13.9	11.6	9.0	7.9	9.3	3.7	4.6	5.8	3.9
	여성	21.8	18.0	13.4	7.6	9.3	9.7	5.2	6.1	3.5	5.6
북한	남성	33.9	34.2	54.6	53.8	46.5	47.0	59.6	48.9	53.9	66.0
	여성	38.3	33.3	51.2	57.5	45.4	47.6	54.2	50.8	55.6	67.4
중국	남성	16.1	14.6	17.7	26.6	35.2	32.8	22.0	19.3	23.4	19.6
	여성	15.0	14.7	13.9	22.5	31.9	28.1	20.6	15.8	23.2	14.0

위협인식을 연령대로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경우 주목할 만한 점이 발견된다<표 1-4-7>. 세대별 평균으로 보았을 때 60대, 20대,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2007년 북한에 대해 40대 다음으로 가장 낮은 위협인식을 보였던 20대는 2016년 60대와 함께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또한 대북 위협인식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점차적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연령대에 관계없이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7> 연령대별 대북 위협인식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29세	32.9	32.8	51.7	50.7	52.3	44.7	59.2	54.4	57.5	68.8
30-39세	34.6	31.8	50.0	51.9	43.0	40.8	58.5	48.1	52.5	65.9
40-49세	32.8	34.0	51.8	57.6	35.5	45.6	49.8	43.4	57.5	63.9
50-59세	43.5	37.1	58.5	61.7	52.0	51.7	59.6	51.1	53.0	64.3
60대이상	48.2	33.8	58.6	66.3	56.2	67.4	61.0	58.8	52.9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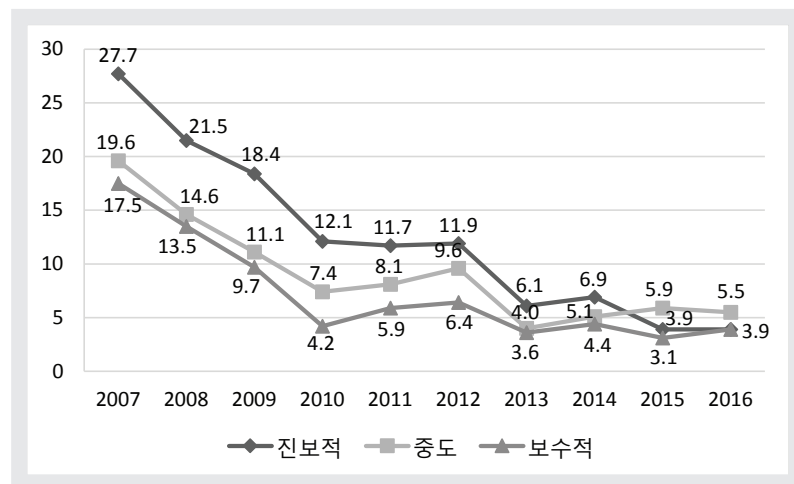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미국, 북한, 중국 위협인식에서 발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4>에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다른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미국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미국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012년-2013년을 지나면서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위협 인식의 격차는 좁혀지는 특징을 보였고 이후 큰 변화 없이 3%-6%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

11] 아산정책연구원의 "2016 한국인과 주변국"(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16", May 3, 2016)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우리의 이웃(One of us/Neighbor) 혹은 적(Other/Enemy)인가라는 항목에서 20대의 51%, 60대의 51.3%가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었음을 지적한다.

증가¹²와 함께 대미위협인식을 야기할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부분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대미위협도는 27.7%로 가장 높았지만 2016년 3.9%로 보수와 동률을 이루어 가장 낮아졌다. 이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대미위협인식에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림 1-4-4〉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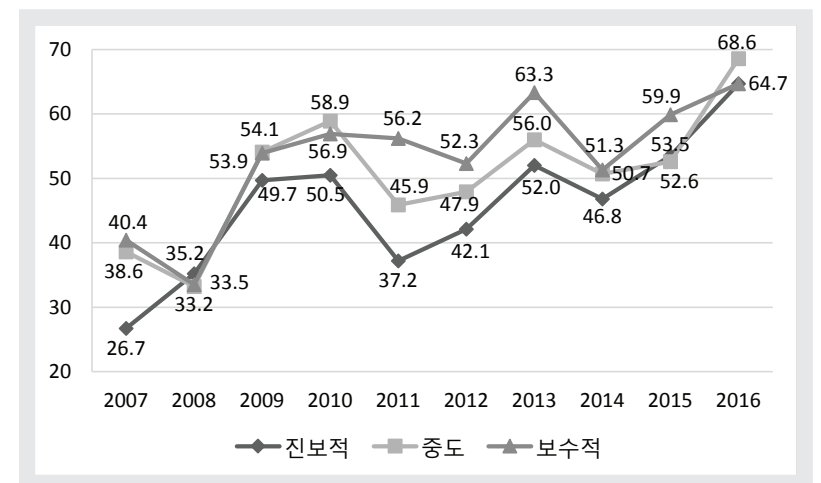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그림 1-4-5〉 나타나고 있듯이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대체로 북한을 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

12]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아산리포트, "강대국의 조건: 한국인의 대미(對美)인식," 2015년 4월)에 의하면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진행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의 국가수장 호감도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음을 언급하였다.

으로 북한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2008년, 2015년 제외) 북한의 공격적인 행위, 특별히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이 있었던 시기의 경우 위협인식이 증가함과 동시에 정치적 이념성향별 격차는 수렴되는 특징을 보였다.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정치성향별 격차는 4.4%,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은 11.3%였다, 4차,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은 진보와 보수 응답자들의 위협도는 동일하였고 중도와의 격차도 3.9%로 나타났다. 대북위협인식이 조사 이래 가장 높아졌던 2016년의 경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통한 군사안보적 위기의식이 한국인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4-5〉 정치성향별 대북위협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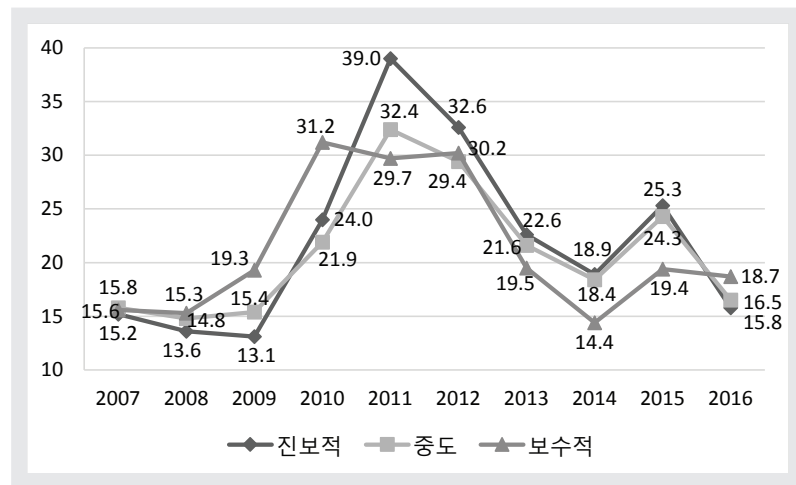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위협도는 정치성향별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6〉에서 나타나듯이 2007년 진보와 보수의 대중위

협도는 15.2%, 15.6%로 격차는 불과 0.4%였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는 진보의 대중위협도는 24%, 보수의 대중위협도는 31.2%로 증가하여 7.2%의 격차를 나타냈다. 2013년 진보와 보수의 격차는 다시 3.1%로 감소, 2015년의 경우 5.9%로 확대, 2016년에는 2.9%로 수렴한다. 2011년에는 진보의 대중위협도가 처음으로 보수를 추월하여 2015년까지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지만 2016년에는 다시 역전된다. 이는 한국인들의 보수와 진보의 대중위협인식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거나 고착화되기보다 유보적이며 유동적인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10년 이후 대중위협도가 대북위협도와 상반되게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¹³ 한국인들의 대중위협인식에는 북한 변수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1-4-6〉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단위:%)



13] 박명규 외, 『2012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p. 128.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 및 위협인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국가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응답자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임”으로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접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¹⁴ 국가 단위의 관계에서 구조화된 인식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화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이미지는 상대 국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1) 미국의 국가이미지

대다수의 한국인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표 1-4-8>에서 보듯이 2016년 미국이 협력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81.2%로 2015년 77.3%에 비해 3.9%p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간 동맹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지속·발전시키고자 했고 북한의 4,5차 핵실험, 단거리·중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잠수함발사 등의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가중되는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양국 간 공동

14]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 (2011), pp. 129-173.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갔다. 역대 가장 높아진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응답률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위협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노력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기간과 비교하여 볼 때도 박근혜 정부 기간의 협력대상인식은 더욱 뚜렷해졌다.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특별한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전통적인 한국의 동맹국이자 우방이며 동반자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1-4-8〉 미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협력대상	53.2	70.2	73.6	76.4	75.0	77.3	79.9	81.0	77.3	81.2
경쟁대상	22.0	13.0	13.7	14.6	14.2	11.0	11.8	11.7	15.3	11.9
경계대상	22.0	14.8	11.7	8.2	9.7	10.9	7.8	6.8	6.9	6.6
적대대상	2.9	2.0	0.9	0.8	1.1	0.8	0.6	0.5	0.5	0.3
합계(N)	1,198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199	1,200

주변국가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태도와 인식보다는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춰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 지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혹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표 1-4-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74.1%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시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는 22.1%이고, ‘북한을 돕거나 혹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의견은 각각 2.4%, 1.4%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전쟁 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다른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⁵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2010년 처음으로 70%대로 진입한 후 큰 변동 없이 70%-75%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사기간 내내 다른 주변국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로 수위를 차지했다.

〈표 1-4-9〉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을 도움	50.6	57.4	65.1	74.7	72.4	72.8	75.2	74.0	70.5	74.1
북한을 도움	1.3	1.4	0.7	0.7	1.6	1.8	1.6	1.8	4.9	2.4
자국의 이익에 따름	45.5	37.4	32.3	23.0	24.1	23.8	20.9	22.6	22.6	22.1
중립을 지킴	2.6	3.8	2.0	1.7	1.9	1.6	2.3	1.6	2.0	1.4
합계(N)	1,200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5] 박명규 외, 『2014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86.

2) 일본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쟁과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많은 가치지향을 공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는 일본의 국가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협력대상'이라는 판단은 16.4%에 그친 반면 '경쟁대상'은 41.0%, '경계대상'이라는 판단은 33.9%에 이르렀다. 즉 '협력대상'보다 '경계와 경쟁대상' 이미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다. 즉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주요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협력대상 이미지 증가, 경계와 적대이미지 감소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과거사 갈등,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불거진 한·일 간의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한일 협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같은 해 12월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2016년 3월, 9월의 정상회담 등은 경색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올해 통일외교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2016년 11월)을 둘러싼 논란은 군사안보 분야의 한일 간 협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양국 간 역사문제, 군사안보문제에서의 앞으로의 변화들이 국민들의 대일감정과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표 1-4-10〉 일본의 국가이미지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협력대상	14.6	16.7	19.5	14.3	13.8	16.9	11.8	11.4	12.3	16.4
경쟁대상	46.6	35.6	49.4	50.9	40.8	35.3	41.4	27.0	35.3	41.0
경계대상	30.3	31.0	26.2	28.0	34.6	35.8	35.3	44.0	40.6	33.9
적대대상	8.5	16.7	4.9	6.8	10.7	12.0	11.4	17.5	11.9	8.8
합계(N)	1,196	1,211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4-11〉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 8.5%로 2009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2016년 응답은 74.5%로 2015년의 71.6%보다 증가하였고 이는 주변국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응답이 2009년에는 24.6%였으나 2014년 이후 10%이하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사시 일본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11〉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을 도움	16.2	14.7	24.6	17.1	15.3	11.6	11.3	7.8	7.7	8.5
북한을 도움	3.3	4.3	3.7	2.3	3.2	5.0	2.9	7.5	9.2	6.1
자국의 이익에 따름	72.7	69.4	66.0	71.6	74.3	75.4	75.1	74.9	71.6	74.5
중립을 지킴	7.9	11.6	5.7	9.1	7.2	8.0	10.7	9.8	11.5	10.9
합계(N)	1,200	1,211	1,201	1,200	1,201	1,199	1,200	1,199	1,201	1,200

3) 중국의 국가이미지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국내 정치·경제·문화 영역 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2013년 미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New great power relations)’를 제시하고 글로벌 파워로써 중국식 질서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¹⁶ 한국인이 중국에 갖는 이미지와 태도 또한 이러한 중국의 위상변화에 따라 달라져왔다.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대중인식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인식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16] 김현욱,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국의 대응,” 『다자적 국제협력과 한국의 외교』, 2014년 한국국제정치학회·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2014년 10월 30일), p.42.

〈표 1-4-12〉의 결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중국을 경쟁대상 이미지로 보는 것이 39.4%로 가장 높으며, 협력대상 이미지가 30.0%, 경계대상 이미지가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대상 이미지는 2.9%로 매우 낮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기보다는 협력, 경쟁, 경계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사실 한국인의 대중국 이미지는 2011년까지는 고정된 패턴이 존재했었다. 즉, 경쟁과 경계의 대상 이미지가 우세하였고 협력대상 이미지는 20% 전후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협력대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경계와 적대대상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하락하였다. 2016년의 경우 협력대상 이미지가 30.0%로 2015년 33.9%에 비해 3.9%p 하락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가 24.2%에서 27.6%로 3.4%p 증가하였다. 대중친밀감이 증가하고, 대중위협인식이 감소하는 중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최근 1-2년 동안의 협력대상 의식 감소(2014년 34.0%, 2015년 33.9%, 2016년 30.0%), 경계대상 의식 증가(2015년 24.2%, 2016년 27.6%)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률은 2015년 51.2%, 2016년 56.6%로 증가하였다. 중국에 대한 협력대상 의식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더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한중관계의 경제, 문화 및 인적분야의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비해 북핵문제 해결, 통일문제에 있어 양국 간의 신뢰 기반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은 정치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을 중시하는 반면 경제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

고 있으며¹⁷ 이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국의 핵심이익을 확대하려는 전략과 관계있다. 한국과 중국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3),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를 거치면서 다방면의 관계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나 양자관계를 보다 다양화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점에 있어 북한문제 등의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신뢰와 협력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대북제재국면에 중국의 동참을 설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요구된다.

〈표 1-4-12〉 중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협력대상	19.3	23.7	21.1	19.7	20.5	22.4	28.5	34.0	33.9	30.0
경쟁대상	46.4	38.2	42.0	45.1	40.2	36.9	43.9	34.3	39.9	39.4
경계대상	31.0	32.9	33.3	31.8	34.9	35.3	24.5	29.5	24.2	27.6
적대대상	3.3	5.1	3.6	3.4	4.4	5.4	3.1	2.2	2.0	2.9
합계(N)	1,197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한국인들은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돕거나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4-13〉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돕는다’가 46.0%로 가장 높았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다’ 42.9%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 비해 ‘한국을 돕는다’는 5.3%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즉,

17) 박종철, “한국의 통일비전과 한·중 협력과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중협력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북경대 한반도연구중심 한반도문제포럼 (2015년 11월 27일).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2011년 이후 3년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 동안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보호자로 무력충돌, 긴급사태와 같은 유사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표 1-4-13〉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을 도움	5.3	4.5	3.1	3.3	2.4	1.3	3.3	5.2	5.8	5.3
북한을 도움	26.8	30.4	38.5	55.5	62.8	58.3	49.7	42.9	46.3	46.0
자국의 이익에 따름	56.4	52.2	50.8	37.4	31.0	37.5	41.4	46.0	43.4	42.9
중립을 지킴	11.4	13.0	7.7	3.8	3.8	2.8	5.6	5.9	4.5	5.9
합계(N)	1,200	1,212	1,200	1,200	1,201	1,199	1,200	1,201	1,200	1,200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4〉에서와 같이 2016년 경쟁대상 이미지는 작년도 39.9%에서 38.5%로 소폭 하락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는 2015년 35.4%에서 2016년 37.7%로 증가하였다.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나 경쟁과 경계 이미지가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다.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후 20%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의 국가이미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점도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으로 연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¹⁸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같은 해 시진핑 정부가 제안한 ‘일대일로’ 구상과 더불어 2012년 출범한 푸틴 2기 정부의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과 상호 연계성을 가진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 공급과 중계 역할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남-북-러 3국 간의 가스관, 철도 연결사업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¹⁹ 이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한국이 군사안보 분야에서 러시아와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며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과 그 성과에 따라 북중관계, 남북관계에 파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18] “EurAsia Initiative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외교부, 2015년 7월 23일; http://www.mofa.go.kr/image/main/0707_eurasia.pdf.

19]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윤영관 외,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서울: 늘봄플러스, 2015), p. 311.

〈표 1-4-1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협력대상	22.8	28.8	28.1	21.7	24.7	24.0	22.8	22.6	21.3	20.2
경쟁대상	40.3	35.2	39.8	40.6	39.3	32.9	38.5	30.2	39.9	38.5
경계대상	32.1	31.9	29.8	33.5	33.1	38.1	34.8	43.3	35.4	37.7
적대대상	4.7	4.1	2.3	4.3	2.8	5.0	4.0	4.0	3.4	3.6
합계(N)	1,195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199	1,200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에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의 특별한 인식 변화는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 1-4-15〉에서 보여주듯이 2016년 ‘북한을 도울 것이다’의 응답률이 14.6%로 2015년 23.8%보다 9.2%p 하락하였지만 ‘한국을 도울 것이다’의 3.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64.4%로 다른 응답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는 주변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가장 높다. ‘중국보다 북한을 돕는다’는 응답률이 낮고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라는 응답이 지배적인 점,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이 주변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은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과 이해가 중첩되는 부분이 크다. 통일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

〈표 1-4-15〉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을 도움	3.7	6.0	4.3	5.8	4.2	3.7	3.8	3.3	3.3	3.8
북한을 도움	19.0	20.9	22.5	19.2	15.4	11.8	12.4	14.5	23.8	14.6
자국의 이익에 따름	59.1	54.7	57.7	59.5	61.7	68.1	67.4	68.5	59.2	64.4
중립을 지킴	18.2	18.4	15.5	15.6	18.8	16.3	16.4	13.7	13.8	17.2
합계(N)	1,199	1,21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1	1,200	1,200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통일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인 과업임은 분명하지만 주변국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조 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은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현상 유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변국에 각기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를 파악하며 잠재적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변국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통일외교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16〉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4-16〉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									
매우 필요하다	42.0	45.2	51.5	48.2	45.5	45.8	47.5	44.7	44.6
필요한 편이다	48.9	47.7	42.8	43.7	44.8	46.1	45.7	45.9	47.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7.1	5.2	4.7	5.7	6.8	6.6	5.5	8.1	7.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1.8	1.0	2.3	3.0	1.5	1.3	1.3	1.3
일본									
매우 필요하다	18.5	20.4	19.2	19.7	16.8	14.0	13.7	13.1	12.1
필요한 편이다	52.4	58.9	57.4	52.0	51.2	51.8	51.7	47.3	46.3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2.9	16.2	19.8	22.8	25.1	27.8	26.7	31.3	3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6.2	4.5	3.7	5.4	6.9	6.4	8.0	8.3	7.9
중국									
매우 필요하다	25.3	29.7	36.4	43.2	31.4	34.8	35.5	30.8	28.1
필요한 편이다	55.4	53.6	52.5	41.5	48.7	49.7	53.0	51.3	54.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5.2	13.3	9.5	11.4	15.3	13.0	9.6	15.8	15.0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3.4	1.6	3.9	4.6	2.6	1.9	2.3	2.2
러시아									
매우 필요하다	17.2	19.9	18.8	21.3	17.3	15.5	15.3	14.0	12.3
필요한 편이다	57.9	53.6	55.3	51.1	50.8	51.5	56.6	51.4	48.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9	22.6	22.8	23.4	25.8	28.5	23.9	28.6	33.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	3.9	3.1	4.2	6.1	4.5	4.3	6.1	6.2
합계(N)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1	1,200	1,200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6년 미국의 경우 ‘매우 필요한 편이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한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7%로 2008년 이후 줄곧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실제 미국의 응답률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높다. 중국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6년 82.8%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를 상회하였으나 2015년, 2016년에는 각각 60.4%, 58.4%의 응답자들만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의 20.7%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41.6%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6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전년도 65.4%에서 다소 감소하여 60.3%로 나타났지만 국민들은 러시아의 도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1-4-17>에 의하면 2016년 주변국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순서이며 2008-2016년 기간의 평균 응답률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주변국 중 2016년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국가 순서는 일본>러시아>중국>미국이고 2008-2016년 전체 평균 응답률도 같은 순서였다.

<표 1-4-17>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2016	2008-2016	2016	2008-2016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미국	91.7	92.0	8.3	8.0
일본	58.4	68.5	41.6	31.5
중국	82.8	84.0	17.2	16.0
러시아	60.3	69.7	39.7	30.3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개별국가에 대한 국민들이 집합적인 태도와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과 주변국을 병렬로 한 설정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발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다. 통일의식조사는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주변국 가운데 친밀감이 가장 높으며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미국과 분단과 통일의 대상이자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을 두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가치 판단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은 2016년 46.9%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고 처음으로 50%이하로 떨어졌다. ‘양 팀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2%로 2015년 20.1%로 거의 동일하였다. 가상의 스포츠 경기 상황을 설정하였지만 미국과 북한에 대결에서는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라는 국민이 여전히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중적이고 복잡한 인식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친근감과 평화위협국가 인식에서 대척점

에 있는 미국과 북한이지만 한국인들은 스포츠 경기에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적인 정서가 이러한 인식의 간격에 일정 부분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변화도 동시에 관찰된다. 즉, '북한을 응원하겠다'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친근감 하락, 위협인식 증가와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주목할 부분은 20대의 경우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았고 (60대 이상 51.8% < 40대 50.6% > 50대 49.9% < 30대 44.4% > 20대 35.9%)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는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16.2% < 40대 17% > 50대 17.2% < 30대 23.3% > 20대 28.9%)는 것이다. '미국 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의 경우 19.3%로 60대 19.8%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민족적 동질감에 근거한 가치판단이 상대적으로 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표 1-4-18〉 북한과 미국의 가상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단위: %,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팀	81.0	76.6	68.0	70.4	61.7	66.2	56.7	60.4	52.0	46.9
미국팀	4.0	7.0	8.4	8.6	12.9	11.3	13.4	11.5	12.5	16.6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6.1	6.4	9.8	9.9	10.9	9.8	11.2	11.7	15.4	16.2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8.9	10.0	13.6	11.0	14.3	12.8	18.7	16.4	20.1	20.2
기타	0.0	0.0	0.1	0.1	0.2	0.0	0.0	0.0	0.0	0.1
합계(N)	1,197	1,212	1,198	1,196	1,201	1,200	1,199	1,199	1,200	1,200

남북관계와 주변국의 협력 부분에서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최근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국외교와 안보의 중심축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포용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던 기간에는 한미 간 협력과 남북 간 협력이 사안에 따라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적잖이 노출되었다. 특별히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관해 한미 간의 이견이 있었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뚜렷한 변화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 확대는 한국과 미국정부의 인식과 이해의 차이의 수준을 넘어 한미관계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사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라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인한 '남남갈등' 현상은 한국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는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 역학관계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냈다. 개혁개방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던 중국은 1990년대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고 2000년 중반 중국이 소위 'G2'로 부상하게 됨으로 기존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함께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파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증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시진핑 정부 이후 중미간의 상호 이해와 공통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신형대국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한중 간 협력은 기존의 한미 간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축이 되었다. 즉, 미중간 패권

경쟁구도 속의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²⁰ 한국에게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안에 따라 이는 매우 어렵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사드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한국은 사안에 따라 미중의 이견(異見)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주도해 가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에 따라 '남북한 협력과 한미, 한중 간 협력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개별 선호도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했다. <표 1-4-19>에서와 같이 지금까지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미공조' 두 가지의 틀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한중 간 협력'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4-19>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2007-2014)
(단위:%, N)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북관계	38.3	29.8	39.1	38.1	39.2	35.9	33.8	31.0
한미공조	17.6	20.2	19.0	19.2	20.8	19.4	20.2	23.9
똑같이 중요하다	44.1	50.0	41.9	42.8	40.0	44.7	46.0	45.1
합계(N)	1,196	1,206	1,200	1,195	1,200	1,200	1,200	1,194

<표 1-4-20>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그리고 '한미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5년에는 36.0%로 가장 높았으나

20] 전재성,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서울: 늘봄플러스, 2015) 서문 참조.

2016에는 32.0%로 다소 낮아졌다. '남북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한미 간 협력'은 26.1%로 나타났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0%로 201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우세함을 보여준다.²¹ 동시에 특정한 국가와의 협력 및 관계 강화가 압도적이지 않은 점은 선택과 균형에 대한 정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남북 간 협력'을 '한미 간 협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잠재적인 내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20>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단위:%, N)

	2015	2016
남북 간 협력	32.8	34.9
한미 간 협력	24.6	26.1
한중 간 협력	6.6	7.0
모두 중요하다	36.0	32.0
합계(N)	1,200	1,200

21] 이정남, 하도형, "동아시아 지역 미중 경쟁구도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대미·대중 인식 변화," 이내영, 윤인진,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p. 250. 변수 항목 및 조사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2015년에 실시된 동아시아연구원의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의 '미중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 강화 보다는 균형적 태도를 우선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에 대한 응답률을 비교하였을 때 확인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4-21>에서 보여주듯이 자신의 정치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이념성향보다 남북한 간 협력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결과 '남북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률은 진보적(41.1%)>중도(33%)>보수적(3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미 간 협력은 중도(27.3%)>보수적(24.9%)>진보적(24.5%) 순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미 간 협력이 가장 우선한다는 보수와 진보의 격차는 0.4%에 불과하며 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남북한 협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표 1-4-21> 정치성향별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단위:%, N)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
진보적	41.1	24.5	6.1	28.3
중도	33.0	27.3	7.2	32.5
보수적	32.3	24.9	7.8	35.0
합계(N)	419	312	84	385

5. 소결

2016년 한국 국민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현저하게 높아졌다. 대미친밀감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보편적 호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협력대상 의식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의 대북위협인식 증가는 거듭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이로 인한 국민 여론 악화, 남북관계 경색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미친밀감 증가 및 대미인식 강화가 가져올 상쇄효과 즉, 한미관계의 친밀함과 긴밀함이 중국으로부터의 의구심을 가져오거나 미국의 안보이익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인들의 정책적 이념지향 및 연령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증가되는 대북위협인식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선 뿐 아니라 남북한 간 화해협력 및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북한에 대한 거리감과 경계심이 20대에서 더욱 확연해졌다. 2016년 조사 결과 20대의 대미친밀감은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대북친밀감은 가장 낮았다. 그리고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도 20대였다. 미국에 대한 우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20-30대 젊은층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 및 신뢰도는 앞으로도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및 한미관계의 미칠 영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대북 위협인

식이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도발과 군사적 갈등,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인 점을 고려 할 때, 향후 북한의 태도나 정책 방향의 중대한 전환이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통한 안보추구 행위가 지속 될 경우 20대의 경계의식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젊은 세대의 한반도 안보에 관한 현실적인 시각,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방법론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중요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이 도움이 미국 다음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중 간 협력’은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에 비해 그 우선순위가 떨어진다. 중국 부상의 방향, 한중관계 변화, 북한문제의 개입과 관여 등이 앞으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인의 대중인식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에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중 경쟁 구도가 본격화 될 경우 우호적인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및 공조 체계 구성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될 것이다.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위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적이지만 상호 마찰과 갈등의 요소는 다분히 존재한다. 여기에 강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패권국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 및 공격성, 트럼프 행정부의 대아시아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명민한 대중국외교가 절실하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제환경의 변화, 남북관계의 부침,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따라 한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또한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주요한 외교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태도나 의식이 직접적인 결정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정책의 결과가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와 기대 요구가 국가 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 관계 인식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2부

심층분석



제5장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인식

제6장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 의식

제7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수용성

제5장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인식

1. 서론

9월 9일은 북한정권 수립일이다. 그런데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북한시간 9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이번 핵실험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하는 핵무기 병기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고 발표한다. 이에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으로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방문일정을 단축하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한국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에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대남정책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통일보다 남북대립과 전쟁준비를 우선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과탄으로 이어져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경고하고,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2016년 가을 남북관계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돌아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시기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되기보다 악화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통해 대량과괴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GOP 목함 지뢰 매설 등 크고 작은 군사 도발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이버 테러를 꾸준히 시도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대북제재'를 시도하고 북한의 도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그 강도를 더하게 된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정부 당국간 회담, 남북 경제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은 단절되었거나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걸까?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군사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무력시위를 하는 근본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협조 때문에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한다고 해석하고 중국도 남북관계 악화에 일련의 책임이 존재함을 언급한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서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북관계 악화책임에 대한 상이한 주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에 대한 찬반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식

에 대한 찬반논의는 국가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주장으로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 및 미국, 중국의 반응이며, 국내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돌과 반목이다. 국내적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은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국론분열이라고까지 언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고, 다양한 책임론에 상응하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논의가 활발하게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격심하게 존재하지만, 한국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특정 정치인이나 소수 지식인들의 표명한 의견이 바로 국민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민의식에 충실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집행이 수월할 것이지만, 반대로 국민의식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만큼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판단하기에 국민의식이 왜곡되었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초해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정부는 특정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 중에서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질문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목적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과연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여 제시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국민의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보다 적절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인식편차가 통일의식 및 대북 및 주변국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다른 의견 가진 집단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령 수렴되지 않는 경우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대북 및 통일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²²

2.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질문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는 2009년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북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5개국 각각에 대해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2] 남북통일을 위한 단일하고 유일한 최선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지만 남북통일이 되고 남북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개별적인 통일정책에 대해서 동일하게 찬성하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일지향적인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중 대상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북한, 한국, 미국, 중국 등 4국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되, 5개로 나누어진 응답지 중 ‘중간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를 ‘크지 않다’로 묶어 ‘아주 크다’, ‘조금 크다’, ‘크지 않다’로 3등분하여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을 제외한 것은 남북관계 악화에 일본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이다’ 이하 세 응답을 묶은 이유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크다’와 ‘조금 크다’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책임이 중간이하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실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국가별 분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라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절대평가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북한, 한국, 미국, 중국 각각에 대해 남북관계 악화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때, 조사년도에 따라 개별국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상대평가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을 2개국씩 묶어 2개국 중 어느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남북한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의 책임과 한국의 책임에 대한 의견을 비교해서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북한책임으로 보고,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한국책임론,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책임이 같다고 보는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책임론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두 가지 분석에 이어 남북관계악화 책임론과 여타 통일정책, 대북 및 주

변국 정책에 대해 이견 제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²³ 이 경우는 정책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대 북한 책임론’, 그리고 ‘미국 대 중국 책임론’을 독립변수로 해서 분석하였다.²⁴ 또한 분석대상은 2016년도 조사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을 전개할 때 과거의 국민의식보다 현재의 국민의식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 절대평가

〈표 2-5-1〉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대략 50-65%이고, ‘조금 크다’가 25-35%이고, ‘크지 않다’가 10%정도이다.

가장 일관된 조사결과는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10%정도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10% 정도의 국민들이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거나 수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3] 여기에는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북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견, 바람직한 대북정책기조,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견, 한미 혹은 한중 협력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된다.

24] 다양한 국가 쌍을 비교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악화 책임이 한국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에 있느냐 중국에 있느냐를 견주어보는 것이 가장 흥미롭다고 판단하였다.

〈표 2-5-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57.9	62.6	63.2	56.0	63.5	64.5	50.8	49.8
조금 크다	30.3	27.0	25.8	31.3	25.3	26.3	36.3	37.3
크지 않다	11.9	10.4	11.1	12.7	11.2	9.3	12.8	1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는 10%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0%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이 매우 크거나 조금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내부적으로 ‘매우 크다’와 ‘조금 크다’는 의견 비중은 조사년도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조사시점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아주 크다’는 의견이 줄고, ‘조금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는 데도 북한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의견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사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북한 책임론이 일상화된 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북한에 대한 ‘포기’와 대응책의 효과 없음에 대한 ‘실망’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표 2-5-2〉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책임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대략 8-15%이고, ‘조금 크다’가 30-40% ‘크지 않다’가 50-60%정도이다.

〈표 2-5-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책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13.9	14.3	10.4	13.2	7.2	10.3	8.9	8.9
조금 크다	39.5	39.8	37.3	36.6	34.8	35.8	41.6	33.2
크지 않다	46.6	45.8	52.3	50.2	58.0	54.0	49.5	5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정도에 대한 응답과 거의 정반대되는 응답결과이다. 대략 10%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90%가 ‘조금 크다’와 ‘크지 않다’로 나뉘는 데, ‘조금 크다’ 보다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한국 책임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수 50% 넘는 경우는 있지만, 안정적 과반수라고 할 수 있는 60%는 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 부분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행할 때 보다 정교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표 2-5-3〉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책임 여부를 제시한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대략 15%내외이고, ‘조금 크다’가 30~40%, ‘크지 않다’가 40~60%정도이다. 한국 책임론과 비슷한 분포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보다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2016년의 경우 미국 책임론이 매우 줄어든다. 오바마 정부 말기에 미국이 명확한 대북정책을 펴기보다 ‘무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명확한 대북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이 한국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조금 크다’와 ‘크지 않다’를 비교했을 때, ‘조금 크다’는 줄어들고 ‘크지 않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생각된다.

〈표 2-5-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국 책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18.4	15.8	13.9	16.2	11.8	13.2	14.5	6.4
조금 크다	43.0	40.7	35.7	34.8	32.6	36.5	32.7	34.8
크지 않다	38.7	43.5	50.4	49.1	55.7	50.3	52.8	5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책임 여부를 〈표 2-5-4〉에 제시하였다.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10%-25%, ‘조금 크다’는 35%-45%, ‘크지 않다’가 35%-50%이다. 북한, 한국, 미국에 대한 응답유형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큰 특징을 보인다. 이는 중국에 대한 국민의식이 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현재 형성과정에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최근 들어 남북관계 악화에 중국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관계 악화에 강대국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결국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표 2-5-1〉에서 〈표 2-5-4〉까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각 국의

책임 여부를 비교하면, 국민들은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크고, 다음이 중국과 미국이며 한국이 책임이 가장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2-5-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중국 책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아주 크다	13.1	20.8	26.5	22.6	19.2	16.3	14.0	11.3
조금 크다	34.3	38.6	39.1	38.0	39.2	42.6	36.4	45.6
크지 않다	52.6	40.6	34.5	39.4	41.7	41.2	49.6	4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북한에 한정해서 보자면 50% 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북한 책임이 ‘매우 큰’ 반면 한국 책임은 ‘크지 않다’고 본다는 점에서, 남북한 중에서는 북한책임론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정서이다. 그러나 60%이상 절대다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대부분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북관계 악화에 10% 정도의 국민이 북한 책임이 ‘크지 않다’고, 반대로 한국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본다는 점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책임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0%의 의견에 기초하여 ‘국론분열’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다.

나머지 40%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한국 책임이 ‘조금 크고’, 북한 책임도 ‘조금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 40%가 50%의 북한책임론과

10%의 한국책임론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들 집단을 어느 쪽으로 간주하느냐에 따라 국민여론은 통합을 보이기도 하고 완전 분열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일 이들 40%를 북한책임론에 찬성하는 쪽으로 간주하면 90%가 북한책임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되고, 통합된 여론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반대로 이들 40%를 한국책임론에 붙이면 50%의 국민이 한국책임론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 진정한 국론분열이다. 그러나 이들 40%는 ‘절충주의’ 또는 ‘양비론’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책임론이나 한국책임론에 합치는 것은 곤란하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국민의견은 한국책임론과 북한책임론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책임론 50%, 한국책임론 10%, 그리고 남북책임론 40% 정도로 3등분 되어 있다.

4.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 : 상대평가

이어서 해당되는 4개국을 책임론을 2개국씩 비교한 남북관계 악화에 상대적으로 책임이 큰 국가가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2-5-5〉는 북한책임론과 한국책임론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60-70%정도의 국민이 남북관계 악화에 북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6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절대다수가 북한책임론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반면에 한국책임론을 제기하는 국민들은 5%이하이다. 이는 〈표 2-5-1〉이나 〈표 2-5-2〉의 절대평가에서 북한무책임론 및 한국책임론이 10%

정도 나왔던 것에 비해 절반정도 낮은 수치이다. 시중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실제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책임론에 동조하는 국민은 5%미만으로 매우 적다.

그러나 30%내외의 국민이 남북한 공동책임론을 생각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가 주로 북한 책임이 있지만, 한국도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극소수 한국책임론자를 제외하면,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남북한 상대평가는 북한이나 한국이나의 2분법이 아니라, 북한이나 남북한 공동이나의 2분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표 2-5-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한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한국	60.0	64.2	66.5	61.3	70.5	69.3	59.4	61.6
북한=한국	34.4	31.6	29.3	33.5	27.1	28.2	36.3	34.9
북한<한국	5.6	4.3	4.2	5.3	2.4	2.5	4.3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한국과 강대국, 즉,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여 남북관계 악화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것이 〈표 2-5-6〉과 〈표 2-5-7〉이다. 〈표 2-5-6〉에서 한국과 미국의 책임을 비교하면 한국 책임이 15-20%, 미국 책임이 20-25%이라는 의견이어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50-60%정도를 차지하는 한미 공동책임론이다. 과반수 국민들이 동맹국으로서 한국과 미국은 남북관계악화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40-50%가 한국 또는 미국 책임의 경

중을 따지는 데, 2015년까지는 한국책임론보다 미국책임론이 조금이나마 많았는데, 2016년에 공동책임론 의견이 많아지는 가운데 미세하나마 한국 책임론이 미국책임론보다 높아졌다. 남북관계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직접 당사자라는 의식이 부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5-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한국 vs 미국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미국	18.6	19.7	16.4	19.8	16.9	18.5	20.0	19.3
한국=미국	53.1	57.0	62.7	57.3	60.4	57.0	57.3	63.5
한국<미국	28.3	23.3	20.9	22.9	22.7	24.5	22.8	1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5-7〉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을 비교한 것이다. 한미관계와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이 같은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한중 공동책임론의 차지하는 비중은 40%대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60%정도가 한국책임론과 중국책임론으로 나뉘는데, 2009년 한국책임론이 컸지만,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중국책임론이 한국책임론보다 높다. 대체로 한국책임론은 25%정도 중국책임론이 30-4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책임론보다 중국책임론이 보다 많은 것은 한국보다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표 2-5-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한국 vs 중국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중국	30.3	22.7	15.2	20.5	18.1	18.1	23.2	22.6
한국=중국	47.1	45.6	44.1	44.0	42.6	48.6	49.1	40.5
한국<중국	22.6	31.8	40.7	35.5	39.3	33.3	27.8	36.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북한과 강대국(미국, 중국)을 비교하여 남북관계 악화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것이 〈표 2-5-8〉과 〈표 2-5-9〉이다. 먼저 〈표 2-5-8〉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을 보면 북한 책임론이 60%대임을 알게 된다. 반대로 미국책임론은 10%미만이다. 북한이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적하지만, 국민들 중에 미국책임론에 동조하는 집단은 많지 않다. 물론 30%정도의 국민이 미북 공동책임론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표 2-5-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미국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미국	56.7	63.2	64.9	61.1	70.0	68.6	60.2	67.0
북한=미국	33.8	29.3	29.1	30.6	22.8	24.8	30.3	27.3
북한<미국	9.5	7.4	6.0	8.3	7.2	6.7	9.5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리고 <표 2-5-9>에서 북한과 중국 책임론을 살펴보면, <표 2-5-8>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중국에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10%에 미치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의 책임을 비교하면 50-60% 정도가 남북관계 악화의 우선적인 책임이 북한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30-40%가 북중 공동책임론을 주장한다. 북중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는 의견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기대만큼 하지 못한다는 평가에서 북중 공동책임론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5-9>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북한 vs 중국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북한>중국	64.7	58.0	52.4	52.3	60.8	64.0	60.8	57.6
북한=중국	30.1	34.9	40.8	39.9	30.3	28.7	30.9	37.4
북한<중국	5.2	7.1	6.8	7.8	8.9	7.3	8.3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럼 G2로 구분되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남북관계 악화에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가? <표 2-5-10>에서 미중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이 60% 내외를 이루며 절대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굳이 미국과 중국 중에서 책임론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2009년도를 제외하면 미국 책임보다 중국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체로 중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중국책임론이 높았던

것처럼(<표 2-5-6>),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5-10>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비교 : 미국 vs 중국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국>중국	28.8	14.7	7.8	10.5	9.6	11.1	13.8	11.8
미국=중국	59.8	63.7	61.5	66.4	63.2	67.3	68.6	59.8
미국<중국	11.4	21.6	30.6	23.1	27.3	21.7	17.6	2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북관계악화 책임국가에 대한 상대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절대평가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악화의 가장 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상대평가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과 미국책임론에 동조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를 해결하지 못한 데는 한국, 미국, 중국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된다. 남북관계 악화가 진행된 데는 북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공동책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공동책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에서는 특히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많다.

5. 남북책임론 및 미중책임론과 통일, 대북 및 대외정책에 대한 의견

2016년 조사를 분석해서 남북한과 미중 사이에 나타난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에 대한 상대평가를 독립변수로 해서 통일, 북한, 대북현안 정책 및 대외정책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²⁵

〈표 2-5-11〉과 〈표 2-5-12〉는 남북책임론 및 미중책임론 별로 어떤 통일외식(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이유)을 갖고 있는지 제시한 표이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북한책임론자와 남북공동책임론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책임론자가 통일의 필요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한국책임론자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의미를 강조해서는 곤란하다.²⁶ 한편, 미국책임론자와 중국책임론자 간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악화책임론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5] 남북관계 악화 책임국가에 대한 상대평가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이념지향별로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의견차이가 앞에서 제시한 변수에서 드러난다면,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지향이라는 변수가 남북관계악화 책임론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수가 되어, 그 결과 남북관계 악화 책임 국가라는 변수가 갖는 의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6년도 조사결과를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앞에 제시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남북관계 악화책임론 변수가 새로운 독립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6] 이하 마찬가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2-5-1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통일필요성(2016)

(단위:%)

통일의 필요성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필요	20.4	22.9	11.9	17.0	21.8	21.1
약간 필요	34.8	28.2	40.5	33.3	31.9	33.9
그저 그렇다	22.3	22.9	21.4	22.0	22.0	23.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8.5	17.2	23.8	22.0	22.0	23.7
전혀 필요하지 않다	3.9	8.8	2.4	6.4	6.3	3.8
χ^2 검증	p< 0.01			p=n.s.		

남북관계 악화책임론과 통일필요성에 대한 의견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표 2-5-1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북한책임론자와 남북한 공동책임론자 간에 그리고 미중책임론자 사이에는 통일이유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가 통일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북한책임론자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와 '전쟁위협소멸' 이유가 거의 대응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남북공동책임론자는 여전히 '같은 민족'이므로 통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이 다른 의견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중책임론 중에서는 중국책임론자 중에서 전쟁위협소멸을 가장 많은 사람이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책임론자는 한반도 전쟁 억제에 있어 한국과 미국 외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중공동책임론자들은 여전히 통일이유로 '같은 민족' 라는 전통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택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공동책임론자나 미중 공동책임론자들이 통일이유로 민족결합을 많이 선택함을 알 수 있다.

〈표 2-5-12〉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통일이유(2016) (단위:%)

통일이유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같은 민족	37.1	43.0	33.3	34.0	42.4	34.0
이산가족 고통해결	11.5	11.2	33.3	13.5	12.0	12.0
전쟁 위협 소멸	33.7	22.2	19.0	26.2	25.2	38.7
북한주민 잘 살게	4.1	6.2	2.4	8.5	5.2	2.3
선진국 되기 위해	13.0	16.5	11.9	17.0	14.6	12.0
기타	0.5	1.0	0.0	0.7	0.6	0.9
χ^2 검증	p< 0.001			p< 0.001		

〈표 2-5-13〉과 〈표 2-5-14〉는 남북 책임론 및 미중 책임론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북한 및 북한정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시한 표이다. 북한책임론자가 남북공동책임론자에 비해 지원 및 협력대상이라는 의견이 적은 반면, 경계 및 위협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아진다.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미중책임론과 북한에 대한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순화시켜 표현하면 친중이라서 친북이 아니고, 친미라서 반북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북관계 악화에 미국이 책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북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2-5-13〉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북한인식(2016) (단위:%)

대북인식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지원대상	9.2	14.8	23.8	11.3	12.6	9.9
협력대상	42.6	45.8	38.1	48.9	43.1	42.4
경쟁대상	7.0	8.4	19.0	10.6	7.1	8.5
경계대상	24.6	18.4	11.9	19.9	21.9	23.1
위협대상	16.5	12.6	7.1	9.2	15.3	16.1
χ^2 검증	p< 0.01			p=n.s.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으로 보다 특정화된 북한인식을 살펴보면 남북책임론이나 미중책임론 모두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다(〈표 2-5-14〉). 북한책임론자는 남북공동책임론자보다 북한정권에 대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에 남북공동책임론자는 상대적으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진다.

그리고 미중책임론중에서는 중국책임론자가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미중공동책임론자, 미국책임론자 순으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이 미중책임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미중간 책임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5-14〉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북한 정권인식(2016) (단위:%)

북한정권 대화타협가능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가능	2.8	4.1	14.3	5.0	4.0	2.3
어느 정도 가능	24.2	33.2	50.0	39.0	30.7	18.7
별로 가능하지 않다	52.9	46.5	35.7	41.1	48.5	57.0
전혀 가능하지 않다	20.0	16.2	0.0	14.9	16.7	21.9
χ^2 검증	p< 0.001			p< 0.001		

〈표 2-5-15〉와 〈표 2-5-16〉은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 별로 주요 대북 현안정책(개성공단 재가동, 한국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표 2-5-15〉에서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책임론이라는 의견을 가진 집단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찬성(매우찬성, 다소찬성)하는 비율이 41.3%이다. 반면, 남북공동책임론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의견이 57.8%이다. 남북공동책임론자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²⁷

한편 미중책임론에 대한 의견 차이에 있어서는 미국책임론자가 중국책임론자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미중공동책임론자가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²⁸

〈표 2-5-16〉은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수인 한국책임론자를 제외하면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핵무장’을 언급했지만, 핵무기 그 자체 보다는 북한의

27] 한국책임론자는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28]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미중공동책임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군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특단의 자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⁹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의견 차이에 따라 핵무장에 대해 부분적인 의견차이가 드러난다. 남북공동책임론자와 미국책임론자, 그리고 미중공동책임론자 중에서 한국 핵무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표 2-5-1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개성공단 재가동(2016) (단위:%)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찬성	10.4	22.0	14.3	20.6	16.6	7.9
다소 찬성	30.9	35.8	38.1	38.3	32.2	31.9
그저 그렇다	24.0	23.4	38.1	25.5	22.9	26.6
다소 반대	24.5	13.6	9.5	11.3	21.1	21.9
매우 반대	10.3	5.3	0.0	4.3	7.3	11.7
χ^2 검증	p< 0.001			p=n.s.		

29] 이번 조사에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 조사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핵무장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2-5-16〉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한국 핵무장(2016) (단위:%)

한국 핵무장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매우 찬성	21.7	22.4	14.3	19.9	23.2	19.3
다소 찬성	32.1	28.6	26.2	31.9	27.5	36.8
그저 그렇다	32.5	28.6	52.4	30.5	32.6	30.7
다소 반대	9.2	15.0	7.1	12.8	12.4	7.9
매우 반대	4.6	5.3	0.0	5.0	4.3	5.3
χ^2 검증	p< 0.01			p< 0.1		

마지막으로 〈표 2-5-17〉과 〈표 18〉에서 남북책임론과 미중책임론 별로 ‘바람직한 통일정책’과 ‘중요한 대외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2-5-17〉에서 북한책임론자는 현재 통일정책이나 통일준비 보다 북한 핵개발 중단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표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책임론자가 통일정책과 통일준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과 대비된다. 남북공동책임론자는 북한책임론자에 비해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선택한다. 그리고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은 북한책임론자나 남북공동책임론자 모두에서 2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눈에 띈다.

한편 중국책임론자는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책임론자는 상대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미중공동책임론자는 북한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시장을 유사하게 선택하고 있다.

〈표 2-5-17〉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바람직한 통일정책(2016) (단위:%)

바람직한 통일정책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남북 교류협력, 대북지원	14.7	17.4	11.9	14.9	16.2	14.6
북한개혁개방, 인권신장	25.7	23.4	21.4	25.5	24.0	26.0
적극적통일정책, 통일재원준비	13.7	20.0	45.2	22.0	17.7	13.5
북한 핵중단 위한 국제협력	30.7	18.9	11.9	15.6	24.5	33.0
평화협정 체결	15.2	20.3	9.5	22.0	17.6	12.9
χ^2 검증	p< 0.001			p< 0.1		

〈표 2-5-18〉은 중요한 대외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남북공동책임론자가 남북협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조사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책임론자가 한미협력보다 남북협력과 남북/한미/한중 협력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한 비율이 높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악화는 북한책임이 크지만 해결은 남북협력 외에 한미협력과 남북한, 그리고 미중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집단에서 한중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매우 낮음도 주목거리이다. 한중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지만 이는 남북협력 및 한미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미중책임론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중공동책임론자나 중국책임론자, 그리고 미국책임론자 모두 남북협력, 한

미협력 그리고 한중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책임론자의 경우에도 한국과 중국과의 협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 및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2-5-1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과 중요한 대외정책(2016) (단위:%)

중요한 대외정책	남북책임론			미중책임론		
	북한책임	공동책임	한국책임	미국책임	공동책임	중국책임
남북협력	33.7	40.1	26.2	37.6	37.7	30.7
한미협력	25.6	22.7	47.6	26.2	25.2	25.1
한중협력	7.2	6.7	2.4	8.5	6.3	7.3
모두 중요	33.6	30.5	23.8	27.7	30.8	36.8
χ^2 검증	p< 0.05			p=n.s.		

6. 소결 : 정책적 시사점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곤란하다. 당위론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가 기존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변경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이 자신보다는 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

로 발표하거나 논의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나서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변화는 전문 학자나 정책담당자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사회에 한정된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정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학자나 정책가가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할 때 국민의견을 참고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에 많은 통일 및 대북 담론들이 국민의 통일외교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해서 자신의 정책이나 주장을 편다. 그러나 국민들의 통일외교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의는 많지 않다. 몇 사람의 의견을 전체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 정부가 대북 및 관련 통일정책을 펴는데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그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북한제재'로 맞서는 것은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남북공동책임론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제재'를 하되 그 방식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북정책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에 주는 함의를 구분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악화 책임의 원인이 한국 및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국민 중에 북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긍정하는 국민의 매우 소수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주장은 한국인에게 설득력이 부족한 논의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악화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북한의 선전선동전략은 일반적인 한국인에 통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정부 및 반미 주장이나 논리가 한국인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한다.

셋째, 한편, 한미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는 남북관계 악화에 공동책임론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미 간에 그리고 미중 간에 공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중 미중 간 정책공조는 한국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에게 한국 국민들이 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중협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

넷째, 한국인은 북한에 이어 중국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북정책에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중국이 한국보다 북한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한중 공조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중국협력 중시론은 중국과의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과 한미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 실행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중국 일변도로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남북협력과 한미협력과 동시에 한중협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점차 중

국과 통일 및 대북정책을 논의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들이 대북정책에서 중국에 거는 기대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무리하거나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섯째, 그동안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성별 차이, 교육수준별 차이, 지역별 차이, 세대와 이념지향별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악화 책임에 대한 인식은 위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배경변수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특징을 보였다. 그렇다면 기존의 배경변수별 맞춤형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통일 및 대북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을 통일추진형으로 만들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에 대한 입장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통일 및 대북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북한책임론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협력과 군사적 대비책 마련에 대한 정부 정책을 알려주고, 남북공동책임론자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남북교류와 북한을 개혁개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면, 북한책임론자와 남북공동책임론자 모두 남북통일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이념, 당파성, 그리고 통일의식*

1. 서론

통일은 한국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이슈 중 하나로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영역이다. 그만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³⁰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정치지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일 이슈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정당 지지집단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정당정치의 경쟁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 각 정당의 선거전략 및 정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통일의식의 당파적 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16년은 특히 더욱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2016년은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7월의 한반도 사드(THAAD)배치 결정과 8월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그리고 9월의 5차 핵실험으

* 본 장의 내용은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양극화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 (2016)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30] 통일의식이란 “통일에 대해 갖는 사상·관념·감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포함”하는 국민들의 정치태도를 일컫는다.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5집 2호 (2013), p. 75)

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더욱이 4월에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 제1당을 바꿀 만큼 큰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파적 성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나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통해 국회의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관심은 더욱 배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총선을 통한 국회 구성의 지각변동은 얼마나 국민들의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2016년 각 정당 지지자들 간 인식과 평가의 차이는 예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가? 정치 양극화 현상의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치 이슈 중 하나이다.³¹

국회 내부와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의 양극화 경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반면,³² 국민 차원에서의 양극화

31] Cas Mudde, 2007, *Populist Radical Right Parties in Europ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wrence Ezrow, Margit Tavits, and Jonathan Homola, 2014, “Voter Polarization, Strength of Partisanship, and Support for Extremist Parties,” *Journal of Politics* 76(2): 535–547; 강원택,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3호 (2011), pp. 99–129.

32] Tom Davis, Martin Frost, and Richard Cohen, 2014, *The Partisan Divide: Congress in Crisis*. Campbell, Ca: Premiere; Shanto Iyengar, Gaurav Sood, and Yphtach Lelkes, 2012, “Affect, Not Ideology: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6(3): 405–431; David Jones, 2010, “Partisan Polarization and Congressional Accountability in House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2): 323–337; 가상준,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의정논총』 제9권 2호 (2014), pp. 247–272; 가상준,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OUGHTOPIA』 제30권 1호 (2016), pp. 327–354;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제18권 2호 (2012), pp. 5–38.

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³³ 따라서 한국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통일 이슈에 대해 국민 수준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둘째, 만일 국민 차원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양극화는 국민들의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당파적 편향에 기인한 것인가? 당파성(partisanship), 또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오랜 정당의 역사를 지닌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 캠패와 그의 동료들이 내린 오랜 정의에 따르면 “특정 선호정당에 대한 장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동일시”를 의미한다.³⁴ 이러한 당파성은 이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렇다고 양자가 같은 개념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영향, 부모로부터의 사회화 등 여러 이유로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당파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신지역에 따라 영남-보수당/호남-진보당이라는 지역구도가 국민들의 당파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렇게 이념 외적인 요인들이 당파성 형성에 작용할수록 이념과 당파성 간의 연결은 약해지게 된다. 즉,

33] Joseph Bafumi and Robert Y. Shapiro. 2009. “A New Partisan Voter.” *Journal of Politics* 71(1): 1-24; Leonie Huddy, Lilliana Mason, and Lene Aaroe. 2015. “Expressive Partisanship: Campaign Involvement, Political Emotion, and Partisan Ident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9(1): 1-17; Lilliana Mason.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김성연, “정치적 태도와 인식의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민주주의: 2012년 대통령 선거 패널 데이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2015), pp. 459-491; 이내영,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2호 (2011), pp. 251-287.

34] Angus Campbell,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Michigan. Survey Research Center, New York: Wiley.

진보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 지지자와 보수적 성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하 더민주) 지지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³⁵ 이념적 양극화와 당파적 편향을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 규범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들이 이슈별로 서로 다른 이념적 입장을 가지는 것은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의 선호에 입각한 선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념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당파에 따라 인식하고 평가한다면 정당 또한 국민들의 이슈별 입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당파적 전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대표자는 국민의 선호를 대변해야 한다는 대표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의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해 기존의 양당 지지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국민의당의 정치적 성공에는 기존 주류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의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지집단의 향후 행방은 한국 정당정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당 지지층이 지역 등 특정 사회집단에 따라 양분되어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당 지지층이 어떠한 성격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35] 실제로 올해의 『통일외식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자 중 18.0%가 진보적 이념 성향을, 더민주당 지지자 중 16.0%가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장의 주된 분석은 2016년도의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올해의 분석결과가 얼마나 예년과 차별화되고, 또 어떠한 연도별 추이를 보이는지를 보기 위하여 당파성 설문이 조사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설문결과를 함께 활용하도록 하겠다. 본 분석의 목적이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특정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보려한다는 점에서, 샘플은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파 모두를 포괄하였다.³⁶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각 정당의 통일의식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예비분석으로 각 정당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정치적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통하여 각 정당의 당파성 형성에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각 정당 지지집단의 성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러한 예비작업 후 본격적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당파적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통일의식의 분석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통일의 시기는 언제로 예측하는지, 통일이 남한사회에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둘째는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다. 대북정책 인식은

36]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주류정당(2016년의 경우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2015년 이전의 경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한 군소정당(응답자의 5%가 넘는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의 지지자들은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외된 응답자의 수는 각각, 2016년 13명, 2015년 12명, 2014년 37명, 2013년 24명, 2012년 32명, 2011년 109명이다.

크게 대북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부분과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효용성에 관해서는 대북지원,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 정기적 회담, 그리고 올 3월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제재와 압박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정책의 찬반 입장에 대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평가에 관한 항목으로는 정부의 대북정책, 현재의 경제상황,³⁷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총 세 부문에 걸친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서두에 제시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설문의 분석은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과 순위로짓(ordered logit) 등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위에 나열한 통일의식 항목들이 각 모델의 종속변수가 되며, 모든 변수의 값은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재코딩되었다.³⁸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 독립변수로는 먼저 각 정당을 지지하는 당파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객관식으로 묻는 설문항목을 사용하여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각각의 더미변수(1: 지지, 0: 지지하지 않음)로 만들어 분석에 포함하였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비교집단이 되었다. 정당일체감이라는 복합적이고 미묘한 개념을 단 하나의 설문항목으

37]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인 정부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제는 국민 입장에서 가장 쉽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슈이고, 선거와 투표행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경제평가를 현직 정부의 평가와 연계시키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38] 모든 변수에 대하여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되었다.

로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³⁹ 특히 자신을 무당파라 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인 중도파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자기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 연구결과⁴⁰에서 드러나듯, 하나의 문항만으로 응답자들의 실제 당파심을 읽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에 관한 항목은 당파성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항이고, 현재의 자료에서 이를 보완할 다른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부득이하게 하나의 문항만을 사용하여 정당일체감을 변수화하였다.

당파적 영향력과 아울러 이념이 가지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1(매우 진보적)부터 5(매우 보수적)까지 5단계 척도로 평가한 변수를 사용하였다.⁴¹ 이러한 단차원적 자가평가(self-placement) 역시, 그 개념의 모호함과 주관성으로 인해 이념을 측정하는 도구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⁴² 즉, 진보와 보수를 이해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데다, 좌-우라는 하나의 차원으로 이념을 측정하

39] John Garry. 2007. "Making 'Party Identification' More Versatile: Operationalising the Concept For the Multiparty Setting." *Electoral Studies* 26(2): 346-358; David Sanders. 2003. "Party Identification, Economic Perceptions, and Voting In British General Elections, 1974-97." *Electoral Studies* 22(2): 239-263.

40] John R. Petrocik. 2009. "Measuring Party Support: Leaners Are Not Independents." *Electoral Studies* 28(4): 562-572.

41] 2016년 각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 평균치를 보면, 새누리당은 3.23, 더민주당은 2.66, 국민의당은 2.67, 그리고 무당파의 경우 3.04로 나타났다.

42] 2016년 각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 평균치를 보면, 새누리당은 3.23, 더민주당은 2.66, 국민의당은 2.67, 그리고 무당파의 경우 3.04로 나타났다.

는 것은 실제 국민들이 가지는 이슈별 입장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⁴³ 하지만 이 역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별 입장을 포괄하는 이념 변수를 만들 수 없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설문자료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보인다. 기타 나이,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대도시 거주 등 기존의 통일의식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되어 온 인구통계적 요인들을 모델에 포함하였다.

3. 분석과 결과

1) 당파성의 분포와 결정요인

먼저 응답자들의 당파별 분포를 보기 위해 간단한 빈도표를 만들었다. <표 2-6-1>에서 보듯,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응답자의 비중은 2016년도에 54.5%를 기록, 조사기간(2011-2016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 간 비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지지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26.4%), 더민주당(17.2%)과 국민의당(9.8%)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2016년 선거에서 새로 나타난 국민의당이 높은 지지를 얻으며 양당체제에 균열을 가져왔는데, 단순한 집합적 수치로만 보자면 기존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지지층 비율이 예년과 큰 변동이 없고

43] Andre Freire and Ana Belchior. 2013. "Ideological Representation in Portugal: MPs'-Electors' Linkages in Terms of Left-Right Placement and Substantive Meaning."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9(1): 1-21;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이념 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집 4호 (2016), pp. 105-126.

무당파의 비중만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을 볼 때, 국민의당 지지층이 기존의 무당층에서 어느 정도 이동해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집합적 수준의 결과를 개인적 수준의 분석에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⁴⁴ 국민의당 지지층이 어떠한 성격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어느 당파에서 넘어온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행동 및 태도를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말미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다.

〈표 2-6-1〉 당파별 빈도 분포 추이(2011-2016)

년도	(단위:명, %)					
	무당파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기타	합계
2016	546 (45.5)	317 (26.4)	206 (17.2)	118 (9.8)	13 (1.1)	1,200 (100.0)
2015	708 (59.0)	316 (26.3)	164 (13.7)	n/a n/a	12 (1.0)	1,200 (100.0)
2014	597 (49.8)	324 (27.0)	242 (20.2)	n/a n/a	37 (3.1)	1,200 (100.0)
2013	649 (54.1)	349 (29.1)	178 (14.8)	n/a n/a	24 (2.0)	1,200 (100.0)
2012	623 (52.1)	301 (25.2)	240 (20.1)	n/a n/a	32 (2.7)	1,196 (100.0)
2011	617 (51.4)	291 (24.2)	184 (15.3)	n/a n/a	109 (9.1)	1,201 (100.0)

다음으로 당파성의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무당파와 각 정당 지지집단을 비교한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짓 모델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명목변수(categorical nominal variable)일 경우 각 항목들 간의 선택에 독립

44] William S. Robinson, 1950. "Ecological Correlation and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5: 351-357.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이다. 기존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당일체감 형성에 기여한다고 알려진 연령,⁴⁵ 소득수준,⁴⁶ 교육수준,⁴⁷ 지역주의, 특히 영남과 호남의 출신지역,⁴⁸ 그리고 진보-보수의 이념 성향⁴⁹ 등 일련의 요인들이 독립변수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6-2〉에 나타난 분석 결과, 다른 인구통계적 요인보다 나이와 이념 성향, 영·호남의 출신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지역 출신변수는 세 정당 모두에서 일체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모델이 비선형 회귀분석인 점을 감안하여 직접적인 계수가 아닌, 독립변수 1단위 증가시 종속변수가 증가할 확률인 오즈비(odds ratio, 괄호안)로 영향력의 크기를 해석하면, 호남 출신의 경우 더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2.75배, 국민의당을 지지할 확률이 2.64배 증가하는 반면, 새누리당을 지지할 확률은 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의 경우, 새누리당과 무당파를 가르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 나 나머지 두 정당의 지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일체감을 형성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두 정당과 달리 나이는 의미있

45] 허석재,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13권 1호 (2014), pp. 65-93.

46] 이용마,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계층균열 구조의 등장," 『한국정치학회보』 48집 4호 (2014), pp. 249-270.

47] 최준영, "정당일체감의 기능주의적 모델: 한국의 경우," 『OUGHTOPIA』 제30권 1호 (2016), pp. 299-325.

48] 최준영,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지역균열," 『21세기정치학회보』 18집 3호 (2008), pp. 47-66.

49] 한정훈,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당, 정당지도자 및 정당활동가의 영향,"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서울: 나남, 2012).

는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이는 국민의당 지지층이 다른 두 정당의 지지층에 비해 다소 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집단을 통틀어 검정한 LR(Likelihood-Ratio) 테스트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표 2-6-3>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성별과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세 정당과 무당파를 가르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였다. 카이제곱 값을 통해 보면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는 역시 나이, 이념 성향과 출신지역이었다.

<표 2-6-2> 당파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지 분석

변수	새누리당 vs. 무당파		더민주당 vs. 무당파		국민의당 vs. 무당파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6***	(1.06)	0.02**	(1.02)	0.01	(1.01)
성별(0:남성, 1:여성)	0.14	(1.15)	0.13	(1.13)	-0.03	(0.97)
교육수준(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제이상)	0.05	(1.05)	0.14	(1.15)	0.19	(1.21)
소득수준(1: 2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0.03	(0.97)	0.06	(1.06)	0.13	(1.14)
거주지(1: 읍/면, 2: 중소도시, 3: 대도시)	-0.08	(0.92)	0.07	(1.07)	0.45***	(1.57)
이념 성향(1: 매우 진보적~5: 매우 보수적)	0.16	(1.18)	-0.74***	(0.48)	-0.67***	(0.51)
영남지역 출신	0.26	(1.30)	-0.52**	(0.60)	-0.43	(0.65)
호남지역 출신	-1.97**	(0.14)	1.01***	(2.75)	0.97***	(2.64)
상수항	-3.82***	(0.02)	-0.44	(0.65)	-2.22**	(0.11)

응답자 수: 1,184명
Log Likelihood=-1312.3

* 준거집단: 무당파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표 2-6-3> 당파성 결정요인들의 영향력 검정(Likelihood-Ratio 테스트)

변수	chi2	P>chi2
나이	73.66	0.000
성별(0:남성, 1:여성)	1.29	0.732
교육수준(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제이상)	1.26	0.740
소득수준(1: 200만원 미만~4: 400만원 이상)	1.89	0.596
거주지(1: 읍/면, 2: 중소도시, 3: 대도시)	9.02	0.029
이념 성향(1: 매우 진보적~5: 매우 보수적)	75.45	0.000
영남지역 출신	13.67	0.003
호남지역 출신	77.85	0.000

* 귀무가설: "모든 집단 간 모델에 대한 해당변수의 계수들이 0이다."

그렇다면 이 모델에 사용된 독립변수들만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는 집단은 무엇일까? <표 2-6-4>에서는 집단 간 차별화를 검정한 왈드(Wald) 테스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테스트 결과, 해당 변수들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집단이 뚜렷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두 정당의 지지집단이 인구통계와 이념적 성격에 있어 상당히 겹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당 지지층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집합적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가 불분명하다. 정해구(2016)는 20대 총선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등 보수정당과 더민주당 등 진보정당으로부터 가져온 표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집합적 분석이란 점에서 국민의당 지지층의 정확한 출처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표 2-6-4>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국민의당 지지층의 상당부분이 더민주당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윤광일 역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12.9%가 비례에서는 국민의당을 택했고, 지역구에서 더민주당을 택한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비례에서 20.8%가 국민의당을” 택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하였다.⁵⁰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더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을 대거 영입한 국민의당이 총 28개의 호남지역 선거구에서 23석을 가져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집합적 차원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의당의 지지층은 기존의 무당파 중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념·출신지역을 공유하거나, 또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중 보다 젊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도적 집단이 국민의당으로 옮겨갔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당 지지층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들은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당에 가까운, 하지만 보다 중도적인 통일 인식과 평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4〉 정당 지지집단 간 차별화 검정(Wald 테스트)

비교 집단	chi2	P>chi2
새누리당vs무당파	125.14	0.000
더민주당vs무당파	67.96	0.000
국민의당vs무당파	42.951	0.000
새누리당vs더민주당	142.573	0.000
새누리당vs국민의당	116.456	0.000
더민주당vs국민의당	6.821	0.556

* 귀무가설: “해당 집단 간 모델에 대한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0이다.”

50] 윤광일, “제20대 총선 결과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제언,” 『의정연구』 제22권 1호 (2016), p. 67.

2) 통일 인식과 당파성

본격적인 통일인식에 대한 분석으로 먼저 국민들의 통일 이슈에 대한 태도가 지지 정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다. 통일 인식과 관련하여 분석할 문항은 총 네 개로, 통일의 당위성과 시기 전망에 대한 질문, 그리고 통일이 얼마나 남한 사회와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각 모델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의 설문들이 모두 4에서 6단계의 척도를 가진 순위변수(ordinal variable)란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항의 분석에 적합한 순위로짓 기법을 사용하였다. 〈표 2-6-5〉는 각 항목에 대한 정당 지지자별 평균값을 정리하였고, 이념과 당파성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2-6-6〉에 정리하였다.

〈표 2-6-6〉의 당파 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무당파에 비해 통일에 대한 더 큰 필요성을 느낀 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즈비를 통해 보아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낄 확률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의 경우 무당층보다 각각 40%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당파적 영향력의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기 위하여 〈표 2-6-7〉에 동일한 모델의 이념과 당파 변수만을 추려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2016년의 결과는 대체로 기존(2011-2015년)의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시기’를 예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을 제외하고 두 주류정당 사이에서는 지지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 역시 예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일이 남한 사회와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

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항목 모두에서 더민주당 지지층이 통일을 더욱 이로운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질문에 대하여 더민주당 지지자들이 통일의 이익을 더 많이 느낄 확률은 무당파에 비해 각각 91.0%와 69.0%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당 역시 통일이 개인에게 이롭다고 바라봄으로써(51.0%) 더민주당에 가까운 인식 성향을 보였다.

〈표 2-6-5〉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지지 정당	통일의 필요성 (1: 전혀 필요없다-5: 매우 필요하다)	통일 시기 (1: 5년이나-6: 불가능하다)	통일의 남한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	3.62	3.85	2.55	2.06
더민주당	3.56	3.94	2.76	2.21
국민의당	3.53	3.84	2.58	2.20
무당파	3.29	4.16	2.46	2.01
전체 평균	3.45	4.01	2.55	2.08

〈표 2-6-6〉 통일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변수	통일의 필요성 (1: 전혀 필요없다-5: 매우 필요하다)		통일 시기 (1: 5년이나-6: 불가능하다)		통일의 남한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 자신에 대한 이익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5***	(1.05)	-0.03***	(0.97)	0.01**	(1.01)	0.01	(1.01)
여성	-0.45***	(0.64)	0.41***	(1.50)	-0.32***	(0.72)	-0.22*	(0.80)
교육수준	0.31***	(1.37)	-0.25**	(0.78)	0.22**	(1.25)	0.23**	(1.26)
소득수준	-0.13**	(0.88)	-0.02	(0.98)	0	(1.00)	-0.02	(0.98)
도시 거주	-0.04	(0.97)	-0.04	(0.96)	0.13	(1.14)	0.13	(1.14)
보수적 이념 성향	-0.05	(0.95)	-0.01	(0.99)	0.02	(1.02)	0.01	(1.01)
새누리당 지지	0.09	(1.10)	-0.06	(0.94)	0.14	(1.15)	0.14	(1.15)
더민주당 지지	0.34**	(1.40)	-0.2	(0.82)	0.65***	(1.91)	0.52***	(1.69)
국민의당 지지	0.34*	(1.40)	-0.31*	(0.73)	0.25	(1.28)	0.41**	(1.51)
응답자수	1184		1184		1184		1184	
Log-Likelihood	-1697.1		-1950.4		-1383.3		-1260.7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의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2016년도는 통일 이슈에 대하여 당파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이념 성향 변수와 당파성 변수들을 비교하여 보면 그러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표2-6-7〉에 드러나듯, 2015년까지는 네 개의 통일 인식 항목에서 이념변

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경우가 당파변수들보다 많았다. 즉,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시기 예측, 그리고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에서 이념변수의 영향력은 꾸준히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당파변수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는 통일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당파적 차이보다는 이념 성향의 차이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6년의 경우에는, 네 개 항목 모두에서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반면, 당파변수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정당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2016년의 통일 인식은 예년에 비하여 뚜렷하게 당파적으로 변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는 올 4월에 열린 총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당파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열렸던 2012년의 경우에도 당파성보다는 이념의 영향력이 더 작용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작년까지는 미미했던 통일 이슈에 대한 국민차원의 양극화 경향이 올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 인식의 당파적 경향이 올해만의 일시적 현상인지, 앞으로도 지속될 국민수준의 양극화의 시작일지는 향후 조사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7〉 통일 인식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2011-2016)

년도	종속변수 (통일인식)	독립 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6	통일의 필요성	-0.05	0.09	0.34**	0.34*
	통일시기	-0.01	-0.06	-0.2	-0.31*
	통일의 이익(남한)	0.02	0.14	0.65***	0.25
	통일의 이익(개인)	0.01	0.14	0.52***	0.41**
2015	통일의 필요성	-0.21***	-0.01	0.19	n/a
	통일시기	0.14**	-0.13	-0.23	
	통일의 이익(남한)	-0.12	0.06	0.25	
	통일의 이익(개인)	-0.13*	0.17	0.03	
2014	통일의 필요성	-0.11	0.17	0.34**	n/a
	통일시기	0.12*	0.02	-0.08	
	통일의 이익(남한)	-0.02	0.02	0.2	
	통일의 이익(개인)	-0.08	0.06	-0.08	
2013	통일의 필요성	-0.23***	-0.12	0.37**	n/a
	통일시기	0.24***	0.12	-0.11	
	통일의 이익(남한)	-0.14*	0.04	0.47***	
	통일의 이익(개인)	-0.22***	-0.02	0.23	
2012	통일의 필요성	-0.37***	0.02	0.35**	n/a
	통일시기	0.17**	-0.07	-0.4***	
	통일의 이익(남한)	-0.35***	-0.12	0.17	
	통일의 이익(개인)	-0.32***	-0.03	0.14	
2011	통일의 필요성	-0.08	-0.31**	0.32**	n/a
	통일시기	0.14	-0.15	-0.3*	
	통일의 이익(남한)	0.02	-0.04	0.47***	
	통일의 이익(개인)	-0.13*	-0.01	0.54***	

3) 대북정책 인식과 당파성

대북정책의 인식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의 여러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통일에 효과적일지를 묻는 질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남북간 정기회담, 그리고 대북제재의 효용성 및 세부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에 대한 찬반 등 총 7개이다. 먼저 <표 2-6-8>에 나타난 각 대북정책 인식 항목의 당파별 평균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대북정책의 효용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9>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남북간 정기회담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무당층에 비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도 무당파와 차별화된 인식을 가지지 못한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뚜렷이 비교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정당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통계적 유의미도를 넘어 영향력의 크기(오즈비)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당 또한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민주당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대북정책을 보다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관해서는 당파 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당파 집단의 평균치가 1(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과 4(매우 도움이 된다)의 중간값인 2.5를 밑도는 등,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당파와 상관없이 통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찬반에 관한 질문들에서도 어느 정도 뚜렷한 당파 간 차이

를 보였는데, 역시 민주당 지지층이 무당층에 비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호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8>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지지 정당	대북지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사회문화교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남북간 정기회담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대북제재와 압박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1: 매우 찬성 - 4: 매우 반대)	금강산 관광 재개 (1: 매우 찬성 - 4: 매우 반대)
새누리당	2.36	2.62	2.55	2.82	2.40	3.14	3.31
더민주당	2.58	2.78	2.75	2.94	2.29	3.51	3.55
국민의당	2.56	2.76	2.49	2.82	2.28	3.23	3.42
무당파	2.22	2.50	2.47	2.73	2.34	3.22	3.31
전체 평균	2.35	2.61	2.54	2.80	2.34	3.25	3.36

<표 2-6-9> 대북정책 인식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변수	대북지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사회문화교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남북간 정기회담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2***	(1.02)	0.01**	(1.01)	0.01**	(1.01)	0.02***	(1.02)
여성	-0.11	(0.89)	-0.05	(0.95)	0.00	(1.00)	-0.22*	(0.81)
교육수준	-0.09	(0.91)	0.02	(1.02)	-0.02	(0.98)	0.04	(1.04)
소득수준	0.13**	(1.14)	0.10*	(1.10)	0.12**	(1.13)	0.01	(1.01)
도시 거주	0.04	(1.04)	-0.01	(0.99)	0.13	(1.14)	0.00	(1.00)
보수적 이념 성향	-0.19***	(0.83)	-0.04	(0.96)	-0.14**	(0.87)	-0.14**	(0.87)

변수	대북지원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사회문화교류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경제협력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남북간 정기회담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새누리당 지지	0.20	(1.22)	0.19	(1.20)	0.08	(1.08)	0.14	(1.15)
더민주당 지지	0.72***	(2.05)	0.55***	(1.74)	0.55***	(1.74)	0.41**	(1.50)
국민의당 지지	0.69***	(2.00)	0.50***	(1.65)	-0.04	(0.96)	0.18	(1.19)
응답자수	1184		1184		1184		1184	
Log-Likelihood	-1423.4		-1465.1		-1455.7		-1402.2	
변수	대북제재와 압박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개성공단 재가동 (1: 매우 찬성 - 4: 매우 반대)		금강산관광 재개 (1: 매우 찬성 - 4: 매우 반대)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0	(1.00)	0.01**	(1.01)	0.01**	(1.01)		
여성	0.14	(1.15)	0.01	(1.01)	0.07	(1.08)		
교육수준	0.03	(1.03)	0.08	(1.09)	0.04	(1.04)		
소득수준	-0.04	(0.96)	0.06	(1.06)	0.08	(1.08)		
도시 거주	0.01	(1.01)	0.08	(1.08)	0.08	(1.08)		
보수적 이념 성향	0.06	(1.06)	-0.09	(0.92)	-0.05	(0.95)		
새누리당 지지	0.11	(1.12)	-0.18	(0.84)	-0.09	(0.92)		
더민주당 지지	-0.11	(0.90)	0.39***	(1.48)	0.32**	(1.38)		
국민의당 지지	-0.07	(0.93)	-0.06	(0.94)	0.14	(1.15)		
응답자수	1184		1184		1184			
Log-Likelihood	-1423.2		-1784.5		-1767.1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의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표 2-6-10〉에서 정리된 대북정책 인식의 이념적·당파적 추이를 보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더민주당의 당파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⁵¹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과 비교하면 더민주당의 지지층은 훨씬 크고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다만 이전의 통일 인식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2016년도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은, 자신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 대북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당파적 관점에 입각하여 바라보는 측면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념을 넘어선 당파적 경향의 증가는 통일 이슈에 이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표 2-6-10〉 대북정책 인식 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2011-2016)

년도	종속변수 (대북정책 인식)	독립 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6	대북지원 효용성	-0.19***	0.20	0.72***	0.69***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04	0.19	0.55***	0.50***
	경제협력 효용성	-0.14**	0.08	0.55***	-0.04
	남북회담 효용성	-0.14*	0.14	0.41*	0.18
	대북제재 효용성	0.06	0.11	-0.11	-0.07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	-0.09	-0.18	0.39***	-0.06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05	-0.09	0.32**	0.14
2015	대북지원 효용성	-0.23***	0.19	0.47***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18**	0.09	0.40**	
	경제협력 효용성	-0.36***	-0.09	0.31*	
	남북회담 효용성	-0.20***	-0.03	0.32*	
	개성공단 유지 찬성	-0.18**	0.11	0.41**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28***	0.22	0.31*		

51] 대북제재 효용성을 묻는 질문은 2016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질문으로, 이전년도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질문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으로 대체되었다.

년도	종속변수 (대북정책 인식)	독립 변수			국민의당 지지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2014	대북지원 효용성	0.08	-0.04	0.37*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09	-0.22	0.21	
	경제협력 효용성	-0.02	-0.23*	0.04	
	남북회담 효용성	0.06	-0.28**	0.20	
	개성공단 유지 찬성	-0.19***	-0.10	0.00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21***	-0.03	0.18	
2013	대북지원 효용성	-0.22***	-0.10	1.11***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16**	-0.18	0.35**	
	경제협력 효용성	-0.26***	0.05	0.58***	
	남북회담 효용성	-0.22***	0.02	0.33**	
	개성공단 유지 찬성	-0.32***	0.27**	0.13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14**	-0.04	0.61***	
2012	대북지원 효용성	-0.26***	-0.07	0.68***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33***	0.04	0.52***	
	경제협력 효용성	-0.36***	0.06	0.63***	
	남북회담 효용성	-0.22***	-0.15	0.68***	
	개성공단 유지 찬성	-0.31***	-0.18	0.65***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32***	0.02	0.48***	
2011	대북지원 효용성	-0.21***	-0.22	0.52***	n/a
	사회문화교류 효용성	-0.22***	-0.16	0.01	
	경제협력 효용성	-0.24***	-0.13	0.20	
	남북회담 효용성	-0.20***	-0.10	0.31*	
	개성공단 유지 찬성	-0.27***	-0.25*	0.66***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0.33***	-0.09	0.66***	

4) 정부 평가와 당파성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경제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평가 등 정부 평가에 미치는 이념과 당파성의 영향력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표 2-6-11>과 <표 2-6-12>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전의 항목들과 달리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층의 당파적 성향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비하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새누리당 지지자일수록 정부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2>의 회귀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은 무당파에 비해 2.09배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정당 지지집단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항목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층은 무당파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더민주당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유사하게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항목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모두에서 당파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도 특히 새누리당의 당파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통령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은 무당파에 비해 무려 7.32배나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항목에서 더민주당 지지층은 43.0% 더 낮은 확률을 보였다.

〈표 2-6-11〉 지지 정당에 따른 항목별 평균

지지 정당	정부의 대북정책 (1: 매우 불만족~ 4: 매우 만족)	현재의 경제상황 (1: 매우 불만족~ 4: 매우 만족)	대통령 직무평가 (1: 매우 잘 못하고 있다~ 4: 매우 잘하고 있다)
새누리당	2.65	2.09	2.87
더민주당	2.28	1.92	1.92
국민의당	2.42	2.06	2.15
무당파	2.35	1.95	2.14
전체 평균	2.42	1.99	2.30

〈표 2-6-12〉 정부 평가 결정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변수	정부의 대북정책		현재의 경제상황		대통령 직무평가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Coeffi.	Odds Ratio
나이	0.01	(1.01)	0.00	(1.00)	0.01***	(1.01)
여성	-0.04	(0.96)	0.13	(1.14)	0.24**	(1.28)
교육수준	-0.10	(0.91)	0.10	(1.10)	-0.13	(0.87)
소득수준	-0.03	(0.97)	-0.03	(0.97)	-0.04	(0.96)
도시 거주	0.03	(1.03)	0.10	(1.10)	-0.03	(0.97)
보수적 이념 성향	-0.01	(0.99)	-0.05	(0.95)	0.18**	(1.20)
새누리당 지지	0.74***	(2.09)	0.43***	(1.54)	1.99***	(7.32)
더민주당 지지	-0.18	(0.84)	-0.12	(0.88)	-0.56***	(0.57)
국민의당 지지	0.16	(1.18)	0.34*	(1.41)	0.12	(1.13)
응답자수	1184		1184		1184	
Log-Likelihood	-1229.1		-1132.0		-1184.3	

* Two-tailed test, *** p<.01, ** p<.05, * p<.1, 종속변수 각 값에 상응하는 잠재변수의 분기점(cut points)의 추정치는 표에서 생략함.

이러한 정부 평가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층의 당파적 경향은 2016년도 만의 결과는 아니었다. 〈표 2-6-13〉에 드러난 2011년부터의 결과를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더민주당에 비해 더욱 뚜렷하게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의 이념변수가 대통령 직무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반면, 예년 조사(2012-2014년)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념적 고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북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념보다는 당파에 의한 차이가 2016년 들어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6-13〉 정부 평가 변수에 대한 당파적 영향력 추이(2011-2016)

년도	종속변수 (정부 평가)	독립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6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01	0.74***	-0.18	0.16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5	0.43***	-0.12	0.34*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18***	1.99***	-0.56***	0.12
2015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10	0.55***	-0.24	n/a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4	0.17	-0.01	
2014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14*	1.44***	-0.91***	n/a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33***	0.73***	-0.45***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6	0.41***	-0.32**	
2013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26***	2.11***	-1.00***	n/a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14*	0.96***	-0.39**	
2012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01	0.48***	-0.37**	n/a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18**	1.92***	-0.86***	
2012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38***	0.64***	-0.41***	n/a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17**	0.36**	0.28*	
2012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29***	1.09***	-0.55***	

년도	종속변수 (정부 평가)	독립변수			
		이념적 성향	새누리당 지지	더민주당 지지	국민의당 지지
2011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0.02	0.66***	-0.39**	n/a
	현재의 경제상황 만족	-0.10	0.62***	-0.18	
	대통령 직무평가 만족	0.01	1.52***	-0.57***	

4. 소결

본 장은 국민들이 통일 이슈와 대북정책을 얼마나 당파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외식조사』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북정책과 정부에 대한 평가의 부문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의 통일외식은 2016년 들어 예년보다 양극화된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보다는 당파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일과 대북정책의 인식에서 이념 성향이 가지는 영향력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통일 이슈의 인식에서 두드러졌는데, 4개 항목 중 평균 2.6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예년과 달리, 2016년에는 어떠한 문항에서도 이념변수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대북정책의 인식에 있어서도 6개 중 평균 5.2개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이념변수는, 2016년에는 7개 중 단지 3개의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있어서도 이념 성향이 갖는 영향력은 예년과 달

리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경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당파성 변수들은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항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당파적 영향력은 이념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이념과 독립적으로 통일과 대북정책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당파적 편향을 보인 지지층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분석 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통일·대북정책의 ‘인식’ 부문과 ‘평가’ 부문에서 보인 당파적 경향이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통일과 대북정책의 인식에서는 더민주당 지지층이 두드러진 당파적 성향을 보인 반면, 정부의 대북정책과 직무평가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높은 수준의 당파적 차이를 보였다. 특히 통일과 대북정책의 인식에서는 뚜렷한 당파성을 보이지 않던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북정책과 대통령의 평가에 있어서는 가장 당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들이 어떠한 차별화된 이슈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기 보다는 당파성에 입각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파적 분열의 심화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이념적 신념과 이슈별 입장보다는 지지 정당에 따라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평가할수록, 관련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과 평가를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당파적으로 통일 이슈를 바라보고 평가한다면 정당 역시 합리성과 신중성에 근거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당파적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정권과 주변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통일·대북정책이 당파적 영향에 따라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해 드러난 통일의식에 대한 당파적 편향은 향후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북정책 마련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의식의 당파적 성향은 2016년만의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양극화 현상의 시작일까?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악화 일로에 있고, 제19대 대선이 열리는 2017년에는 이러한 통일·북한 이슈가 보다 뜨거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대선 후보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정치 양극화 경향과, EU와 난민문제 등으로 좌우 극단세력이 날 선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의 정치지형 등,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치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향후 중요한 정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6년 총선을 통하여 제3당으로 한국 정당정치에 새롭게 등장한 국민의당의 역할이 주목된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통일과 대북정책 인식, 정부 평가 등 전반적인 통일의식에 있어 대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중간, 내지는 더민주당에 조금 더 가까운 정도의 중도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인식 측면에서는, 통일을 보다 필요하고 이로운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누리당보다 더민주당에 조금 더 가까운 성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대체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당에

가까운 경향을 보였지만, 영향력의 유의미도와 크기 모두에서 더민주당보다는 당파적 성향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정부 평가에 있어서는 더민주당보다 새누리당에 보다 가까운 패턴을 보였다. 비록 경제평가 항목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긴 하였으나, 세 평가항목 모두에서 ‘양’의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항목에 걸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더민주당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정리하면, 국민의당 지지층의 인식과 평가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지지층의 중도적 입장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국민의당 지지집단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전년도 대비 무당파층의 감소, 더민주당과의 유사한 인구·이념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무당파 혹은 더민주당 지지층 중 중도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지지층의 성격이 그들의 통일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신지역과 소속정당에 따라 인식과 평가가 극명히 나뉘고 있는 기존의 양당 지지층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당 지지층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 나갈지가 향후 한국사회의 통일 이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지지집단에서 나타난 당파적 경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2016년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보인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을 기억하고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7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과
다문화 수용성

1. 서론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2016년 3만 명에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 하여도 천여 명에 불과했던 탈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른바 “탈북자 3만 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수적 증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 주민의 인식과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더 나아가 대북정책이나 통일 전망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수반할 것이다. 탈북자 3만 시대, 어떤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목해야 할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적 증가는 이들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 내부의 다양성이나 역동성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을 결정하는 동기가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경제적 궁핍을 모면하기 위한 이른바 ‘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자유에 대한 동경, 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

해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이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⁵² 그와 더불어 탈북자의 증가로 남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방송과 미디어에 탈북자들의 출연이 늘어나는 현상이 주목된다.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탈북자들의 미디어 출연 증가는 대북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탈북자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1년 말 출범한 종합편성채널들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의 크고 작은 사건과 소식을 전달하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남과 북에 각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에서 북한의 변화를 전달하는 동시에, 북한 사회의 폭압성과 후진성을 입증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⁵³ 그런데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하층민’, ‘이등시민’, ‘저임금 노동자’로 재현되는 기존의 전형적 미디어 콘텐츠와는 다른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일상적 생활경험이나 남한에서 성공한 긍정적 사례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들도 등장하였다.⁵⁴

52] 탈북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1년에는 66.7%였지만 2016년에는 12.0%에 그쳤다. 반면 ‘자유에 대한 동경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9.6%에서 34.8%로 늘었고, ‘정치에 대한 불만’이라는 대답도 6.2%에서 17.5%로 늘었다. 북한 거주 당시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탈북자는 2001년 이전 80.6%에서 2014~2016년 44.1%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한국일보 2016. 11. 13 인터넷 판 보도).

53] 김명준·임종섭, “탈북자의 미디어 등장과 ‘북한정보’ 흐름의 변화 - ‘통제’에서 ‘경쟁’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3집 2호 (2015), p. 59.

54] 종편 채널에서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남북녀> 등 주로 탈북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탈북자 이미지와는 다른 긍정적이고 밝은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이른바 ‘북한 미인’들을 출연시켜 탈북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선민, “탈북 여성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 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문화』 29권 2호 (2014), pp. 75~115; 장영은·박지훈, “북한과 탈북자를 재현하는 텔레비전에 대한 수용자의 시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대한 수용자 해독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7권 (2015), pp. 225~254.)

북한이탈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탈북자 이미지의 다양한 재현이 늘어나는 현상은 탈북자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확대하면서 이들과의 이질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탈북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은연중에 미디어를 통해 더 증폭됨으로써 이들을 지속적으로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대중들의 정서적 반응이나 심리적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북한과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담론 지형과 정책의 지향성과도 연관된다. 실제 탈북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민족적 당위의 차원이 아니라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다.⁵⁵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북한과 북한 주민을 혈연공동체이자 당위적인 통일의 대상으로 상정한다. 탈북자는 다른 이주민과 차별화된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며, 이들의 사회통합은 민족 정체성 강화를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민족주의 담론은 탈북자들이 남한의 삶에서 직면하는 현실, 문화적 소외와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이 다른 이주민이나 사회적 소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간의 문화와 생활양식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이주민 소수자를 포용하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탈북자의 사회통합을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한다. 민족주의 접근은 단일민족 신화에 기반한 상상된 필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다문화주의 담론은 보다 최근에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보이는 일종의 대안적 움직임으로, 평등과 상호주의에 기반하

55] 윤인진, "북한 이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 『재외한인연구』 30호 (2013), pp. 7~40;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게 맡길기," 『북한경제리뷰』 10월호 (2011), pp. 62~78; 천경호, "단일민족과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북한 바라보기: 고정된 역사 속에서의 타자화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3집 1호 (2015), pp. 274~299.

여 추상적이고 편협한 기존의 민족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⁵⁶

탈북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탈북자의 증가나 미디어 재현의 변화 뿐 아니라 이들을 수용하는 남한 사회 자체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양극화와 계층 및 세대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새로운 격차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 및 균열 현상들이 남한 사회 내부에서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도성장이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시대가 점차 저물고 이제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사회적 위협과 불안, 그리고 존재론적 안전(ontological security)에 대한 우려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우리 안의 타자이자 소수자인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⁵⁷

이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 위에서 2016년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한국인들의 태도 변화가 대북 인식 및 통일 전망, 그리고 탈북자의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2절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다른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비교하여 분석하며, 아울러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변화도 시계열적으로 고찰한다. 3절은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지표로 삼아 2007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시계열적 변화를 다룬다.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탈북자와의 접촉, 북한 인식, 통일 인식의 영향도 분석한다. 4절은

56] 천경호, 위의 글, p. 277.

57] 황정미, "사회적 위협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 연구』, 제23권 2호(2016), pp.311~346.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와 탈북자 인식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5절에서는 경험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정리할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정책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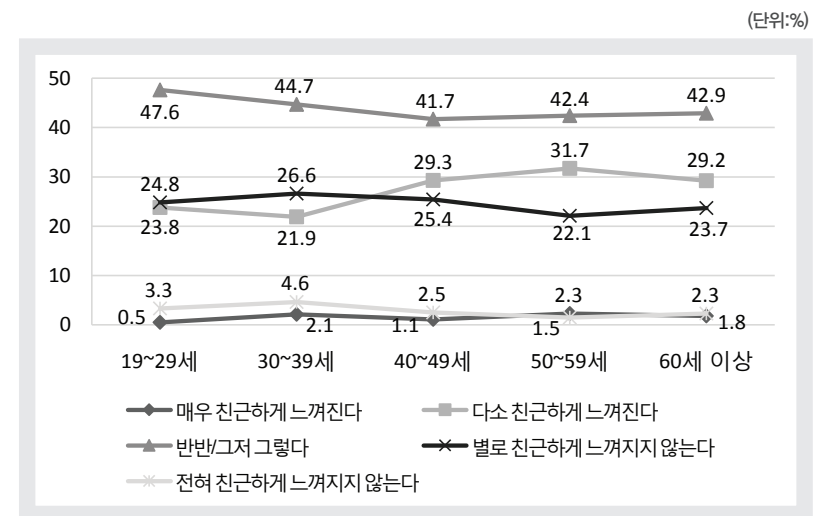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탈북자를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는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⁵⁸ 탈북자는 남한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망명자로 인식되어 왔지만,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최근 들어 이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탈북자들은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이주민으로써 남한 사회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이주형 탈북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문항은 이러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내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9.0%가 탈북자를 친근하게 느낀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친근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27.3%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엇비슷하다. 한편 ‘반반이다’는 중립적 대답이 43.7%로 가장 많다.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탈북자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다는 유보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을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구소득별로 나누어 보면 다소간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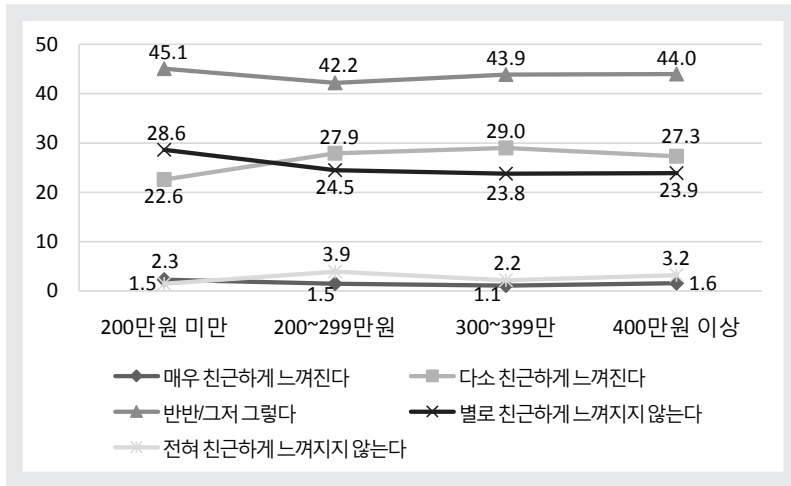
대와 30대 젊은층에서 낮은 반면 5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30대 응답자는 부정적 응답이 높은 편이며, 아울러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 의견이 가장 많다(4.6%).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친근감이 높은 데 비해, 고졸 응답자가 가장 친근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7-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연령별 분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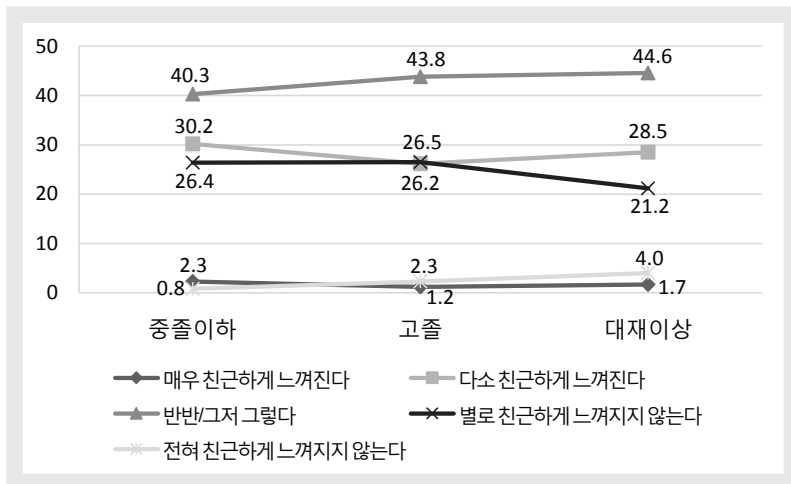


58]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는 친근감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로 조사하는 동시에 다른 국내거주 이주민과의 친근감을 같이 조사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조정하였다.

〈그림 2-7-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가구소득수준별 분포(2016)
(단위:%)



〈그림 2-7-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 교육수준별 분포(2016)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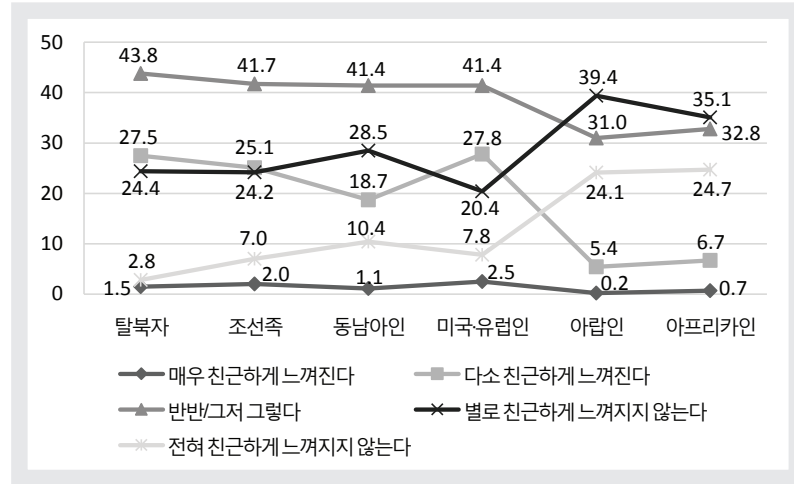
2) 탈북자와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평균 비교

이번 조사에서는 탈북자와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같이 조사하였다. 탈북자는 정치적 망명자인 동시에 이주민이라는 차원에서 실제 남한 주민들은 느끼는 친근감을 다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분석이다. 탈북자, 조선족과 더불어 4개 지역출신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조사한 결과, 유럽·미국인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긍정적 응답(30.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탈북자(30.0%), 조선족(27.1%), 동남아인(19.8%), 아프리카인(7.4%), 아랍인(5.6%)의 순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와 조선족을 비교적 친근하게 느끼는 민족적 정서도 나타나지만, 아울러 서구 백인을 선호하는 반면 아프리카·아랍인을 경원시하는 인종주의적 태도도 동시에 관찰된다.

한편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률은 탈북자가 27.2%로 미국·유럽인(28.2%)보다 약간 낮다. 특히 탈북자에 대해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 의견은 2.8%로, 미국·유럽인(7.8%)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른바 선진국 출신인 미국·유럽인에 비해 북한 출신 탈북자들을 더 친근하게 느끼지는 않지만, 또한 ‘전혀 친근하지 않다’는 거부감도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부정적 태도는 조선족의 경우 31.2%, 동남아인이 38.9%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아프리카인(59.8%), 아랍인(63.5%)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은 확연하게 높아진다. 저개발국이나 이슬람권 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4〉 탈북자와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2016)

(단위:%)



이러한 친근감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와 조선족을 포함한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평균점수(5점 척도)를 산출하여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전체 평균 점수로 친근감의 순위를 살펴보면 탈북자(3.00)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미국·유럽인(2.97), 조선족 (2.91), 동남아인(2.72), 아프리카인(2.24), 그리고 아랍인(2.18)의 순이다. 외국 출신 이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지만, 민족적 동질성이 높은 조선족보다 미국·유럽인, 즉 서구출신의 이주민을 더 친근하게 여기는 태도 또한 주목된다.

성별로는 친근감 척도 점수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다. 각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보면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드러난다.

다. 미국·유럽인과 동남아인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이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대체로 비슷한 태도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데 탈북자와 조선족에 대한 친근감은 주로 연령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20대와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탈북자, 조선족에 대한 친근감이 낮은 편이며, 가장 친근감이 높은층은 50대이다. 한편 아프리카와 아랍 출신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보다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띈다. 주로 고졸 학력층의 친근감이 낮은 반면, 대재 이상, 그리고 중졸이하 층에서는 비교적 친근감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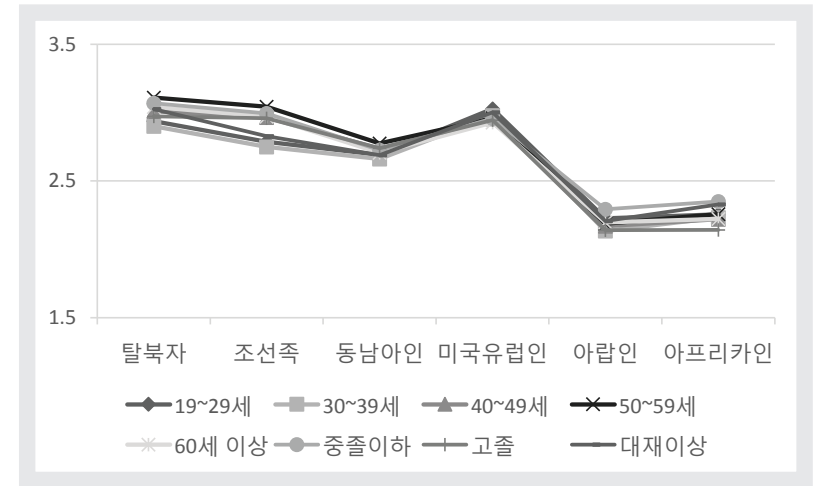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결과와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응답자들은 다른 외국출신 이주민보다 탈북자를 조금이나마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백분율 기준으로는 미국·유럽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다소 높지만, 척도 점수로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다.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미국·유럽 출신 외국인에 대한 친근감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 출신 조선족보다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주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30대 응답자들의 친근감이 가장 낮고 20대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탈북자와 조선족을 제외한 외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친근감에서는 이와 같은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탈북자와 조선족에 대한 친근감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연령별 학력별 분포에서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발견된다.

〈표 2-7-1〉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2016)
(단위: 5점 척도 평균점수)

구분		탈북자	조선족	동남아인	미국·유럽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성별	남성	2.99	2.91	2.70	2.99	2.18	2.25
	여성	3.02	2.91	2.73	2.95	2.18	2.23
연령	19~29세	2.94	2.79	2.69	3.03	2.23	2.26
	30~39세	2.90	2.75	2.66	2.98	2.13	2.23
	40~49세	3.01	2.96	2.74	2.95	2.17	2.22
	50~59세	3.11	3.04	2.78	2.96	2.19	2.26
	60세 이상	3.04	2.97	2.71	2.93	2.20	2.22
	F	2.464*	4.676**	0.551	0.332	0.352	0.097
교육 수준	중졸이하	3.07	2.99	2.73	2.96	2.29	2.35
	고졸	2.97	2.96	2.74	2.94	2.14	2.14
	대재이상	3.03	2.83	2.69	3.00	2.21	2.33
	F	0.947	3.291*	0.405	0.51	1.942	6.492**
전 체		3.00	2.91	2.72	2.97	2.18	2.24

*: p< .05, **: p<.01, ***: p<.001)

〈그림 2-7-5〉 국내거주 이주민에 대한 친근감 : 연령 및 교육수준별(2016)
(단위: 5점 척도 평균점수)



3)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3만 명 규모로 증가하였고, 탈북자 지원 정책의 규모와 이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해를 거듭할수록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원하는 사람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사를 시작한 2005년에는 52.0%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33.8%로 감소하였다. 반면 탈북자를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태도는 2007년 10.8%에서 2016년 14.8%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과반의 응답자(51.4%)는 원하는 사람 중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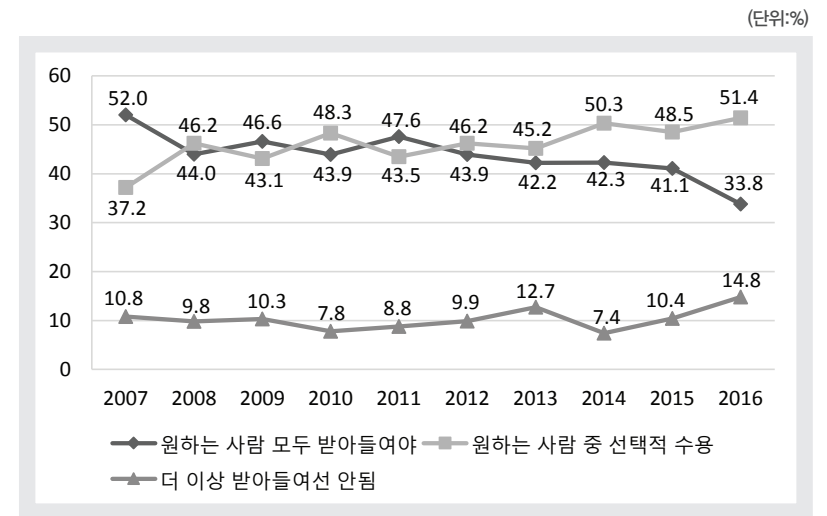
이처럼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2007년의 여론 흐름은 이제 과반수가 ‘선택적 수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조사에서는 탈북자 중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선택적 수용이란 이민정책에서 흔히 등장하는 담론이며, 수용국의 사회적 기준에 적합한 사람, 수용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집단을 걸러내겠다는 의미, 곧 동화주의 입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⁵⁹⁾ 이는 또한 헌법상 ‘국민’의 지위에 있는 탈북자들, 또는 탈출 과정에서 ‘난민’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인권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일보 후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탈북자 수용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이민 담론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6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의견(40.3%)보다 부정적 의견(58.7%)이 우세한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탈북자가 늘어나면 남한 주민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태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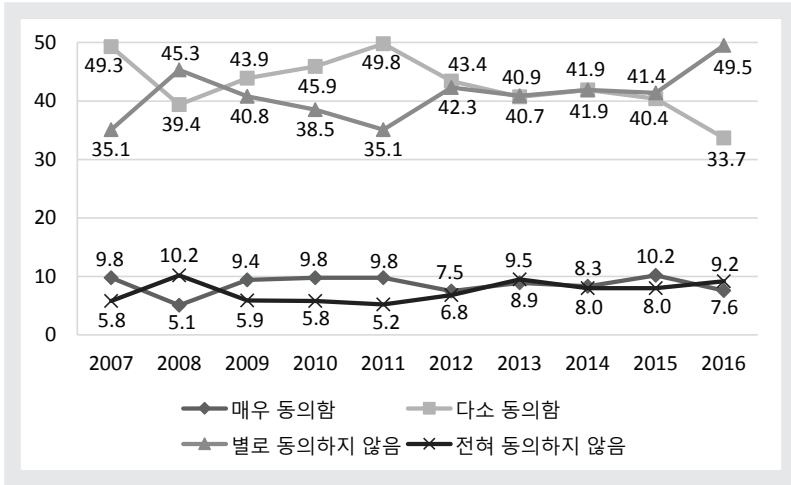
리고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는 이주민이 늘어나면 노동시장 경쟁이 더 심화되어 남한 주민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 그리고 이주민과 소수자를 위한 우대 조치나 정책적 지원들을 경계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대되는 흐름은 일반적으로 이민자를 배제하는 태도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림 2-7-6〉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2007-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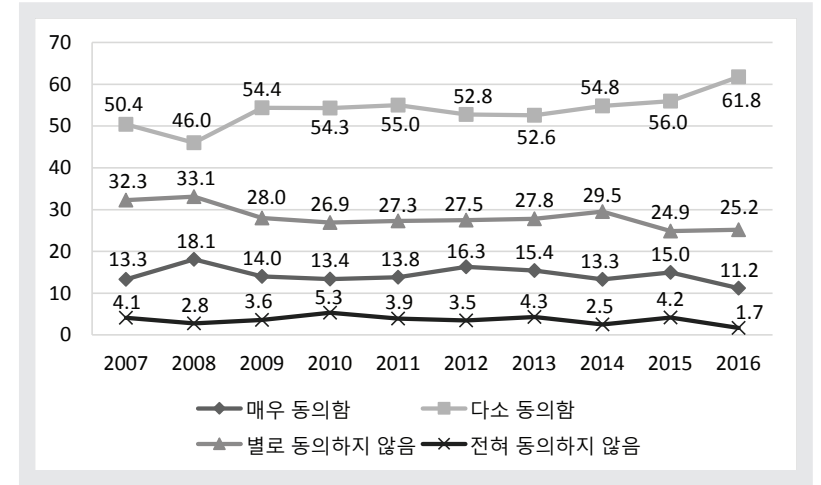


59)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2007년 63.7% → 2010년 67.7% → 2014년 68.0% → 2016년 73.0%). 이로부터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 속에 한국사회의 조직생활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이민정책에서 능력 있는 사람, 사회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유사한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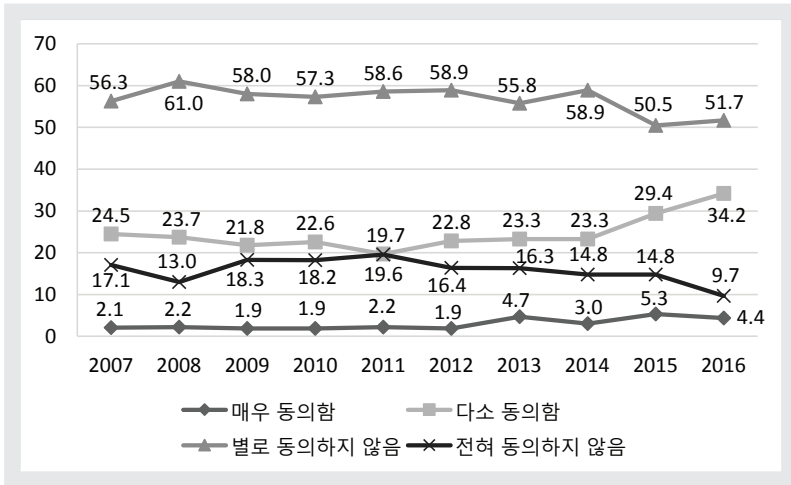
〈그림 2-7-7〉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2007-2016)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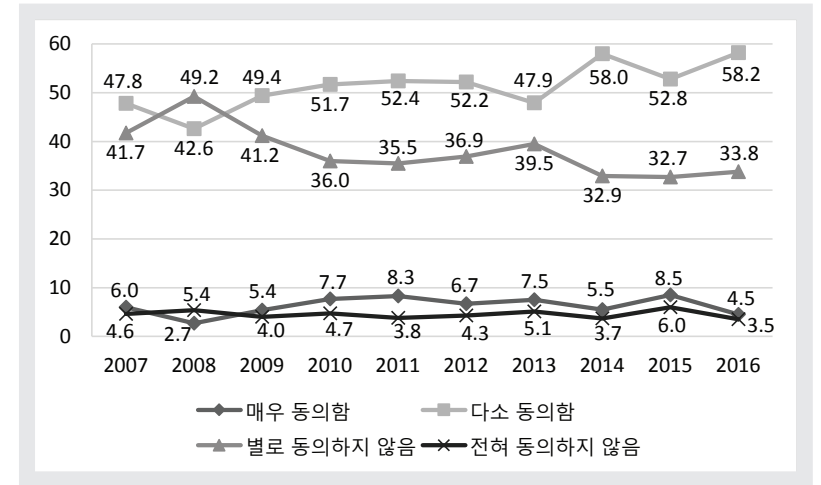
〈그림 2-7-9〉 '탈북자도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에 대한 의견(2007-2016)
(단위:%)



〈그림 2-7-8〉 '탈북자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에 대한 의견(2007-2016)
(단위:%)



〈그림 2-7-10〉 '탈북자들은 남북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의견(2007-2016)
(단위:%)



한편 탈북자들이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응답률은 2007년 53.8%, 2010년 58.7%에서 2014년에는 61.3%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사(2016년)에서는 62.7%로 더욱 높아졌다. 탈북자 관련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확대되는데 비해, 탈북자들이 통일을 위한 이질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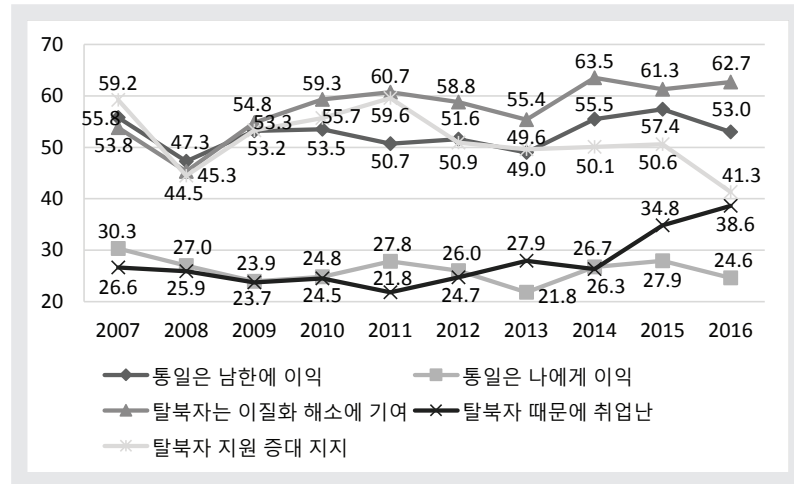
탈북자의 사회적 기여나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태도는 통일을 바라보는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지원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첨예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통일이 남한 사회나 개인의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즉 통일의 편익에 대한 태도는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과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의 편익과 탈북자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의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7-11〉에서 보듯이, 통일의 사회적 편익에 비해 개인적 편익에 대한 기대는 확연히 낮으며, 이러한 격차는 평행선을 그리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의 사회적 편익과 개인적 편익에 대한 기대는 2016년 조사에서 동시에 떨어지는 흐름을 보인다. 그와 동시에 탈북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 그리고 탈북자로 인한 취업난에 대한 우려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이 가져올 이익은 낮게 평가하고, 탈북자 증가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이나 위협을 더 크게 인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탈북자들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응답의 시계열적 추이는 통일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정책 비용이나 통일의 편익이 합리적 계산의 영역이라면, 남북간의 이질화 해소는 이와 구분되는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탈북자 정책 지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민족적 동질성을 중시하는 태도와 이주민 증가의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태도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전에 비해 탈북자의 수용이나 정책적 지원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며, 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의 증가가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던 정책 지원이나 자원 배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탈북자도 다른 이주민과 마찬가지로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은 국경관리를 통해 수용국에 필요한 인재를 선별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민정책의 담론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통일이라는 민족공동체의 지상과제에서 남북간의 이질성을 완화하고 두 체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통일과 민족동질성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적 담론이 탈북자를 바라보는 태도에 부분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7-11〉 통일의 이익과 탈북자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2007-2016)
(단위:%)



찬성응답률: "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

3.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통일·북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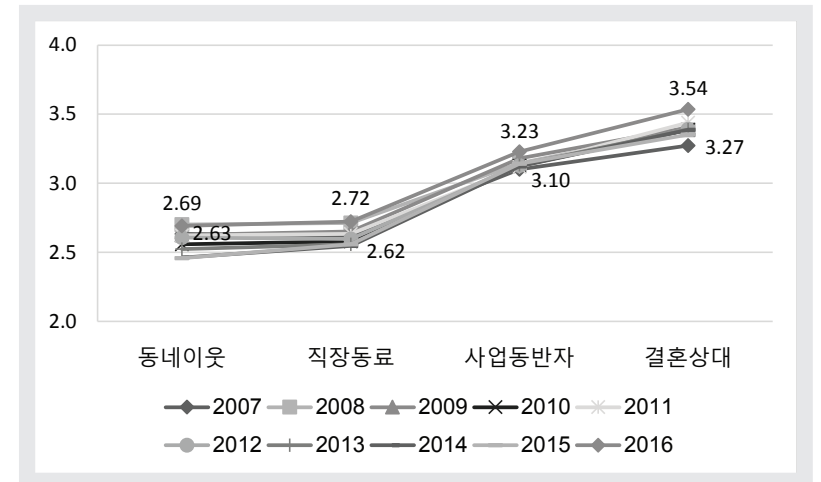
1)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시계열 분석

사회학에서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상이한 외집단(outgroup)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이다. 사회적 거리 측정의 고전적 지표인 보가더스 척도를 약간 변형하여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조사하였다. 즉, 탈북자를 결혼상대(가족), 사업동반자, 직장동료,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혹은 꺼리는지 여부를 각각 5점 척도로 물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더 멀어진다는 의미이다.

2007년과 2016년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일정하게 거리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지난 9년간의 태도 변화가 일관되게 거리감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이후에는 탈북자를 이전보다 소원하게 느끼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림 2-7-1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2014-2016)
(단위: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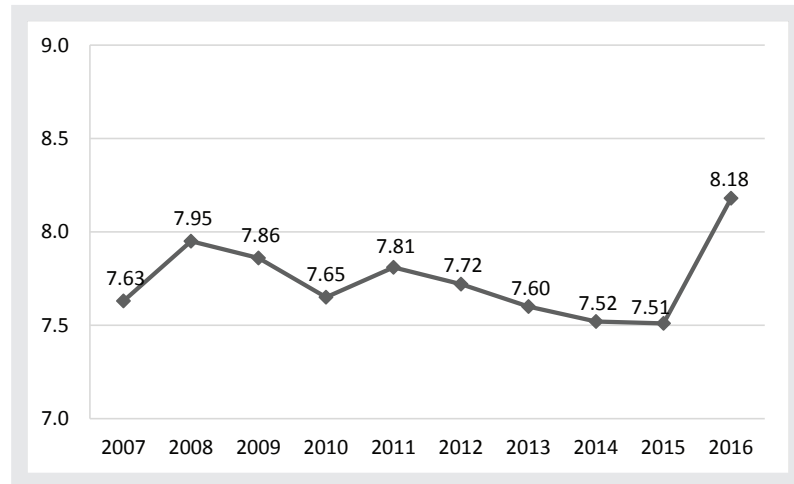
* 1점: 전혀 꺼리지 않음, 5점: 매우 꺼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합산한 값을 구하였다.⁶⁰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60] '전혀 꺼리지 않는다'를 0점(즉 거리없음)으로, '매우 꺼린다'를 4점으로 다시 코딩하고, 전체 합산 점수를 구하여 각 응답자의 사회적 거리 점수로 산출하였다. 사회적 거리 합산점수는 0점에서 16점 사이에 있다.

새로 산출한 사회적 거리 총점의 평균값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추세가 나타난다.(그림 2-7-13).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일정한 진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2016년 조사 결과는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다시금 확대되어 지난 9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2-7-13〉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합산점수) 시계열 추이(2007-2016)
(단위:척도 점수*)



* 0점~16점, 점수가 클수록 거리감도 커짐

그렇다면 2016년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확연히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변화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세대별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하였듯이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세대별로 상이한 인식의 흐름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 세대(generation)은 연령집단과는 구분되는 일종의 코호트(cohort) 개념이며, 김병조(2015)⁶¹의 논의를 기준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4개 세대로 구분하였다. 김병조의 연구는 일반적인 한국의 세대분석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청소년기에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를 네 집단으로 구분하며, 각각 체제경쟁세대(1941~60년생), 민주화통일세대(1961~70년생), 탈냉전통일세대(1971~80년생), 그리고 통일준비세대(1981~1996년생)으로 이름 붙였다. 세대 구분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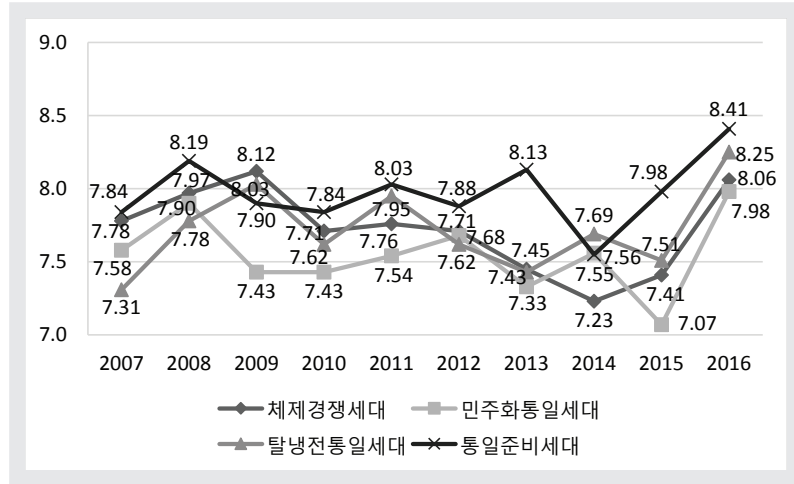
〈표 2-7-2〉 통일 및 남북관계와 세대 구분

세대명칭	출생년도	현재 연령 (2016)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 경험
체제경쟁세대	1941-60	56세 이상	반공국시, 무장공비, 1.21 사태, 7.4 남북 공동선언, 유신체제, 베트남 패망
민주화통일세대	1961-70	46-55세	산업화, 민주화, 서울 올림픽, 북한 바로알기
탈냉전통일세대	1971-80	36-45세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한이탈주민, 금강산 관광
통일준비세대	1996-81	20-35세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 출처: 김병조, 2016, 184쪽. 현재연령은 2016년 기준으로 수정함

61] 김병조,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박명규 외. 『2015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그림 2-7-14〉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합산점수) : 세대별 변화(2007-2016)
(단위:척도점수)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합산점수)의 시계열 변화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그림 2-7-14),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각 세대별로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의 진동이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민주화 통일세대(1961-1970년생)가 상대적으로 탈북자를 가깝게 느끼는 반면, 통일준비세대(1996-1981년생)가 좀 더 탈북자를 꺼려하는 태도가 나타나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이러한 순서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2016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대 간의 격차도 2015년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들어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해 가장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화 통일세대가 이전에 비해 거리감이 확연히 늘어났고, 체제경쟁세대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2016년 조사에서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더 멀어진 현상은 이전 조사에 비해 모든 세대 응답자들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일준비세대와 탈냉전 통일세대에서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크게 높아졌다.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에서 세대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며 일정하게 수렴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탈북자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2) 평균비교 분석 : 사회적 거리와 접촉·대북인식·통일인식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전반적으로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거리감이 어떤 요인에 의해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나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접촉'을 주목하고 있다.⁶² 탈북자와 북한 문화와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접촉이 없는 사람에 비해 탈북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을 꺼려하는 사회적 거리도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이다.(접촉가설).

다른 한편,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은 무엇보다 탈북자가 북한출신이라는 사실 자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과 구분하지 않으며,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문화 재현물에서 탈북자는 “걸어 다니는 북한”으로 간주되며, 북한 사회의 모든 특징을 대변하는 존재로 나타난다.⁶³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온 이후 어떤 행동이나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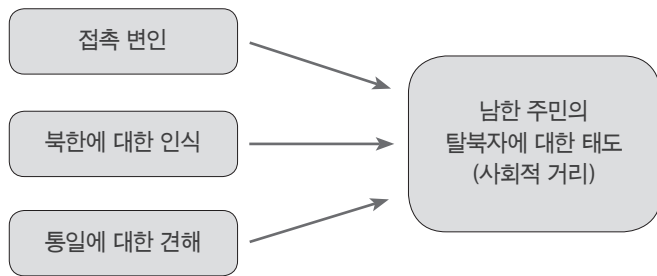
62] 이수정·양계민, "북한출신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3), pp. 395-420.

63] 김영숙, "탈북의 영화적 표상과 공간 상상," 『영화 연구』 51호 (2012), pp. 185-212.

할을 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좌우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를 주목할 수 있다. 탈북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들이 미래의 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 조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좁혀지거나 더 확대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평균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그림 2-7-15).

〈그림 2-7-15〉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세 가지 요인



접촉 요인은 북한 방문과 관광, 탈북자와의 만남, 그리고 북한문화 접촉 경험 여부로 측정하였고, 이러한 접촉 여부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세 항목 모두에서 탈북자 또는 북한과의 접촉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탈북자 만남 여부에 따른 차이이다. 탈북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합산점수)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험이 사회적 거리감을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⁶⁴ 응답자 중 탈북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171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2015년 조사와 2016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⁶⁵

〈표 2-7-3〉 “접촉” 변인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16)

(단위: 사회적거리 합산점수)

문항	구분	N	평균값	유의도
북한 방문·관광	있다	25	8.1639	t= .022
	없다	1176	8.1780	
탈북자 만남	있다	171	7.2429	t= 4.243***
	없다	1030	8.3324	
북한문화 접촉	있다	260	8.1023	t= .439
	없다	941	8.1985	

북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탈북자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 또는 ‘협력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반면 북한을 ‘경계 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북한 인식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점수의 차이는 접촉 요인에 따른 차이보다 더 크다.

64] 이수정·양계민, 위의 글.

65] 황정미, “다문화 시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박명규 외, 『2015 통일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p. 250~276.

〈표 2-7-4〉 북한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2016)
(단위: 사회적거리 합산점수)

북한 인식	평균	N	표준 편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	7.6257	139	3.38278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7.6408	525	3.12568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	8.5138	99	2.46813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9.1144	260	2.98999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	8.6382	178	3.05893
전체 (F= 12.429***)	8.1777	1201	3.12778

한편 통일에 대한 인식도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도록 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분단된 상태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도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조속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탈북자를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2-7-5〉 통일 인식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2016)
(단위: 사회적거리 합산점수)

북한 인식	평균	N	표준 편차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7.5441	157	3.56778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7.9236	650	2.97476
현재대로가 좋다	9.0415	279	3.1101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8.3894	115	2.96557
전체 (F= 11.226***)	8.1777	1201	3.12778

평균비교분석(ANOVA) 결과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접촉요인, 북한 인식, 통일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인식에 따른 거리감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2016년 조사에서 나타난 거리감의 확대에도 북한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시계열 변화와 평균비교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갈등 심화,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남북간 교류 채널이 단절되기에 이른 대북 정책의 축소,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확대 등은 탈북자를 더욱 소원하게 느끼는 태도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문화 수용성, 이주자 인식과 탈북자 사회통합

앞서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에는 민족동질성과 통일을 중시하는 민족주의적 관점 뿐 아니라 다문화주의의 시각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탈북자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연관성은 이런 차원에서 많은 연구자들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다문화수용성, 즉, 이주민의 증가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의 증가를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한데, 이번 조사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측정하였다.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즉,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 의견은 2016년 조사에서 2015년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조사 중 가장 낮은 수

준을 보인다. (5점 척도 점수 3.48).⁶⁶ 한편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역문항을 재코딩하여 분석)에 대한 의견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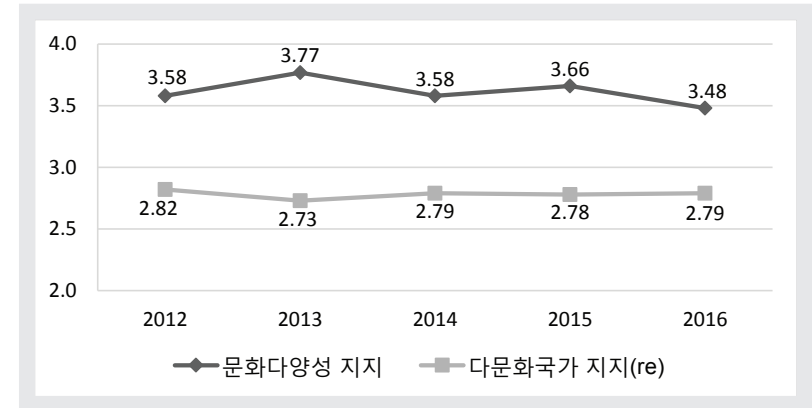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체류 외국인 규모가 190만 명을 넘어섰다.⁶⁷ 그런데 이주민이 늘어날수록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16년에는 다문화 수용성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축소되는 변화는 앞서 살펴본 탈북자 수용에 대한 지지도 감소,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확대 등과도 일정하게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66]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 다양성 공존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 차이를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 18.518***)

67]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9,195명이다. (http://www.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6//20161223272626_1_1.hwp.files/Sections1.html)

〈그림 2-7-16〉 다문화 수용성의 시계열 변화(2012-2016)

(단위:평균, 5점척도 점수)



다문화 수용성이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다문화 수용성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 통일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통일 인식이나 북한인식에 영향을 받는 것과 더불어 이주민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점수 (5점 척도, 평균)가 탈북자 수용 및 북한 인식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 평균비교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 2-7-6〉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2016)
(단위:5점 척도 평균값)

탈북자 수용에 대한 견해	다문화 수용성	
	문화다양성 지지	다문화국가 지지 (re)
원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야	3.72	2.85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3.57	2.73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됨	3.41	2.78
차이 검정 (F)	40.326***	12.926***

〈표 2-7-7〉 다문화 수용성과 통일에 대한 의견(2016)
(단위:5점 척도 평균값)

통일 인식	다문화 수용성	
	문화다양성 지지	다문화국가 지지 (re)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3.73	2.8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66	2.80
현재대로가 좋다	3.50	2.73
통일에 관심 없다	3.35	2.72
차이 검정 (F)	30.931***	2.974*

〈표 2-7-6〉에 보듯이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수용성과 연관되어 있다. 남한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표 2-7-7). 인종·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는데 찬성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일견 통일이나 민족 동질성을

중시하는 태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결과는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태도가 탈북자 수용 및 통일 지지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 소결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탈북자의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담론 지형은 복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민족적 당위인 통일 문제의 일환으로, 곧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통합과 다문화주의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시각도 대두하고 있다. 2016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거리감, 탈북자 지원 정책,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과 탈북자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민족주의나 다문화주의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북자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에는 상당부분 이민 정책 담론이나 다문화주의 가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통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특수한 민족 통합의 문제로만 탈북자 문제를 더 이상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시각이 탈북자에 대한 인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일 인식이나 남북 이질감 해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담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며, 민족통합과 이민

자 통합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탈북자의 사회통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고, 탈북자를 남한사회로 수용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의 증가를 경계시하고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맡겨짐 동화되어야 한다는 전형적인 이민정책 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선택적 수용'이라는 표현이 탈북자와 이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민정책 담론은 탈북자 수용태도에 다소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다문화 수용성은 탈북자를 수용하는 태도와도 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표현하면, 이민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가 확대되면 탈북자에 관용적인 태도도 함께 강화되며, 이민자를 배타시하는 태도가 확산되면 탈북자 역시 타자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민담론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지만, 다문화주의 혹은 반다문화주의 담론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확대되고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증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탈북자를 포함한 이주민의 증가는 기존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과 자원 배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이질화 해소와 동질성 증진이라는 규범적 역할에 있어서는 탈북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다. 이 지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이민 문제에 대한 태도와 분리되고 있다.

탈북자의 사회통합은 통일 국가의 형성이라는 민족적 과제, 그리고 이민자와 소수자의 사회통합과 사회정의의 확립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중첩되는 영역이다.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는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이미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교차하면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분석의 누적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적 모색이 필요하다. 즉, 통일의 과제를 소수자 통합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제도화, 통합적이고 관용적인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복합적 차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탈북자 사회통합 문제는 한반도에 특수한 '민족적' 쟁점인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민족·종족적 소수자를 수용하고 통합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보편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결장



결장

2016년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는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통일의식이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그때그때의 국내외적 정세에 영향을 받아 상당한 진폭을 가지고 변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통일 의식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첫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가 조금 넘는 범위 안에서 매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소폭이기는 하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젊은 세대였

다. 20대와 30대에서 통일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다른 세대와의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단순히 중장년층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10년 전의 같은 세대에 비해서도 약화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될 것이란 예상을 낳게 한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것은 통일의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10년 전인 2007년과 2008년의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통일의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와 같이 민족주의적 정서와 역사성에 기대는 응답이 50%를 넘게 차지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응답은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올해의 조사에서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를 밑도는 38.6%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반면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실용적, 도구적 관점의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상황은 전쟁의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파급되는 국내정치적 안보 불안과 국제정세의 악화, 그리고 지정학적 위협의 증가로 인한 국가신뢰도 하락 등 여러 정치경제적 불안 요소로 인해 남한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즉, 남북 간의 대치라는 안보적 상황은 정치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희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역시 자신이 속한 이념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나뉘어지면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되어온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안보 위협은 한국 경제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한 가지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렇게 분단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을 원하는 시각이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이 그만큼 실용적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앞선 통일에 대한 열망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시각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실용주의적 관점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해 갖는 견해는 점차 부정적이 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통일에 대한 실용주의적 시각이 곧 통일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보다 회의적인 답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이 빈부격차, 실업과 범죄 문제, 지역과 이념 갈등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통일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회의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통일이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50% 안팎에 불과해 ‘그렇지 않을 것이다’란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 10년간 20-30%에 해당하는 응답자만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점차 실용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단이라는 현재 상황이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를 없애고자 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통일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확대됨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적 인식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경제협력과 남북 간 정기적 회담 등 일련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이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남북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마저도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중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남북 간의 갈등 상황이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지속되면서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일정한 방향으로의 변화한 또 다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조건적 수용과 정부의 지원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과 경제상황의 악화를 반영하듯,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탈북자들 역시 조직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탈북 인구가 많지 않던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이들에 대한 수용적인 입장이 주를 이뤘지만, 탈북민의 수가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남한의 경제적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서 이들을 사회적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넘어 어떻게 탈북민을 향한 관용의 정신을 기르고 한 국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이루어나갈지가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매년 다소간의 진폭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친밀하게 느끼는 시각이 증가한 반면, 북한에 대한 시각은 보다 부정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특히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게 하락하였는데,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공포정치와 계속되는 대남 도발 등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지난 10년간의 조사가 대부분 보수 정권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친미적 외교노선이 국민들의 의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조사년도에 따라 오르고 내림을 반복함으로써, 아직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불확정적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국을 경제나 적대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지난 조사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남북관계 악화가 중국의 책임이라 보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다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의 노선에 있어 미국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협력과 공조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통일의식은 많은 부문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든 부문에서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올해, 내지는 지난 2-3년간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들이 포착되었는데, 먼저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개선된 점을 들 수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2012-2013년 김정은 정권 초반에 최고조로 악화되었던 부정적 시각이 올해에는 어느 정도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얼마나 북한의 책임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16년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일견 의외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예전만큼의 안보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번의 핵실험은 그 자체가 가지는 안보적 위협보다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국내적, 국제적 상황이 국민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도발 자체는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낳으면서 북한 문제가 우리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어느 정도 국내적 안보불안의 요소가 희석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면서, 내부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안보위협보다 더 큰 정치적 이슈들을 낳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올해 나타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의 감소는 이러한 특수한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올해의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답변할 만큼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악화되는 남북 관계로 인해 최근 3년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하락하였고, 올해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를 밑도는 응답자들만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역시 예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음을 올해의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탈북민을 동네 이웃, 직장 동료, 사업동반자, 그리고 결혼상대로 얼마나 꺼리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꺼린다는 응답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작년까지 꾸준히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줄어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젊은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확대되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의 증가는 지속되는 남북관계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 간 남한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나빠지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탈북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나타난 변화로는, 사회집단에 따른 통일의식의 분화가 더욱 심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성별 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이념과 당파적 성향에 따른 의식의 분화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관찰된 현상이다. 이는 통일의식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사회가 다변화되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

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분화가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더욱 높은 수준에서 나타났는데,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유, 북한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등 거의 모든 조사부문에서 사회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김정은 정권 초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 배경변수들의 차이를 잠식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수렴했던 것과 비교할 때, 최근 2-3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지지 정당에 따른 당파적 성향을 들 수 있다. 여러 인구통계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정당의 지지집단이 서로 얼마나 다른 통일의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항목에서 당파성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당파적 영향력의 증가는 진보-보수의 이념성향이 갖는 영향력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은 것과는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2016년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이념적 입장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집단에 따른 통일의식의 분화가 마냥 긍정적인 현상만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집단에 따른 의식과 태도의 분화가 적절한 수준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 따른 편향과 균열이 일정 수준을 넘어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는 국민적 합의를 저해하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나타난 사회집단별 인식 분화의 심

화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사회적 양극화의 시초인지는 향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들의 통일인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그중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 변화도 있었고, 예년과 달리 올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도 있었다. 2016년의 조사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과 효용성이 약화되고, 통일을 보다 실용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대북정책과 탈북민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하고,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는 등 이전까지의 조사에서 나타난 경향이 지속되었다. 반면,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불안이 다소 완화되고,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떨어지며,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증가하고, 집단별 인식의 분화, 특히 당파성에 따른 의식의 차별화가 심화된 점은, 올해 내지는 최근 2-3년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역시 국내외적으로 굵직한 정치적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19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며, 유럽에서는 브렉시트가 촉발한 EU의 정당성이 시험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국내외적 격동이 한국인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러한 변화는 기존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양상을 띠는 것인지 계속해서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부 록



1.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 ^{*)}	± 2.8% (95% 신뢰수준)

〈주〉*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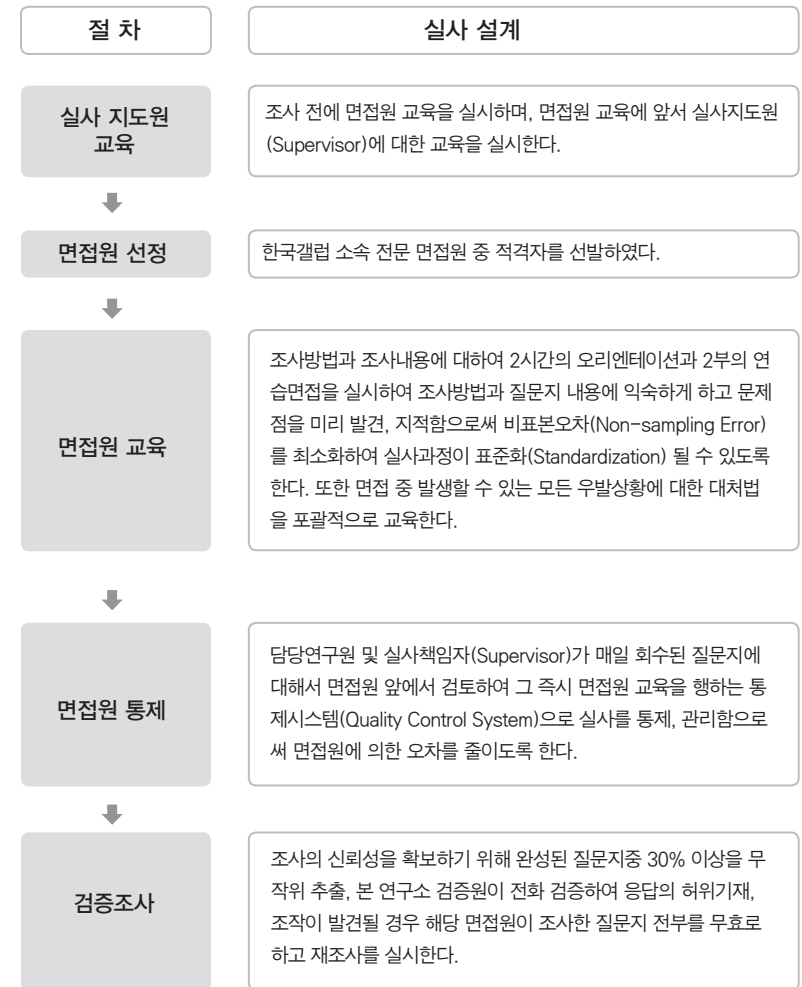
〈표본 할당〉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74세		
서울특별시	남자	19	21	22	20	17	99	199
	여자	18	21	21	21	19	100	
부산광역시	남자	7	8	9	9	8	41	82
	여자	6	7	9	10	9	41	
대구광역시	남자	6	6	7	7	5	31	63
	여자	5	6	8	7	6	32	
인천광역시	남자	7	7	8	8	5	35	70
	여자	6	7	8	8	6	35	
광주광역시	남자	4	5	5	5	3	22	44
	여자	4	4	5	5	4	22	
대전광역시	남자	5	5	5	5	4	24	47
	여자	4	5	5	5	4	23	
울산광역시	남자	4	4	5	5	3	21	40
	여자	3	4	5	4	3	19	
경기도	남자	22	25	29	25	17	118	232
	여자	20	24	28	24	18	114	
강원도	남자	4	4	5	6	5	24	46
	여자	3	4	5	5	5	22	
충청북도	남자	4	5	5	5	5	24	46
	여자	3	4	5	5	5	22	
충청남도	남자	5	6	7	6	6	30	58
	여자	4	6	6	6	6	28	
전라북도	남자	4	5	6	6	5	26	51
	여자	4	4	5	6	6	25	
전라남도	남자	4	4	6	6	6	26	51
	여자	4	4	5	6	6	25	
경상북도	남자	5	6	7	8	7	33	65
	여자	5	5	7	7	8	32	
경상남도	남자	7	8	9	9	7	40	76
	여자	5	7	9	8	7	36	
제주도	남자	2	3	4	3	3	15	30
	여자	2	3	4	3	3	15	
합계		205	237	274	263	221	1,200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6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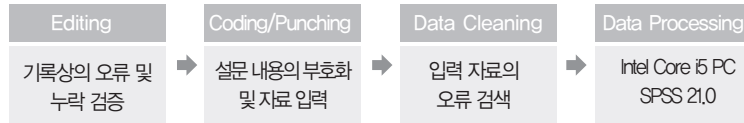
3)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2)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16년 7월 1일 - 7월 22일 (22일간)

2. 자료 처리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2) 가중치 (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6개 수준)로 모집단(201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처리하였다.

〈가중치 산출식〉

-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29세), 2(30대), ..., 6(70~74세))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 층별 최종 가중치 W_{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3.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별	남자	609	50.8	607	50.6
	여자	591	49.3	593	49.4
연령별	19~29세	205	17.1	209	17.4
	30대	237	19.8	237	19.7
	40대	274	22.8	275	22.9
	50대	263	21.9	261	21.8
	60대 이상	221	18.4	218	18.2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36	11.3	129	10.8
	고졸	585	48.8	599	49.9
	대재 이상	477	39.8	470	39.2
	모름/무응답	2	0.2	2	0.1
직업별	농·수·축산업	25	2.1	20	1.7
	자영업	254	21.2	260	21.7
	블루 칼라	339	28.3	341	28.4
	화이트칼라	230	19.2	230	19.2
	전업 주부	222	18.5	222	18.5
	학생/무직/기타	130	10.8	127	10.6
	200만원 미만	147	12.3	134	11.2
가구소득수준	200~299만원	209	17.4	203	17.0
	300~399만원	356	29.7	362	30.1
	400만원 이상	487	40.6	500	41.7
	모름/무응답	1	0.1	1	0.1
지역별	수도권	501	41.8	602	50.2
	충청권	151	12.6	123	10.2
	호남권	146	12.2	117	9.8
	영남권	326	27.2	309	25.7
	강원	46	3.8	35	3.0
	제주	30	2.5	14	1.2
지역 크기	대도시	545	45.4	550	45.8
	중·소 도시	512	42.7	521	43.4
	읍/면	143	11.9	130	10.8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3	43.6	522	43.5
	중도	118	9.8	116	9.7
	보수적	559	46.6	561	46.8
종교별	불교	257	21.4	245	20.4
	기독교	237	19.8	238	19.8
	천주교	70	5.8	72	6.0
	종교 없음	617	51.4	625	52.1
	모름/무응답	19	1.6	21	1.8



조사 결과 집계표

표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9.5	33.9	53.3	22.0	19.0	5.7	24.6	100.0	
성별	남자	607	22.6	38.8	61.4	18.9	13.8	5.9	19.7	100.0
	여자	593	16.2	28.8	45.0	25.3	24.3	5.4	29.7	100.0
연령별	19~29세	209	8.2	28.5	36.7	26.6	29.6	7.1	36.7	100.0
	30대	237	10.0	26.3	36.4	31.7	23.2	8.8	32.0	100.0
	40대	275	19.9	34.3	54.2	21.3	19.3	5.2	24.5	100.0
	50대	261	19.8	42.9	62.7	18.2	14.2	4.9	19.1	100.0
	60대 이상	218	39.6	35.8	75.4	12.7	9.6	2.3	1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1.7	34.1	65.7	12.3	15.5	6.5	22.0	100.0
	고졸	599	18.6	37.0	55.5	21.8	17.6	5.0	22.7	100.0
	대재 이상	470	17.3	29.8	47.1	25.2	21.5	6.2	27.8	100.0
	무응답	2	0.0	55.4	55.4	0.0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6.4	22.7	59.1	14.4	24.2	2.3	26.5	100.0
	자영업	260	23.4	40.3	63.7	19.4	13.1	3.8	16.9	100.0
	블루 칼라	341	16.1	34.7	50.7	21.9	21.1	6.3	27.4	100.0
	화이트칼라	230	20.4	32.8	53.3	19.9	18.6	8.1	26.8	100.0
	전업 주부	222	19.0	28.3	47.3	26.6	19.5	6.7	26.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9	31.7	48.6	25.1	24.1	2.2	26.3	100.0
	200만원 미만	134	32.8	33.4	66.2	19.3	9.4	5.1	14.5	100.0
	200~299만원	203	23.3	36.6	59.9	15.6	21.6	2.9	24.5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14.9	37.4	52.3	23.5	19.2	5.1	24.3	100.0
	400만원 이상	500	17.5	30.4	47.9	24.4	20.4	7.3	27.7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15.8	38.7	54.5	19.9	19.8	5.7	25.5	100.0
	충청권	123	20.1	27.2	47.3	36.3	13.5	2.9	16.5	100.0
	호남권	117	37.1	30.8	68.0	19.0	7.7	5.4	13.0	100.0
	영남권	309	14.4	30.2	44.6	22.3	26.0	7.1	33.1	100.0
	강원	35	47.9	26.3	74.2	17.3	4.1	4.4	8.5	100.0
	제주	14	60.4	9.9	70.3	19.7	6.8	3.2	10.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0.2	33.1	53.4	21.3	19.3	6.0	25.3	100.0
	중·소도시	521	18.2	35.7	53.9	23.6	18.6	3.9	22.5	100.0
	읍/면	130	21.2	29.7	50.9	18.7	19.0	11.3	30.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2.5	36.4	58.9	20.8	16.3	4.0	20.3	100.0
	중도	116	22.8	30.8	53.6	24.6	16.3	5.5	21.8	100.0
	보수적	561	15.9	32.1	48.1	22.7	22.0	7.2	29.2	100.0
종교별	불교	245	21.2	35.5	56.7	23.5	16.0	3.9	19.8	100.0
	기독교	238	28.9	33.1	62.0	20.7	14.4	2.9	17.3	100.0
	천주교	72	31.5	25.9	57.4	21.3	15.0	6.3	21.3	100.0
	종교없음	625	13.7	34.8	48.5	22.1	22.5	6.9	29.4	100.0
	모름/무응답	21	21.9	22.2	44.1	21.7	16.6	17.5	34.1	100.0

표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전 체	1200	13.1	54.2	23.2	9.5	100.0	
성별	남자	607	15.3	56.4	19.7	8.7	100.0
	여자	593	10.9	51.8	26.8	10.4	100.0
연령별	19~29세	209	8.8	44.3	34.5	12.5	100.0
	30대	237	8.3	52.4	24.4	14.9	100.0
	40대	275	10.7	57.0	24.7	7.6	100.0
	50대	261	15.9	54.2	19.8	10.1	100.0
	60대 이상	218	22.1	62.0	13.2	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9.8	50.6	20.9	8.7	100.0
	고졸	599	13.7	54.4	22.6	9.4	100.0
	대재 이상	470	10.5	54.8	24.6	10.0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55.4	44.6	0.0	100.0
	농/수/축산업	20	15.0	60.8	20.0	4.1	100.0
	자영업	260	16.3	59.5	19.1	5.1	100.0
	블루 칼라	341	11.7	51.3	22.4	14.6	100.0
	화이트칼라	230	10.7	58.8	20.1	10.5	100.0
	전업 주부	222	14.3	48.3	27.6	9.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2.1	51.8	32.2	3.9	100.0
	200만원 미만	134	16.2	58.9	19.0	5.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4.7	56.5	21.0	7.8	100.0
	300~399만원	362	12.6	54.6	23.3	9.5	100.0
	400만원 이상	500	12.0	51.6	25.2	11.3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3.6	55.5	22.5	8.4	100.0
	충청권	123	14.1	55.3	23.0	7.5	100.0
	호남권	117	28.5	48.7	10.6	12.2	100.0
	영남권	309	5.0	49.9	32.4	12.7	100.0
	강원	35	17.9	75.7	4.3	2.1	100.0
	제주	14	20.0	70.5	6.4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9.9	57.3	21.2	11.6	100.0
	중·소도시	521	15.3	53.7	24.7	6.4	100.0
	읍/면	130	17.7	42.9	25.7	13.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6.6	55.7	19.6	8.1	100.0
	중도	116	15.3	56.9	20.0	7.8	100.0
	보수적	561	9.4	52.1	27.2	11.2	100.0
종교별	불교	245	11.8	57.7	22.6	7.9	100.0
	기독교	238	19.3	60.2	14.6	5.9	100.0
	천주교	72	20.7	53.6	17.1	8.6	100.0
	종교없음	625	10.4	51.1	26.9	11.6	100.0
	모름/무응답	21	11.8	38.2	38.3	11.7	100.0

표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	
전 체	1200	3.5	14.0	25.1	15.1	17.9	24.4	100.0	
성별	남자	607	4.1	16.4	27.7	15.1	16.4	20.3	100.0
	여자	593	2.8	11.6	22.4	15.2	19.5	28.6	100.0
연령별	19~29세	209	0.0	7.0	24.6	15.9	18.2	34.3	100.0
	30대	237	1.2	10.3	20.9	16.0	22.7	28.9	100.0
	40대	275	2.3	12.1	29.3	14.5	19.0	22.8	100.0
	50대	261	6.6	19.7	25.3	14.6	14.5	19.2	100.0
	60대 이상	218	7.0	20.3	24.5	14.8	15.2	18.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8	18.0	23.5	15.0	11.6	27.0	100.0
	고졸	599	4.3	14.0	24.9	15.7	19.3	21.9	100.0
	대재 이상	470	2.1	13.0	25.6	14.3	18.0	27.0	100.0
	무응답	2	0.0	0.0	55.4	44.6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7	14.9	15.8	21.7	28.2	16.6	100.0
	자영업	260	4.5	19.1	31.1	13.1	14.4	17.7	100.0
	블루 칼라	341	2.9	11.4	25.8	18.0	19.9	22.1	100.0
	화이트칼라	230	2.5	13.3	23.4	12.9	20.1	27.7	100.0
	전업 주부	222	3.7	14.8	18.3	13.9	19.4	29.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3	10.3	27.2	16.8	11.6	2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6.7	14.8	23.4	12.7	16.9	25.4	100.0
	200~299만원	203	6.6	12.7	24.0	13.1	18.6	25.0	100.0
	300~399만원	362	2.6	15.7	27.2	15.7	18.2	20.6	100.0
	400만원 이상	500	1.9	13.2	24.3	16.2	17.8	26.7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2	3.2	15.4	24.6	15.4	17.6	23.8	100.0
	충청권	123	5.2	14.7	35.0	15.7	17.9	11.5	100.0
	호남권	117	5.3	14.3	17.2	13.7	25.2	24.3	100.0
	영남권	309	2.4	8.2	25.3	16.3	16.6	31.3	100.0
	강원	35	4.4	33.5	27.6	4.3	13.1	17.2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6.9	25.2	14.2	10.9	12.2	30.6	100.0
	대도시	550	4.1	13.6	25.9	15.7	18.4	22.3	10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21	2.9	15.1	24.6	14.4	16.8	26.1	100.0
	읍/면	130	3.0	11.2	23.4	15.7	20.2	26.4	100.0
	진보적	522	5.8	14.8	25.0	14.6	15.7	24.0	100.0
종교별	중도	116	2.8	13.5	31.7	18.8	13.7	19.6	100.0
	보수적	561	1.4	13.4	23.8	14.9	20.8	25.7	100.0
	불교	245	4.6	13.9	23.2	16.8	15.6	25.8	100.0
	기독교	238	6.3	19.7	24.7	13.5	19.2	16.5	100.0
	천주교	72	7.0	14.0	23.9	18.6	12.1	24.2	100.0
	종교없음	625	1.6	11.6	26.5	14.6	19.0	26.6	100.0
	모름/무응답	21	0.0	21.3	12.0	16.0	17.5	33.2	100.0

표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㉗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7	33.2	41.9	43.3	14.8	58.1	100.0	
성별	남자	607	10.9	31.7	42.5	43.7	13.7	57.5	100.0
	여자	593	6.5	34.7	41.3	42.9	15.8	58.7	100.0
연령별	19~29세	209	3.4	26.6	30.0	51.3	18.7	70.0	100.0
	30대	237	6.5	34.3	40.8	44.0	15.2	59.2	100.0
	40대	275	10.9	34.3	45.2	43.1	11.7	54.8	100.0
	50대	261	11.6	33.7	45.3	39.5	15.2	54.7	100.0
	60대 이상	218	10.1	36.3	46.3	39.9	13.8	53.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9.9	39.3	49.2	34.9	15.9	50.8	100.0
	고졸	599	8.3	34.2	42.5	45.1	12.4	57.5	100.0
	대재 이상	470	9.0	30.4	39.4	43.4	17.3	60.6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	48.7	50.8	17.8	31.4	49.2	100.0
	자영업	260	10.8	32.6	43.4	44.9	11.7	56.6	100.0
	블루 칼라	341	6.9	33.7	40.6	45.5	13.9	59.4	100.0
	화이트칼라	230	9.4	31.5	40.9	40.6	18.5	59.1	100.0
	전업 주부	222	9.8	35.5	45.3	39.8	14.9	54.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4	29.5	36.9	49.3	13.8	63.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1	36.0	41.1	38.5	20.5	58.9	100.0
	200~299만원	203	8.8	34.1	42.9	42.8	14.3	57.1	100.0
	300~399만원	362	7.7	33.9	41.6	44.5	13.9	58.4	100.0
	400만원 이상	500	10.4	31.6	42.0	44.1	13.9	58.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9.1	32.8	41.9	46.1	12.0	58.1	100.0
	충청권	123	6.7	32.0	38.8	41.4	19.8	61.2	100.0
	호남권	117	17.6	35.7	53.3	33.6	13.1	46.7	100.0
	영남권	309	4.6	33.2	37.9	44.7	17.4	62.1	100.0
	강원	35	10.9	40.7	51.5	31.0	17.5	48.5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19.2	18.2	37.4	23.8	38.8	62.6	100.0
	대도시	550	8.0	33.5	41.6	44.4	14.1	58.4	100.0
정치적 성향	중·소도시	521	10.0	33.5	43.5	41.7	14.9	56.5	100.0
	읍/면	130	6.7	30.4	37.1	45.6	17.3	62.9	100.0
	진보적	522	9.5	38.4	47.9	39.2	12.9	52.1	100.0
종교별	중도	116	10.6	39.2	49.8	43.2	7.0	50.2	100.0
	보수적	561	7.6	27.1	34.7	47.2	18.1	65.3	100.0
	불교	245	7.2	38.5	45.7	41.1	13.2	54.3	100.0
	기독교	238	14.5	35.7	50.1	35.4	14.5	49.9	100.0
	천주교	72	12.4	32.6	45.0	39.4	15.6	55.0	100.0
	종교없음	625	6.8	29.8	36.6	48.1	15.3	63.4	100.0
	모름/무응답	21	6.0	46.2	52.2	29.6	18.2	47.8	100.0

표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5.0	41.7	56.7	33.1	10.2	43.3	100.0
성별								
남자	607	16.4	40.5	56.9	33.3	9.8	43.1	100.0
여자	593	13.6	42.9	56.5	32.9	10.6	43.5	100.0
연령별								
19~29세	209	11.7	42.8	54.5	33.0	12.5	45.5	100.0
30대	237	12.9	38.5	51.4	36.4	12.2	48.6	100.0
40대	275	12.0	47.9	60.0	31.6	8.4	40.0	100.0
50대	261	18.6	39.1	57.7	32.2	10.0	42.3	100.0
60대 이상	218	19.9	39.3	59.3	32.6	8.2	40.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4.4	44.2	58.6	30.7	10.7	41.4	100.0
고졸	599	15.9	40.9	56.8	33.3	9.8	43.2	100.0
대재 이상	470	14.1	42.2	56.3	33.2	10.5	43.7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7	38.7	43.4	36.0	20.6	56.6	100.0
자영업	260	18.4	38.8	57.2	34.9	7.9	42.8	100.0
블루 칼라	341	14.9	42.0	56.9	29.9	13.2	43.1	100.0
화이트칼라	230	14.2	39.1	53.3	37.0	9.7	46.7	100.0
전업 주부	222	15.4	45.1	60.4	30.6	9.0	39.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0.9	46.1	57.0	35.0	7.9	4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1.7	41.4	53.1	31.2	15.8	46.9	100.0
200~299만원	203	17.1	41.5	58.6	32.3	9.1	41.4	100.0
300~399만원	362	13.2	42.4	55.6	33.8	10.6	44.4	100.0
400만원 이상	500	16.4	41.3	57.7	33.5	8.8	42.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7.3	42.1	59.4	32.3	8.4	40.6	100.0
충청권	123	12.8	45.6	58.4	33.1	8.5	41.6	100.0
호남권	117	25.8	41.5	67.2	24.6	8.2	32.8	100.0
영남권	309	7.5	37.9	45.3	39.7	14.9	54.7	100.0
강원	35	15.4	54.1	69.5	21.9	8.6	30.5	100.0
제주	14	12.3	46.2	58.5	23.9	17.6	41.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5.6	41.0	56.5	33.7	9.8	43.5	100.0
중·소도시	521	15.4	41.9	57.3	33.7	9.0	42.7	100.0
읍/면	130	11.1	44.1	55.2	28.4	16.4	44.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8.4	41.8	60.1	31.9	8.0	39.9	100.0
중도	116	15.5	47.2	62.7	34.6	2.7	37.3	100.0
보수적	561	11.8	40.5	52.3	33.9	13.8	47.7	100.0
종교별								
불교	245	15.8	41.0	56.8	34.3	8.9	43.2	100.0
기독교	238	19.2	45.1	64.3	30.3	5.3	35.7	100.0
천주교	72	26.1	32.4	58.5	30.8	10.6	41.5	100.0
종교없음	625	11.0	42.3	53.3	34.3	12.5	46.7	100.0
모름/무응답	21	39.7	26.5	66.3	23.5	10.3	33.7	100.0

표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④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3.2	39.3	52.5	36.4	11.0	47.5	100.0
성별								
남자	607	15.0	37.0	52.0	36.8	11.2	48.0	100.0
여자	593	11.4	41.7	53.1	36.1	10.8	46.9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6	39.6	50.2	35.0	14.8	49.8	100.0
30대	237	8.9	42.2	51.0	37.9	11.1	49.0	100.0
40대	275	13.5	37.6	51.1	37.8	11.1	48.9	100.0
50대	261	15.4	38.3	53.6	36.5	9.8	46.4	100.0
60대 이상	218	17.7	39.2	56.9	34.4	8.7	4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4.7	36.6	51.3	38.5	10.1	48.7	100.0
고졸	599	13.6	39.9	53.5	36.5	10.0	46.5	100.0
대재 이상	470	12.5	39.4	51.9	35.7	12.4	48.1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38.2	38.2	50.1	11.6	61.8	100.0
자영업	260	16.3	40.2	56.5	34.6	8.9	43.5	100.0
블루 칼라	341	14.4	33.9	48.3	40.0	11.8	51.7	100.0
화이트칼라	230	13.3	38.9	52.2	37.6	10.1	47.8	100.0
전업 주부	222	10.5	44.5	55.0	33.9	11.1	45.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0.5	43.9	54.4	30.9	14.8	4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0.4	34.2	44.6	39.1	16.3	55.4	100.0
200~299만원	203	15.4	42.7	58.1	29.6	12.3	41.9	100.0
300~399만원	362	11.5	39.0	50.5	38.5	11.0	49.5	100.0
400만원 이상	500	14.4	39.6	54.0	37.1	8.9	46.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4.9	36.9	51.8	38.2	10.0	48.2	100.0
충청권	123	17.4	44.4	61.7	26.4	11.9	38.3	100.0
호남권	117	16.9	49.5	66.4	22.5	11.1	33.6	100.0
영남권	309	8.0	36.0	44.0	44.0	12.0	56.0	100.0
강원	35	6.9	58.4	65.3	24.1	10.6	34.7	100.0
제주	14	9.9	36.5	46.4	28.4	25.1	53.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2.7	41.2	53.9	36.8	9.3	46.1	100.0
중·소도시	521	14.2	38.9	53.1	35.6	11.2	46.9	100.0
읍/면	130	11.6	32.8	44.4	38.3	17.3	55.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7.2	38.9	56.1	34.7	9.2	43.9	100.0
중도	116	11.4	37.7	49.1	39.4	11.5	50.9	100.0
보수적	561	9.9	40.0	49.9	37.4	12.6	50.1	100.0
종교별								
불교	245	11.0	41.1	52.1	38.5	9.4	47.9	100.0
기독교	238	19.9	41.2	61.1	31.0	7.9	38.9	100.0
천주교	72	20.3	31.8	52.2	35.5	12.3	47.8	100.0
종교없음	625	10.5	38.1	48.5	38.6	12.9	51.5	100.0
모름/무응답	21	23.4	58.4	81.8	13.9	4.3	18.2	100.0

표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㉔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8.7	50.0	68.7	24.7	6.6	31.3	100.0	
성별	남자	607	22.7	47.0	69.7	23.3	7.0	30.3	100.0
	여자	593	14.5	53.1	67.6	26.1	6.3	32.4	100.0
연령별	19~29세	209	12.9	51.5	64.5	28.0	7.5	35.5	100.0
	30대	237	12.5	55.3	67.8	25.0	7.2	32.2	100.0
	40대	275	18.3	46.2	64.6	26.9	8.5	35.4	100.0
	50대	261	25.4	45.7	71.1	23.5	5.4	28.9	100.0
	60대 이상	218	23.2	52.6	75.8	19.8	4.4	24.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0.7	51.3	72.0	22.1	6.0	28.0	100.0
	고졸	599	19.3	49.6	68.9	24.9	6.2	31.1	100.0
	대재 이상	470	17.4	49.9	67.3	25.2	7.5	32.7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20	16.5	45.3	61.8	22.0	16.2	38.2	100.0
	자영업	260	24.1	50.4	74.4	21.6	3.9	25.6	100.0
	블루 칼라	341	17.7	48.8	66.6	25.3	8.1	33.4	100.0
	화이트칼라	230	18.4	48.6	67.0	26.2	6.8	33.0	100.0
	전업 주부	222	17.5	50.1	67.6	25.8	6.6	32.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3.1	55.3	68.4	25.0	6.6	31.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6.5	53.2	69.7	21.3	9.0	30.3	100.0
	200~299만원	203	24.2	46.3	70.5	24.1	5.4	29.5	100.0
	300~399만원	362	20.0	48.0	67.9	25.9	6.2	32.1	100.0
	400만원 이상	500	16.1	52.0	68.1	25.0	6.9	31.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8.5	51.2	69.8	24.7	5.5	30.2	100.0
	충청권	123	18.2	51.3	69.5	26.1	4.4	30.5	100.0
	호남권	117	29.5	45.5	75.0	15.0	10.0	25.0	100.0
	영남권	309	13.6	48.8	62.4	29.0	8.6	37.6	100.0
	강원	35	32.7	49.8	82.4	13.2	4.4	17.6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13.4	49.9	63.3	27.2	9.5	36.7	100.0
	대도시	550	19.9	46.3	66.2	26.9	6.9	33.8	100.0
	중·소도시	521	18.1	55.9	73.9	21.6	4.5	26.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15.7	42.0	57.8	27.8	14.4	42.2	100.0
	진보적	522	21.2	51.5	72.7	21.8	5.5	27.3	100.0
	중도	116	20.1	49.2	69.3	23.2	7.5	30.7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16.0	48.8	64.8	27.7	7.5	35.2	100.0
	불교	245	18.6	54.1	72.7	21.7	5.6	27.3	100.0
	기독교	238	22.7	49.2	71.8	24.4	3.8	28.2	100.0
	천주교	72	21.9	51.6	73.5	21.1	5.5	26.5	100.0
	종교없음	625	17.1	48.1	65.2	26.3	8.5	34.8	100.0
	모름/무응답	21	10.8	61.5	72.3	27.7	0.0	27.7	100.0

표4-5.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㉕ 대북제재와 압박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7.1	34.7	41.8	43.6	14.5	58.2	100.0	
성별	남자	607	8.2	31.4	39.6	45.1	15.4	60.4	100.0
	여자	593	6.1	38.1	44.1	42.2	13.6	55.9	100.0
연령별	19~29세	209	5.5	34.2	39.7	45.2	15.1	60.3	100.0
	30대	237	4.7	32.5	37.3	47.0	15.7	62.7	100.0
	40대	275	6.3	34.2	40.5	44.3	15.3	59.5	100.0
	50대	261	9.1	36.8	45.9	41.5	12.6	54.1	100.0
	60대 이상	218	10.1	35.6	45.7	40.3	14.0	54.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9	35.2	41.1	44.5	14.4	58.9	100.0
	고졸	599	7.9	35.4	43.3	44.2	12.5	56.7	100.0
	대재 이상	470	6.5	33.6	40.1	42.9	17.0	59.9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55.4	55.4	0.0	44.6	44.6	100.0
	농/수/축산업	20	7.1	31.4	38.5	39.3	22.2	61.5	100.0
	자영업	260	5.7	35.3	41.0	43.9	15.1	59.0	100.0
	블루 칼라	341	6.6	34.8	41.4	45.7	12.8	58.6	100.0
	화이트칼라	230	7.3	27.1	34.4	48.4	17.3	65.6	100.0
	전업 주부	222	8.2	38.8	47.1	40.9	12.0	52.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9.1	40.4	49.5	34.4	16.1	50.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5	30.6	36.1	47.7	16.2	63.9	100.0
	200~299만원	203	9.3	39.4	48.7	39.8	11.5	51.3	100.0
	300~399만원	362	8.2	36.7	44.9	39.0	16.0	55.1	100.0
	400만원 이상	500	5.9	32.3	38.2	47.5	14.2	61.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6.1	36.6	42.6	42.5	14.8	57.4	100.0
	충청권	123	5.2	24.8	30.0	52.2	17.8	70.0	100.0
	호남권	117	8.6	25.5	34.1	41.2	24.7	65.9	100.0
	영남권	309	8.0	37.6	45.6	45.7	8.7	54.4	100.0
	강원	35	10.9	46.1	57.0	29.9	13.1	43.0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28.8	26.1	54.9	26.6	18.5	45.1	100.0
	대도시	550	9.4	31.9	41.4	43.6	15.0	58.6	100.0
	중·소도시	521	5.0	37.3	42.3	44.6	13.1	57.7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6.1	35.9	42.0	39.9	18.1	58.0	100.0
	진보적	522	7.2	35.9	43.1	42.8	14.1	56.9	100.0
	중도	116	5.2	34.8	40.0	43.5	16.5	60.0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7.4	33.6	41.0	44.5	14.5	59.0	100.0
	불교	245	11.9	32.7	44.6	47.0	8.4	55.4	100.0
	기독교	238	6.2	35.5	41.6	40.0	18.4	58.4	100.0
	천주교	72	7.3	29.7	36.9	40.3	22.8	63.1	100.0
	종교없음	625	5.9	35.5	41.4	43.8	14.8	58.6	100.0
	모름/무응답	21	0.0	42.7	42.7	51.6	5.8	57.3	100.0

표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㉗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 체		1200	14.4	55.7	70.1	27.6	2.3	29.9	100.0
성별	남자	607	16.3	54.0	70.3	26.4	3.3	29.7	100.0
	여자	593	12.5	57.4	69.9	28.7	1.4	30.1	100.0
연령별	19~29세	209	11.6	53.6	65.1	31.2	3.7	34.9	100.0
	30대	237	8.8	55.9	64.6	32.6	2.7	35.4	100.0
	40대	275	15.6	55.7	71.3	25.4	3.3	28.7	100.0
	50대	261	15.5	55.3	70.7	28.4	0.9	29.3	100.0
	60대 이상	218	20.6	58.0	78.5	20.3	1.2	2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7.8	55.0	72.8	25.3	1.9	27.2	100.0
	고졸	599	12.4	57.2	69.6	28.1	2.3	30.4	100.0
	대재 이상	470	16.1	53.9	70.0	27.4	2.6	30.0	100.0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5	39.2	50.7	46.9	2.3	49.3	100.0
	자영업	260	16.7	57.9	74.6	23.9	1.5	25.4	100.0
	블루 칼라	341	13.0	56.1	69.1	27.2	3.7	30.9	100.0
	화이트칼라	230	17.2	52.1	69.3	29.1	1.6	30.7	100.0
	전업 주부	222	12.1	59.9	72.0	26.3	1.8	28.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3.0	51.7	64.6	32.6	2.8	35.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4.7	48.6	63.3	35.0	1.8	36.7	100.0
	200~299만원	203	14.5	59.3	73.7	24.4	1.9	26.3	100.0
	300~399만원	362	10.3	62.4	72.7	24.3	3.0	27.3	100.0
	400만원 이상	500	17.3	51.1	68.5	29.3	2.2	31.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4.9	58.8	73.7	24.7	1.6	26.3	100.0
	충청권	123	11.5	59.5	71.0	26.6	2.4	29.0	100.0
	호남권	117	24.0	52.9	76.9	18.2	4.9	23.1	100.0
	영남권	309	9.3	49.5	58.8	39.1	2.1	41.2	100.0
	강원	35	24.4	52.7	77.2	16.3	6.5	22.8	100.0
	제주	14	28.5	54.5	82.9	9.5	7.6	17.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4.7	52.9	67.6	29.9	2.5	32.4	100.0
	중·소도시	521	12.9	58.5	71.4	26.2	2.4	28.6	100.0
	읍/면	130	19.4	55.8	75.2	23.2	1.6	24.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6.0	57.3	73.2	25.3	1.5	26.8	100.0
	중도	116	16.4	63.3	79.7	18.8	1.4	20.3	100.0
	보수적	561	12.6	52.6	65.2	31.5	3.4	34.8	100.0
종교별	불교	245	13.5	58.1	71.5	26.1	2.4	28.5	100.0
	기독교	238	21.5	57.3	78.7	20.3	1.0	21.3	100.0
	천주교	72	15.6	56.9	72.5	27.5	0.0	27.5	100.0
	종교없음	625	11.4	54.5	65.9	31.0	3.2	34.1	100.0
	모름/무응답	21	33.1	40.3	73.4	26.6	0.0	26.6	100.0

표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㉘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	%	%	%	%	%	%	
전 체		1200	30.7	46.0	76.7	20.8	2.5	23.3	100.0
성별	남자	607	33.0	44.4	77.4	20.3	2.3	22.6	100.0
	여자	593	28.3	47.7	76.0	21.4	2.6	24.0	100.0
연령별	19~29세	209	25.3	45.4	70.7	26.4	2.9	29.3	100.0
	30대	237	29.1	48.7	77.7	19.3	3.0	22.3	100.0
	40대	275	34.5	38.7	73.1	23.5	3.3	26.9	100.0
	50대	261	29.8	50.4	80.2	18.4	1.4	19.8	100.0
	60대 이상	218	33.9	47.7	81.7	16.6	1.8	18.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2.2	49.3	81.5	15.8	2.7	18.5	100.0
	고졸	599	26.8	46.0	72.8	25.1	2.1	27.2	100.0
	대재 이상	470	35.0	45.3	80.3	16.8	2.9	19.7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6	40.7	53.4	44.3	2.3	46.6	100.0
	자영업	260	31.0	50.6	81.6	16.7	1.7	18.4	100.0
	블루 칼라	341	31.5	40.8	72.3	23.6	4.1	27.7	100.0
	화이트칼라	230	36.5	46.1	82.5	16.2	1.2	17.5	100.0
	전업 주부	222	24.3	50.8	75.1	22.8	2.1	24.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1.5	42.9	74.4	22.9	2.8	2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7.5	47.1	74.6	21.9	3.5	25.4	100.0
	200~299만원	203	29.5	45.5	75.0	23.4	1.6	25.0	100.0
	300~399만원	362	27.3	44.7	72.1	25.3	2.6	27.9	100.0
	400만원 이상	500	34.3	47.0	81.3	16.2	2.5	18.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3.2	44.9	78.1	20.2	1.7	21.9	100.0
	충청권	123	26.2	53.2	79.4	18.3	2.3	20.6	100.0
	호남권	117	39.5	41.8	81.4	15.2	3.4	18.6	100.0
	영남권	309	24.7	46.4	71.1	25.3	3.6	28.9	100.0
	강원	35	28.6	47.4	75.9	21.8	2.3	24.1	100.0
	제주	14	26.1	53.6	79.7	17.1	3.2	20.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7.1	45.4	82.5	15.0	2.6	17.5	100.0
	중·소도시	521	24.0	46.6	70.6	27.1	2.3	29.4	100.0
	읍/면	130	30.3	46.3	76.6	20.5	2.9	23.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0.9	46.8	77.7	21.2	1.1	22.3	100.0
	중도	116	31.4	37.8	69.2	27.9	3.0	30.8	100.0
	보수적	561	30.4	46.9	77.3	19.0	3.6	22.7	100.0
종교별	불교	245	29.4	49.6	79.0	20.0	1.0	21.0	100.0
	기독교	238	39.5	45.2	84.7	14.1	1.2	15.3	100.0
	천주교	72	38.7	37.4	76.2	15.3	8.5	23.8	100.0
	종교없음	625	27.3	45.5	72.8	24.3	2.9	27.2	100.0
	모름/무응답	21	19.2	57.9	77.1	22.9	0.0	22.9	100.0

표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7.7	40.0	77.7	19.3	3.0	22.3	100.0	
성별	남자	607	39.7	37.0	76.7	20.3	3.0	23.3	100.0
	여자	593	35.7	43.0	78.7	18.3	3.0	21.3	100.0
연령별	19~29세	209	35.0	43.8	78.8	17.1	4.1	21.2	100.0
	30대	237	35.8	39.2	75.0	21.8	3.2	25.0	100.0
	40대	275	35.1	39.5	74.6	22.3	3.1	25.4	100.0
	50대	261	40.9	37.4	78.3	18.4	3.3	21.7	100.0
	60대 이상	218	41.9	40.9	82.8	16.1	1.2	17.2	100.0
	중졸 이하	129	40.9	37.2	78.1	19.2	2.7	21.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35.9	40.1	76.1	20.7	3.3	23.9	100.0
	대재 이상	470	39.0	40.5	79.6	17.7	2.7	20.4	100.0
	무응답	2	55.4	44.6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5.8	43.3	59.1	33.3	7.6	40.9	100.0
	자영업	260	46.4	34.8	81.2	15.9	2.9	18.8	100.0
	블루 칼라	341	35.6	42.5	78.1	18.8	3.1	21.9	100.0
	화이트칼라	230	36.6	41.2	77.9	18.9	3.2	22.1	100.0
	전업 주부	222	34.3	39.8	74.1	23.1	2.8	25.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6.8	41.4	78.3	19.6	2.1	21.7	100.0
	200만원 미만	134	30.0	44.1	74.0	23.4	2.6	26.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9.0	37.8	76.8	20.3	2.9	23.2	100.0
	300~399만원	362	34.5	38.8	73.3	22.6	4.1	26.7	100.0
	400만원 이상	500	41.6	40.5	82.1	15.5	2.4	17.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7.3	43.0	80.2	18.1	1.7	19.8	100.0
	충청권	123	28.9	44.2	73.0	20.6	6.3	27.0	100.0
	호남권	117	51.0	34.5	85.5	10.3	4.2	14.5	100.0
	영남권	309	37.9	34.7	72.7	24.2	3.1	27.3	100.0
	강원	35	28.3	37.4	65.8	25.5	8.7	34.2	100.0
	제주	14	41.1	42.7	83.8	12.9	3.2	16.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6.1	45.8	81.8	16.3	1.9	18.2
중·소도시		521	38.6	34.1	72.7	23.3	4.0	27.3	100.0
읍/면		130	41.1	39.0	80.1	16.3	3.6	19.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0.8	37.8	78.6	19.0	2.4	21.4	100.0
	중도	116	32.8	39.7	72.5	26.4	1.1	27.5	100.0
	보수적	561	35.8	42.1	77.9	18.2	3.9	22.1	100.0
종교별	불교	245	38.3	42.0	80.3	17.6	2.1	19.7	100.0
	기독교	238	40.9	44.9	85.7	12.4	1.9	14.3	100.0
	천주교	72	46.9	31.2	78.1	20.7	1.3	21.9	100.0
	종교없음	625	35.8	37.6	73.3	22.6	4.1	26.7	100.0
	모름/무응답	21	21.4	62.1	83.5	16.5	0.0	16.5	100.0

표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7	19.8	24.5	50.5	25.0	75.5	100.0	
성별	남자	607	3.8	18.4	22.2	51.0	26.8	77.8	100.0
	여자	593	5.7	21.2	26.9	50.0	23.1	73.1	100.0
연령별	19~29세	209	5.4	21.2	26.6	51.6	21.8	73.4	100.0
	30대	237	4.1	20.9	25.1	50.7	24.3	74.9	100.0
	40대	275	4.8	19.1	23.9	51.5	24.6	76.1	100.0
	50대	261	4.5	20.8	25.3	49.3	25.4	74.7	100.0
	60대 이상	218	4.7	17.0	21.6	49.4	28.9	78.4	100.0
	중졸 이하	129	3.2	20.3	23.5	49.7	26.8	76.5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4.4	18.1	22.5	51.3	26.2	77.5	100.0
	대재 이상	470	5.5	21.9	27.4	49.7	22.9	72.6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8.4	8.4	63.6	28.0	91.6	100.0
	자영업	260	4.3	18.2	22.5	48.6	28.9	77.5	100.0
	블루 칼라	341	5.2	21.9	27.1	47.0	25.9	72.9	100.0
	화이트칼라	230	5.0	17.3	22.3	56.6	21.0	77.7	100.0
	전업 주부	222	3.6	21.3	25.0	50.2	24.9	75.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6.5	20.9	27.4	51.3	21.3	72.6	100.0
	200만원 미만	134	0.8	12.7	13.6	55.7	30.7	86.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7	22.8	26.5	48.8	24.6	73.5	100.0
	300~399만원	362	4.5	23.2	27.7	51.0	21.3	72.3	100.0
	400만원 이상	500	6.3	18.1	24.4	49.5	26.1	75.6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5.2	19.4	24.6	52.9	22.5	75.4	100.0
	충청권	123	6.0	19.0	24.9	43.5	31.6	75.1	100.0
	호남권	117	5.4	24.9	30.3	42.3	27.4	69.7	100.0
	영남권	309	2.9	18.8	21.7	53.8	24.5	78.3	100.0
	강원	35	4.4	21.8	26.2	39.2	34.6	73.8	100.0
	제주	14	5.8	19.2	25.0	34.2	40.8	7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4	20.5	23.9	52.8	23.3	76.1
중·소도시		521	6.2	19.2	25.4	50.3	24.3	74.6	100.0
읍/면		130	4.1	19.4	23.5	41.6	34.9	76.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4	21.5	27.0	49.1	23.9	73.0	100.0
	중도	116	6.1	29.8	35.9	42.4	21.7	64.1	100.0
	보수적	561	3.8	16.1	19.9	53.5	26.6	80.1	100.0
종교별	불교	245	4.0	18.5	22.6	52.0	25.5	77.4	100.0
	기독교	238	6.9	18.3	25.2	52.0	22.8	74.8	100.0
	천주교	72	7.9	16.5	24.4	50.2	25.4	75.6	100.0
	종교없음	625	3.9	20.9	24.9	49.4	25.8	75.1	100.0
	모름/무응답	21	0.0	29.1	29.1	51.2	19.6	70.9	100.0

표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6.2	46.6	72.8	24.2	2.9	27.2	100.0	
성별	남자	607	28.3	42.6	70.9	25.6	3.5	29.1	100.0
	여자	593	24.0	50.8	74.8	22.9	2.3	25.2	100.0
연령별	19~29세	209	25.2	42.5	67.7	28.8	3.5	32.3	100.0
	30대	237	24.3	49.3	73.5	23.4	3.1	26.5	100.0
	40대	275	24.5	47.9	72.5	24.0	3.5	27.5	100.0
	50대	261	25.6	47.7	73.3	24.4	2.3	26.7	100.0
	60대 이상	218	32.0	44.9	76.9	20.9	2.2	23.1	100.0
	중졸 이하	129	29.8	43.8	73.6	22.8	3.6	26.4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3.3	49.0	72.3	25.2	2.5	27.7	100.0
	대재 이상	470	28.8	44.4	73.2	23.5	3.3	26.8	100.0
	무응답	2	44.6	55.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6.8	30.7	57.5	31.5	11.0	42.5	100.0
	자영업	260	28.7	48.2	76.9	21.9	1.2	23.1	100.0
	블루 칼라	341	21.9	50.0	71.9	24.9	3.2	28.1	100.0
	화이트칼라	230	26.5	43.4	69.8	25.6	4.6	30.2	100.0
	전업 주부	222	24.0	51.4	75.4	22.0	2.5	24.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5.8	34.4	70.2	27.7	2.1	2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4.7	43.1	67.7	29.8	2.5	32.3	100.0
	200~299만원	203	28.1	46.4	74.5	23.1	2.4	25.5	100.0
	300~399만원	362	22.0	47.0	68.9	27.1	4.0	31.1	100.0
	400만원 이상	500	28.7	47.6	76.3	21.3	2.4	23.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1.7	50.6	72.4	24.9	2.7	27.6	100.0
	충청권	123	28.5	46.6	75.1	23.0	1.9	24.9	100.0
	호남권	117	35.5	47.0	82.5	13.3	4.2	17.5	100.0
	영남권	309	29.1	38.4	67.5	29.8	2.7	32.5	100.0
	강원	35	37.3	49.9	87.2	8.4	4.4	12.8	100.0
	제주	14	28.5	44.1	72.6	16.7	10.7	27.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4.9	48.3	73.2	24.4	2.4	26.8	100.0
	중·소도시	521	24.4	47.1	71.5	25.5	3.1	28.5	100.0
	읍/면	130	38.7	37.9	76.6	18.9	4.5	23.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6.0	46.3	72.4	25.7	1.9	27.6	100.0
	중도	116	20.7	48.8	69.5	27.5	3.0	30.5	100.0
	보수적	561	27.5	46.5	74.0	22.2	3.8	26.0	100.0
종교별	불교	245	34.0	41.8	75.8	21.5	2.7	24.2	100.0
	기독교	238	29.8	50.8	80.6	18.2	1.2	19.4	100.0
	천주교	72	29.3	41.6	70.9	29.1	0.0	29.1	100.0
	종교없음	625	21.1	47.3	68.4	27.7	3.9	31.6	100.0
	모름/무응답	21	36.5	52.8	89.3	5.9	4.8	10.7	100.0

표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9.8	47.6	77.4	19.8	2.8	22.6	100.0	
성별	남자	607	31.3	45.4	76.7	20.1	3.2	23.3	100.0
	여자	593	28.3	49.9	78.2	19.5	2.3	21.8	100.0
연령별	19~29세	209	28.0	48.2	76.2	20.0	3.8	23.8	100.0
	30대	237	26.3	49.7	76.0	20.2	3.9	24.0	100.0
	40대	275	29.2	46.1	75.3	21.0	3.7	24.7	100.0
	50대	261	31.4	47.0	78.4	20.0	1.6	21.6	100.0
	60대 이상	218	34.2	47.6	81.8	17.4	0.8	18.2	100.0
	중졸 이하	129	31.0	46.3	77.3	19.1	3.6	22.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6.2	48.4	74.7	22.5	2.8	25.3	100.0
	대재 이상	470	33.9	47.0	80.9	16.6	2.5	19.1	100.0
	무응답	2	44.6	55.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6.2	35.6	61.7	36.0	2.3	38.3	100.0
	자영업	260	34.4	45.2	79.6	18.3	2.1	20.4	100.0
	블루 칼라	341	26.5	48.8	75.3	21.6	3.1	24.7	100.0
	화이트칼라	230	30.2	47.2	77.4	19.1	3.5	22.6	100.0
	전업 주부	222	26.8	50.7	77.6	19.4	3.1	22.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4.3	46.7	81.0	17.5	1.5	19.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0.5	42.7	73.2	23.6	3.1	26.8	100.0
	200~299만원	203	30.3	48.7	79.0	18.8	2.2	21.0	100.0
	300~399만원	362	25.9	49.1	75.0	21.9	3.1	25.0	100.0
	400만원 이상	500	32.1	47.6	79.6	17.7	2.7	20.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6.6	52.6	79.2	18.1	2.8	20.8	100.0
	충청권	123	32.9	42.3	75.2	22.4	2.4	24.8	100.0
	호남권	117	41.2	43.6	84.8	11.7	3.4	15.2	100.0
	영남권	309	28.1	41.9	70.0	28.0	2.0	30.0	100.0
	강원	35	45.6	47.7	93.3	0.0	6.7	6.7	100.0
	제주	14	40.8	42.9	83.7	10.0	6.4	16.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7.2	54.2	81.4	16.1	2.5	18.6	100.0
	중·소도시	521	31.1	42.5	73.6	24.3	2.1	26.4	100.0
	읍/면	130	35.5	40.4	75.9	17.4	6.7	24.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8.8	49.2	78.1	20.7	1.2	21.9	100.0
	중도	116	29.0	42.4	71.3	25.5	3.1	28.7	100.0
	보수적	561	30.9	47.3	78.1	17.7	4.2	21.9	100.0
종교별	불교	245	35.9	44.2	80.0	18.2	1.8	20.0	100.0
	기독교	238	32.5	49.1	81.7	16.8	1.5	18.3	100.0
	천주교	72	29.5	50.3	79.7	19.0	1.3	20.3	100.0
	종교없음	625	26.8	47.8	74.5	21.6	3.9	25.5	100.0
	모름/무응답	21	20.0	57.6	77.6	22.4	0.0	22.4	100.0

표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없다	계
		%	%	%	%	%	%	%	%
전 체	1200	38.6	11.9	29.7	5.0	14.2	0.7	0.1	100.0
성별									
남자	607	40.5	10.7	28.7	4.4	14.7	0.9	0.2	100.0
여자	593	36.7	13.0	30.7	5.6	13.6	0.4	0.0	100.0
연령별									
19~29세	209	31.2	12.6	28.4	5.7	20.0	1.7	0.4	100.0
30대	237	32.1	7.2	40.3	5.4	14.5	0.5	0.0	100.0
40대	275	37.7	11.9	30.8	5.6	13.2	0.8	0.0	100.0
50대	261	41.1	14.7	25.3	4.9	13.7	0.3	0.0	100.0
60대 이상	218	50.8	12.8	23.3	3.2	9.9	0.0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8.2	15.6	24.3	3.4	8.5	0.0	0.0	100.0
고졸	599	38.5	12.5	30.3	4.2	13.5	1.1	0.0	100.0
대재 이상	470	36.0	9.9	30.5	6.4	16.6	0.3	0.2	100.0
무응답	2	55.4	44.6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0.7	24.3	29.7	0.0	5.3	0.0	0.0	100.0
자영업	260	43.4	10.3	26.0	3.5	16.3	0.5	0.0	100.0
블루 칼라	341	36.0	12.2	30.5	7.1	13.1	0.9	0.3	100.0
화이트칼라	230	36.2	11.3	35.1	4.0	13.1	0.3	0.0	100.0
전업 주부	222	40.4	14.9	28.6	5.5	10.1	0.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6.4	7.8	27.4	4.2	22.9	1.2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42.4	11.4	30.5	1.6	14.2	0.0	0.0	100.0
200~299만원	203	44.1	11.8	26.3	4.4	12.6	0.8	0.0	100.0
300~399만원	362	37.0	14.6	32.6	3.6	11.1	0.8	0.3	100.0
400만원 이상	500	36.5	10.0	28.6	7.2	17.1	0.6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4.8	9.6	33.9	6.5	14.5	0.6	0.2	100.0
충청권	123	44.3	10.3	25.9	6.1	12.7	0.6	0.0	100.0
호남권	117	43.9	12.3	19.8	3.5	19.2	1.4	0.0	100.0
영남권	309	41.2	17.4	27.2	2.6	11.3	0.3	0.0	100.0
강원	35	48.7	6.1	21.3	2.1	19.6	2.3	0.0	100.0
제주	14	22.0	13.4	41.0	3.1	20.5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6.4	10.9	33.4	4.9	13.7	0.5	0.2	100.0
중·소도시	521	42.7	12.0	27.3	4.1	13.2	0.8	0.0	100.0
읍/면	130	31.4	15.1	23.8	9.2	19.9	0.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1.5	12.5	29.2	5.0	11.5	0.3	0.0	100.0
중도	116	33.5	11.4	32.1	7.2	15.0	0.8	0.0	100.0
보수적	561	36.9	11.4	29.6	4.5	16.5	0.9	0.2	100.0
종교별									
불교	245	43.5	17.8	22.6	2.2	13.5	0.4	0.0	100.0
기독교	238	40.1	8.0	27.5	6.4	16.3	1.7	0.0	100.0
천주교	72	31.0	10.2	30.2	5.1	20.6	3.0	0.0	100.0
종교없음	625	37.5	11.4	32.7	5.3	12.9	0.1	0.1	100.0
모름/무응답	21	22.7	5.7	47.8	11.9	12.0	0.0	0.0	100.0

표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8	42.1	53.0	38.2	8.8	47.0	100.0
성별								
남자	607	14.6	42.2	56.8	34.5	8.7	43.2	100.0
여자	593	7.0	42.1	49.1	42.1	8.9	50.9	100.0
연령별								
19~29세	209	7.1	42.1	49.2	40.9	9.9	50.8	100.0
30대	237	9.2	39.3	48.5	41.4	10.1	51.5	100.0
40대	275	13.7	43.7	57.4	35.3	7.4	42.6	100.0
50대	261	11.1	42.5	53.6	38.1	8.3	46.4	100.0
60대 이상	218	12.2	42.9	55.1	36.3	8.7	4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4	43.4	46.8	40.5	12.6	53.2	100.0
고졸	599	12.3	42.8	55.2	35.9	8.9	44.8	100.0
대재 이상	470	11.0	40.8	51.8	40.8	7.4	48.2	100.0
무응답	2	0.0	55.4	55.4	0.0	44.6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3	37.3	48.6	38.1	13.3	51.4	100.0
자영업	260	12.0	44.3	56.3	33.9	9.8	43.7	100.0
블루 칼라	341	9.1	41.2	50.3	38.4	11.2	49.7	100.0
화이트칼라	230	12.6	40.9	53.5	37.8	8.7	46.5	100.0
전업 주부	222	7.9	41.5	49.4	44.1	6.5	50.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4.8	44.2	59.0	37.1	3.9	41.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7.7	44.6	52.3	37.2	10.4	47.7	100.0
200~299만원	203	12.2	38.6	50.9	34.8	14.3	49.1	100.0
300~399만원	362	9.0	49.7	58.7	34.5	6.9	41.3	100.0
400만원 이상	500	12.2	37.5	49.8	42.7	7.5	50.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0.9	46.6	57.5	34.0	8.5	42.5	100.0
충청권	123	13.2	31.6	44.7	44.8	10.5	55.3	100.0
호남권	117	17.2	33.1	50.3	44.0	5.6	49.7	100.0
영남권	309	6.4	40.8	47.2	42.5	10.3	52.8	100.0
강원	35	17.7	41.1	58.8	34.9	6.3	41.2	100.0
제주	14	13.7	50.9	64.6	29.1	6.4	35.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0.7	42.8	53.5	40.0	6.4	46.5	100.0
중·소도시	521	12.1	42.5	54.7	34.6	10.8	45.3	100.0
읍/면	130	5.9	37.7	43.7	45.4	10.9	5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4.3	42.4	56.6	35.4	8.0	43.4	100.0
중도	116	12.8	41.0	53.8	37.4	8.8	46.2	100.0
보수적	561	7.2	42.2	49.4	41.1	9.5	50.6	100.0
종교별								
불교	245	10.3	45.2	55.5	35.6	8.9	44.5	100.0
기독교	238	15.5	39.5	55.0	40.3	4.8	45.0	100.0
천주교	72	18.2	33.5	51.7	44.1	4.3	48.3	100.0
종교없음	625	8.1	43.9	51.9	38.1	10.0	48.1	100.0
모름/무응답	21	22.4	14.6	37.0	30.9	32.1	63.0	100.0

표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	%	%	%	%	%	%
전 체	1200	2.7	21.9	24.6	56.3	19.1	75.4	100.0
성별								
남자	607	4.0	23.4	27.4	54.8	17.8	72.6	100.0
여자	593	1.4	20.4	21.8	57.8	20.4	78.2	100.0
연령별								
19~29세	209	2.1	16.6	18.7	62.1	19.2	81.3	100.0
30대	237	2.7	24.7	27.4	51.8	20.8	72.6	100.0
40대	275	2.9	23.9	26.8	54.0	19.3	73.2	100.0
50대	261	2.1	25.6	27.8	58.3	13.9	72.2	100.0
60대 이상	218	3.8	17.1	20.9	56.2	22.9	79.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8	15.5	16.3	55.5	28.2	83.7	100.0
고졸	599	2.7	22.9	25.6	57.4	17.0	74.4	100.0
대재 이상	470	3.2	22.5	25.7	55.1	19.1	74.3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6.4	16.4	61.4	22.1	83.6	100.0
자영업	260	3.1	23.2	26.3	53.4	20.3	73.7	100.0
블루 칼라	341	1.5	19.3	20.9	57.9	21.2	79.1	100.0
화이트칼라	230	4.3	25.9	30.2	49.3	20.5	69.8	100.0
전업 주부	222	1.9	23.7	25.6	58.0	16.4	74.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0	16.9	20.9	66.7	12.4	79.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0.8	15.5	16.2	60.8	22.9	83.8	100.0
200~299만원	203	4.1	25.1	29.3	53.9	16.8	70.7	100.0
300~399만원	362	3.2	22.2	25.4	56.1	18.6	74.6	100.0
400만원 이상	500	2.3	22.0	24.3	56.4	19.3	75.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2	23.3	25.5	58.6	16.0	74.5	100.0
충청권	123	3.3	17.0	20.2	55.8	24.0	79.8	100.0
호남권	117	7.0	16.2	23.2	54.1	22.7	76.8	100.0
영남권	309	1.8	22.9	24.7	52.7	22.6	75.3	100.0
강원	35	4.6	21.6	26.1	63.1	10.8	73.9	100.0
제주	14	0.0	33.6	33.6	44.0	22.4	66.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2	24.3	26.5	53.6	19.9	73.5	100.0
중·소도시	521	3.6	20.7	24.2	58.9	16.8	75.8	100.0
읍/면	130	1.4	16.8	18.2	57.2	24.6	81.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6	23.5	26.1	56.5	17.4	73.9	100.0
중도	116	8.5	15.9	24.4	61.6	14.0	75.6	100.0
보수적	561	1.6	21.7	23.3	55.0	21.6	76.7	100.0
종교별								
불교	245	1.8	22.5	24.2	56.0	19.7	75.8	100.0
기독교	238	5.2	25.5	30.7	52.9	16.5	69.3	100.0
천주교	72	3.0	15.3	18.3	62.6	19.1	81.7	100.0
종교없음	625	2.0	21.5	23.5	57.4	19.1	76.5	100.0
모름/무응답	21	5.9	10.6	16.5	45.3	38.2	83.5	100.0

표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②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	%	%	%	%	%	%	%
전 체	1200	2.0	10.3	12.3	20	46.7	21.1	67.8	100.0
성별									
남자	607	2.3	10.2	12.4	19.9	44.8	22.9	67.7	100.0
여자	593	1.7	10.4	12.1	20.0	48.6	19.2	67.8	100.0
연령별									
19~29세	209	2.5	10.1	12.5	21.2	41.7	24.5	66.2	100.0
30대	237	1.4	7.9	9.3	21.0	46.2	23.5	69.7	100.0
40대	275	1.8	9.1	10.9	19.7	47.9	21.4	69.4	100.0
50대	261	2.9	11.8	14.6	21.1	48.0	16.3	64.3	100.0
60대 이상	218	1.5	12.8	14.2	16.5	49.0	20.3	6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2	11.3	12.5	18.3	48.3	20.9	69.2	100.0
고졸	599	2.0	8.6	10.6	20.0	49.7	19.7	69.4	100.0
대재 이상	470	2.2	12.2	14.4	20.4	42.4	22.8	65.2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55.4	44.6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2	13.7	18.9	26.7	35.5	18.9	54.4	100.0
자영업	260	2.7	9.6	12.3	17.9	49.7	20.1	69.8	100.0
블루 칼라	341	1.0	7.0	8.0	19.2	52.3	20.5	72.8	100.0
화이트칼라	230	2.3	11.7	14.0	22.6	37.5	25.9	63.4	100.0
전업 주부	222	1.1	13.3	14.4	18.7	47.8	19.2	66.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0	12.0	16.0	22.5	41.9	19.6	61.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6	13.9	16.5	22.6	42.8	18.0	60.8	100.0
200~299만원	203	2.6	12.4	15.1	23.6	43.4	17.9	61.4	100.0
300~399만원	362	1.1	8.9	10.1	19.7	48.6	21.6	70.2	100.0
400만원 이상	500	2.2	9.2	11.4	18.0	47.8	22.8	70.6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2	7.6	9.8	14.5	54.2	21.5	75.7	100.0
충청권	123	2.1	9.7	11.9	32.9	37.8	17.5	55.2	100.0
호남권	117	2.0	17.5	19.5	31.2	29.4	20.0	49.3	100.0
영남권	309	0.6	11.5	12.1	20.9	46.2	20.8	67.0	100.0
강원	35	9.0	14.6	23.7	21.5	22.2	32.6	54.8	100.0
제주	14	2.9	31.9	34.8	24.6	20.6	20.0	40.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3	15.1	16.3	18.1	43.8	21.7	65.6	100.0
중·소도시	521	3.1	6.6	9.7	23.6	48.1	18.7	66.8	100.0
읍/면	130	0.9	4.7	5.6	13.2	53.3	27.9	8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8	11.6	13.4	22.4	45.5	18.7	64.2	100.0
중도	116	1.7	10.2	11.9	14.6	54.5	18.9	73.5	100.0
보수적	561	2.3	9.0	11.3	18.8	46.2	23.7	69.9	100.0
종교별									
불교	245	1.1	12.6	13.6	20.7	47.3	18.3	65.6	100.0
기독교	238	3.7	10.0	13.6	20.7	47.7	18.0	65.7	100.0
천주교	72	7.1	10.7	17.8	22.6	33.3	26.3	59.6	100.0
종교없음	625	1.2	9.5	10.7	19.0	47.6	22.6	70.3	100.0
모름/무응답	21	0.0	8.2	8.2	22.6	46.5	22.7	69.2	100.0

표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①+②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전 체	1200	2.7	11.5	14.2	22.9	36.3	26.7	63.0	100.0	
성별	남자	607	3.7	12.7	16.5	19.9	34.8	28.9	63.7	100.0
	여자	593	1.6	10.2	11.9	25.9	37.8	24.5	62.3	100.0
연령별	19~29세	209	2.1	11.0	13.1	25.8	34.6	26.5	61.1	100.0
	30대	237	1.3	8.7	10.0	22.0	36.5	31.5	68.0	100.0
	40대	275	3.6	11.1	14.6	19.8	38.5	27.1	65.6	100.0
	50대	261	3.6	12.2	15.9	23.4	34.4	26.3	60.7	100.0
	60대 이상	218	2.4	14.7	17.2	24.3	36.9	21.7	58.6	100.0
	중졸 이하	129	2.3	12.8	15.1	27.9	36.0	21.0	57.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1	10.2	12.4	21.3	39.5	26.8	66.3	100.0
	대재 이상	470	3.5	12.8	16.3	23.3	32.1	28.3	60.4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6.2	16.2	35.2	31.1	17.5	48.6	100.0
	자영업	260	3.9	11.8	15.7	19.7	36.4	28.1	64.5	100.0
	블루 칼라	341	0.9	9.6	10.5	23.6	39.7	26.2	65.9	100.0
	화이트칼라	230	4.8	10.1	14.8	21.0	34.5	29.6	64.1	100.0
	전업 주부	222	1.5	12.0	13.5	26.1	36.7	23.6	60.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8	16.9	20.6	22.9	29.7	26.7	56.5	100.0
	200만원 미만	134	2.9	16.7	19.7	28.9	31.9	19.5	51.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5	14.0	18.4	24.0	34.1	23.4	57.6	100.0
	300~399만원	362	1.5	9.8	11.3	22.5	36.9	29.3	66.2	100.0
	400만원 이상	500	2.7	10.4	13.1	21.1	37.9	27.9	65.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1	10.3	13.4	18.8	38.6	29.2	67.8	100.0
	충청권	123	1.3	10.9	12.2	34.1	30.1	23.6	53.7	100.0
	호남권	117	2.7	14.2	16.9	25.7	35.3	22.0	57.4	100.0
	영남권	309	1.5	11.8	13.2	26.1	36.1	24.5	60.7	100.0
	강원	35	9.0	17.7	26.7	21.7	21.7	29.9	51.6	100.0
	제주	14	6.0	26.2	32.2	7.1	36.7	24.0	60.7	100.0
	대도시	550	3.4	14.4	17.8	21.5	35.4	25.3	60.7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2.1	9.8	11.9	22.6	37.0	28.5	65.4	100.0
	읍/면	130	1.9	6.1	8.0	29.4	37.1	25.4	62.5	100.0
	진보적	522	2.8	12.5	15.3	26.1	33.8	24.8	58.6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0.6	10.9	11.4	23.0	36.3	29.2	65.6	100.0
	보수적	561	3.0	10.7	13.7	19.8	38.5	28.0	66.5	100.0
	불교	245	2.0	11.3	13.3	25.9	35.8	25.0	60.8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4.4	17.3	21.7	20.5	32.1	25.6	57.8	100.0
	천주교	72	6.9	13.7	20.6	20.7	34.0	24.7	58.7	100.0
	종교없음	625	1.9	9.3	11.1	22.6	38.7	27.6	66.3	100.0
	모름/무응답	21	0.0	7.4	7.4	30.5	22.6	39.5	62.1	100.0

표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①+②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전 체	1200	4.9	20.4	25.3	22.8	31.8	20.1	51.9	100.0	
성별	남자	607	5.3	21.5	26.7	23.4	29.2	20.7	49.9	100.0
	여자	593	4.5	19.4	23.8	22.2	34.5	19.5	54.0	100.0
연령별	19~29세	209	4.9	20.8	25.7	29.0	24.9	20.3	45.3	100.0
	30대	237	1.8	21.4	23.2	24.1	33.3	19.4	52.7	100.0
	40대	275	4.6	19.1	23.7	22.3	31.4	22.6	54.0	100.0
	50대	261	7.9	20.6	28.5	16.6	34.9	20.1	54.9	100.0
	60대 이상	218	4.9	20.5	25.4	23.3	33.8	17.5	51.3	100.0
	중졸 이하	129	4.8	22.0	26.8	23.8	28.0	21.4	49.4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3.5	20.1	23.6	22.4	33.4	20.7	54.1	100.0
	대재 이상	470	6.7	20.5	27.2	23.1	30.8	18.9	49.7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55.4	44.6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5.4	15.4	18.3	39.9	26.4	66.4	100.0
	자영업	260	7.3	20.7	28.1	16.3	32.9	22.7	55.6	100.0
	블루 칼라	341	2.4	19.8	22.2	25.9	33.9	18.0	51.9	100.0
	화이트칼라	230	6.7	19.7	26.4	22.4	30.7	20.6	51.2	100.0
	전업 주부	222	2.8	17.3	20.0	24.0	34.0	21.9	55.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6	29.1	36.7	26.8	21.1	15.4	36.5	100.0
	200만원 미만	134	6.4	23.2	29.6	25.9	28.9	15.6	44.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2	22.5	27.7	26.1	26.5	19.7	46.2	100.0
	300~399만원	362	3.2	22.6	25.7	20.5	32.8	21.0	53.8	100.0
	400만원 이상	500	5.6	17.3	22.9	22.2	34.0	20.8	54.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2	18.1	22.3	20.9	35.3	21.5	56.8	100.0
	충청권	123	7.3	24.3	31.7	22.8	33.6	11.9	45.5	100.0
	호남권	117	5.0	28.4	33.3	31.6	20.8	14.2	35.0	100.0
	영남권	309	3.8	20.5	24.2	25.0	28.8	22.0	50.8	100.0
	강원	35	15.5	19.5	35.0	8.7	34.4	21.9	56.3	100.0
	제주	14	8.9	22.8	31.7	14.3	19.2	34.8	54.0	100.0
	대도시	550	4.9	27.1	31.9	26.0	26.0	16.1	42.1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5.4	15.0	20.4	20.6	37.0	22.0	59.0	100.0
	읍/면	130	2.6	14.4	17.0	17.7	35.9	29.5	65.3	100.0
	진보적	522	6.5	18.9	25.4	20.9	35.0	18.8	53.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4.4	16.1	20.6	28.8	30.2	20.4	50.6	100.0
	보수적	561	3.5	22.8	26.2	23.3	29.2	21.3	50.5	100.0
	불교	245	3.5	20.7	24.1	22.7	34.1	19.0	53.1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6.3	20.2	26.6	27.6	29.9	16.0	45.9	100.0
	천주교	72	8.1	18.2	26.4	17.6	34.0	22.1	56.1	100.0
	종교없음	625	4.5	20.4	24.8	21.8	31.2	22.2	53.3	100.0
	모름/무응답	21	5.9	29.1	35.0	14.4	39.6	11.0	50.6	100.0

표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①+②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전 체		1200	0.9	3.5	4.4	25.5	48.2	21.9	70.1	100.0
성별	남자	607	0.9	2.5	3.4	24.5	49.2	22.9	72.1	100.0
	여자	593	0.9	4.5	5.4	26.5	47.3	20.8	68.1	100.0
연령별	19~29세	209	0.0	2.8	2.8	27.9	46.8	22.6	69.4	100.0
	30대	237	0.8	3.6	4.4	23.3	50.3	22.0	72.3	100.0
	40대	275	1.0	3.7	4.7	22.0	50.9	22.4	73.3	100.0
	50대	261	0.6	4.4	5.0	27.9	47.2	19.9	67.1	100.0
	60대 이상	218	2.1	2.7	4.8	27.1	45.3	22.9	68.1	100.0
	중졸 이하	129	1.2	2.8	4.0	25.1	45.6	25.3	70.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0.6	3.0	3.5	27.2	46.5	22.8	69.2	100.0
	대재 이상	470	1.2	4.3	5.6	23.5	51.2	19.8	71.0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55.4	44.6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1	2.1	26.5	29.2	42.2	71.4	100.0
	자영업	260	0.5	2.8	3.3	25.4	48.8	22.5	71.3	100.0
	블루 칼라	341	0.3	2.1	2.4	29.7	43.6	24.3	67.9	100.0
	화이트칼라	230	1.1	5.1	6.3	20.2	55.6	17.9	73.5	100.0
	전업 주부	222	0.9	5.7	6.6	23.5	48.6	21.2	69.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8	2.1	4.9	26.9	48.8	19.4	68.2	100.0
	200만원 미만	134	2.5	3.4	5.9	25.8	47.6	20.6	68.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6	7.9	8.5	26.3	42.7	22.6	65.2	100.0
	300~399만원	362	0.9	1.7	2.6	27.2	50.3	19.9	70.2	100.0
	400만원 이상	500	0.6	3.0	3.6	23.6	49.3	23.5	72.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6	3.4	4.0	23.1	51.0	22.0	73.0	100.0
	충청권	123	0.6	3.8	4.4	26.6	47.7	21.3	69.0	100.0
	호남권	117	1.4	3.2	4.6	43.6	34.6	17.2	51.8	100.0
	영남권	309	0.3	2.8	3.1	24.7	49.3	22.9	72.2	100.0
	강원	35	8.8	6.9	15.7	12.8	43.1	28.4	71.5	100.0
	제주	14	6.0	13.0	19.0	16.7	39.7	24.6	64.3	100.0
	대도시	550	0.7	5.3	6.0	29.6	46.4	18.0	64.4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0.8	1.8	2.6	22.7	49.9	24.8	74.7	100.0
	읍/면	130	1.9	2.5	4.5	19.1	49.3	27.1	76.5	100.0
	진보적	522	1.6	3.9	5.4	25.7	48.5	20.3	68.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0.6	1.5	2.1	27.3	46.4	24.2	70.6	100.0
	보수적	561	0.3	3.6	3.9	24.9	48.4	22.9	71.3	100.0
	불교	245	1.8	2.6	4.5	23.5	46.6	25.4	72.0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0.9	3.4	4.3	30.9	45.4	19.3	64.7	100.0
	천주교	72	0.0	3.9	3.9	24.8	47.5	23.8	71.4	100.0
	종교없음	625	0.6	3.9	4.6	23.9	49.9	21.7	71.6	100.0
	모름/무응답	21	0.0	0.0	0.0	36.8	52.1	11.1	63.2	100.0

표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①+②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전 체		1200	1.3	6.5	7.8	24.6	44.2	23.5	67.6	100.0
성별	남자	607	1.4	6.3	7.7	24.0	43.1	25.2	68.3	100.0
	여자	593	1.2	6.6	7.8	25.2	45.2	21.7	67.0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	4.7	5.7	28.8	44.4	21.2	65.5	100.0
	30대	237	0.7	6.1	6.8	23.1	47.1	23.0	70.2	100.0
	40대	275	1.2	6.8	7.9	26.8	38.2	27.1	65.3	100.0
	50대	261	1.6	6.5	8.1	23.8	46.0	22.1	68.1	100.0
	60대 이상	218	2.2	8.1	10.2	20.5	46.2	23.1	69.3	100.0
	중졸 이하	129	1.8	4.4	6.2	20.9	48.4	24.5	72.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1	6.2	7.3	24.5	44.6	23.6	68.2	100.0
	대재 이상	470	1.4	7.3	8.8	25.7	42.5	23.1	65.6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0.9	10.9	33.1	32.2	23.8	56.1	100.0
	자영업	260	0.3	6.7	7.0	25.4	46.0	21.5	67.6	100.0
	블루 칼라	341	1.1	6.3	7.4	22.1	44.1	26.4	70.5	100.0
	화이트칼라	230	0.7	8.4	9.1	23.3	44.4	23.2	67.6	100.0
	전업 주부	222	1.8	4.2	6.0	24.7	48.1	21.2	69.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4	6.0	10.4	30.6	35.1	23.9	59.0	100.0
	200만원 미만	134	2.8	6.7	9.4	22.4	46.9	21.3	68.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8	6.8	8.6	27.8	45.5	18.1	63.6	100.0
	300~399만원	362	1.3	5.8	7.0	23.1	48.4	21.5	69.8	100.0
	400만원 이상	500	0.7	6.6	7.3	25.0	39.9	27.7	67.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6	5.0	5.6	21.3	47.5	25.6	73.1	100.0
	충청권	123	0.0	10.7	10.7	30.8	35.8	22.7	58.5	100.0
	호남권	117	5.9	7.5	13.4	34.0	32.5	20.1	52.6	100.0
	영남권	309	0.3	6.4	6.7	27.0	45.2	21.2	66.3	100.0
	강원	35	11.1	7.0	18.0	13.2	47.4	21.4	68.8	100.0
	제주	14	3.1	22.2	25.4	9.6	43.3	21.7	65.0	100.0
	대도시	550	1.4	8.4	9.8	23.4	41.0	25.8	66.8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3	4.1	5.4	25.4	48.4	20.8	69.2	100.0
	읍/면	130	0.9	7.9	8.8	26.3	40.8	24.1	64.9	100.0
	진보적	522	2.0	7.1	9.1	24.2	44.0	22.7	66.7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0.7	5.1	5.8	17.9	49.9	26.4	76.3	100.0
	보수적	561	0.8	6.1	6.9	26.4	43.1	23.6	66.7	100.0
	불교	245	2.2	5.6	7.8	20.5	47.4	24.3	71.7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1.6	8.4	10.0	22.5	47.3	20.2	67.5	100.0
	천주교	72	0.0	4.0	4.0	33.6	32.5	30.0	62.4	100.0
	종교없음	625	1.0	6.4	7.4	26.0	42.7	23.8	66.6	100.0
	모름/무응답	21	0.0	5.9	5.9	23.5	52.8	17.8	70.6	100.0

표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④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①+②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전 체	1200	2.0	7.2	9.2	20.6	37.9	32.3	70.2	100.0	
성별	남자	607	1.9	8.3	10.2	19.3	35.7	34.8	70.5	100.0
	여자	593	2.2	6.0	8.2	21.9	40.1	29.8	69.9	100.0
연령별	19~29세	209	2.2	6.8	9.0	20.7	38.0	32.3	70.3	100.0
	30대	237	1.2	5.9	7.1	22.4	35.9	34.7	70.5	100.0
	40대	275	2.4	7.0	9.4	21.0	35.0	34.7	69.7	100.0
	50대	261	1.4	7.9	9.3	19.8	40.6	30.3	70.9	100.0
	60대 이상	218	3.1	8.2	11.3	19.0	40.4	29.3	69.7	100.0
	중졸 이하	129	1.1	6.4	7.6	17.1	47.3	28.1	75.4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8	6.9	8.7	21.5	36.0	33.8	69.8	100.0
	대재 이상	470	2.5	7.7	10.3	20.3	37.6	31.8	69.4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1.8	11.8	22.4	27.3	38.4	65.7	100.0
	자영업	260	1.1	7.0	8.2	16.9	38.9	36.0	74.9	100.0
	블루 칼라	341	1.8	6.1	7.9	22.8	34.7	34.7	69.4	100.0
	화이트칼라	230	2.3	9.2	11.5	17.2	37.7	33.6	71.3	100.0
	전업 주부	222	1.4	5.9	7.3	25.0	41.8	25.9	67.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5	8.1	13.6	20.4	39.5	26.5	66.0	100.0
	200만원 미만	134	3.5	8.9	12.4	17.5	41.8	28.3	70.2	100.0
	200~299만원	203	2.4	9.8	12.2	21.2	40.3	26.3	66.6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2.2	7.7	9.9	19.9	40.9	29.3	70.2	100.0
	400만원 이상	500	1.2	5.3	6.5	21.7	33.7	38.1	71.9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1	5.8	6.9	16.6	36.6	39.9	76.5	100.0
	충청권	123	2.2	12.7	14.9	27.2	34.7	23.2	57.9	100.0
	호남권	117	7.4	11.4	18.9	25.5	29.2	26.4	55.6	100.0
	영남권	309	0.6	4.6	5.3	26.3	44.0	24.4	68.4	100.0
	강원	35	8.7	8.6	17.3	4.3	47.6	30.8	78.4	100.0
	제주	14	9.3	33.4	42.6	7.6	33.0	16.8	49.8	100.0
	대도시	550	1.9	8.7	10.6	21.5	33.5	34.4	67.9	100.0
	중·소도시	521	1.9	5.5	7.4	19.5	41.9	31.2	73.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3.1	7.5	10.5	20.8	40.5	28.2	68.7	100.0
	진보적	522	1.8	8.7	10.4	23.0	34.6	31.9	66.6	100.0
	중도 보수적	116	2.2	6.1	8.3	16.0	46.9	28.8	75.7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2.2	6.0	8.2	19.3	39.0	33.5	72.5	100.0
	불교	245	2.6	6.1	8.7	20.0	41.6	29.7	71.3	100.0
	기독교	238	3.3	7.7	11.0	20.8	37.9	30.3	68.3	100.0
	천주교	72	1.2	6.2	7.3	23.9	38.1	30.7	68.8	100.0
	종교없음	625	1.5	7.7	9.1	20.3	36.6	34.0	70.5	100.0
	모름/무응답	21	0.0	2.3	2.3	21.2	33.0	43.5	76.5	100.0

표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전 체	1200	23.8	26.1	50.1	100.0	
성별	남자	607	24.0	24.7	51.3	100.0
	여자	593	23.6	27.6	48.8	100.0
연령별	19~29세	209	22.6	28.0	49.4	100.0
	30대	237	18.7	30.4	50.9	100.0
	40대	275	24.2	24.7	51.1	100.0
	50대	261	25.5	27.2	47.3	100.0
	60대 이상	218	28.0	20.1	51.9	100.0
	중졸 이하	129	26.5	23.9	49.6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3.2	26.5	50.3	100.0
	대재 이상	470	23.8	26.3	49.9	100.0
	무응답	2	44.6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3.5	38.8	37.7	100.0
	자영업	260	22.6	20.3	57.1	100.0
	블루 칼라	341	20.5	30.2	49.3	100.0
	화이트칼라	230	22.6	27.6	49.7	100.0
	전업 주부	222	27.5	25.9	46.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1.0	22.5	46.6	100.0
	200만원 미만	134	27.6	20.5	51.9	100.0
	200~299만원	203	25.9	27.5	46.5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23.3	28.6	48.1	100.0
	400만원 이상	500	22.3	25.3	52.4	100.0
	무응답	1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9.0	31.0	50.0	100.0
	충청권	123	23.9	26.7	49.5	100.0
	호남권	117	30.4	17.2	52.4	100.0
	영남권	309	29.5	19.4	51.1	100.0
	강원	35	28.5	32.3	39.1	100.0
	제주	14	35.4	18.4	46.2	100.0
	대도시	550	22.7	24.8	52.5	100.0
	중·소도시	521	23.5	28.2	48.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29.6	23.2	47.2	100.0
	진보적	522	22.6	31.2	46.2	100.0
	중도 보수적	116	24.3	32.0	43.7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24.8	20.2	55.0	100.0
	불교	245	28.8	25.1	46.1	100.0
	기독교	238	29.0	23.1	47.9	100.0
	천주교	72	19.1	28.0	52.9	100.0
	종교없음	625	21.1	27.2	51.7	100.0
	모름/무응답	21	4.6	33.0	62.5	100.0

표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전 체	1200	40.0	29.8	30.2	100.0	
성별	남자	607	38.9	29.8	31.4	100.0
	여자	593	41.1	29.9	29.0	100.0
연령별	19~29세	209	30.8	38.5	30.7	100.0
	30대	237	37.1	31.0	31.9	100.0
	40대	275	44.5	24.8	30.8	100.0
	50대	261	41.6	29.5	28.9	100.0
	60대 이상	218	44.3	26.9	28.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5.3	29.7	25.0	100.0
	고졸	599	40.7	28.1	31.1	100.0
	대재 이상	470	37.3	32.1	30.6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6.8	28.1	25.2	100.0
	자영업	260	43.7	24.6	31.7	100.0
	블루 칼라	341	38.8	30.9	30.3	100.0
	화이트칼라	230	36.8	32.8	30.4	100.0
	전업 주부	222	44.3	26.6	29.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2.9	38.0	29.1	100.0
		200만원 미만	134	42.8	27.4	29.8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8.3	31.0	30.7	100.0
	300~399만원	362	37.1	31.7	31.2	100.0
	400만원 이상	500	41.8	28.7	29.4	100.0
	무응답	1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7.0	33.7	29.3	100.0
	충청권	123	47.5	24.2	28.3	100.0
	호남권	117	32.6	34.4	33.0	100.0
	영남권	309	44.2	23.3	32.4	100.0
	강원	35	47.2	24.3	28.5	100.0
	제주	14	53.6	30.8	15.6	100.0
		대도시	550	40.1	27.1	32.8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40.1	32.6	27.3	100.0
	읍/면	130	39.2	30.0	30.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8.7	34.0	27.3	100.0
	중도	116	29.7	36.4	33.8	100.0
	보수적	561	43.3	24.5	32.2	100.0
	불교	245	44.3	28.9	26.8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44.1	26.9	29.1	100.0
	천주교	72	38.3	31.2	30.5	100.0
	종교없음	625	37.4	30.6	32.0	100.0
	모름/무응답	21	27.8	44.7	27.4	100.0

표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전 체	1200	47.3	34.5	14.1	4.0	100.0	
성별	남자	607	47.0	34.9	14.4	3.8	100.0
	여자	593	47.7	34.0	13.9	4.3	100.0
연령별	19~29세	209	53.1	32.4	11.3	3.3	100.0
	30대	237	41.1	40.6	14.7	3.6	100.0
	40대	275	45.4	36.4	16.2	2.1	100.0
	50대	261	46.4	34.8	13.6	5.2	100.0
	60대 이상	218	52.3	27.0	14.4	6.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8.6	26.4	17.5	7.4	100.0
	고졸	599	46.1	36.9	12.3	4.6	100.0
	대재 이상	470	48.4	33.6	15.6	2.4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5.6	44.9	19.5	0.0	100.0
	자영업	260	53.2	29.7	13.5	3.6	100.0
	블루 칼라	341	42.9	37.5	13.9	5.6	100.0
	화이트칼라	230	45.1	35.4	18.4	1.1	100.0
	전업 주부	222	44.9	38.4	10.9	5.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7.4	25.8	13.3	3.5	100.0
		200만원 미만	134	50.3	28.7	14.1	6.9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1.0	34.3	10.6	4.1	100.0
	300~399만원	362	44.4	38.1	13.3	4.2	100.0
	400만원 이상	500	47.3	33.3	16.3	3.1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7.7	38.5	18.4	5.4	100.0
	충청권	123	69.7	22.4	6.6	1.3	100.0
	호남권	117	52.4	29.7	13.6	4.2	100.0
	영남권	309	54.3	33.7	9.9	2.1	100.0
	강원	35	61.5	25.2	6.8	6.5	100.0
	제주	14	36.4	47.0	13.6	2.9	100.0
		대도시	550	44.6	36.9	14.1	4.3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50.9	32.8	12.6	3.6	100.0
	읍/면	130	44.5	30.5	20.5	4.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6.1	34.2	14.2	5.5	100.0
	중도	116	38.8	40.8	16.4	4.0	100.0
	보수적	561	50.3	33.4	13.6	2.7	100.0
	불교	245	46.8	33.3	14.8	5.1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44.4	35.4	12.9	7.3	100.0
	천주교	72	38.4	44.9	16.7	0.0	100.0
	종교없음	625	49.3	33.9	13.9	2.8	100.0
	모름/무응답	21	58.9	17.3	18.1	5.8	100.0

표13.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11.6	43.7	8.2	21.6	14.8	100.0	
성별	남자	607	10.7	44.4	9.3	20.2	15.4	100.0
	여자	593	12.4	43.1	7.1	23.1	14.2	100.0
연령별	19~29세	209	7.9	38.6	10.9	24.8	17.7	100.0
	30대	237	12.9	38.9	7.3	24.2	16.7	100.0
	40대	275	10.8	47.9	8.5	19.7	13.1	100.0
	50대	261	13.7	46.7	8.6	19.3	11.8	100.0
	60대 이상	218	12.1	45.2	5.7	21.1	15.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6.4	39.7	4.6	21.5	17.8	100.0
	고졸	599	10.0	45.2	9.1	21.3	14.3	100.0
	대재 이상	470	12.4	43.1	8.0	22.0	14.5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1	30.5	18.8	23.9	14.8	100.0
	자영업	260	12.6	50.9	6.9	16.5	13.1	100.0
	블루 칼라	341	10.0	41.8	10.0	23.8	14.5	100.0
	화이트칼라	230	10.7	46.0	7.9	23.0	12.4	100.0
	전업 주부	222	13.8	39.2	4.9	25.2	16.9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11.3	40.4	10.7	17.5	20.2	100.0
	200만원 미만	134	13.1	41.3	3.5	21.4	20.7	100.0
	200~299만원	203	11.0	41.0	9.5	22.5	16.1	100.0
	300~399만원	362	8.5	47.3	11.6	17.4	15.2	100.0
	400만원 이상	500	13.6	43.0	6.5	24.5	12.3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수도권	602	11.6	47.9	8.4	17.4	14.7	100.0
	충청권	123	15.2	36.6	9.5	26.5	12.2	100.0
	호남권	117	17.6	47.5	6.2	18.9	9.9	100.0
	영남권	309	7.9	36.6	9.3	30.0	16.2	100.0
	강원	35	12.4	43.7	0.0	17.9	25.9	100.0
	제주	14	9.9	55.0	0.0	9.5	25.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9.7	48.9	4.6	21.2	15.7	100.0
	중·소도시	521	13.5	40.8	12.6	19.4	13.6	100.0
	읍/면	130	11.7	33.6	6.0	32.6	1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3.0	45.4	7.9	19.8	13.9	100.0
	중도	116	11.6	38.5	15.0	20.8	14.1	100.0
	보수적	561	10.2	43.3	7.1	23.5	15.9	100.0
종교별	불교	245	6.5	50.8	7.1	21.9	13.7	100.0
	기독교	238	15.4	49.4	2.8	18.2	14.2	100.0
	천주교	72	13.2	36.7	16.3	18.0	15.8	100.0
	종교없음	625	11.1	40.0	9.6	23.7	15.6	100.0
	모름/무응답	21	36.1	34.1	11.8	9.8	8.1	100.0

표14.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①+②	③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전 체	1200	3.6	26.9	30.5	51.9		17.6
성별	남자	607	4.3	29.4	33.7	49.2	17.0	66.3	100.0
	여자	593	2.9	24.4	27.2	54.6	18.1	72.8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	23.1	24.1	56.8	19.1	75.9	100.0
	30대	237	2.9	26.7	29.6	51.2	19.2	70.4	100.0
	40대	275	2.5	31.6	34.1	50.4	15.5	65.9	100.0
	50대	261	7.2	24.6	31.9	50.5	17.6	68.1	100.0
	60대 이상	218	3.9	27.7	31.6	51.5	16.9	68.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3	23.2	28.5	49.6	21.8	71.5	100.0
	고졸	599	3.6	26.5	30.1	54.8	15.1	69.9	100.0
	대재 이상	470	3.1	28.6	31.7	48.8	19.4	68.3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7	52.6	57.3	28.9	13.8	42.7	100.0
	자영업	260	3.8	23.1	26.9	55.3	17.8	73.1	100.0
	블루 칼라	341	2.2	26.0	28.1	54.7	17.1	71.9	100.0
	화이트칼라	230	4.6	30.6	35.2	46.7	18.0	64.8	100.0
	전업 주부	222	4.0	28.8	32.8	51.1	16.1	67.2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4.2	23.3	27.5	51.8	20.6	72.5	100.0
	200만원 미만	134	4.9	22.3	27.2	48.8	24.0	72.8	100.0
	200~299만원	203	5.1	36.4	41.5	40.7	17.8	58.5	100.0
	300~399만원	362	2.4	28.4	30.7	54.6	14.6	69.3	100.0
	400만원 이상	500	3.5	23.3	26.9	55.4	17.7	73.1	100.0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수도권	602	3.7	21.1	24.8	59.5	15.6	75.2	100.0
	충청권	123	1.3	33.6	34.9	50.3	14.8	65.1	100.0
	호남권	117	4.1	28.0	32.2	47.8	20.0	67.8	100.0
	영남권	309	3.0	34.0	37.0	42.0	21.0	63.0	100.0
	강원	35	13.0	30.6	43.6	36.8	19.6	56.4	100.0
	제주	14	2.9	44.6	47.5	28.5	23.9	52.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5	28.4	30.0	52.1	18.0	70.0	100.0
	중·소도시	521	6.4	25.2	31.6	52.5	15.9	68.4	100.0
	읍/면	130	1.0	27.5	28.5	48.9	22.7	7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6.4	30.2	36.6	46.9	16.5	63.4	100.0
	중도	116	2.4	31.3	33.7	53.7	12.6	66.3	100.0
	보수적	561	1.2	23.0	24.2	56.2	19.6	75.8	100.0
종교별	불교	245	3.5	28.5	32.0	50.4	17.7	68.0	100.0
	기독교	238	4.6	28.9	33.5	49.1	17.4	66.5	100.0
	천주교	72	7.1	24.1	31.2	52.9	15.9	68.8	100.0
	종교없음	625	2.6	26.1	28.7	53.0	18.2	71.3	100.0
	모름/무응답	21	10.8	19.7	30.5	65.1	4.3	69.5	100.0

표15.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5	19.5	22.0	44.5	33.5	78.0	100.0	
성별	남자	607	2.6	19.4	22.0	42.8	35.2	78.0	100.0
	여자	593	2.4	19.5	21.9	46.2	31.9	78.1	100.0
연령별	19~29세	209	0.8	17.4	18.3	51.0	30.8	81.7	100.0
	30대	237	1.6	21.1	22.7	43.1	34.2	77.3	100.0
	40대	275	3.6	17.8	21.4	44.5	34.1	78.6	100.0
	50대	261	1.9	22.7	24.6	42.0	33.4	75.4	100.0
	60대 이상	218	4.3	17.9	22.3	42.9	34.9	77.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9	17.5	21.4	46.9	31.7	78.6	100.0
	고졸	599	2.9	19.8	22.7	44.0	33.3	77.3	100.0
	대재 이상	470	1.6	19.7	21.3	44.5	34.2	78.7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9.0	19.0	54.1	26.9	81.0	100.0
	자영업	260	2.2	19.4	21.6	47.6	30.8	78.4	100.0
	블루 칼라	341	2.6	17.1	19.6	44.2	36.1	80.4	100.0
	화이트칼라	230	1.3	26.4	27.7	41.2	31.1	72.3	100.0
	전업 주부	222	3.7	18.6	22.4	44.5	33.1	77.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2	15.0	18.2	43.5	38.3	8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6	18.8	22.4	41.7	35.8	77.6	100.0
	200~299만원	203	3.9	23.1	27.0	43.7	29.3	73.0	100.0
	300~399만원	362	1.8	18.3	20.1	45.0	34.9	79.9	100.0
	400만원 이상	500	2.1	19.0	21.2	45.3	33.5	78.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0	23.8	26.8	44.9	28.3	73.2	100.0
	충청권	123	2.0	12.5	14.5	51.6	33.8	85.5	100.0
	호남권	117	2.0	16.2	18.2	49.3	32.5	81.8	100.0
	영남권	309	1.0	15.7	16.7	39.2	44.1	83.3	100.0
	강원	35	11.0	12.5	23.5	46.0	30.5	76.5	100.0
	제주	14	0.0	22.0	22.0	37.3	40.7	78.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1	22.6	24.8	44.5	30.7	75.2	100.0
	중·소도시	521	3.5	16.3	19.8	44.8	35.4	80.2	100.0
	읍/면	130	0.0	18.7	18.7	43.3	38.0	81.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6	19.7	23.3	43.3	33.5	76.7	100.0
	중도	116	1.5	21.8	23.3	50.0	26.7	76.7	100.0
	보수적	561	1.7	18.8	20.5	44.5	35.0	79.5	100.0
종교별	불교	245	1.3	18.7	20.0	42.7	37.4	80.0	100.0
	기독교	238	5.3	23.2	28.5	42.3	29.1	71.5	100.0
	천주교	72	2.1	21.2	23.3	48.3	28.3	76.7	100.0
	종교없음	625	1.8	18.2	20.0	45.8	34.3	80.0	100.0
	모름/무응답	21	5.8	19.3	25.0	40.2	34.8	75.0	100.0

표16.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①+②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9	8.8	9.7	30.3	44.7	15.3	60.0	100.0	
성별	남자	607	0.9	8.4	9.4	30.0	44.2	16.4	60.6	100.0
	여자	593	0.8	9.1	9.9	30.7	45.2	14.2	59.4	100.0
연령별	19~29세	209	0.9	10.3	11.1	29.1	44.2	15.6	59.8	100.0
	30대	237	0.7	6.7	7.3	30.7	46.0	16.0	62.0	100.0
	40대	275	0.5	10.0	10.5	33.4	41.4	14.7	56.1	100.0
	50대	261	1.3	7.8	9.1	30.4	45.8	14.7	60.5	100.0
	60대 이상	218	1.1	9.2	10.3	27.3	46.4	16.0	62.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5	11.2	12.7	23.1	43.4	20.8	64.2	100.0
	고졸	599	0.9	8.4	9.3	34.0	43.3	13.4	56.7	100.0
	대재 이상	470	0.7	8.6	9.3	27.8	46.9	15.9	62.9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6.6	6.6	29.5	42.8	21.1	63.9	100.0
	자영업	260	0.4	7.2	7.6	30.5	47.1	14.9	62.0	100.0
	블루 칼라	341	0.3	9.4	9.7	29.7	49.1	11.5	60.6	100.0
	화이트칼라	230	0.7	8.1	8.8	30.0	42.6	18.6	61.2	100.0
	전업 주부	222	1.8	8.9	10.7	36.2	37.0	16.1	53.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4	11.8	14.1	22.1	45.3	18.4	63.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0.6	7.5	8.2	30.2	42.7	19.0	61.7	100.0
	200~299만원	203	1.1	11.4	12.5	24.1	45.3	18.1	63.4	100.0
	300~399만원	362	1.6	9.2	10.8	31.4	45.1	12.6	57.8	100.0
	400만원 이상	500	0.4	7.7	8.1	32.2	44.5	15.2	59.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4	9.4	9.7	28.9	49.5	11.9	61.4	100.0
	충청권	123	0.0	4.8	4.8	39.3	40.4	15.5	55.9	100.0
	호남권	117	1.4	4.9	6.3	21.1	50.2	22.4	72.6	100.0
	영남권	309	1.6	11.4	13.0	35.2	35.3	16.5	51.8	100.0
	강원	35	4.6	2.0	6.6	15.6	42.8	35.0	77.8	100.0
	제주	14	0.0	10.6	10.6	22.6	38.8	28.0	66.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0.7	8.3	9.0	25.4	48.8	16.8	65.6	100.0
	중·소도시	521	1.3	9.3	10.6	33.0	41.6	14.8	56.4	100.0
	읍/면	130	0.0	8.6	8.6	40.4	39.7	11.2	51.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5	9.0	10.5	31.3	41.6	16.6	58.2	100.0
	중도	116	0.8	7.5	8.4	39.5	39.9	12.3	52.2	100.0
	보수적	561	0.3	8.8	9.2	27.6	48.5	14.7	63.3	100.0
종교별	불교	245	1.7	8.4	10.1	38.9	36.3	14.6	51.0	100.0
	기독교	238	1.6	8.7	10.3	21.3	53.0	15.4	68.4	100.0
	천주교	72	0.0	8.2	8.2	30.9	50.8	10.1	60.9	100.0
	종교없음	625	0.4	9.1	9.5	30.2	44.1	16.1	60.3	100.0
	모름/무응답	21	0.0	5.9	5.9	34.8	42.8	16.5	59.3	100.0

표17.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전 체	1200	6.0	31.1	37.1	44.7	18.2	62.9	100.0	
성별	남자	607	8.1	32.3	40.3	41.0	18.7	59.7	100.0
	여자	593	3.9	30.0	33.9	48.5	17.6	66.1	100.0
연령별	19~29세	209	5.1	30.0	35.1	47.4	17.5	64.9	100.0
	30대	237	5.7	33.1	38.8	42.9	18.3	61.2	100.0
	40대	275	6.9	35.2	42.0	40.2	17.8	58.0	100.0
	50대	261	7.2	30.4	37.6	44.6	17.8	62.4	100.0
	60대 이상	218	4.7	25.9	30.6	49.8	19.6	69.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8	22.5	24.3	52.3	23.5	75.7	100.0
	고졸	599	6.1	32.2	38.3	45.8	16.0	61.7	100.0
	대재 이상	470	7.1	32.2	39.3	41.4	19.2	60.7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7	34.1	40.8	34.6	24.5	59.2	100.0
	자영업	260	7.9	30.9	38.7	43.8	17.5	61.3	100.0
	블루 칼라	341	6.0	31.7	37.7	44.0	18.3	62.3	100.0
	화이트칼라	230	6.5	32.2	38.7	40.0	21.3	61.3	100.0
	전업 주부	222	2.8	28.1	30.9	54.7	14.4	69.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6.7	33.2	39.9	40.7	19.4	60.1	100.0
	200만원 미만	134	3.5	27.3	30.8	43.7	25.5	6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6	34.5	40.1	36.9	23.0	59.9	100.0
	300~399만원	362	4.0	31.4	35.4	47.9	16.7	64.6	100.0
	400만원 이상	500	8.3	30.7	38.9	45.9	15.2	61.1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7.1	30.6	37.7	47.3	15.0	62.3	100.0
	충청권	123	12.1	38.2	50.3	35.2	14.5	49.7	100.0
	호남권	117	4.2	28.0	32.2	45.4	22.4	67.8	100.0
	영남권	309	1.9	31.2	33.1	43.9	23.0	66.9	100.0
	강원	35	6.9	19.4	26.3	50.1	23.5	73.7	100.0
	제주	14	9.5	47.6	57.1	12.4	30.6	42.9	100.0
	대도시	550	3.7	36.5	40.2	41.8	18.1	59.8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8.9	24.9	33.7	48.2	18.0	66.3	100.0
	읍/면	130	4.3	33.6	37.9	42.9	19.2	62.1	100.0
	진보적	522	8.0	31.5	39.5	42.4	18.1	60.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5.6	32.6	38.3	44.0	17.8	61.7	100.0
	보수적	561	4.2	30.5	34.7	47.0	18.4	65.3	100.0
	불교	245	4.8	33.4	38.2	43.8	18.0	61.8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9.2	33.9	43.2	40.4	16.4	56.8	100.0
	천주교	72	17.9	23.9	41.8	44.4	13.8	58.2	100.0
	종교없음	625	3.9	29.1	33.0	47.3	19.7	67.0	100.0
	모름/무응답	21	6.0	57.9	63.9	26.2	9.8	36.1	100.0

표18.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전 체	1200	15.3	50.9	66.1	30.1	3.8	33.9	100.0	
성별	남자	607	16.9	50.2	67.0	28.5	4.4	33.0	100.0
	여자	593	13.6	51.6	65.2	31.6	3.1	34.8	100.0
연령별	19~29세	209	20.0	46.9	66.9	28.8	4.3	33.1	100.0
	30대	237	16.7	53.1	69.8	25.1	5.1	30.2	100.0
	40대	275	11.8	51.3	63.1	32.8	4.1	36.9	100.0
	50대	261	14.2	51.4	65.7	30.6	3.8	34.3	100.0
	60대 이상	218	14.8	51.0	65.9	32.6	1.5	34.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7.6	49.9	67.5	29.2	3.2	32.5	100.0
	고졸	599	12.2	51.4	63.5	32.9	3.6	36.5	100.0
	대재 이상	470	18.5	50.7	69.2	26.6	4.3	30.8	100.0
직업별	무응답	2	44.6	0.0	44.6	55.4	0.0	55.4	100.0
	농/수/축산업	20	14.0	46.1	60.1	39.9	0.0	39.9	100.0
	자영업	260	12.7	52.6	65.3	30.6	4.2	34.7	100.0
	블루 칼라	341	12.7	48.7	61.4	33.5	5.1	38.6	100.0
	화이트칼라	230	19.2	52.0	71.2	25.0	3.8	28.8	100.0
	전업 주부	222	13.1	53.8	66.9	30.8	2.3	33.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4.5	46.8	71.3	25.9	2.9	2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1.9	43.5	65.4	32.0	2.6	34.6	100.0
	200~299만원	203	15.1	54.9	70.0	26.0	4.0	30.0	100.0
	300~399만원	362	12.5	53.2	65.7	29.6	4.7	34.3	100.0
	400만원 이상	500	15.4	49.7	65.0	31.6	3.4	35.0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13.4	52.1	65.5	31.8	2.7	34.5	100.0
	충청권	123	19.9	49.8	69.6	27.0	3.4	30.4	100.0
	호남권	117	20.4	41.7	62.1	30.4	7.5	37.9	100.0
	영남권	309	10.1	54.9	65.0	29.7	5.3	35.0	100.0
	강원	35	46.7	36.5	83.2	16.8	0.0	16.8	100.0
	제주	14	46.3	34.2	80.6	19.4	0.0	19.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8.8	52.4	71.2	25.8	3.0	28.8	100.0
	중·소도시	521	13.6	49.0	62.6	33.6	3.8	37.4	100.0
	읍/면	130	6.8	52.1	58.9	34.0	7.1	4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7.1	51.8	68.8	27.7	3.5	31.2	100.0
	중도	116	15.1	44.5	59.6	35.6	4.8	40.4	100.0
	보수적	561	13.7	51.4	65.0	31.1	3.9	35.0	100.0
종교별	불교	245	17.1	47.7	64.8	30.6	4.6	35.2	100.0
	기독교	238	16.0	58.4	74.4	21.6	4.0	25.6	100.0
	천주교	72	12.4	54.3	66.7	29.2	4.1	33.3	100.0
	종교없음	625	14.6	48.7	63.3	33.4	3.3	36.7	100.0
	모름/무응답	21	15.5	56.4	72.0	22.3	5.7	28.0	100.0

표19-1. 북한 사회 인지도 - ㉞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4.4	17.9	38.4	39.3	100.0	
성별	남자	607	6.1	22.8	40.2	30.8	100.0
	여자	593	2.6	12.9	36.5	48.0	100.0
연령별	19~29세	209	5.7	13.5	35.1	45.7	100.0
	30대	237	3.4	17.3	41.7	37.6	100.0
	40대	275	4.2	18.1	42.5	35.2	100.0
	50대	261	3.8	21.8	35.6	38.8	100.0
	60대 이상	218	5.0	17.9	36.2	4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9	10.8	29.1	55.2	100.0
	고졸	599	3.0	17.5	40.8	38.7	100.0
	대재 이상	470	6.0	20.5	37.9	35.6	100.0
	무응답	2	0.0	0.0	44.6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2.8	27.2	60.0	100.0
	자영업	260	4.5	20.1	39.2	36.1	100.0
	블루 칼라	341	3.4	16.1	42.0	38.4	100.0
	화이트칼라	230	5.5	22.2	41.1	31.2	100.0
	전업 주부	222	2.9	15.9	33.6	47.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9	14.6	32.2	45.3	100.0
	200만원 미만	134	2.3	15.4	38.2	44.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0	23.3	33.1	38.6	100.0
	300~399만원	362	3.2	15.9	39.6	41.2	100.0
	400만원 이상	500	5.5	17.6	39.8	37.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2	17.7	38.8	40.2	100.0
	충청권	123	2.9	23.1	43.0	30.9	100.0
	호남권	117	9.0	20.3	26.4	44.4	100.0
	영남권	309	4.4	14.9	41.3	39.4	100.0
	강원	35	11.2	21.4	34.6	32.8	100.0
	제주	14	10.5	17.4	26.3	45.7	100.0
	대도시	550	4.3	22.0	35.2	38.5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5.0	15.9	42.1	37.0	100.0
	읍/면	130	2.5	8.8	36.9	51.9	100.0
	진보적	522	5.1	20.7	35.5	38.7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3.5	19.6	41.9	35.0	100.0
	보수적	561	3.8	15.0	40.4	40.8	100.0
종교별	불교	245	5.2	20.5	34.0	40.4	100.0
	기독교	238	5.2	19.6	36.0	39.2	100.0
	천주교	72	4.7	21.7	32.9	40.8	100.0
	종교없음	625	3.6	15.5	42.8	38.2	100.0
	모름/무응답	21	8.4	28.6	5.7	57.3	100.0

표19-2. 북한 사회 인지도 - ㉟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9.1	20.6	44.4	26.0	100.0	
성별	남자	607	12.2	24.6	42.6	20.6	100.0
	여자	593	5.9	16.4	46.2	31.5	100.0
연령별	19~29세	209	11.9	15.8	38.4	34.0	100.0
	30대	237	8.4	22.5	43.3	25.8	100.0
	40대	275	9.0	21.7	45.5	23.8	100.0
	50대	261	8.1	22.0	49.3	20.6	100.0
	60대 이상	218	8.4	19.9	44.1	27.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8	17.1	37.4	38.6	100.0
	고졸	599	6.2	20.6	48.1	25.1	100.0
	대재 이상	470	13.5	21.5	41.4	23.6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	8.3	34.9	54.7	100.0
	자영업	260	8.5	23.9	48.4	19.2	100.0
	블루 칼라	341	7.4	20.5	45.1	27.0	100.0
	화이트칼라	230	12.8	23.4	44.5	19.3	100.0
	전업 주부	222	5.9	16.8	46.2	31.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5.0	17.1	32.2	35.7	100.0
	200만원 미만	134	8.6	20.4	37.7	33.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0.1	22.3	43.6	24.0	100.0
	300~399만원	362	7.7	19.3	44.7	28.3	100.0
	400만원 이상	500	9.8	20.7	46.4	23.1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8.6	18.9	47.7	24.8	100.0
	충청권	123	9.7	25.4	43.1	21.8	100.0
	호남권	117	20.9	22.1	29.5	27.4	100.0
	영남권	309	3.7	19.7	46.6	30.0	100.0
	강원	35	19.8	31.8	26.1	22.3	100.0
	제주	14	16.4	27.8	36.2	19.7	100.0
	대도시	550	10.4	22.8	43.7	23.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9.3	19.6	43.9	27.2	100.0
	읍/면	130	2.8	15.0	49.4	32.7	100.0
	진보적	522	11.6	21.2	42.7	24.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8.4	18.8	47.4	25.4	100.0
	보수적	561	6.9	20.4	45.4	27.4	100.0
종교별	불교	522	11.6	21.2	42.7	24.5	100.0
	기독교	116	8.4	18.8	47.4	25.4	100.0
	천주교	561	6.9	20.4	45.4	27.4	100.0
	종교없음	625	7.9	20.1	48.2	23.8	100.0
	모름/무응답	21	20.1	11.1	34.1	34.8	100.0

표19-3.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7.5	21.7	39.8	31.0	100.0	
성별	남자	607	10.2	26.4	35.8	27.6	100.0
	여자	593	4.7	16.9	43.9	34.4	100.0
연령별	19~29세	209	6.8	13.8	33.2	46.2	100.0
	30대	237	6.2	18.5	41.4	33.9	100.0
	40대	275	8.6	21.6	41.9	27.9	100.0
	50대	261	7.3	27.4	41.3	24.1	100.0
	60대 이상	218	8.4	26.1	40.2	2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3	17.3	38.2	38.1	100.0
	고졸	599	6.7	23.7	41.2	28.4	100.0
	대재 이상	470	8.9	20.4	38.7	32.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7	21.7	42.2	31.3	100.0
	자영업	260	7.8	26.3	41.6	24.3	100.0
	블루 칼라	341	6.0	21.3	38.3	34.4	100.0
	화이트칼라	230	11.6	20.2	43.4	24.7	100.0
	전업 주부	222	4.6	20.8	45.2	29.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9.0	17.6	24.0	49.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6.2	17.3	38.4	38.1	100.0
	200~299만원	203	6.6	27.7	41.1	24.7	100.0
	300~399만원	362	5.4	21.0	36.2	37.4	100.0
	400만원 이상	500	9.5	21.0	42.5	27.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6.2	22.7	37.1	34.0	100.0
	충청권	123	5.8	21.7	50.9	21.7	100.0
	호남권	117	18.2	22.6	28.3	30.9	100.0
	영남권	309	5.7	16.4	48.0	29.8	100.0
	강원	35	13.5	45.2	17.0	24.3	100.0
	제주	14	12.5	26.8	34.1	26.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8.0	22.0	39.3	30.6	100.0
	중·소도시	521	7.7	22.8	40.1	29.4	100.0
	읍/면	130	4.3	15.9	40.9	39.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9.3	24.2	38.9	27.6	100.0
	중도	116	5.6	18.4	34.2	41.7	100.0
	보수적	561	6.2	20.0	41.8	31.9	100.0
종교별	불교	245	6.5	21.7	41.5	30.3	100.0
	기독교	238	7.0	25.4	39.9	27.7	100.0
	천주교	72	8.8	27.2	30.2	33.8	100.0
	종교없음	625	7.7	19.9	41.0	31.5	100.0
	모름/무응답	21	14.6	15.5	18.5	51.3	100.0

표19-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4.6	18.8	40.9	35.7	100.0	
성별	남자	607	6.4	24.9	40.0	28.7	100.0
	여자	593	2.7	12.6	41.9	42.8	100.0
연령별	19~29세	209	4.0	10.6	35.0	50.4	100.0
	30대	237	4.7	19.7	36.4	39.2	100.0
	40대	275	4.6	20.3	46.1	29.0	100.0
	50대	261	4.7	22.3	44.8	28.2	100.0
	60대 이상	218	4.9	19.8	40.3	35.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8	10.0	36.2	48.9	100.0
	고졸	599	3.5	19.4	43.8	33.2	100.0
	대재 이상	470	5.8	20.5	38.7	34.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6	4.7	33.8	57.9	100.0
	자영업	260	4.7	23.2	45.2	26.8	100.0
	블루 칼라	341	2.8	17.3	42.7	37.2	100.0
	화이트칼라	230	7.3	23.3	42.9	26.4	100.0
	전업 주부	222	1.9	15.5	39.1	43.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8.8	13.6	28.4	4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2	17.0	35.6	42.1	100.0
	200~299만원	203	4.5	19.9	43.9	31.6	100.0
	300~399만원	362	3.0	18.7	41.3	37.0	100.0
	400만원 이상	500	5.4	19.0	41.0	34.6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1	21.6	36.5	37.8	100.0
	충청권	123	3.7	16.5	44.8	35.0	100.0
	호남권	117	6.7	18.8	33.4	41.1	100.0
	영남권	309	2.8	13.6	52.3	31.3	100.0
	강원	35	24.1	16.9	35.0	24.0	100.0
	제주	14	2.9	39.7	26.6	30.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5.7	20.8	41.0	32.5	100.0
	중·소도시	521	4.1	18.0	40.5	37.4	100.0
	읍/면	130	1.6	13.5	42.5	42.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6	21.9	40.5	32.0	100.0
	중도	116	5.5	18.7	37.5	38.2	100.0
	보수적	561	3.4	16.0	42.0	38.5	100.0
종교별	불교	245	5.5	16.3	42.6	35.6	100.0
	기독교	238	5.5	22.1	38.0	34.3	100.0
	천주교	72	5.3	22.6	31.0	41.1	100.0
	종교없음	625	3.8	18.0	43.3	34.9	100.0
	모름/무응답	21	3.8	20.5	20.1	55.6	100.0

표19-5.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4.2	16.2	38.9	40.6	100.0	
성별	남자	607	5.5	19.3	40.2	35.0	100.0
	여자	593	2.9	13.1	37.7	46.3	100.0
연령별	19~29세	209	3.2	6.7	35.3	54.7	100.0
	30대	237	4.0	13.4	39.3	43.2	100.0
	40대	275	5.4	17.1	40.4	37.1	100.0
	50대	261	3.9	22.3	41.9	31.9	100.0
	60대 이상	218	4.4	19.9	36.7	39.1	100.0
	중졸 이하	129	2.9	11.0	29.6	56.6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3.2	18.3	42.1	36.4	100.0
	대재 이상	470	5.9	15.1	37.7	41.3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6	11.4	23.5	61.5	100.0
	자영업	260	4.7	20.9	43.5	30.9	100.0
	블루 칼라	341	2.4	14.6	42.5	40.6	100.0
	화이트칼라	230	5.5	16.8	40.6	37.2	100.0
	전업 주부	222	3.1	17.4	36.4	43.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8.0	8.7	24.1	59.2	100.0
	200만원 미만	134	4.5	15.8	30.6	49.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2.7	21.1	37.1	39.1	100.0
	300~399만원	362	3.7	14.0	43.3	39.0	100.0
	400만원 이상	500	5.0	15.9	38.9	40.2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7	17.3	45.2	33.8	100.0
	충청권	123	3.6	8.6	20.3	67.5	100.0
	호남권	117	6.1	10.2	19.0	64.7	100.0
	영남권	309	2.8	19.8	43.9	33.6	100.0
	강원	35	21.9	11.1	25.3	41.7	100.0
	제주	14	2.9	22.7	28.1	46.3	100.0
	대도시	550	5.4	18.7	41.7	34.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3.6	14.2	37.9	44.2	100.0
	읍/면	130	1.6	13.6	31.5	53.2	100.0
	진보적	522	6.0	17.6	39.1	37.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6.5	13.8	36.2	43.4	100.0
	보수적	561	2.1	15.4	39.4	43.1	100.0
종교별	불교	245	4.8	18.3	36.3	40.6	100.0
	기독교	238	6.9	18.9	35.6	38.6	100.0
	천주교	72	4.9	16.8	34.4	44.0	100.0
	종교없음	625	2.8	14.7	41.1	41.4	100.0
	모름/무응답	21	8.9	5.8	58.4	26.9	100.0

표19-6.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모란봉 악단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9.9	30.4	47.3	12.4	100.0	
성별	남자	607	13.1	31.8	44.4	10.7	100.0
	여자	593	6.7	28.9	50.2	14.1	100.0
연령별	19~29세	209	8.6	23.1	48.3	20.0	100.0
	30대	237	9.6	33.1	48.9	8.4	100.0
	40대	275	11.4	29.4	50.8	8.5	100.0
	50대	261	9.1	34.3	47.2	9.5	100.0
	60대 이상	218	10.7	31.1	40.3	17.9	100.0
	중졸 이하	129	7.3	22.1	45.5	25.1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8.5	31.9	49.3	10.4	100.0
	대재 이상	470	12.6	30.7	45.2	11.5	100.0
	무응답	2	0.0	44.6	55.4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0.4	15.7	41.5	32.4	100.0
	자영업	260	9.9	36.6	44.4	9.1	100.0
	블루 칼라	341	7.6	29.7	51.7	11.1	100.0
	화이트칼라	230	14.1	29.4	49.9	6.6	100.0
	전업 주부	222	6.3	29.5	47.9	16.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5.1	25.2	36.4	23.4	100.0
	200만원 미만	134	9.6	21.8	49.4	1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9.1	37.0	42.3	11.6	100.0
	300~399만원	362	9.2	29.5	47.9	13.4	100.0
	400만원 이상	500	10.7	30.7	48.4	10.3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8.2	32.2	49.7	9.9	100.0
	충청권	123	5.7	39.5	43.6	11.3	100.0
	호남권	117	23.2	25.9	34.0	16.9	100.0
	영남권	309	7.9	23.9	52.4	15.8	100.0
	강원	35	26.1	33.8	26.3	13.8	100.0
	제주	14	16.4	43.5	26.4	13.8	100.0
	대도시	550	11.7	26.3	50.8	11.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9.3	36.3	43.1	11.3	100.0
	읍/면	130	4.9	24.0	48.9	22.2	100.0
	진보적	522	11.2	32.7	44.3	11.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6.2	25.6	50.1	8.0	100.0
	보수적	561	7.5	29.2	49.4	13.9	100.0
종교별	불교	245	8.9	29.7	44.4	17.1	100.0
	기독교	238	10.5	34.8	45.6	9.0	100.0
	천주교	72	13.4	25.7	43.0	17.9	100.0
	종교없음	625	9.4	30.2	49.0	11.4	100.0
	모름/무응답	21	20.6	9.9	63.8	5.8	100.0

표20-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1	97.9	100.0
성별	남자	607	2.1	97.9	100.0
	여자	593	2.0	98.0	100.0
연령별	19~29세	209	1.5	98.5	100.0
	30대	237	0.3	99.7	100.0
	40대	275	2.3	97.7	100.0
	50대	261	2.1	97.9	100.0
	60대 이상	218	4.1	95.9	100.0
	중졸 이하	129	4.3	95.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8	98.2	100.0
	대재 이상	470	1.9	98.1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2	93.8	100.0
	자영업	260	1.7	98.3	100.0
	블루 칼라	341	0.5	99.5	100.0
	화이트칼라	230	3.9	96.1	100.0
	전업 주부	222	3.1	96.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1	98.9	100.0
	200만원 미만	134	2.3	97.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5	99.5	100.0
	300~399만원	362	2.3	97.7	100.0
	400만원 이상	500	2.5	97.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수도권	602	1.8	98.2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2.6	97.4	100.0
	호남권	117	4.3	95.7	100.0
	영남권	309	1.0	99.0	100.0
	강원	35	6.1	93.9	100.0
	제주	14	2.9	97.1	100.0
	대도시	550	2.1	97.9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2.3	97.7	100.0
	읍/면	130	0.9	99.1	100.0
	진보적	522	2.5	97.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3	98.7	100.0
	보수적	561	1.8	98.2	100.0
	불교	245	3.1	96.9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1.9	98.1	100.0
	천주교	72	4.6	95.4	100.0
	종교없음	625	1.5	98.5	100.0
	모름/무응답	21	0.0	100.0	100.0

표20-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㉕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4.2	85.8	100.0
성별	남자	607	15.3	84.7	100.0
	여자	593	13.1	86.9	100.0
연령별	19~29세	209	15.8	84.2	100.0
	30대	237	11.0	89.0	100.0
	40대	275	15.2	84.8	100.0
	50대	261	16.4	83.6	100.0
	60대 이상	218	12.1	87.9	100.0
	중졸 이하	129	12.3	87.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2.9	87.1	100.0
	대재 이상	470	16.5	83.5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8.9	81.1	100.0
	자영업	260	13.8	86.2	100.0
	블루 칼라	341	12.1	87.9	100.0
	화이트칼라	230	18.7	81.3	100.0
	전업 주부	222	11.6	88.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1	83.9	100.0
	200만원 미만	134	11.9	88.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4.9	85.1	100.0
	300~399만원	362	14.2	85.8	100.0
	400만원 이상	500	14.5	85.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수도권	602	14.1	85.9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21.7	78.3	100.0
	호남권	117	15.6	84.4	100.0
	영남권	309	7.6	92.4	100.0
	강원	35	40.8	59.2	100.0
	제주	14	17.9	82.1	100.0
	대도시	550	9.7	90.3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9.8	80.2	100.0
	읍/면	130	10.8	89.2	100.0
	진보적	522	15.1	84.9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0.7	89.3	100.0
	보수적	561	14.1	85.9	100.0
	불교	245	10.9	89.1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17.2	82.8	100.0
	천주교	72	21.4	78.6	100.0
	종교없음	625	13.5	86.5	100.0
	모름/무응답	21	14.4	85.6	100.0

표20-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1.6	78.4	100.0	
성별	남자	607	24.7	75.3	100.0
	여자	593	18.5	81.5	100.0
연령별	19~29세	209	26.1	73.9	100.0
	30대	237	21.1	78.9	100.0
	40대	275	20.5	79.5	100.0
	50대	261	22.3	77.7	100.0
	60대 이상	218	18.5	8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9.8	80.2	100.0
	고졸	599	19.7	80.3	100.0
	대재 이상	470	24.6	75.4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1.3	58.7	100.0
	자영업	260	19.1	80.9	100.0
	블루 칼라	341	20.4	79.6	100.0
	화이트칼라	230	28.4	71.6	100.0
	전업 주부	222	15.7	84.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5.0	75.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4.2	75.8	100.0
	200~299만원	203	17.6	82.4	100.0
	300~399만원	362	24.9	75.1	100.0
	400만원 이상	500	20.2	79.8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3.9	76.1	100.0
	충청권	123	14.2	85.8	100.0
	호남권	117	26.1	73.9	100.0
	영남권	309	15.2	84.8	100.0
	강원	35	52.1	47.9	100.0
	제주	14	13.3	86.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7.8	82.2	100.0
	중·소도시	521	24.1	75.9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27.6	72.4	100.0
	진보적	522	23.8	76.2	100.0
종교별	중도	116	27.4	72.6	100.0
	보수적	561	18.4	81.6	100.0
	불교	245	17.7	82.3	100.0
	기독교	238	17.6	82.4	100.0
	천주교	72	25.1	74.9	100.0
	종교없음	625	24.4	75.6	100.0
	모름/무응답	21	17.1	82.9	100.0

표20-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0.6	99.4	100.0	
성별	남자	607	0.9	99.1	100.0
	여자	593	0.3	99.7	100.0
연령별	19~29세	209	0.4	99.6	100.0
	30대	237	1.0	99.0	100.0
	40대	275	0.6	99.4	100.0
	50대	261	0.5	99.5	100.0
	60대 이상	218	0.6	99.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6	99.4	100.0
	고졸	599	0.4	99.6	100.0
	대재 이상	470	0.8	99.2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00.0	100.0
	자영업	260	0.5	99.5	100.0
	블루 칼라	341	0.4	99.6	100.0
	화이트칼라	230	1.4	98.6	100.0
	전업 주부	222	0.0	10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3	98.7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2	98.8	100.0
	200~299만원	203	0.0	100.0	100.0
	300~399만원	362	0.6	99.4	100.0
	400만원 이상	500	0.7	99.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6	99.4	100.0
	충청권	123	0.0	100.0	100.0
	호남권	117	0.8	99.2	100.0
	영남권	309	0.3	99.7	100.0
	강원	35	4.6	95.4	100.0
	제주	14	0.0	100.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0.4	99.6	100.0
	중·소도시	521	0.9	99.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0.0	100.0	100.0
	진보적	522	1.1	98.9	100.0
종교별	중도	116	1.0	99.0	100.0
	보수적	561	0.0	100.0	100.0
	불교	245	0.0	100.0	100.0
	기독교	238	0.3	99.7	100.0
	천주교	72	1.7	98.3	100.0
	종교없음	625	0.5	99.5	100.0
	모름/무응답	21	8.6	91.4	100.0

표21-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전 체	1200	61.6	30.7	92.4	6.7	1.0	7.6	100.0	
성별	남자	607	63.1	29.3	92.3	6.9	0.7	7.7	100.0
	여자	593	60.2	32.2	92.4	6.4	1.2	7.6	100.0
연령별	19~29세	209	58.6	33.7	92.3	7.1	0.6	7.7	100.0
	30대	237	65.2	27.4	92.6	5.5	1.9	7.4	100.0
	40대	275	58.2	33.8	91.9	7.7	0.4	8.1	100.0
	50대	261	60.4	33.7	94.0	4.9	1.1	6.0	100.0
	60대 이상	218	66.6	24.2	90.8	8.3	0.9	9.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1.2	29.3	90.5	7.9	1.6	9.5	100.0
	고졸	599	63.5	28.6	92.1	6.7	1.2	7.9	100.0
	대재 이상	470	59.3	33.9	93.2	6.3	0.5	6.8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6.9	35.7	92.6	5.2	2.2	7.4	100.0
	자영업	260	63.8	32.4	96.2	3.3	0.5	3.8	100.0
	블루 칼라	341	63.7	26.7	90.4	8.4	1.2	9.6	100.0
	화이트칼라	230	60.0	33.4	93.3	5.8	0.8	6.7	100.0
	전업 주부	222	61.6	30.6	92.2	6.8	0.9	7.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5.6	32.6	88.3	10.3	1.5	11.7	100.0
	200만원 미만	134	63.0	27.0	90.1	7.0	2.9	9.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63.1	27.8	90.9	8.5	0.6	9.1	100.0
	300~399만원	362	63.9	28.7	92.6	6.9	0.5	7.4	100.0
	400만원 이상	500	59.0	34.4	93.4	5.6	0.9	6.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56.1	36.5	92.6	6.2	1.2	7.4	100.0
	충청권	123	61.4	34.2	95.5	4.5	0.0	4.5	100.0
	호남권	117	64.6	22.0	86.5	10.8	2.6	13.5	100.0
	영남권	309	68.9	23.6	92.5	7.2	0.3	7.5	100.0
	강원	35	78.2	17.5	95.6	4.4	0.0	4.4	100.0
	제주	14	76.4	17.0	93.4	3.5	3.1	6.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65.7	25.9	91.6	7.3	1.0	8.4	100.0
	중·소도시	521	57.2	36.1	93.3	5.7	1.1	6.7	100.0
	읍/면	130	62.2	29.7	91.9	7.8	0.3	8.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60.2	32.3	92.5	6.6	0.9	7.5	100.0
	중도	116	55.5	31.7	87.2	10.7	2.1	12.8	100.0
	보수적	561	64.3	29.1	93.3	5.9	0.8	6.7	100.0
종교별	불교	245	59.4	32.3	91.7	7.1	1.2	8.3	100.0
	기독교	238	60.8	31.3	92.1	6.3	1.6	7.9	100.0
	천주교	72	67.0	24.8	91.8	7.2	0.9	8.2	100.0
	종교없음	625	61.7	31.1	92.7	6.6	0.7	7.3	100.0
	모름/무응답	21	78.0	16.1	94.1	5.9	0.0	5.9	100.0

표21-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㉕ 사회복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전 체	1200	67.1	27.8	94.9	4.0	1.1	5.1	100.0	
성별	남자	607	67.5	28.2	95.7	3.8	0.5	4.3	100.0
	여자	593	66.7	27.4	94.1	4.3	1.6	5.9	100.0
연령별	19~29세	209	68.2	27.6	95.7	4.3	0.0	4.3	100.0
	30대	237	69.7	24.2	94.0	4.1	1.9	6.0	100.0
	40대	275	66.0	29.0	94.9	4.6	0.5	5.1	100.0
	50대	261	66.4	28.5	94.8	3.2	2.0	5.2	100.0
	60대 이상	218	65.5	29.6	95.1	4.0	0.9	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4.9	28.7	93.6	4.0	2.4	6.4	100.0
	고졸	599	67.1	27.7	94.9	3.9	1.2	5.1	100.0
	대재 이상	470	67.5	27.7	95.3	4.2	0.5	4.7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3.1	19.7	92.8	5.0	2.2	7.2	100.0
	자영업	260	69.5	28.4	97.9	1.6	0.5	2.1	100.0
	블루 칼라	341	68.6	27.8	96.5	2.3	1.2	3.5	100.0
	화이트칼라	230	66.3	26.3	92.6	7.1	0.3	7.4	100.0
	전업 주부	222	62.9	29.0	91.9	5.6	2.5	8.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66.1	28.1	94.2	5.2	0.5	5.8	100.0
	200만원 미만	134	66.7	26.5	93.3	3.1	3.7	6.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66.4	29.0	95.4	4.6	0.0	4.6	100.0
	300~399만원	362	62.6	31.8	94.4	5.0	0.6	5.6	100.0
	400만원 이상	500	70.6	24.8	95.5	3.4	1.2	4.5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61.7	32.0	93.7	4.9	1.4	6.3	100.0
	충청권	123	68.9	28.0	96.9	3.1	0.0	3.1	100.0
	호남권	117	65.4	31.4	96.8	0.6	2.6	3.2	100.0
	영남권	309	75.4	19.8	95.3	4.4	0.3	4.7	100.0
	강원	35	82.1	17.9	100.0	0.0	0.0	0.0	100.0
	제주	14	74.5	16.3	90.8	6.1	3.1	9.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68.8	24.6	93.4	5.7	0.8	6.6	100.0
	중·소도시	521	67.1	29.6	96.7	2.0	1.3	3.3	100.0
	읍/면	130	59.9	33.8	93.7	5.0	1.3	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66.0	28.1	94.1	4.3	1.6	5.9	100.0
	중도	116	62.0	29.4	91.4	7.5	1.1	8.6	100.0
	보수적	561	69.1	27.2	96.3	3.1	0.6	3.7	100.0
종교별	불교	245	68.5	26.7	95.2	3.5	1.2	4.8	100.0
	기독교	238	63.8	31.4	95.2	3.8	1.1	4.8	100.0
	천주교	72	74.3	22.9	97.2	1.9	0.9	2.8	100.0
	종교없음	625	66.2	28.2	94.4	4.5	1.1	5.6	100.0
	모름/무응답	21	89.3	5.9	95.2	4.8	0.0	4.8	100.0

표21-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전 체		1200	38.0	43.3	81.3	17.0	1.7	18.7	100.0
성별	남자	607	39.3	41.5	80.9	17.8	1.3	19.1	100.0
	여자	593	36.7	45.0	81.7	16.2	2.1	18.3	100.0
연령별	19~29세	209	39.9	39.3	79.3	20.3	0.4	20.7	100.0
	30대	237	39.5	42.1	81.5	15.9	2.6	18.5	100.0
	40대	275	34.1	45.6	79.7	18.3	2.0	20.3	100.0
	50대	261	38.1	44.1	82.2	16.7	1.1	17.8	100.0
	60대 이상	218	39.4	44.4	83.8	13.9	2.3	1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7.3	41.0	78.4	18.8	2.8	21.6	100.0
	고졸	599	37.0	43.0	79.9	18.0	2.1	20.1	100.0
	대재 이상	470	39.5	44.2	83.7	15.3	0.9	16.3	100.0
	무응답	2	44.6	55.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3	48.7	69.9	18.5	11.6	30.1	100.0
	자영업	260	36.3	46.5	82.8	16.4	0.8	17.2	100.0
	블루 칼라	341	37.2	42.0	79.2	19.2	1.5	20.8	100.0
	화이트칼라	230	39.0	45.6	84.6	13.9	1.5	15.4	100.0
	전업 주부	222	38.0	41.8	79.8	17.3	2.9	20.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4.7	37.4	82.1	17.3	0.6	17.9	100.0
	200만원 미만	134	36.8	44.5	81.3	14.1	4.6	1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7.6	41.0	78.6	20.4	0.9	21.4	100.0
	300~399만원	362	38.9	41.0	79.9	18.6	1.5	20.1	100.0
	400만원 이상	500	37.8	45.5	83.3	15.4	1.4	16.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7.3	44.9	82.2	16.2	1.6	17.8	100.0
	충청권	123	25.3	58.7	84.1	15.9	0.0	15.9	100.0
	호남권	117	42.0	49.3	91.4	7.1	1.5	8.6	100.0
	영남권	309	41.2	31.4	72.5	25.0	2.5	27.5	100.0
	강원	35	53.8	41.6	95.4	2.3	2.3	4.6	100.0
	제주	14	38.3	51.8	90.1	6.7	3.1	9.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42.8	38.9	81.7	17.1	1.2	18.3	100.0
	중·소도시	521	35.5	46.0	81.5	17.0	1.5	18.5	100.0
	읍/면	130	28.1	50.5	78.5	17.0	4.5	2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6.0	43.1	79.1	19.4	1.6	20.9	100.0
	중도	116	40.0	42.2	82.2	17.0	0.8	17.8	100.0
	보수적	561	39.5	43.6	83.1	14.9	2.0	16.9	100.0
종교별	불교	245	43.8	39.4	83.2	15.4	1.4	16.8	100.0
	기독교	238	40.0	46.0	86.0	12.7	1.3	14.0	100.0
	천주교	72	40.8	36.1	76.9	20.5	2.6	23.1	100.0
	종교없음	625	33.9	45.2	79.1	19.1	1.8	20.9	100.0
	모름/무응답	21	60.9	23.4	84.2	11.0	4.8	15.8	100.0

표21-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	
전 체		1200	27.7	50.1	77.8	21.0	1.2	22.2	100.0
성별	남자	607	27.4	50.0	77.5	21.4	1.1	22.5	100.0
	여자	593	27.9	50.2	78.2	20.6	1.3	21.8	100.0
연령별	19~29세	209	27.9	50.6	78.5	21.5	0.0	21.5	100.0
	30대	237	30.5	47.0	77.5	20.2	2.3	22.5	100.0
	40대	275	25.2	52.1	77.3	21.6	1.1	22.7	100.0
	50대	261	25.3	54.3	79.6	19.4	1.0	20.4	100.0
	60대 이상	218	30.4	45.6	76.0	22.6	1.4	2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0.3	42.4	72.7	25.1	2.2	27.3	100.0
	고졸	599	25.9	52.7	78.6	20.3	1.1	21.4	100.0
	대재 이상	470	29.1	49.2	78.3	20.7	1.0	21.7	100.0
	무응답	2	44.6	0.0	44.6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8.9	39.6	68.6	29.2	2.2	31.4	100.0
	자영업	260	23.2	56.0	79.2	20.3	0.5	20.8	100.0
	블루 칼라	341	30.5	47.4	77.8	20.7	1.4	22.2	100.0
	화이트칼라	230	26.1	52.3	78.4	20.3	1.4	21.6	100.0
	전업 주부	222	27.3	48.6	75.9	22.8	1.4	24.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2.8	45.9	78.7	20.2	1.2	21.3	100.0
	200만원 미만	134	34.5	41.8	76.3	20.9	2.8	23.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27.6	46.0	73.6	25.5	1.0	26.4	100.0
	300~399만원	362	24.2	55.0	79.2	19.4	1.4	20.8	100.0
	400만원 이상	500	28.3	50.6	78.9	20.4	0.7	21.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1.3	59.5	80.7	18.6	0.6	19.3	100.0
	충청권	123	27.2	36.1	63.3	36.7	0.0	36.7	100.0
	호남권	117	35.9	49.7	85.6	12.3	2.1	14.4	100.0
	영남권	309	34.1	39.1	73.2	24.6	2.2	26.8	100.0
	강원	35	51.3	37.8	89.1	8.6	2.3	10.9	100.0
	제주	14	36.8	49.6	86.4	10.5	3.1	13.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7.5	54.2	81.6	17.4	0.9	18.4	100.0
	중·소도시	521	29.1	45.8	74.9	24.0	1.1	25.1	100.0
	읍/면	130	22.9	50.4	73.3	24.1	2.6	26.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4.8	51.0	75.8	22.9	1.3	24.2	100.0
	중도	116	24.2	55.1	79.3	19.9	0.8	20.7	100.0
	보수적	561	31.1	48.3	79.4	19.5	1.2	20.6	100.0
종교별	불교	245	33.3	45.5	78.7	20.0	1.3	21.3	100.0
	기독교	238	29.0	55.9	84.9	14.7	0.3	15.1	100.0
	천주교	72	29.3	48.5	77.8	20.0	2.3	22.2	100.0
	종교없음	625	23.7	50.8	74.5	24.5	1.0	25.5	100.0
	모름/무응답	21	60.3	24.7	85.0	4.3	10.7	15.0	100.0

표21-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④ 가족중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20.2	44.5	64.6	32.0	3.3	35.4	100.0
성별	남자	607	20.8	42.9	63.8	33.7	2.6	36.2	100.0
	여자	593	19.5	46.1	65.5	30.4	4.1	34.5	100.0
연령별	19~29세	209	19.2	43.5	62.7	35.7	1.6	37.3	100.0
	30대	237	17.7	46.1	63.8	32.7	3.5	36.2	100.0
	40대	275	19.4	46.8	66.2	30.3	3.5	33.8	100.0
	50대	261	22.3	40.1	62.4	34.6	2.9	37.6	100.0
	60대 이상	218	22.0	46.0	68.0	26.9	5.1	3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8.7	44.0	62.8	34.3	2.9	37.2	100.0
	고졸	599	19.9	44.0	64.0	32.6	3.4	36.0	100.0
	대재 이상	470	20.9	45.4	66.3	30.4	3.3	33.7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농/수/축산업	20	18.5	35.2	53.7	39.6	6.7	46.3	100.0
	자영업	260	18.6	42.8	61.4	33.5	5.1	38.6	100.0
	블루 칼라	341	20.5	45.9	66.4	31.1	2.5	33.6	100.0
	화이트칼라	230	20.2	43.8	63.9	33.1	3.0	36.1	100.0
	전업 주부	222	20.2	46.9	67.0	29.2	3.7	33.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2.4	42.8	65.3	33.5	1.3	34.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3.6	46.4	70.0	26.7	3.3	30.0	100.0
	200~299만원	203	18.6	44.3	62.9	33.5	3.6	37.1	100.0
	300~399만원	362	20.4	49.3	69.7	28.0	2.3	30.3	100.0
	400만원 이상	500	19.5	40.7	60.2	35.9	3.9	39.8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16.7	51.6	68.4	30.2	1.4	31.6	100.0
	충청권	123	14.9	30.7	45.6	42.0	12.4	54.4	100.0
	호남권	117	23.3	42.9	66.1	29.0	4.9	33.9	100.0
	영남권	309	24.9	37.2	62.1	35.9	1.9	37.9	100.0
	강원	35	39.1	41.2	80.3	11.1	8.7	19.7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34.3	40.3	74.5	16.3	9.2	25.5	100.0
	대도시	550	21.1	46.6	67.7	30.1	2.2	32.3	100.0
	중·소도시	521	19.3	42.5	61.7	35.3	2.9	38.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19.4	43.7	63.1	27.1	9.7	36.9	100.0
	진보적	522	17.3	47.2	64.5	33	2.6	35.5	100.0
	중도	116	14.2	51.6	65.8	32.7	1.5	34.2	100.0
	보수적	561	24.1	40.5	64.5	31.1	4.4	35.5	100.0
종교별	불교	245	24.7	38.0	62.6	33.1	4.2	37.4	100.0
	기독교	238	20.3	49.3	69.6	28.8	1.7	30.4	100.0
	천주교	72	17.7	49.3	67.1	28.4	4.6	32.9	100.0
	종교없음	625	18.4	44.8	63.2	33.2	3.6	36.8	100.0
모름/무응답	21	24.9	40.6	65.5	34.5	0.0	34.5	100.0	

표22.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	%	%	%	%	%	%	
전 체		1200	27.2	52.3	79.5	18.0	2.5	20.5	100.0
성별	남자	607	26.7	52.4	79.1	17.9	3.0	20.9	100.0
	여자	593	27.7	52.2	79.9	18.2	1.9	20.1	100.0
연령별	19~29세	209	27.1	52.0	79.1	19.1	1.9	20.9	100.0
	30대	237	26.0	54.2	80.2	17.1	2.7	19.8	100.0
	40대	275	22.3	55.5	77.8	20.4	1.8	22.2	100.0
	50대	261	28.5	49.6	78.1	18.2	3.7	21.9	100.0
	60대 이상	218	33.1	49.9	83.0	14.8	2.2	1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0.8	47.7	78.5	17.2	4.4	21.5	100.0
	고졸	599	25.4	53.1	78.4	19.8	1.7	21.6	100.0
	대재 이상	470	28.6	52.5	81.1	16.1	2.9	18.9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20	30.4	55.9	86.3	0.0	13.7	13.7	100.0
	자영업	260	24.0	53.3	77.3	19.2	3.5	22.7	100.0
	블루 칼라	341	25.6	47.5	73.0	23.5	3.5	27.0	100.0
	화이트칼라	230	31.3	54.6	85.8	12.9	1.3	14.2	100.0
	전업 주부	222	30.1	54.5	84.7	15.0	0.4	15.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4.8	54.9	79.7	18.7	1.6	20.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8.9	55.3	84.2	11.5	4.3	15.8	100.0
	200~299만원	203	29.4	52.3	81.7	14.7	3.6	18.3	100.0
	300~399만원	362	27.3	52.3	79.6	18.8	1.6	20.4	100.0
	400만원 이상	500	25.6	51.6	77.2	20.6	2.1	22.8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24.0	51.2	75.2	22.1	2.7	24.8	100.0
	충청권	123	28.7	55.4	84.1	15.9	0.0	15.9	100.0
	호남권	117	37.3	42.6	79.8	15.2	5.0	20.2	100.0
	영남권	309	26.6	58.5	85.1	13.1	1.8	14.9	100.0
	강원	35	43.9	45.0	88.9	8.8	2.3	11.1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36.8	37.7	74.5	19.7	5.8	25.5	100.0
	대도시	550	31.4	52.4	83.8	14.3	1.9	16.2	100.0
	중·소도시	521	25.5	51.7	77.3	21.0	1.7	22.7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15.7	54.4	70.2	22.2	7.6	29.8	100.0
	진보적	522	27.5	51.9	79.4	19.2	1.5	20.6	100.0
	중도	116	22.0	48.3	70.3	25.5	4.2	29.7	100.0
	보수적	561	28.0	53.5	81.5	15.5	3.0	18.5	100.0
종교별	불교	245	31.6	51.3	82.9	14.2	2.9	17.1	100.0
	기독교	238	28.8	55.4	84.2	12.8	2.9	15.8	100.0
	천주교	72	23.3	46.9	70.3	29.7	0.0	29.7	100.0
	종교없음	625	24.7	52.6	77.3	20.2	2.5	22.7	100.0
모름/무응답	21	44.2	38.8	83.0	17.0	0.0	17.0	100.0	

표23.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
전 체	1200	46.5	37.3	83.8	9.2	6.2	15.4	0.8	100.0
성별	남자	607	48.6	34.7	83.3	9.7	6.5	16.2	100.0
	여자	593	44.4	40.0	84.3	8.6	6.0	14.6	100.0
연령별	19~29세	209	43.7	39.0	82.7	10.4	5.5	15.8	100.0
	30대	237	50.5	32.5	83.0	9.2	7.1	16.3	100.0
	40대	275	45.8	39.9	85.7	9.5	4.1	13.6	100.0
	50대	261	44.4	37.6	82.0	7.4	10.3	17.8	100.0
	60대 이상	218	48.2	37.2	85.4	9.7	3.7	13.4	100.0
	중졸 이하	129	43.4	40.5	83.9	11.1	3.8	14.8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43.7	40.1	83.8	9.5	6.1	15.6	100.0
	대재 이상	470	50.7	33.0	83.7	8.3	7.1	15.4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4.8	46.7	81.5	5.2	13.4	18.5	100.0
	자영업	260	52.9	33.8	86.7	5.9	6.8	12.7	100.0
	블루 칼라	341	45.3	37.6	83.0	10.4	5.6	16.0	100.0
	화이트칼라	230	47.3	35.4	82.7	10.6	6.5	17.1	100.0
	전업 주부	222	44.0	40.6	84.5	9.3	5.5	14.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1.4	39.7	81.0	10.3	6.5	16.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49.2	39.0	88.2	8.3	2.4	10.8	100.0
	200~299만원	203	45.8	39.9	85.7	5.5	8.2	13.7	100.0
	300~399만원	362	45.5	39.5	85.0	10.8	2.8	13.7	100.0
	400만원 이상	500	46.6	34.2	80.9	9.7	8.9	18.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6.0	36.7	82.7	8.7	7.7	16.4	100.0
	충청권	123	41.3	47.3	88.6	8.9	2.4	11.4	100.0
	호남권	117	55.5	29.7	85.3	7.0	7.0	14.0	100.0
	영남권	309	45.1	38.4	83.5	11.8	4.4	16.2	100.0
	강원	35	55.8	26.5	82.3	4.4	8.9	13.3	100.0
	제주	14	44.5	41.3	85.7	3.7	3.9	7.7	100.0
	대도시	550	53.5	34.8	88.2	7.5	3.9	11.4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38.6	41.7	80.3	11.1	7.9	19.0	100.0
	읍/면	130	48.7	30.2	78.9	8.6	9.3	17.8	100.0
	진보적	522	45.4	36.7	82.0	10.3	7.3	17.6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40.1	41.4	81.5	14.5	4.0	18.5	100.0
	보수적	561	48.9	37.0	85.9	7.0	5.7	12.7	100.0
	불교	245	46.7	34.6	81.3	12.2	6.2	18.4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47.3	39.9	87.2	4.4	7.7	12.1	100.0
	천주교	72	40.9	40.7	81.5	8.6	7.4	15.9	100.0
	종교없음	625	46.6	37.3	83.9	9.8	5.4	15.2	100.0
	모름/무응답	21	50.9	28.6	79.5	9.7	10.8	20.5	100.0

표24.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문)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계	
		%	%	%	%	%	%	
전 체	1200	15.3	25.2	16.7	26.0	16.7	100.0	
성별	남자	607	17.4	26.9	14.6	25.5	15.6	100.0
	여자	593	13.2	23.5	18.8	26.6	17.9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3	23.8	18.8	29.3	17.8	100.0
	30대	237	12.0	26.1	14.6	32.0	15.3	100.0
	40대	275	16.7	25.5	18.2	24.0	15.6	100.0
	50대	261	19.9	23.9	16.7	23.4	16.2	100.0
	60대 이상	218	16.5	26.9	15.0	22.3	19.4	100.0
	중졸 이하	129	14.1	26.8	17.7	20.4	21.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6.6	25.4	16.0	24.8	17.2	100.0
	대재 이상	470	14.1	24.4	17.2	29.3	15.0	100.0
	무응답	2	0.0	55.4	44.6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0	19.8	4.7	20.1	34.4	100.0
	자영업	260	19.3	25.6	13.4	26.7	15.0	100.0
	블루 칼라	341	15.5	23.7	18.8	25.1	16.8	100.0
	화이트칼라	230	13.7	25.1	18.1	30.1	13.0	100.0
	전업 주부	222	15.2	25.9	15.8	21.8	21.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8.9	28.1	18.7	28.4	15.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5.0	24.3	14.0	25.5	21.2	100.0
	200~299만원	203	15.7	28.0	16.2	24.8	15.2	100.0
	300~399만원	362	19.9	22.6	15.3	26.0	16.2	100.0
	400만원 이상	500	12.0	26.1	18.7	26.8	16.5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5.6	27.1	14.5	26.3	16.5	100.0
	충청권	123	14.5	23.6	23.9	21.1	16.9	100.0
	호남권	117	21.5	16.9	20.8	21.7	19.2	100.0
	영남권	309	10.8	27.0	16.2	29.4	16.5	100.0
	강원	35	25.5	13.2	22.4	21.8	17.2	100.0
	제주	14	32.0	16.7	12.5	32.1	6.6	100.0
	대도시	550	13.2	25.5	14.3	28.9	18.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6.2	26.7	19.0	23.0	15.1	100.0
	읍/면	130	20.8	18.1	17.7	26.3	17.2	100.0
	진보적	522	17.6	26.1	17.4	25.2	13.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7.2	27.1	20.7	23.3	11.7	100.0
	보수적	561	12.9	24.0	15.2	27.4	20.5	100.0
	불교	245	15.1	27.9	17.9	24.8	14.3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14.2	25.7	19.9	24.7	15.4	100.0
	천주교	72	22.7	27.9	12.6	25.7	11.2	100.0
	종교없음	625	14.7	23.6	15.6	26.7	19.4	100.0
	모름/무응답	21	23.6	28.2	11.6	36.6	0.0	100.0

표25.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전 체	1200	6.9	35.5	42.4	44.9	12.7	57.6	100.0	
성별	남자	607	7.8	37.2	45.1	40.9	14.0	54.9	100.0
	여자	593	5.9	33.8	39.7	48.9	11.4	60.3	100.0
연령별	19~29세	209	5.9	28.1	33.9	50.9	15.1	66.1	100.0
	30대	237	6.3	33.7	40.0	47.6	12.4	60.0	100.0
	40대	275	6.9	39.8	46.7	41.1	12.2	53.3	100.0
	50대	261	7.9	40.5	48.3	40.1	11.6	51.7	100.0
	60대 이상	218	7.2	33.3	40.5	46.7	12.8	5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4	38.6	43.0	45.4	11.6	57.0	100.0
	고졸	599	6.6	37.0	43.6	44.2	12.1	56.4	100.0
	대재 이상	470	7.9	32.9	40.8	45.4	13.8	59.2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2	43.1	45.3	47.5	7.1	54.7	100.0
	자영업	260	8.0	38.9	46.9	42.6	10.5	53.1	100.0
	블루 칼라	341	5.8	37.6	43.3	43.4	13.2	56.7	100.0
	화이트칼라	230	8.8	29.9	38.6	44.8	16.6	61.4	100.0
	전업 주부	222	4.4	35.7	40.0	49.6	10.3	60.0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9.1	31.9	41.1	44.9	14.1	58.9	100.0
	200만원 미만	134	5.1	38.4	43.5	35.4	21.1	56.5	100.0
	200~299만원	203	6.1	40.9	47.0	39.2	13.8	53.0	100.0
	300~399만원	362	5.3	40.0	45.3	45.5	9.2	54.7	100.0
	400만원 이상	500	8.8	29.4	38.2	49.2	12.6	61.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7.4	30.5	37.9	51.9	10.2	62.1	100.0
	충청권	123	10.7	36.8	47.5	39.7	12.8	52.5	100.0
	호남권	117	4.2	36.8	41.0	44.5	14.5	59.0	100.0
	영남권	309	4.3	43.1	47.4	36.3	16.3	52.6	100.0
	강원	35	13.4	45.4	58.7	28.2	13.1	41.3	100.0
	제주	14	15.0	37.3	52.3	21.7	26.0	47.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5.6	33.8	39.4	47.1	13.5	60.6	100.0
	중·소도시 읍/면	130	8.4	36.9	45.3	43.6	11.1	54.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9.0	37.7	43.7	40.7	15.6	56.3	100.0
	중도	522	9.0	40.6	49.6	40.2	10.2	50.4	100.0
	중도 보수적	116	4.5	36.1	40.5	53.9	5.6	59.5	100.0
	보수적	561	5.4	30.7	36.1	47.4	16.5	63.9	100.0
종교별	불교	245	4.7	43.5	48.2	42.1	9.7	51.8	100.0
	기독교	238	8.9	36.4	45.3	42.8	11.9	54.7	100.0
	천주교	72	15.4	31.4	46.7	42.0	11.3	53.3	100.0
	종교없음	625	5.7	32.2	37.9	47.5	14.7	62.1	100.0
	모름/무응답	21	14.6	46.6	61.2	34.5	4.3	38.8	100.0

표26.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에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전 체	1200	8.6	49.6	58.2	35.3	6.5	41.8	100.0	
성별	남자	607	10.1	49.9	60.0	33.1	7.0	40.0	100.0
	여자	593	7.0	49.3	56.4	37.5	6.1	43.6	100.0
연령별	19~29세	209	7.1	44.6	51.7	39.4	8.9	48.3	100.0
	30대	237	6.0	49.4	55.5	36.8	7.7	44.5	100.0
	40대	275	13.1	49.9	63.0	32.2	4.8	37.0	100.0
	50대	261	8.9	51.3	60.2	33.5	6.3	39.8	100.0
	60대 이상	218	6.5	52.3	58.8	35.5	5.6	41.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3	50.0	55.2	35.4	9.4	44.8	100.0
	고졸	599	8.0	49.9	58.0	36.4	5.6	42.0	100.0
	대재 이상	470	10.2	48.9	59.1	33.9	7.0	40.9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9.0	58.7	67.7	25.4	6.9	32.3	100.0
	자영업	260	12.0	45.0	56.9	37.1	6.0	43.1	100.0
	블루 칼라	341	6.8	55.3	62.1	32.4	5.4	37.9	100.0
	화이트칼라	230	8.8	46.9	55.8	35.5	8.8	44.2	100.0
	전업 주부	222	6.6	48.1	54.7	40.3	5.0	45.3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9.2	50.0	59.2	31.5	9.3	40.8	100.0
	200만원 미만	134	5.3	50.1	55.4	34.1	10.4	44.6	100.0
	200~299만원	203	9.0	52.2	61.2	29.2	9.6	38.8	100.0
	300~399만원	362	6.3	56.3	62.5	32.5	5.0	37.5	100.0
	400만원 이상	500	10.9	43.7	54.7	39.9	5.4	45.3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9.6	48.5	58.0	36.8	5.2	42.0	100.0
	충청권	123	10.1	48.1	58.2	33.5	8.3	41.8	100.0
	호남권	117	7.0	51.3	58.2	32.3	9.4	41.8	100.0
	영남권	309	5.5	52.9	58.4	35.3	6.3	41.6	100.0
	강원	35	15.6	43.5	59.0	30.1	10.8	41.0	100.0
	제주	14	15.1	43.6	58.6	23.2	18.2	41.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7.5	51.2	58.8	35.1	6.1	41.2	100.0
	중·소도시 읍/면	130	10.2	48.3	58.5	34.7	6.8	4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6.3	48.2	54.5	38.4	7.1	45.5	100.0
	중도	522	10.1	52.2	62.2	32.5	5.2	37.8	100.0
	중도 보수적	116	5.5	50.7	56.2	42.0	1.8	43.8	100.0
	보수적	561	7.8	47.0	54.8	36.4	8.8	45.2	100.0
종교별	불교	245	7.8	51.4	59.2	37.4	3.4	40.8	100.0
	기독교	238	10.6	51.8	62.4	31.9	5.7	37.6	100.0
	천주교	72	14.0	47.3	61.3	33.7	5.0	38.7	100.0
	종교없음	625	7.3	47.5	54.9	36.7	8.4	45.1	100.0
	모름/무응답	21	12.0	74.0	85.9	9.8	4.3	14.1	100.0

표27.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
전 체	1200	5.1	40.0	45.1	47.2	7.6	54.9	100.0	
성별	남자	607	6.0	39.3	45.4	45.4	9.2	54.6	100.0
	여자	593	4.2	40.7	44.9	49.1	6.0	55.1	100.0
연령별	19~29세	209	4.8	36.2	41.0	47.6	11.4	59.0	100.0
	30대	237	5.4	31.0	36.4	53.9	9.7	63.6	100.0
	40대	275	3.0	40.1	43.2	49.4	7.4	56.8	100.0
	50대	261	5.9	48.8	54.7	41.2	4.1	45.3	100.0
	60대 이상	218	6.9	42.7	49.5	44.2	6.3	50.5	100.0
	중졸 이하	129	8.0	42.9	50.9	42.5	6.6	49.1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3.9	45.4	49.3	44.3	6.5	50.7	100.0
	대재 이상	470	5.8	32.5	38.3	52.3	9.5	61.7	100.0
	무응답	2	55.4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6	33.0	37.5	56.5	5.9	62.5	100.0
	자영업	260	3.8	42.7	46.5	44.7	8.8	53.5	100.0
	블루 칼라	341	6.5	38.7	45.2	49.2	5.6	54.8	100.0
	화이트칼라	230	4.4	34.9	39.3	48.9	11.8	60.7	100.0
	전업 주부	222	4.2	45.6	49.8	46.1	4.2	50.2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7.3	38.5	45.8	44.7	9.5	54.2	100.0
	200만원 미만	134	6.4	40.1	46.5	45.0	8.4	53.5	100.0
	200~299만원	203	5.8	43.7	49.5	44.1	6.4	50.5	100.0
	300~399만원	362	3.7	46.6	50.3	43.7	6.0	49.7	100.0
	400만원 이상	500	5.3	33.8	39.1	51.7	9.2	60.9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6.0	40.0	46.0	45.9	8.1	54.0	100.0
	충청권	123	2.2	33.6	35.8	54.9	9.2	64.2	100.0
	호남권	117	2.6	24.0	26.6	60.9	12.5	73.4	100.0
	영남권	309	4.9	50.4	55.3	41.3	3.5	44.7	100.0
	강원	35	13.1	24.1	37.1	56.1	6.7	62.9	100.0
	제주	14	0.0	43.1	43.1	31.8	25.1	56.9	100.0
	대도시	550	4.2	40.6	44.8	46.9	8.3	55.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4.9	41.8	46.7	46.4	6.9	53.3	100.0
	읍/면	130	9.9	30.3	40.3	52.2	7.5	59.7	100.0
	진보적	522	6.7	43.8	50.4	42.9	6.7	49.6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4.9	36.6	41.5	54.7	3.9	58.5	100.0
	보수적	561	3.7	37.2	41.0	49.8	9.3	59.0	100.0
	불교	245	3.2	45.3	48.5	45.0	6.5	51.5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5.2	38.6	43.8	49.7	6.5	56.2	100.0
	천주교	72	8.8	36.8	45.6	44.9	9.5	54.4	100.0
	종교없음	625	5.3	38.6	43.9	47.9	8.2	56.1	100.0
	모름/무응답	21	10.4	46.0	56.4	34.0	9.6	43.6	100.0

표28.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동의 한다	다소 동의 한다	%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전 체	1200	10.9	47.1	57.9	31.1	5.6	36.7	5.4	100.0	
성별	남자	607	12.4	46.3	58.8	30.8	5.4	36.2	5.1	100.0
	여자	593	9.3	47.8	57.1	31.4	5.9	37.2	5.7	100.0
연령별	19~29세	209	8.4	43.9	52.3	31.8	8.5	40.3	7.3	100.0
	30대	237	10.0	44.3	54.3	32.2	7.1	39.2	6.5	100.0
	40대	275	12.0	45.4	57.4	34.0	4.5	38.5	4.1	100.0
	50대	261	10.2	52.3	62.4	29.3	3.2	32.5	5.0	100.0
	60대 이상	218	13.5	49.1	62.6	27.6	5.6	33.1	4.3	100.0
	중졸 이하	129	13.1	48.9	62.0	25.6	6.5	32.1	5.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9.1	49.6	58.7	32.0	5.0	37.0	4.3	100.0
	대재 이상	470	12.6	43.5	56.1	31.5	5.9	37.4	6.5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55.4	55.4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4	60.2	72.7	13.5	4.7	18.2	9.1	100.0
	자영업	260	11.8	50.5	62.3	27.0	5.1	32.1	5.5	100.0
	블루 칼라	341	7.5	45.9	53.5	38.2	5.6	43.8	2.7	100.0
	화이트칼라	230	10.9	46.8	57.7	30.6	6.5	37.1	5.2	100.0
	전업 주부	222	10.9	47.1	58.0	29.9	5.0	34.9	7.1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17.5	41.6	59.1	26.0	6.1	32.1	8.8	100.0
	200만원 미만	134	13.8	49.1	62.9	24.9	5.3	30.2	6.9	100.0
	200~299만원	203	16.0	47.9	63.9	24.5	7.1	31.7	4.4	100.0
	300~399만원	362	10.0	44.3	54.2	35.7	5.4	41.1	4.7	100.0
	400만원 이상	500	8.5	48.3	56.8	32.1	5.3	37.4	5.8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7.9	42.8	50.7	36.3	7.5	43.8	5.5	100.0
	충청권	123	14.7	46.5	61.1	27.9	5.7	33.6	5.3	100.0
	호남권	117	18.7	54.7	73.4	17.1	1.4	18.5	8.1	100.0
	영남권	309	11.0	52.9	63.8	29.4	3.4	32.8	3.3	100.0
	강원	35	20.0	45.1	65.0	21.8	8.9	30.7	4.3	100.0
	제주	14	12.8	50.2	63.0	12.8	0.0	12.8	24.2	100.0
	대도시	550	10.3	45.1	55.4	33.2	6.0	39.2	5.5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0.1	49.9	60.0	31.6	4.4	36.0	4.0	100.0
	읍/면	130	16.4	44.2	60.6	20.0	9.1	29.0	10.4	100.0
	진보적	522	10.7	49.7	60.4	31.3	4.6	35.9	3.7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0.4	34.9	45.3	44.6	4.0	48.7	6.0	100.0
	보수적	561	11.1	47.2	58.3	28.1	6.9	34.9	6.8	100.0
	불교	245	8.7	53.1	61.8	29.7	3.0	32.6	5.5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13.0	50.2	63.2	27.4	3.2	30.7	6.1	100.0
	천주교	72	13.4	37.9	51.3	37.4	5.8	43.3	5.4	100.0
	종교없음	625	10.6	44.3	55.0	32.5	7.5	40.1	5.0	100.0
	모름/무응답	21	10.7	54.1	64.9	23.3	5.9	29.2	5.9	100.0

표29-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7	32.3	47.0	23.2	21.8	7.9	29.7	100.0	
성별	남자	607	16.0	31.7	47.8	21.9	21.2	9.1	30.4	100.0
	여자	593	13.4	32.9	46.3	24.6	22.4	6.7	29.1	100.0
연령별	19~29세	209	13.1	27.4	40.5	26.9	22.7	10.0	32.7	100.0
	30대	237	12.8	36.1	48.9	28.6	16.6	5.9	22.5	100.0
	40대	275	16.9	31.3	48.2	20.3	22.7	8.8	31.5	100.0
	50대	261	13.6	36.0	49.6	19.1	22.8	8.5	31.3	100.0
	60대 이상	218	16.9	29.8	46.7	22.7	24.2	6.4	30.6	100.0
	중졸 이하	129	11.6	32.5	44.1	26.6	21.4	7.9	29.3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4.7	33.0	47.7	21.1	24.0	7.1	31.1	100.0
	대재 이상	470	15.7	31.3	47.0	24.9	19.2	9.0	28.2	100.0
	무응답	2	0.0	44.6	44.6	55.4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	31.6	33.7	28.5	17.7	20.2	37.8	100.0
	자영업	260	15.9	33.1	49.0	23.4	23.5	4.1	27.6	100.0
	블루 칼라	341	12.7	33.6	46.3	22.2	23.1	8.4	31.5	100.0
	화이트칼라	230	17.8	31.5	49.2	24.1	16.8	9.9	26.7	100.0
	전업 주부	222	14.8	34.5	49.3	21.6	22.6	6.5	29.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4.0	25.1	39.1	26.3	23.0	11.7	34.7	100.0
	200만원 미만	134	13.4	33.9	47.3	21.8	19.4	11.4	30.9	100.0
	200~299만원	203	14.3	34.1	48.4	20.1	22.9	8.6	31.5	100.0
300~399만원	362	10.8	33.8	44.6	24.7	24.0	6.7	30.7	100.0	
400만원 이상	500	18.1	30.1	48.2	23.9	20.4	7.4	27.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6.2	30.6	46.8	19.6	27.0	6.6	33.7	100.0
	충청권	123	15.9	25.5	41.3	40.2	10.5	7.9	18.4	100.0
	호남권	117	21.3	35.1	56.4	24.2	12.3	7.0	19.3	100.0
	영남권	309	8.8	37.1	45.9	23.5	21.2	9.4	30.6	100.0
	강원	35	11.3	43.0	54.3	15.0	13.3	17.3	30.7	100.0
	제주	14	22.3	12.5	34.8	39.4	10.8	15.0	25.7	100.0
	대도시	550	15.0	35.6	50.5	22.7	19.5	7.2	26.7	100.0
	중·소도시	521	12.1	30.9	42.9	24.0	26.8	6.3	33.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5.9	32.3	48.2	21.6	23.9	6.3	30.2	100.0
	중도	116	8.1	38.4	46.4	27.0	18.4	8.1	26.5	100.0
	보수적	561	15.0	31.1	46.1	23.9	20.6	9.4	30.0	100.0
종교별	불교	245	14.1	35.8	50.0	26.8	17.3	6.0	23.2	100.0
	기독교	238	18.5	32.2	50.7	23.5	16.9	9.0	25.9	100.0
	천주교	72	24.4	23.1	47.5	23.1	22.2	7.1	29.4	100.0
	종교없음	625	11.9	31.8	43.8	22.3	25.5	8.5	34.0	100.0
	모름/무응답	21	28.2	38.7	66.9	8.0	20.1	5.1	25.1	100.0

표29-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6.7	33.7	50.4	26.1	16.3	7.2	23.5	100.0	
성별	남자	607	17.6	33.2	50.7	24.0	17.1	8.2	25.3	100.0
	여자	593	15.8	34.2	50.0	28.2	15.5	6.3	21.8	100.0
연령별	19~29세	209	11.6	35.9	47.5	30.3	13.6	8.5	22.1	100.0
	30대	237	14.2	31.4	45.6	34.4	14.7	5.2	20.0	100.0
	40대	275	20.4	29.0	49.4	25.4	16.6	8.6	25.2	100.0
	50대	261	17.0	36.8	53.8	20.6	19.0	6.5	25.5	100.0
	60대 이상	218	19.3	36.1	55.4	20.3	17.0	7.3	24.3	100.0
	중졸 이하	129	15.5	37.0	52.5	19.7	22.6	5.2	27.8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6.9	33.4	50.3	26.6	16.5	6.5	23.1	100.0
	대재 이상	470	16.8	33.3	50.0	27.1	14.2	8.7	22.9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2	35.4	43.7	18.6	21.1	16.6	37.7	100.0
	자영업	260	18.0	35.1	53.1	24.8	17.2	4.9	22.1	100.0
	블루 칼라	341	17.2	30.2	47.5	29.0	16.7	6.8	23.5	100.0
	화이트칼라	230	18.9	36.5	55.4	20.9	14.1	9.6	23.7	100.0
	전업 주부	222	15.7	29.9	45.6	29.5	17.0	7.9	24.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1.6	41.2	52.9	25.4	15.6	6.1	21.7	100.0
	200만원 미만	134	18.5	37.8	56.3	22.0	12.4	9.3	21.7	100.0
	200~299만원	203	15.8	29.2	45.0	26.3	19.3	9.4	28.7	100.0
300~399만원	362	13.7	31.0	44.7	31.2	17.6	6.5	24.1	100.0	
400만원 이상	500	18.8	36.4	55.2	23.4	15.2	6.1	21.4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7.9	31.9	49.8	26.8	16.8	6.5	23.3	100.0
	충청권	123	18.7	30.3	49.1	32.3	12.8	5.8	18.6	100.0
	호남권	117	23.2	40.6	63.8	20.4	12.4	3.5	15.8	100.0
	영남권	309	10.1	35.5	45.7	25.8	19.2	9.4	28.5	100.0
	강원	35	20.3	42.8	63.1	10.9	15.2	10.9	26.0	100.0
	제주	14	28.4	16.2	44.6	29.7	0.0	25.7	25.7	100.0
	대도시	550	16.3	37.7	54.0	26.2	13.3	6.6	19.8	100.0
	중·소도시	521	15.6	30.8	46.4	26.6	21.5	5.5	27.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8.5	33.0	51.5	25.2	16.8	6.6	23.4	100.0
	중도	116	16.4	35.3	51.7	27.0	15.5	5.8	21.3	100.0
	보수적	561	15.1	34.0	49.1	26.7	16.1	8.1	24.2	100.0
종교별	불교	245	18.8	33.5	52.3	26.0	16.5	5.2	21.7	100.0
	기독교	238	22.3	35.3	57.6	20.4	13.7	8.3	22.0	100.0
	천주교	72	20.1	28.3	48.4	33.9	8.2	9.5	17.8	100.0
	종교없음	625	12.6	33.5	46.0	28.1	18.4	7.4	25.8	100.0
	모름/무응답	21	39.6	42.4	82.0	3.8	9.1	5.1	14.2	100.0

표29-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0.9	29.7	40.5	33.5	21.2	4.7	25.9	100.0	
성별	남자	607	11.3	27.8	39.1	33.0	22.7	5.2	27.9	100.0
	여자	593	10.4	31.6	42.0	34.1	19.7	4.2	23.9	100.0
연령별	19~29세	209	12.0	25.4	37.4	36.7	23.5	2.4	25.9	100.0
	30대	237	8.6	31.6	40.3	36.8	19.9	3.1	23.0	100.0
	40대	275	12.5	29.3	41.8	29.3	21.7	7.1	28.9	100.0
	50대	261	9.2	33.4	42.6	31.6	21.6	4.1	25.7	100.0
	60대 이상	218	12.1	27.6	39.7	34.7	19.4	6.2	2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1.7	29.0	40.7	36.7	18.1	4.5	22.6
고졸		599	10.3	30.6	41.0	32.8	22.4	3.8	26.2	100.0
대재 이상		470	11.4	28.4	39.7	33.7	20.7	5.9	26.6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8.8	23.5	42.3	23.2	30.0	4.5	34.5	100.0
	자영업	260	8.7	27.5	36.2	32.4	26.0	5.5	31.4	100.0
	블루 칼라	341	10.2	28.9	39.1	36.0	21.7	3.2	24.9	100.0
	화이트칼라	230	12.0	33.5	45.6	30.1	17.6	6.7	24.3	100.0
	전업 주부	222	10.1	33.5	43.7	33.4	18.6	4.4	23.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5.1	23.4	38.5	37.4	20.0	4.1	24.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3.1	28.9	42.0	40.1	13.2	4.7	18.0	100.0
	200~299만원	203	13.4	30.3	43.6	35.9	17.1	3.4	20.4	100.0
	300~399만원	362	9.9	32.5	42.4	29.6	24.6	3.4	27.9	100.0
	400만원 이상	500	10.0	27.6	37.6	33.7	22.7	6.0	28.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0.0	31.1	41.2	32.7	21.6	4.5	26.2	100.0
	충청권	123	8.7	27.6	36.4	31.4	25.4	6.8	32.2	100.0
	호남권	117	10.6	26.1	36.6	33.7	21.9	7.8	29.7	100.0
	영남권	309	12.3	30.9	43.2	35.3	19.1	2.4	21.5	100.0
	강원	35	15.5	19.3	34.8	38.9	17.9	8.4	26.3	100.0
	제주	14	24.5	14.7	39.2	35.9	15.4	9.6	25.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3.5	29.5	43.0	32.8	20.0	4.3	24.2
중·소도시		521	6.8	29.0	35.8	37.1	22.6	4.5	27.1	100.0
읍/면		130	16.1	33.2	49.3	22.4	20.9	7.5	2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0.6	27.5	38.1	34.4	22.1	5.4	27.5	100.0
	중도	116	7.2	30.4	37.7	37.5	21.8	3.1	24.9	100.0
	보수적	561	11.9	31.5	43.4	31.9	20.3	4.4	24.7	100.0
종교별	불교	245	9.6	31.0	40.6	35.9	20.1	3.4	23.5	100.0
	기독교	238	12.2	28.1	40.3	33.6	21.2	4.9	26.1	100.0
	천주교	72	16.1	22.2	38.4	26.6	24.5	10.5	35.1	100.0
	종교없음	625	10.2	30.6	40.8	32.9	21.6	4.6	26.3	100.0
	모름/무응답	21	11.7	30.7	42.4	47.1	10.5	0.0	10.5	100.0

표29-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2.2	29.5	41.7	34.8	18.2	5.3	23.5	100.0	
성별	남자	607	11.5	28.5	40.0	33.6	19.1	7.3	26.4	100.0
	여자	593	13.0	30.5	43.5	36.0	17.4	3.2	20.5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2	24.9	35.1	37.9	19.7	7.3	27.0	100.0
	30대	237	10.7	27.9	38.6	40.5	17.1	3.8	20.9	100.0
	40대	275	13.3	28.5	41.8	32.3	18.3	7.6	25.9	100.0
	50대	261	13.8	29.8	43.7	33.6	18.6	4.1	22.7	100.0
	60대 이상	218	12.6	36.4	49.0	30.2	17.4	3.4	2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1.3	38.9	50.2	30.1	15.9	3.7	19.7
고졸		599	10.9	30.3	41.2	34.1	19.4	5.3	24.7	100.0
대재 이상		470	14.2	25.8	40.0	36.9	17.4	5.7	23.1	100.0
무응답		2	0.0	44.6	44.6	55.4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3	30.5	41.7	40.7	10.2	7.4	17.6	100.0
	자영업	260	12.3	36.1	48.4	32.2	15.7	3.6	19.4	100.0
	블루 칼라	341	11.2	27.1	38.3	35.9	19.9	5.9	25.8	100.0
	화이트칼라	230	13.8	25.7	39.5	35.4	17.1	8.0	25.1	100.0
	전업 주부	222	13.5	35.4	48.9	30.5	18.4	2.2	20.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0.1	18.7	28.8	42.4	21.8	7.1	28.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3.7	28.1	41.8	37.1	18.1	3.1	21.2	100.0
	200~299만원	203	14.9	27.9	42.8	32.8	15.5	8.8	24.4	100.0
	300~399만원	362	8.7	31.1	39.8	37.5	19.3	3.3	22.6	100.0
	400만원 이상	500	13.1	29.4	42.5	33.0	18.6	5.8	24.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1.8	31.2	43.0	36.8	16.5	3.7	20.2	100.0
	충청권	123	17.1	30.5	47.6	29.0	19.0	4.4	23.4	100.0
	호남권	117	19.8	27.9	47.7	27.2	19.8	5.3	25.1	100.0
	영남권	309	7.5	27.9	35.5	35.7	20.6	8.3	28.9	100.0
	강원	35	11.1	24.3	35.5	36.4	19.7	8.4	28.2	100.0
	제주	14	30.1	8.9	39.0	37.2	16.8	7.0	23.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5.6	24.5	40.1	29.4	24.0	6.5	30.5
중·소도시		521	8.4	34.0	42.4	39.9	13.2	4.5	17.7	100.0
읍/면		130	13.5	32.5	46.0	36.9	13.8	3.2	17.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0.8	27.6	38.4	38.4	18.4	4.8	23.2	100.0
	중도	116	13.2	32.4	45.6	34.2	15.6	4.6	20.2	100.0
	보수적	561	13.4	30.6	44.0	31.5	18.6	5.8	24.5	100.0
종교별	불교	245	12.0	26.6	38.6	34.3	23.1	4.0	27.1	100.0
	기독교	238	14.7	31.2	45.9	32.6	16.3	5.2	21.6	100.0
	천주교	72	15.1	24.2	39.3	33.8	16.5	10.4	26.9	100.0
	종교없음	625	11.5	30.7	42.2	35.6	17.1	5.2	22.3	100.0
	모름/무응답	21	0.0	26.6	26.6	45.7	22.7	5.1	27.7	100.0

표29-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1.3	42.2	63.5	28.9	6.3	1.2	7.5	100.0	
성별	남자	607	21.9	40.4	62.3	29.0	7.2	1.5	8.7	100.0
	여자	593	20.8	44.0	64.8	28.9	5.4	0.9	6.3	100.0
연령별	19~29세	209	24.6	38.1	62.7	28.2	7.2	1.9	9.1	100.0
	30대	237	16.7	46.2	62.9	30.8	6.0	0.3	6.4	100.0
	40대	275	21.8	41.7	63.5	29.8	5.4	1.4	6.7	100.0
	50대	261	21.3	42.3	63.6	27.6	7.7	1.1	8.8	100.0
	60대 이상	218	22.8	42.2	65.0	28.2	5.3	1.5	6.8	100.0
	중졸 이하	129	24.9	39.7	64.7	29.4	3.3	2.7	6.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8.1	44.8	62.9	29.9	6.4	0.7	7.1	100.0
	대재 이상	470	24.2	39.6	63.8	27.7	7.0	1.5	8.5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0.7	23.2	43.9	38.7	17.5	0.0	17.5	100.0
	자영업	260	20.8	45.5	66.2	27.7	4.2	1.8	6.1	100.0
	블루 칼라	341	16.9	45.3	62.2	29.7	7.0	1.1	8.1	100.0
	화이트칼라	230	25.7	38.5	64.2	26.4	8.4	1.1	9.4	100.0
	전업 주부	222	20.9	41.1	61.9	33.3	4.4	0.4	4.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7.5	38.7	66.3	24.9	6.4	2.4	8.8	100.0
	200만원 미만	134	20.0	37.0	57.0	34.9	5.0	3.0	8.1	100.0
	200~299만원	203	25.8	40.3	66.0	27.3	5.3	1.3	6.6	100.0
300~399만원	362	15.7	46.3	62.1	30.3	6.3	1.3	7.6	100.0	
400만원 이상	500	23.8	41.4	65.2	27.1	7.1	0.6	7.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0.1	48.0	68.1	26.4	4.8	0.7	5.5	100.0
	충청권	123	23.2	33.7	56.9	36.8	3.7	2.6	6.3	100.0
	호남권	117	26.6	46.4	73.0	22.1	4.2	0.7	4.9	100.0
	영남권	309	19.7	33.5	53.2	34.7	10.9	1.2	12.1	100.0
	강원	35	30.7	38.9	69.6	14.8	9.0	6.6	15.6	100.0
	제주	14	27.8	29.5	57.3	36.6	3.1	2.9	6.1	100.0
	대도시	550	22.4	44.2	66.6	26.2	5.8	1.4	7.2	100.0
	중·소도시	521	18.3	41.5	59.8	32.4	6.7	1.1	7.8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29.4	36.2	65.6	26.6	6.9	0.9	7.9	100.0
	진보적	522	20.7	39.0	59.7	32.8	6.5	0.9	7.5	100.0
	중도	116	18.9	47.3	66.2	26.7	6.1	1.0	7.1	100.0
	보수적	561	22.4	44.1	66.5	25.8	6.1	1.6	7.7	100.0
종교별	불교	245	22.2	38.2	60.4	33.9	5.4	0.3	5.7	100.0
	기독교	238	25.5	42.8	68.4	26.0	3.3	2.3	5.7	100.0
	천주교	72	23.8	40.4	64.2	25.7	7.1	3.0	10.1	100.0
	종교없음	625	19.7	43.7	63.4	27.9	7.7	1.0	8.7	100.0
	모름/무응답	21	4.6	42.0	46.6	47.6	5.8	0.0	5.8	100.0

표29-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㉕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8	32.1	52.9	31.9	10.9	4.3	15.2	100.0	
성별	남자	607	21.7	31.1	52.9	30.0	11.9	5.3	17.2	100.0
	여자	593	19.8	33.0	52.9	33.9	9.9	3.3	13.2	100.0
연령별	19~29세	209	16.1	28.7	44.8	32.3	15.5	7.3	22.8	100.0
	30대	237	21.2	32.7	54.0	36.8	5.2	4.0	9.2	100.0
	40대	275	21.1	31.0	52.1	31.2	11.6	5.1	16.7	100.0
	50대	261	19.5	33.0	52.4	31.7	12.7	3.2	15.8	100.0
	60대 이상	218	25.8	34.9	60.7	27.6	9.7	2.0	11.7	100.0
	중졸 이하	129	29.7	29.9	59.6	28.5	8.9	3.0	11.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8.8	32.9	51.7	34.4	10.6	3.3	13.9	100.0
	대재 이상	470	20.8	31.5	52.3	29.9	11.9	5.9	17.8	100.0
	무응답	2	44.6	55.4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3.3	22.5	55.8	23.7	16.0	4.5	20.5	100.0
	자영업	260	18.9	32.0	50.9	32.4	12.3	4.4	16.7	100.0
	블루 칼라	341	19.6	35.4	55.0	31.4	10.9	2.7	13.6	100.0
	화이트칼라	230	22.3	29.2	51.5	29.7	12.7	6.1	18.8	100.0
	전업 주부	222	21.1	33.3	54.5	33.6	8.7	3.3	12.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2.3	28.0	50.3	35.0	8.0	6.7	14.7	100.0
	200만원 미만	134	30.8	27.4	58.2	28.9	8.0	5.0	13.0	100.0
	200~299만원	203	21.3	32.6	53.9	29.0	11.9	5.3	17.2	100.0
300~399만원	362	21.0	32.1	53.1	33.6	9.3	4.0	13.3	100.0	
400만원 이상	500	17.5	33.2	50.7	32.9	12.5	3.9	16.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7.6	37.3	54.9	31.9	10.1	3.1	13.2	100.0
	충청권	123	17.0	18.1	35.1	40.5	16.5	7.9	24.4	100.0
	호남권	117	30.7	29.0	59.8	22.3	8.9	9.0	17.9	100.0
	영남권	309	20.5	31.5	52.0	34.1	10.7	3.2	14.0	100.0
	강원	35	52.1	15.1	67.2	17.4	13.1	2.3	15.4	100.0
	제주	14	32.1	13.4	45.5	29.9	14.0	10.6	24.6	100.0
	대도시	550	21.6	32.5	54.2	27.5	12.7	5.6	18.3	100.0
	중·소도시	521	16.7	31.5	48.2	39.5	9.5	2.8	12.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33.2	32.7	65.9	20.4	8.9	4.8	13.7	100.0
	진보적	522	20.4	34.9	55.4	30.8	10.8	3.0	13.8	100.0
	중도	116	20.2	28.1	48.3	34.8	10.8	6.1	16.8	100.0
	보수적	561	21.2	30.3	51.5	32.4	11.0	5.1	16.1	100.0
종교별	불교	245	23.9	27.5	51.4	35.5	11.3	1.8	13.1	100.0
	기독교	238	17.4	32.9	50.3	34.0	9.5	6.2	15.7	100.0
	천주교	72	20.4	37.8	58.2	28.7	8.0	5.1	13.1	100.0
	종교없음	625	21.4	32.7	54.1	30.2	11.1	4.6	15.7	100.0
	모름/무응답	21	5.9	37.6	43.5	29.4	27.1	0.0	27.1	100.0

표30-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전 체	1200	50.5	37.2	87.7	10.9	1.4	0.1	1.4	100.0	
성별	남자	607	51.8	36.1	88.0	10.2	1.7	0.1	1.8	100.0
	여자	593	49.1	38.4	87.4	11.5	1.1	0.0	1.1	100.0
연령별	19~29세	209	48.4	37.8	86.2	11.4	2.5	0.0	2.5	100.0
	30대	237	47.6	42.2	89.8	8.1	1.8	0.3	2.1	100.0
	40대	275	51.9	36.1	88.1	10.5	1.4	0.0	1.4	100.0
	50대	261	48.6	36.5	85.1	14.5	0.4	0.0	0.4	10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18	56.0	33.5	89.5	9.5	1.0	0.0	1.0	100.0
	중졸 이하	129	52.8	34.7	87.5	10.2	2.3	0.0	2.3	100.0
	고졸	599	48.7	39.2	87.9	11.2	0.8	0.0	0.8	100.0
	대재 이상	470	51.8	35.5	87.4	10.7	1.8	0.2	2.0	100.0
직업별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20	37.8	56.8	94.7	5.3	0.0	0.0	0.0	100.0
	자영업	260	54.7	34.1	88.8	10.4	0.8	0.0	0.8	100.0
	블루 칼라	341	47.7	39.4	87.1	11.2	1.5	0.2	1.7	100.0
가구 소득 수준	화이트칼라	230	52.0	34.2	86.2	11.7	2.1	0.0	2.1	100.0
	전업 주부	222	47.8	39.6	87.4	12.0	0.5	0.0	0.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2.9	36.0	88.9	8.5	2.6	0.0	2.6	100.0
	200만원 미만	134	49.3	36.8	86.0	12.7	1.3	0.0	1.3	100.0
지역별	200~299만원	203	50.7	36.9	87.6	10.9	1.1	0.4	1.5	100.0
	300~399만원	362	47.9	40.6	88.5	11.0	0.5	0.0	0.5	100.0
	400만원 이상	500	52.5	35.1	87.6	10.3	2.1	0.0	2.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수도권	602	52.7	38.0	90.7	7.9	1.4	0.0	1.4	100.0
	충청권	123	45.6	43.4	89.1	10.2	0.7	0.0	0.7	100.0
	호남권	117	49.9	37.1	87.0	10.9	1.5	0.6	2.1	100.0
	영남권	309	49.7	32.4	82.2	16.6	1.2	0.0	1.2	100.0
정치적 성향	강원	35	39.3	43.2	82.6	12.8	4.6	0.0	4.6	100.0
	제주	14	47.0	39.4	86.3	13.7	0.0	0.0	0.0	100.0
	대도시	550	54.6	32.3	86.9	12.1	1.0	0.0	1.0	100.0
	중·소도시	521	46.8	40.8	87.7	10.3	1.9	0.1	2.0	100.0
종교별	읍/면	130	47.4	43.8	91.2	7.9	1.0	0.0	1.0	100.0
	진보적	522	49.9	36.9	86.8	11.6	1.6	0.0	1.6	100.0
	중도	116	42.1	41.6	83.7	15.3	1.1	0.0	1.1	100.0
	보수적	561	52.8	36.6	89.3	9.3	1.2	0.1	1.4	100.0
종교없음	불교	245	48.8	37.4	86.2	13.0	0.8	0.0	0.8	100.0
	기독교	238	54.5	32.7	87.2	12.1	0.7	0.0	0.7	100.0
	천주교	72	44.1	40.7	84.8	12.2	3.0	0.0	3.0	100.0
	종교없음	625	50.6	38.6	89.2	9.3	1.3	0.1	1.4	100.0
모름/무응답	21	41.4	32.7	74.0	14.3	11.7	0.0	11.7	100.0	

표3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전 체	1200	9.3	33.4	42.7	37.6	14.2	5.6	19.7	100.0	
성별	남자	607	9.7	32.4	42.1	36.2	15.0	6.7	21.7	100.0
	여자	593	8.8	34.5	43.3	39.0	13.3	4.4	17.7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2	34.8	45.0	37.5	13.3	4.1	17.5	100.0
	30대	237	7.9	34.5	42.4	38.7	14.5	4.4	18.9	100.0
	40대	275	8.8	33.7	42.5	37.7	13.7	6.1	19.7	100.0
	50대	261	10.2	31.8	42.0	38.8	14.3	4.9	19.2	10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18	9.3	32.6	41.9	34.6	15.1	8.4	23.5	100.0
	중졸 이하	129	9.8	34.4	44.2	30.4	14.5	10.9	25.4	100.0
	고졸	599	8.1	31.0	39.1	42.2	14.2	4.5	18.8	100.0
	대재 이상	470	10.6	36.5	47.1	33.6	13.8	5.5	19.3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0.0	55.4	100.0
	농/수/축산업	20	17.9	32.2	50.1	27.8	8.0	14.0	22.0	100.0
	자영업	260	8.6	31.8	40.3	44.0	12.0	3.7	15.7	100.0
	블루 칼라	341	8.4	29.5	37.8	41.4	15.2	5.6	20.8	100.0
가구 소득 수준	화이트칼라	230	11.7	36.5	48.2	31.3	13.8	6.7	20.6	100.0
	전업 주부	222	8.9	35.3	44.2	34.8	15.5	5.6	21.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8.0	38.9	46.9	32.0	15.1	6.1	21.1	100.0
	200만원 미만	134	7.5	31.0	38.4	35.5	14.9	11.1	26.0	100.0
지역별	200~299만원	203	8.8	36.9	45.7	33.8	12.9	7.7	20.5	100.0
	300~399만원	362	5.7	31.5	37.2	41.3	16.1	5.4	21.5	100.0
	400만원 이상	500	12.5	34.2	46.7	37.0	13.1	3.1	16.3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 크기	수도권	602	11.5	34.7	46.2	39.1	12.1	2.6	14.6	100.0
	충청권	123	8.0	38.5	46.4	39.6	12.1	1.9	14.0	100.0
	호남권	117	9.7	43.7	53.4	33.8	10.0	2.7	12.8	100.0
	영남권	309	5.3	26.0	31.3	35.2	21.8	11.8	33.6	100.0
정치적 성향	강원	35	9.0	28.4	37.4	30.1	8.7	23.8	32.5	100.0
	제주	14	9.1	25.9	34.9	55.2	3.2	6.6	9.9	100.0
	대도시	550	8.7	32.1	40.7	37.4	17.1	4.8	21.8	100.0
	중·소도시	521	7.2	33.4	40.6	39	13.1	7.3	20.4	100.0
종교별	읍/면	130	20.1	39.5	59.6	32.3	6.1	2.1	8.1	100.0
	진보적	522	9.8	30.3	40.1	35.2	18.0	6.7	24.7	100.0
	중도	116	6.7	31.5	38.2	44.2	13.8	3.8	17.6	100.0
	보수적	561	9.3	36.8	46.1	38.3	10.7	4.9	15.6	100.0
종교없음	불교	245	7.2	34.1	41.3	31.7	18.3	8.7	27.0	100.0
	기독교	238	10.0	34.7	44.7	41.1	11.7	2.5	14.2	100.0
	천주교	72	15.0	27.0	41.9	41.8	12.6	3.7	16.2	100.0
	종교없음	625	9.5	33.5	42.9	37.7	13.6	5.8	19.4	100.0
모름/무응답	21	0.0	33.5	33.5	47.0	14.8	4.8	19.6	100.0	

표30-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전 체	1200	6.2	34.9	41.1	43.4	13.3	2.3	15.5	100.0	
성별	남자	607	6.5	32.5	39.0	43.8	13.8	3.4	17.2	100.0
	여자	593	5.9	37.4	43.2	42.9	12.7	1.1	13.9	100.0
연령별	19~29세	209	4.4	31.8	36.2	47.7	13.0	3.1	16.1	100.0
	30대	237	5.0	38.1	43.1	40.9	13.7	2.2	15.9	100.0
	40대	275	7.9	33.8	41.6	44.3	11.7	2.4	14.1	100.0
	50대	261	5.3	38.5	43.8	41.0	14.0	1.2	15.2	100.0
	60대 이상	218	8.3	31.4	39.7	43.4	14.1	2.8	1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7	33.3	41.1	42.3	15.3	1.4	16.6	100.0
	고졸	599	5.6	33.1	38.7	46.9	12.1	2.3	14.4	100.0
	대재 이상	470	6.6	37.6	44.1	39.3	14.1	2.5	16.5	100.0
	무응답	2	0.0	44.6	44.6	0.0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8.7	30.8	49.6	41.0	4.7	4.7	9.4	100.0
	자영업	260	6.5	41.5	48.1	42.1	8.9	1.0	9.8	100.0
	블루 칼라	341	4.6	30.0	34.6	48.8	14.2	2.3	16.6	100.0
	화이트칼라	230	7.3	35.6	42.9	41.0	12.7	3.4	16.1	100.0
	전업 주부	222	6.8	37.7	44.5	38.3	15.6	1.7	17.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9	28.8	33.7	44.8	18.0	3.5	21.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7.6	26.0	33.6	48.2	14.8	3.5	18.2	100.0
	200~299만원	203	7.7	39.5	47.2	35.9	15.6	1.3	16.9	100.0
	300~399만원	362	4.3	32.1	36.4	46.0	15.3	2.3	17.6	100.0
	400만원 이상	500	6.6	37.5	44.1	43.3	10.5	2.1	12.6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5.7	36.3	42.0	44.8	11.0	2.1	13.1	100.0
	충청권	123	5.5	38.8	44.3	46.1	7.6	1.9	9.6	100.0
	호남권	117	14.5	38.7	53.1	38.6	6.0	2.2	8.2	100.0
	영남권	309	4.7	29.4	34.1	42.0	22.7	1.2	23.9	100.0
	강원	35	2.1	36.6	38.7	30.5	17.4	13.4	30.8	100.0
	제주	14	8.7	22.6	31.3	57.7	4.3	6.6	11.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6.0	35.2	41.3	43.8	12.4	2.5	14.9	100.0
	중·소도시	521	4.9	31.5	36.4	45.6	15.9	2.1	18.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12.1	47.0	59.1	32.4	6.4	2.0	8.5	100.0
	진보적	522	6.2	31.3	37.5	44.4	15.7	2.3	18.1	100.0
	중도	116	5.4	35.7	41.1	47.2	10.1	1.7	11.8	100.0
	보수적	561	6.4	38.0	44.5	41.6	11.6	2.3	14.0	100.0
종교별	불교	245	5.8	34.7	40.5	42.1	14.9	2.5	17.4	100.0
	기독교	238	6.3	33.8	40.1	48.5	9.9	1.5	11.4	100.0
	천주교	72	10.7	40.7	51.4	35.5	10.6	2.5	13.1	100.0
	종교없음	625	6.0	35.3	41.3	42.2	14.1	2.4	16.5	100.0
	모름/무응답	21	0.0	17.4	17.4	62.3	16.5	3.8	20.4	100.0

표30-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전 체	1200	10.6	46.0	56.6	35.1	7.7	0.6	8.3	100.0	
성별	남자	607	12.6	44.3	56.9	34.8	7.6	0.8	8.4	100.0
	여자	593	8.6	47.8	56.4	35.4	7.8	0.4	8.2	100.0
연령별	19~29세	209	12.3	39.4	51.7	40.6	6.3	1.3	7.6	100.0
	30대	237	10.0	50.9	60.9	31.0	8.2	0.0	8.2	100.0
	40대	275	11.4	46.8	58.2	33.0	8.4	0.3	8.7	100.0
	50대	261	8.6	44.4	53.0	38.9	7.5	0.6	8.1	100.0
	60대 이상	218	10.9	48.1	59.0	32.1	7.9	1.0	8.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0.6	47.2	57.8	30.3	11.2	0.6	11.8	100.0
	고졸	599	8.5	46.7	55.3	37.5	6.9	0.4	7.2	100.0
	대재 이상	470	13.0	44.9	57.9	33.4	7.8	0.9	8.7	100.0
	무응답	2	55.4	44.6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9.6	26.8	46.4	39.0	9.9	4.7	14.6	100.0
	자영업	260	11.8	50.8	62.6	31.1	6.3	0.0	6.3	100.0
	블루 칼라	341	8.5	45.5	54.0	39.2	6.8	0.0	6.8	100.0
	화이트칼라	230	11.8	47.3	59.1	33.0	7.5	0.4	7.9	100.0
	전업 주부	222	8.2	47.8	56.0	33.8	9.0	1.1	10.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4.4	35.3	49.7	37.4	10.8	2.2	12.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1.7	40.2	51.8	37.4	9.3	1.5	10.8	100.0
	200~299만원	203	8.5	50.6	59.1	32.3	8.2	0.4	8.6	100.0
	300~399만원	362	10.7	44.7	55.4	34.6	9.7	0.2	10.0	100.0
	400만원 이상	500	10.9	46.8	57.7	36.0	5.6	0.7	6.3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8.9	49.2	58.1	34.3	7.3	0.2	7.5	100.0
	충청권	123	9.1	43.8	52.9	44	2.5	0.6	3.1	100.0
	호남권	117	11.7	58.3	70.0	27.1	1.5	1.4	2.9	100.0
	영남권	309	12.3	37.3	49.6	37.1	13.1	0.3	13.4	100.0
	강원	35	21.8	41.0	62.8	23.6	9.0	4.6	13.6	100.0
	제주	14	19.3	32.9	52.2	41.2	0.0	6.6	6.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2.4	44.4	56.8	37.9	4.8	0.4	5.3	100.0
	중·소도시	521	7.4	46.3	53.7	33.9	11.8	0.6	12.4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15.9	51.9	67.8	27.7	3.4	1.1	4.5	100.0
	진보적	522	9.4	45.3	54.7	35.8	9.0	0.5	9.5	100.0
	중도	116	7.3	56.8	64.1	29.1	5.8	1.1	6.9	100.0
	보수적	561	12.4	44.5	56.9	35.6	6.9	0.6	7.5	100.0
종교별	불교	245	10.4	43.7	54.1	39.0	6.4	0.5	6.9	100.0
	기독교	238	9.1	51.8	60.9	33.0	5.8	0.3	6.1	100.0
	천주교	72	9.3	57.8	67.2	24.7	6.4	1.7	8.1	100.0
	종교없음	625	11.5	44.0	55.5	35.2	8.8	0.5	9.3	100.0
	모름/무응답	21	5.9	28.5	34.4	45.1	16.7	3.8	20.5	100.0

표30-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㉔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아주 크다	조금 크다	%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전 체	1200	4.1	25.8	30.0	56.7	11.0	2.3	13.3	100.0	
성별	남자	607	3.6	24.9	28.4	57.4	10.8	3.3	14.1	100.0
	여자	593	4.7	26.8	31.6	56.0	11.1	1.3	12.4	100.0
연령별	19~29세	209	2.8	23.2	26	57.3	12.3	4.4	16.7	100.0
	30대	237	3.8	29.5	33.3	53.6	10.5	2.5	13.1	100.0
	40대	275	6.1	25.7	31.9	55.0	12.1	1.1	13.2	100.0
	50대	261	2.6	25.5	28.1	59.6	11.1	1.2	12.3	100.0
	60대 이상	218	5.2	25.0	30.2	58.3	8.6	2.9	1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9	24.6	31.5	52.5	15.4	0.6	16.0	100.0
	고졸	599	3.9	23.4	27.3	61.9	8.7	2.1	10.8	100.0
	대재 이상	470	3.7	29.4	33.1	51.2	12.7	3.0	15.7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5	18.4	22.9	68.2	4.2	4.7	8.9	100.0
	자영업	260	5.7	30.6	36.3	55.7	7.2	0.8	8.0	100.0
	블루 칼라	341	2.7	22.8	25.5	61.8	11.0	1.7	12.7	100.0
	화이트칼라	230	4.2	29.4	33.6	49.8	12.6	4.0	16.6	100.0
	전업 주부	222	4.4	25.5	29.9	56.3	12.1	1.7	13.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4	19.3	23.7	56.9	14.6	4.8	19.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4.0	26.6	30.6	56.7	10.0	2.8	12.7	100.0
	200~299만원	203	4.6	26.0	30.6	53.1	15.9	0.4	16.3	100.0
	300~399만원	362	3.8	26.7	30.5	58.6	8.5	2.4	10.9	100.0
	400만원 이상	500	4.2	25.1	29.3	57.0	11.0	2.7	13.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2	21.4	25.6	61.3	11.0	2.1	13.1	100.0
	충청권	123	5.3	29.1	34.4	54.6	7.1	3.9	10.9	100.0
	호남권	117	8.3	43.1	51.3	38.1	7.7	3.0	10.6	100.0
	영남권	309	1.7	27.2	29.0	55.8	14.7	0.6	15.3	100.0
	강원	35	6.7	19.7	26.4	55.8	6.7	11.1	17.8	100.0
	제주	14	5.8	29.0	34.8	58.5	0.0	6.6	6.6	100.0
	대도시	550	4.1	26.9	31.0	57.8	8.8	2.4	11.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3.8	21.8	25.6	59.3	13.2	2.0	15.2	100.0
	읍/면	130	5.8	37.5	43.3	42.1	11.3	3.3	14.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0	25.7	29.6	58.8	9.4	2.2	11.6	100.0
	중도	116	3.8	23.3	27.1	53.1	18.2	1.6	19.7	100.0
	보수적	561	4.4	26.6	30.9	55.6	10.9	2.6	13.5	100.0
종교별	불교	245	2.7	23.4	26.1	60.1	12.2	1.6	13.8	100.0
	기독교	238	3.4	25.8	29.1	58.7	10.1	2.1	12.2	100.0
	천주교	72	6.1	22.7	28.7	54.4	10.4	6.4	16.9	100.0
	종교없음	625	4.9	27.6	32.5	54.1	11.2	2.1	13.4	100.0
	모름/무응답	21	0.0	13.3	13.3	82.9	0.0	3.8	3.8	100.0

표31-1.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탈북자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친근	다소 친근	%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 하지 않음	전혀 친근 하지 않음	%		
전 체	1200	1.5	27.5	28.9	43.8	24.4	2.8	27.3	100.0	
성별	남자	607	2.1	25.4	27.5	45.8	23.0	3.8	26.7	100.0
	여자	593	0.9	29.6	30.4	41.8	25.9	1.9	27.8	100.0
연령별	19~29세	209	0.5	23.8	24.3	47.8	24.8	3.2	27.9	100.0
	30대	237	1.9	22.0	24.0	44.8	26.5	4.7	31.2	100.0
	40대	275	1.0	29.4	30.4	41.8	25.2	2.5	27.8	100.0
	50대	261	2.2	31.7	33.9	42.5	22.1	1.5	23.6	100.0
	60대 이상	218	1.6	29.3	30.9	43.0	23.7	2.4	2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4	30.0	32.4	40.5	26.1	1.0	27.1	100.0
	고졸	599	1.1	26.1	27.3	43.9	26.5	2.3	28.8	100.0
	대재 이상	470	1.7	28.5	30.2	44.5	21.3	4.0	25.3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9.7	19.7	38.9	34.5	6.9	41.4	100.0
	자영업	260	1.3	27.2	28.5	46.4	22.5	2.6	25.1	100.0
	블루 칼라	341	0.8	22.4	23.2	44.2	29.5	3.2	32.6	100.0
	화이트칼라	230	2.4	32.6	35.0	42.2	19.2	3.6	22.8	100.0
	전업 주부	222	1.3	31.4	32.7	42.9	22.7	1.7	24.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4	26.7	29.1	42.7	26.0	2.2	28.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6	22.5	25.1	45.0	28.1	1.8	29.9	100.0
	200~299만원	203	1.5	27.9	29.4	42.1	24.8	3.7	28.5	100.0
	300~399만원	362	1.0	29.0	30.0	44.0	23.8	2.2	26.0	100.0
	400만원 이상	500	1.5	27.3	28.8	44.1	23.9	3.2	27.0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2	26.1	27.3	44.6	26.0	2.0	28.0	100.0
	충청권	123	0.7	30.7	31.4	51.6	14.5	2.5	17.0	100.0
	호남권	117	2.0	21.1	23.2	43.8	29.8	3.3	33.0	100.0
	영남권	309	1.3	30.5	31.8	39.0	24.8	4.4	29.2	100.0
	강원	35	6.4	35.0	41.3	43.1	15.6	0.0	15.6	100.0
	제주	14	6.2	22.9	29.0	47.4	13.3	10.3	23.5	100.0
	대도시	550	1.3	25.7	27.0	44.8	24.3	4.0	28.3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9	31.1	33.0	42.3	23.5	1.2	24.7	100.0
	읍/면	130	0.7	20.3	21.0	45.5	29.0	4.5	3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3	29.4	31.7	41.2	25.6	1.6	27.1	100.0
	중도	116	1.0	26.9	28.0	44.5	24.8	2.7	27.5	100.0
	보수적	561	0.8	25.7	26.6	46.1	23.3	4.0	27.3	100.0
종교별	불교	245	1.3	28.4	29.8	45.7	21.4	3.2	24.6	100.0
	기독교	238	2.3	30.6	32.9	42.7	20.1	4.3	24.3	100.0
	천주교	72	4.8	24.5	29.3	46.1	22.9	1.7	24.6	100.0
	종교없음	625	0.9	26.5	27.4	43.0	27.2	2.3	29.6	100.0
	모름/무응답	21	0.0	19.5	19.5	48.9	31.7	0.0	31.7	100.0

표31-2.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조선족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	25.1	27.1	41.7	24.2	7.0	31.2	100.0	
성별	남자	607	2.7	24.3	27.0	42.4	22.8	7.9	30.7	100.0
	여자	593	1.3	25.9	27.2	41.1	25.7	6.0	31.7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	20.5	21.5	45.0	23.1	10.4	33.5	100.0
	30대	237	2.2	19.4	21.6	39.0	29.8	9.5	39.4	100.0
	40대	275	2.2	29.4	31.6	37.9	23.8	6.7	30.5	100.0
	50대	261	2.5	28.2	30.7	44.2	21.5	3.7	25.2	100.0
	60대 이상	218	2.0	26.5	28.5	43.4	23.0	5.1	28.1	100.0
	중졸 이하	129	1.9	29.6	31.5	38.0	27.1	3.5	30.5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2	26.8	29.0	42.2	22.5	6.4	28.9	100.0
	대재 이상	470	1.8	21.8	23.6	42.4	25.4	8.7	34.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6	20.7	25.2	29.2	43.2	2.3	45.5	100.0
	자영업	260	2.5	21.0	23.6	48.4	22.2	5.8	28.0	100.0
	블루 칼라	341	2.1	27.7	29.7	36.8	27.1	6.4	33.5	100.0
	화이트칼라	230	1.6	25.6	27.2	43.8	18.9	10.1	29.0	100.0
	전업 주부	222	1.4	29.9	31.3	37.3	25.7	5.7	31.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1	17.8	19.9	47.2	24.7	8.1	32.8	100.0
	200만원 미만	134	2.6	23.9	26.5	42.5	25.2	5.8	31.0	100.0
	200~299만원	203	1.0	25.4	26.4	40.1	27.1	6.5	33.5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1.8	24.1	25.9	42.5	22.8	8.8	31.6	100.0
	400만원 이상	500	2.4	26.1	28.5	41.5	23.9	6.2	30.0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1	26.2	28.4	42.4	22.3	7.0	29.3	100.0
	충청권	123	0.7	20.2	21.0	49.0	22.8	7.3	30.1	100.0
	호남권	117	1.4	15.4	16.8	47.6	28.1	7.5	35.6	100.0
	영남권	309	2.3	28.9	31.2	34.3	28.4	6.1	34.5	100.0
	강원	35	2.0	26.2	28.2	47.5	17.5	6.7	24.2	100.0
	제주	14	6.2	13.8	20.0	48.9	13.6	17.5	31.2	100.0
	대도시	550	2.8	25.2	28.0	38.8	23.2	10.1	33.3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4	26.7	28.1	45.1	22.5	4.4	26.8	100.0
	읍/면	130	1.4	18.2	19.5	40.7	35.8	4.0	39.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4	25.0	26.3	41.8	27.6	4.2	31.9	100.0
	중도	116	1.9	20.7	22.6	43.6	23.7	10.1	33.8	100.0
	보수적	561	2.6	26.1	28.7	41.3	21.1	8.9	30.0	100.0
종교별	불교	245	1.6	31.8	33.4	42.6	18.1	5.8	24.0	100.0
	기독교	238	1.3	26.3	27.6	42.0	23.2	7.2	30.4	100.0
	천주교	72	4.8	16.9	21.8	41.6	25.7	10.9	36.6	100.0
	종교없음	625	1.6	22.6	24.2	42.1	26.8	6.9	33.6	100.0
	모름/무응답	21	17.2	34.5	51.6	16.6	26.0	5.8	31.8	100.0

표31-3.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㉕ 동남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1	18.6	19.8	41.4	28.5	10.4	38.9	100.0	
성별	남자	607	1.1	18.3	19.4	42.1	26.5	12.1	38.5	100.0
	여자	593	1.1	19.0	20.1	40.6	30.6	8.6	39.2	100.0
연령별	19~29세	209	1.1	18.0	19.1	41.9	26.9	12.1	39.0	100.0
	30대	237	1.1	17.6	18.7	38.0	32.9	10.4	43.3	100.0
	40대	275	0.5	18.9	19.4	45.2	24.5	10.9	35.4	100.0
	50대	261	0.9	24.1	25	34.9	31.8	8.3	40.1	100.0
	60대 이상	218	2.1	13.6	15.8	47.4	26.5	10.4	36.9	100.0
	중졸 이하	129	3.1	13.8	16.9	45.9	26.9	10.3	37.1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0.9	20.5	21.5	40.5	27.4	10.6	38.0	100.0
	대재 이상	470	0.8	17.6	18.4	41.3	30.1	10.2	40.3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	15.8	17.8	30.4	28.2	23.6	51.8	100.0
	자영업	260	1.2	19.7	20.9	39.2	30.2	9.7	39.9	100.0
	블루 칼라	341	0.5	18.5	19.0	39.4	31.3	10.2	41.6	100.0
	화이트칼라	230	0.5	17.4	17.9	43.6	26.4	12.1	38.5	100.0
	전업 주부	222	2.5	17.4	19.9	43.6	27.8	8.6	36.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0	21.7	22.7	44.7	22.7	10.0	32.7	100.0
	200만원 미만	134	2.2	18.2	20.4	49.0	22.7	8.0	30.6	100.0
	200~299만원	203	1.2	19.6	20.8	39.9	27.4	12.0	39.3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0.8	16.1	16.9	41.6	29.5	12.0	41.5	100.0
	400만원 이상	500	1.0	20.3	21.3	39.9	29.7	9.2	38.9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6	20.2	20.8	39.1	27.8	12.2	40.1	100.0
	충청권	123	0.0	13.0	13.0	55.8	26.3	4.9	31.2	100.0
	호남권	117	3.4	15.6	19.0	43.4	30.6	7.0	37.6	100.0
	영남권	309	1.3	18.3	19.7	37.5	32.2	10.6	42.9	100.0
	강원	35	2.3	26.0	28.4	49.9	14.8	6.9	21.7	100.0
	제주	14	5.8	15.0	20.8	56.2	13.7	9.3	23.0	100.0
	대도시	550	1.2	15.2	16.5	38.6	30.9	14.1	45.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2	22.2	23.4	44.7	25.2	6.7	31.9	100.0
	읍/면	130	0.3	18.9	19.2	39.9	31.8	9.1	4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0.9	17.5	18.4	43.2	29.0	9.4	38.4	100.0
	중도	116	0.7	20.9	21.6	32.6	33.8	12.0	45.8	100.0
	보수적	561	1.4	19.2	20.6	41.5	27.0	10.9	37.9	100.0
종교별	불교	245	1.3	22.9	24.3	40.5	28.6	6.6	35.2	100.0
	기독교	238	1.0	21.9	22.9	41.5	22.6	13.0	35.6	100.0
	천주교	72	1.7	21.5	23.2	34.2	28.4	14.2	42.6	100.0
	종교없음	625	1.0	15.8	16.9	41.5	31.2	10.4	41.6	100.0
	모름/무응답	21	0.0	6.0	6.0	68.4	14.8	10.8	25.6	100.0

표31-4.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미국·유럽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5	27.8	30.3	41.4	20.4	7.8	28.3	100.0	
성별	남자	607	2.9	27.7	30.7	41.6	20.5	7.3	27.7	100.0
	여자	593	2.1	27.9	30.0	41.2	20.4	8.4	28.8	100.0
연령별	19~29세	209	3.6	28.9	32.5	42.0	17.8	7.7	25.6	100.0
	30대	237	2.7	30.4	33.1	37.2	21.7	8.1	29.8	100.0
	40대	275	0.6	30.4	31.0	41.2	19.5	8.3	27.8	100.0
	50대	261	2.7	27.3	30.1	41.0	20.8	8.1	28.9	100.0
	60대 이상	218	3.5	21.3	24.8	46.2	22.3	6.7	28.9	100.0
	중졸 이하	129	3.2	21.7	24.9	47.3	23.4	4.5	27.8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7	28.3	31.0	39.3	20.2	9.5	29.7	100.0
	대재 이상	470	2.2	29.0	31.1	42.5	19.8	6.6	26.4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9.3	24.6	33.9	36.2	15.9	14.0	29.9	100.0
	자영업	260	1.9	25.3	27.2	42.4	23.0	7.4	30.4	100.0
	블루 칼라	341	3.0	30.8	33.8	38.3	19.9	8.1	27.9	100.0
	화이트칼라	230	2.7	29.0	31.8	41.9	20.2	6.2	26.4	100.0
	전업 주부	222	0.9	22.7	23.6	44.4	21.8	10.2	32.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2	32.1	36.2	42.6	15.4	5.7	21.2	100.0
	200만원 미만	134	4.7	26.3	31.0	45.2	20.2	3.7	23.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9	28.1	32.0	38.4	21.8	7.8	29.6	100.0
	300~399만원	362	0.7	24.4	25.1	43.8	22.4	8.8	31.1	100.0
	400만원 이상	500	2.6	30.6	33.2	40.0	18.6	8.2	26.9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1.4	30.8	32.1	37.8	20.7	9.4	30.1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3.4	25.5	28.9	49.2	16.4	5.6	22.0	100.0
	호남권	117	5.6	21.5	27.0	48.1	20.7	4.2	24.8	100.0
	영남권	309	2.4	25.1	27.6	40.9	24.3	7.3	31.5	100.0
	강원	35	11.0	30.4	41.4	53.9	0.0	4.7	4.7	100.0
	제주	14	0.0	25.9	25.9	54.2	9.8	10.1	19.9	100.0
	대도시	550	1.7	24.2	25.8	42.2	24.3	7.7	32.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3.9	32.2	36.1	41.5	14.4	8.0	22.4	100.0
	읍/면	130	0.7	25.7	26.4	37.8	28.5	7.3	35.8	100.0
	진보적	522	2.5	28.9	31.4	41.8	20.0	6.8	26.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3.9	24.5	28.4	43.7	23.5	4.5	28.0	100.0
	보수적	561	2.3	27.5	29.8	40.6	20.2	9.5	29.7	100.0
	불교	245	4.4	26.2	30.6	42.5	18.0	8.9	26.9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3.6	27.3	30.9	41.0	18.0	10.1	28.1	100.0
	천주교	72	1.1	30.5	31.7	47.7	17.2	3.4	20.6	100.0
	종교없음	625	1.6	27.5	29.2	40.9	22.7	7.3	29.9	100.0
	모름/무응답	21	0.0	51.1	51.1	27.1	21.8	0.0	21.8	100.0

표31-5.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㉕ 아랍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2	5.4	5.5	31.0	39.4	24.1	63.5	100.0	
성별	남자	607	0.2	5.6	5.8	30.4	39.6	24.1	63.8	100.0
	여자	593	0.1	5.1	5.3	31.6	39.2	24.0	63.2	100.0
연령별	19~29세	209	0.0	5.7	5.7	33.7	38.0	22.5	60.5	100.0
	30대	237	0.3	5.4	5.7	29.6	36.8	27.9	64.7	100.0
	40대	275	0.0	4.5	4.5	32.5	38.4	24.6	62.9	100.0
	50대	261	0.0	6.5	6.5	27.9	43.3	22.2	65.5	100.0
	60대 이상	218	0.5	4.7	5.2	31.7	40.3	22.9	63.1	100.0
	중졸 이하	129	0.0	7.3	7.3	32.7	42.0	18.0	6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0.2	4.5	4.7	30.5	38.8	26.0	64.8	100.0
	대재 이상	470	0.2	6.0	6.2	31.2	39.5	23.1	62.6	100.0
	무응답	2	0.0	0.0	0.0	0.0	44.6	55.4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7	2.7	23.4	45.6	28.3	73.9	100.0
	자영업	260	0.4	4.9	5.4	25.1	41.1	28.5	69.6	100.0
	블루 칼라	341	0.0	4.7	4.7	28.8	43.7	22.8	66.5	100.0
	화이트칼라	230	0.4	6.4	6.8	34.6	36.0	22.6	58.6	100.0
	전업 주부	222	0.0	5.4	5.4	35.3	34.1	25.2	59.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0.0	6.6	6.6	35.9	39.2	18.2	57.5	100.0
	200만원 미만	134	0.0	6.8	6.8	35.8	36.3	21.1	57.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5	6.5	7.0	38.1	32.8	22.1	54.9	100.0
	300~399만원	362	0.0	4.9	4.9	32.0	36.9	26.2	63.1	100.0
	400만원 이상	500	0.2	4.9	5.1	26.1	44.8	24.0	68.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수도권	602	0.2	5.9	6.0	27.5	40.9	25.5	66.5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0.0	4.3	4.3	34.5	49.7	11.5	61.2	100.0
	호남권	117	0.7	7.8	8.5	34.9	33.6	23.0	56.6	100.0
	영남권	309	0.0	3.4	3.4	31.2	37.7	27.6	65.4	100.0
	강원	35	0.0	6.5	6.5	53.8	23.8	16.0	39.7	100.0
	제주	14	0.0	15.0	15.0	54.8	9.8	20.5	30.2	100.0
	대도시	550	0.2	3.8	4.0	27.8	43.0	25.2	68.1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0.2	6.8	6.9	34.3	37.1	21.8	58.8	100.0
	읍/면	130	0.0	6.4	6.4	31.4	33.8	28.5	62.2	100.0
	진보적	522	0.2	5.0	5.2	33.0	39.5	22.3	61.8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0.0	8.9	8.9	30.2	36.3	24.7	61.0	100.0
	보수적	561	0.1	5.0	5.1	29.3	40.0	25.5	65.5	100.0
	불교	245	0.0	4.4	4.4	29.2	41.8	24.6	66.4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0.0	5.1	5.1	31.7	36.7	26.5	63.3	100.0
	천주교	72	0.0	10.5	10.5	26.2	42.5	20.8	63.3	100.0
	종교없음	625	0.3	5.4	5.7	32.0	38.7	23.6	62.3	100.0
	모름/무응답	21	0.0	3.8	3.8	29.5	51.6	15.1	66.7	100.0

표31-6.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아프리카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	%	
		%	%	%	%	%	%	%	%
전 체	1200	0.7	6.7	7.4	32.8	35.1	24.7	59.8	100.0
성별	남자	607	1.0	7.2	8.2	32.7	33.7	25.4	59.1
	여자	593	0.4	6.2	6.6	32.9	36.6	23.9	60.5
	19~29세	209	1.0	7.6	8.6	34.0	30.6	26.7	57.3
연령별	30대	237	0.7	6.7	7.3	33.4	33.7	25.6	59.3
	40대	275	0.0	7.6	7.6	30.1	39.0	23.3	62.3
	50대	261	0.8	7.0	7.7	33.1	35.6	23.6	59.2
	60대 이상	218	1.3	4.5	5.8	34.1	35.4	24.8	60.1
	중졸 이하	129	1.3	7.6	8.8	34.0	39.2	18.0	57.2
교육 수준별	고졸	599	0.4	4.8	5.2	31.8	34.6	28.4	63.0
	대재 이상	470	0.9	9.0	9.9	33.7	34.8	21.6	56.4
	무응답	2	0.0	0.0	0.0	44.6	0.0	55.4	55.4
	농/수/축산업	20	0.0	7.6	7.6	26.3	34.1	31.9	66.1
직업별	자영업	260	0.7	4.8	5.6	27.0	39.6	27.9	67.5
	블루 칼라	341	0.2	5.1	5.3	33.2	38.4	23.1	61.5
	화이트칼라	230	1.2	8.5	9.7	36.5	31.5	22.3	53.8
	전업 주부	222	0.4	7.6	8.0	33.0	31.1	27.9	59.0
	학생/무직/기타	127	1.7	10.0	11.7	37.9	30.8	19.6	50.4
	200만원 미만	134	0.7	9.7	10.4	36.0	32.0	21.6	53.6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3	7.1	8.4	37.3	30.5	23.8	54.3
	300~399만원	362	0.2	6.0	6.2	31.4	33.6	28.8	62.3
	400만원 이상	500	0.8	6.3	7.2	30.9	39.0	22.9	61.9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수도권	602	0.6	6.9	7.5	30.9	33.9	27.8	61.6
지역별	충청권	123	0.8	4.3	5.1	40.3	37.3	17.3	54.6
	호남권	117	2.1	9.2	11.3	34.7	34.4	19.6	54.0
	영남권	309	0.0	5.3	5.3	29.6	39.8	25.3	65.1
	강원	35	4.4	10.9	15.3	51.4	19.7	13.6	33.3
	제주	14	0.0	19.3	19.3	57.7	9.8	13.2	23.0
	대도시	550	0.4	5.6	6.0	29.5	35.9	28.6	64.5
	중·소도시	521	1.2	5.6	6.8	36.8	34.8	21.5	56.4
정치적 성향	읍/면	130	0.0	15.9	15.9	30.6	32.8	20.7	53.5
	진보적	522	0.7	6.2	6.9	34.7	33.8	24.5	58.3
	중도	116	0.7	8.0	8.6	35.8	35.8	19.8	55.6
	보수적	561	0.7	7.0	7.6	30.4	36.1	25.8	62.0
종교별	불교	245	0.3	6.1	6.4	30.9	39.6	23.2	62.7
	기독교	238	1.1	6.9	8.0	33.8	33.0	25.3	58.3
	천주교	72	1.7	8.8	10.5	32.8	37.0	19.7	56.8
	종교없음	625	0.6	6.8	7.4	33.1	33.8	25.7	59.5
	모름/무응답	21	0.0	3.8	3.8	35.1	39.3	21.8	61.1

표32-1.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	
		%	%	%	%	%	%	%	%
전 체	1200	1.3	15.4	16.6	41.8	34.2	7.3	41.5	100.0
성별	남자	607	1.8	14.2	16.0	39.9	35.1	8.9	44.0
	여자	593	0.7	16.5	17.3	43.7	33.3	5.7	39.0
연령별	19~29세	209	2.5	11.8	14.2	44.2	34.6	6.9	41.6
	30대	237	1.3	15.8	17.1	48.0	30.4	4.5	34.9
	40대	275	1.7	16.2	17.9	42.2	31.3	8.6	39.9
	50대	261	0.3	14.6	14.9	38.2	38.7	8.2	46.9
	60대 이상	218	0.8	18.2	19.0	36.6	36.3	8.1	44.4
	중졸 이하	129	0.7	19.8	20.5	29.6	41.5	8.5	5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1.3	15.4	16.7	43.4	34.1	5.8	39.9
	대재 이상	470	1.5	13.9	15.5	43.2	32.6	8.7	41.3
	무응답	2	0.0	44.6	44.6	0.0	0.0	55.4	55.4
	농/수/축산업	20	2.3	37.9	40.2	36.1	19.0	4.7	23.7
직업별	자영업	260	1.0	13.1	14.1	42.3	35.1	8.6	43.7
	블루 칼라	341	0.7	13.0	13.7	42.5	37.6	6.2	43.8
	화이트칼라	230	2.7	16.9	19.6	39.1	34.2	7.2	41.4
	전업 주부	222	1.0	19.5	20.4	43.2	30.3	6.1	36.4
	학생/무직/기타	127	1.4	12.9	14.3	42.4	32.8	10.5	43.3
	200만원 미만	134	1.9	17.3	19.2	36.2	34.2	10.4	44.6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0	18.0	19.0	39.6	34.7	6.7	41.4
	300~399만원	362	1.6	14.3	15.9	43.2	35.5	5.4	40.9
	400만원 이상	500	1.0	14.6	15.6	43.3	33.0	8.2	41.1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수도권	602	1.4	15.2	16.6	42.1	34.6	6.8	41.3
지역별	충청권	123	0.0	13.5	13.5	41.7	37.8	7.0	44.8
	호남권	117	2.8	11.6	14.4	37.2	34.5	13.8	48.3
	영남권	309	0.3	18.6	19.0	42.6	32.7	5.7	38.4
	강원	35	6.4	13.8	20.2	42.9	30.5	6.4	36.9
	제주	14	3.2	3.1	6.4	48.2	28.9	16.6	45.5
	대도시	550	1.4	13.1	14.5	42.0	35.8	7.8	43.6
	중·소도시	521	1.0	18.3	19.3	42.7	32.6	5.3	37.9
정치적 성향	읍/면	130	2.1	13.1	15.1	37.4	34.4	13.0	47.5
	진보적	522	1.2	17.3	18.5	40.4	32.5	8.6	41.1
	중도	116	0.0	12.0	12.0	47.6	31.4	9.0	40.4
	보수적	561	1.7	14.2	15.9	41.9	36.4	5.8	42.2
종교별	불교	245	1.2	15.8	17.0	43.8	32.3	6.9	39.2
	기독교	238	1.5	13.3	14.8	38.1	39.3	7.8	47.1
	천주교	72	3.0	8.3	11.3	41.2	35.3	12.2	47.5
	종교없음	625	1.1	16.0	17.1	42.9	33.1	6.8	40.0
	모름/무응답	21	0.0	37.3	37.3	30.0	28.1	4.6	32.7

표32-2.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㉑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8	16.5	18.3	41.0	33.7	7.0	40.8	100.0
성별									
남자	607	1.5	16.7	18.2	40.0	33.2	8.6	41.8	100.0
여자	593	2.1	16.3	18.4	41.9	34.3	5.4	39.7	100.0
연령별									
19~29세	209	2.3	16.8	19.1	41.8	33.0	6.0	39.1	100.0
30대	237	1.2	16.7	17.9	48.5	28.3	5.2	33.6	100.0
40대	275	2.1	15.6	17.7	39.4	35.1	7.9	42.9	100.0
50대	261	0.8	13.3	14.0	42.1	34.9	9.0	43.9	100.0
60대 이상	218	2.6	21.2	23.7	32.6	37.3	6.3	43.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4	19.4	21.7	30.0	38.5	9.7	48.3	100.0
고졸	599	1.9	16.9	18.8	42.6	33.7	4.8	38.6	100.0
대재 이상	470	1.4	15.1	16.6	42.0	32.4	9.1	41.4	100.0
무응답	2	0.0	44.6	44.6	0.0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3	24.7	30.0	39.3	22.4	8.3	30.7	100.0
자영업	260	1.0	17.9	18.8	38.5	35.3	7.4	42.7	100.0
블루 칼라	341	1.3	14.6	15.9	44.4	33.5	6.2	39.7	100.0
화이트칼라	230	2.2	15.1	17.3	42.3	32.6	7.7	40.4	100.0
전업 주부	222	2.4	17.4	19.8	39.3	35.3	5.5	40.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1	18.6	20.8	37.4	32.3	9.5	4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5	16.7	20.2	34.9	33.7	11.1	44.8	100.0
200~299만원	203	1.9	20.0	22.0	33.8	40.1	4.2	44.3	100.0
300~399만원	362	2.0	15.1	17.1	45.0	32.6	5.3	37.9	100.0
400만원 이상	500	1.1	16.1	17.2	42.7	32.1	8.1	40.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2	18.9	20.1	43.0	31.0	5.9	37.0	100.0
충청권	123	1.4	11.8	13.2	40.5	40.0	6.3	46.3	100.0
호남권	117	2.8	13.1	15.9	40.9	29.5	13.7	43.2	100.0
영남권	309	2.6	16.0	18.7	37.1	38.7	5.5	44.2	100.0
강원	35	2.3	11.0	13.3	41.4	30.5	14.8	45.3	100.0
제주	14	0.0	10.3	10.3	41.3	31.0	17.5	48.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7	13.0	14.7	43.3	34.8	7.2	42.0	100.0
중·소도시	521	2.1	20.8	22.9	39.8	31.9	5.4	37.3	100.0
읍/면	130	0.8	14.2	14.9	35.6	37.1	12.4	4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2	16.2	18.4	41.6	32.5	7.5	40.0	100.0
중도	116	0.0	21.4	21.4	43.0	27.2	8.4	35.6	100.0
보수적	561	1.7	15.8	17.5	39.9	36.3	6.3	42.6	100.0
종교별									
불교	245	3.2	16.9	20.1	40.9	31.5	7.5	39.0	100.0
기독교	238	1.5	11.0	12.5	40.9	39.4	7.1	46.6	100.0
천주교	72	3.0	14.0	17.0	33.4	39.7	9.9	49.6	100.0
종교없음	625	1.2	18.6	19.8	41.5	32.1	6.5	38.7	100.0
모름/무응답	21	0.0	22.6	22.6	50.4	22.5	4.6	27.1	100.0

표32-3.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㉒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1	32.7	41.8	34.2	20.1	4.0	24.1	100.0
성별									
남자	607	8.8	32.2	41.0	33.0	21.9	4.1	26.0	100.0
여자	593	9.4	33.2	42.5	35.4	18.3	3.8	22.1	100.0
연령별									
19~29세	209	9.6	28.4	38.0	38.3	18.5	5.2	23.7	100.0
30대	237	10.5	32.8	43.3	35.4	18.1	3.2	21.3	100.0
40대	275	8.9	34.1	43.0	33.5	18.6	4.8	23.5	100.0
50대	261	6.9	32.8	39.6	31.5	24.6	4.2	28.8	100.0
60대 이상	218	9.9	34.9	44.7	32.7	20.3	2.3	22.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9	34.0	39.9	34.0	21.6	4.5	26.1	100.0
고졸	599	10.6	34.1	44.7	32.5	20.0	2.8	22.7	100.0
대재 이상	470	7.8	30.7	38.5	36.2	20.0	5.3	25.3	100.0
무응답	2	44.6	0.0	44.6	55.4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3.5	31.4	44.9	27.9	22.4	4.7	27.1	100.0
자영업	260	9.2	34.7	43.9	29.7	22.4	4.0	26.4	100.0
블루 칼라	341	9.6	31.5	41.0	34.6	20.7	3.6	24.4	100.0
화이트칼라	230	9.4	30.0	39.4	37.2	20.3	3.2	23.4	100.0
전업 주부	222	8.3	36.2	44.5	34.6	17.1	3.7	20.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4	30.7	38.1	36.8	18.3	6.7	2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9.8	27.3	37.1	34.8	22.1	6.0	28.1	100.0
200~299만원	203	8.1	29.4	37.5	36.7	24.2	1.7	25.8	100.0
300~399만원	362	9.6	34.3	44.0	33.1	19.5	3.4	22.9	100.0
400만원 이상	500	8.7	34.3	43.1	33.7	18.4	4.8	23.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9.7	37.5	47.2	31.1	19.3	2.4	21.7	100.0
충청권	123	8.4	21.7	30.1	38.1	26.5	5.3	31.7	100.0
호남권	117	6.9	25.3	32.2	38.2	22.3	7.4	29.7	100.0
영남권	309	8.8	33.0	41.8	34.6	18.8	4.8	23.6	100.0
강원	35	11.2	15.1	26.3	49.4	19.9	4.4	24.3	100.0
제주	14	6.4	20.3	26.7	49.1	10.4	13.7	24.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0.6	30.4	41.0	34.4	19.8	4.7	24.5	100.0
중·소도시	521	8.0	34.5	42.5	34.4	19.6	3.4	23.1	100.0
읍/면	130	6.8	35.0	41.9	31.9	23.2	3.0	2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7.5	33.6	41.2	35.6	19.3	4.0	23.3	100.0
중도	116	5.1	35.2	40.3	34.8	20.8	4.1	24.9	100.0
보수적	561	11.4	31.3	42.6	32.7	20.7	3.9	24.7	100.0
종교별									
불교	245	9.7	35.7	45.4	29.4	20.7	4.5	25.2	100.0
기독교	238	8.0	26.4	34.4	39.2	23.1	3.3	26.4	100.0
천주교	72	6.2	36.6	42.8	30.8	22.2	4.3	26.4	100.0
종교없음	625	9.3	33.0	42.3	34.8	19.0	3.9	22.9	100.0
모름/무응답	21	17.4	46.9	64.3	25.2	5.9	4.6	10.5	100.0

표32-4.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전 체	1200	20.6	33.0	53.6	29.4	13.4	3.6	17.0	100.0	
성별	남자	607	18.0	29.9	47.9	31.7	15.7	4.7	20.4	100.0
	여자	593	23.3	36.1	59.4	27.1	11.1	2.4	13.6	100.0
연령별	19~29세	209	21.2	33.6	54.8	28.3	15.0	1.9	16.9	100.0
	30대	237	24.7	30.8	55.4	29.5	11.5	3.6	15.1	100.0
	40대	275	16.5	35.5	52.0	30.9	12.9	4.3	17.2	100.0
	50대	261	19.3	31.1	50.4	27.6	17.9	4.1	22.0	100.0
	60대 이상	218	22.3	34.0	56.3	30.7	9.3	3.6	13.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4.7	39.2	53.9	29.5	11.8	4.8	16.6	100.0
	고졸	599	21.6	32.6	54.2	28.9	13.6	3.3	16.9	100.0
	대재 이상	470	20.8	31.9	52.7	29.9	13.7	3.6	17.3	100.0
	무응답	2	44.6	0.0	44.6	55.4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3.4	43.5	57.0	23.9	14.4	4.7	19.1	100.0
	자영업	260	21.4	32.7	54.1	28.7	12.7	4.5	17.2	100.0
	블루 칼라	341	19.8	34.1	53.9	28.2	14.7	3.1	17.8	100.0
	화이트칼라	230	21.8	29.2	51.0	30.7	15.1	3.1	18.3	100.0
	전업 주부	222	22.7	36.3	59.0	29.6	8.9	2.6	11.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0	30.4	46.4	32.2	16.2	5.2	21.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5.5	30.1	45.6	30.1	16.6	7.8	24.4	100.0
	200~299만원	203	15.2	33.6	48.8	33.5	14.3	3.4	17.7	100.0
	300~399만원	362	18.4	34.3	52.7	32.6	12.6	2.0	14.7	100.0
	400만원 이상	500	25.8	32.6	58.4	25.3	12.8	3.4	16.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4.5	34.4	58.9	28.1	10.1	2.9	13.0	100.0
	충청권	123	12.2	27.0	39.2	35.1	22.8	3.0	25.7	100.0
	호남권	117	21.5	25.0	46.5	31.7	12.6	9.3	21.9	100.0
	영남권	309	16.9	37.8	54.7	27.5	16.0	1.8	17.8	100.0
	강원	35	13.4	21.4	34.9	34.3	19.6	11.3	30.8	100.0
	제주	14	19.8	16.0	35.9	46.6	8.1	9.4	1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2.2	31.7	53.8	29.4	13.3	3.5	16.8	100.0
	중·소도시	521	19.5	35.5	55.0	28.6	13.1	3.2	16.3	100.0
	읍/면	130	18.3	28.6	46.8	32.8	14.9	5.5	20.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8.4	33.9	52.4	30.8	12.4	4.5	16.8	100.0
	중도	116	15.6	35.3	50.9	35.7	11.1	2.3	13.4	100.0
	보수적	561	23.6	31.7	55.3	26.8	14.9	3.0	17.9	100.0
종교별	불교	245	21.3	34.0	55.4	28.9	11.8	4.0	15.8	100.0
	기독교	238	20.5	33.6	54.1	30.4	11.2	4.3	15.5	100.0
	천주교	72	20.4	26.0	46.5	31.1	16.4	6.0	22.4	100.0
	종교없음	625	19.6	33.6	53.2	29.2	14.7	3.0	17.7	100.0
	모름/무응답	21	42.5	21.7	64.2	26.9	8.9	0.0	8.9	100.0

표33.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계	
		%	%	%		
전 체	1200	33.8	51.3	14.8	100.0	
성별	남자	607	37.9	49.9	12.2	100.0
	여자	593	29.7	52.8	17.5	100.0
연령별	19~29세	209	27.0	58.8	14.2	100.0
	30대	237	28.8	56.4	14.8	100.0
	40대	275	39.3	43.9	16.8	100.0
	50대	261	32.8	53.2	13.9	100.0
	60대 이상	218	40.2	45.8	1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2.1	52.3	15.6	100.0
	고졸	599	33.6	50.6	15.7	100.0
	대재 이상	470	34.7	52.0	13.3	100.0
	무응답	2	0.0	55.4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6.0	55.9	8.1	100.0
	자영업	260	34.9	50.5	14.5	100.0
	블루 칼라	341	30.9	52.3	16.7	100.0
	화이트칼라	230	37.6	49.9	12.6	100.0
	전업 주부	222	35.1	47.0	17.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0.1	59.9	9.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7.2	44.8	17.9	100.0
	200~299만원	203	34.9	53.8	11.3	100.0
	300~399만원	362	34.1	51.0	14.9	100.0
	400만원 이상	500	32.2	52.5	15.4	100.0
	무응답	1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4.6	58.9	16.6	100.0
	충청권	123	48.6	40.3	11.1	100.0
	호남권	117	42.1	46.2	11.7	100.0
	영남권	309	39.2	45.2	15.6	100.0
	강원	35	52.4	41.5	6.1	100.0
	제주	14	66.1	30.4	3.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2.0	51.2	16.8	100.0
	중·소도시	521	35.1	53.3	11.7	100.0
	읍/면	130	36.7	44.4	1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3.6	51.4	15.0	100.0
	중도	116	28.2	52.9	18.8	100.0
	보수적	561	35.2	50.9	13.8	100.0
종교별	불교	245	34.7	50.0	15.4	100.0
	기독교	238	36.3	54.9	8.8	100.0
	천주교	72	39.5	48.0	12.5	100.0
	종교없음	625	32.1	51.7	16.1	100.0
	모름/무응답	21	27.3	27.1	45.6	100.0

표34-1.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5	58.1	62.6	33.8	3.5	37.4	100.0	
성별	남자	607	5.4	58.7	64.1	32.6	3.3	35.9	100.0
	여자	593	3.6	57.6	61.2	35.1	3.8	38.8	100.0
연령별	19~29세	209	2.9	53.4	56.3	41.5	2.2	43.7	100.0
	30대	237	4.3	53.0	57.2	41.1	1.7	42.8	100.0
	40대	275	6.5	59.9	66.4	29.1	4.5	33.6	100.0
	50대	261	3.5	61.9	65.4	29.4	5.2	34.6	100.0
	60대 이상	218	4.9	61.6	66.5	29.9	3.5	33.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3	54.7	59.0	34.6	6.4	41.0	100.0
	고졸	599	2.1	61.9	64.0	32.5	3.5	36.0	100.0
	대재 이상	470	7.5	54.3	61.9	35.3	2.8	38.1	100.0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30.9	30.9	56.5	12.6	69.1	100.0
	자영업	260	4.4	63.1	67.4	29.3	3.2	32.6	100.0
	블루 칼라	341	2.8	59.6	62.3	34.0	3.7	37.7	100.0
	화이트칼라	230	7.1	54.9	62.0	33.6	4.3	38.0	100.0
	전업 주부	222	3.1	63.3	66.3	31.5	2.2	33.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8	45.3	53.1	43.7	3.1	46.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8	41.7	47.5	45.5	7.0	52.5	100.0
	200~299만원	203	4.5	64.2	68.7	30.1	1.2	31.3	100.0
	300~399만원	362	2.7	63.6	66.3	30.7	3.0	33.7	100.0
	400만원 이상	500	5.4	56.1	61.5	34.6	3.9	38.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6	61.8	66.4	30.8	2.8	33.6	100.0
	충청권	123	4.6	55.6	60.2	35.4	4.4	39.8	100.0
	호남권	117	5.4	46.1	51.4	41.7	6.9	48.6	100.0
	영남권	309	2.9	57.6	60.5	36.1	3.4	39.5	100.0
	강원	35	11.3	51.7	63.0	34.7	2.3	37.0	100.0
	제주	14	9.0	53.7	62.7	33.8	3.5	37.3	100.0
	대도시	550	5.1	60.0	65.1	31.7	3.1	34.9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3.8	58.5	62.4	35.2	2.4	37.6	100.0
	읍/면	130	4.5	48.6	53.1	37.1	9.8	46.9	100.0
	진보적	522	4.7	61.7	66.5	30.8	2.7	33.5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4.1	61.2	65.3	33.1	1.5	34.7	100.0
	보수적	561	4.3	54.2	58.5	36.8	4.7	41.5	100.0
	불교	245	5.0	60.3	65.3	32.4	2.3	34.7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5.4	55.9	61.3	36.1	2.6	38.7	100.0
	천주교	72	6.3	52.7	59.0	38.1	2.9	41.0	100.0
	종교없음	625	3.6	58.2	61.7	33.7	4.6	38.3	100.0
	모름/무응답	21	8.4	76.9	85.3	14.7	0.0	14.7	100.0

표34-2.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㉕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7.6	33.7	41.3	49.6	9.1	58.7	100.0	
성별	남자	607	8.6	36.1	44.7	46.8	8.4	55.3	100.0
	여자	593	6.6	31.2	37.8	52.3	9.8	62.2	100.0
연령별	19~29세	209	5.6	30.4	36.0	55.7	8.3	64.0	100.0
	30대	237	4.7	37.5	42.2	46.1	11.7	57.8	100.0
	40대	275	10.0	37.2	47.2	42.3	10.6	52.8	100.0
	50대	261	7.1	31.5	38.6	53.8	7.6	61.4	100.0
	60대 이상	218	10.2	31.1	41.3	51.5	7.2	58.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4	26.1	33.5	58.2	8.3	66.5	100.0
	고졸	599	7.4	33.7	41.1	50.3	8.6	58.9	100.0
	대재 이상	470	8.0	35.9	43.9	46.2	9.9	56.1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6.7	26.7	52.2	21.1	73.3	100.0
	자영업	260	10.0	33.9	43.9	50.7	5.5	56.1	100.0
	블루 칼라	341	5.6	30.2	35.8	54.3	9.9	64.2	100.0
	화이트칼라	230	7.7	39.0	46.7	46.8	6.4	53.3	100.0
	전업 주부	222	8.8	34.0	42.8	44.7	12.5	57.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2	33.6	40.8	47.6	11.7	5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7	26.9	30.6	60.9	8.5	69.4	100.0
	200~299만원	203	7.7	35.2	42.9	48.1	9.0	57.1	100.0
	300~399만원	362	7.3	30.8	38.1	54.6	7.4	61.9	100.0
	400만원 이상	500	8.6	37.2	45.8	43.6	10.6	54.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7.8	31.1	39.0	52.9	8.1	61.0	100.0
	충청권	123	7.9	49.0	56.9	38.5	4.6	43.1	100.0
	호남권	117	5.4	36.1	41.5	49.5	9.1	58.5	100.0
	영남권	309	7.4	30.0	37.4	50.1	12.5	62.6	100.0
	강원	35	11.1	41.5	52.6	32.7	14.6	47.4	100.0
	제주	14	9.4	52.6	62.0	34.5	3.5	38.0	100.0
	대도시	550	10.4	33.0	43.4	46.0	10.6	56.6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5.3	35.6	40.9	52.7	6.5	59.1	100.0
	읍/면	130	5.0	29.3	34.3	52.3	13.4	65.7	100.0
	진보적	522	8.2	31.8	40.0	52.9	7.0	60.0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116	6.1	39.6	45.7	47.8	6.5	54.3	100.0
	보수적	561	7.4	34.2	41.6	46.8	11.6	58.4	100.0
	불교	245	7.6	34.1	41.7	48.6	9.7	58.3	100.0
종교별	기독교	238	10.0	38.5	48.5	44.7	6.8	51.5	100.0
	천주교	72	11.6	28.7	40.3	48.7	11.0	59.7	100.0
	종교없음	625	6.1	32.6	38.7	52.0	9.3	61.3	100.0
	모름/무응답	21	11.9	25.4	37.3	45.5	17.2	62.7	100.0

표34-3.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4	34.2	38.6	51.7	9.6	61.4	100.0
성별								
남자	607	3.9	33.0	36.9	51.3	11.8	63.1	100.0
여자	593	4.9	35.5	40.4	52.1	7.5	59.6	100.0
연령별								
19~29세	209	5.0	33.1	38.1	52.9	8.9	61.9	100.0
30대	237	4.6	33.2	37.8	53.8	8.4	62.2	100.0
40대	275	4.7	33.7	38.4	48.8	12.8	61.6	100.0
50대	261	3.9	38.2	42.1	48.7	9.3	57.9	100.0
60대 이상	218	3.7	32.4	36.1	55.8	8.1	63.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1	36.9	41.0	51.1	7.8	59.0	100.0
고졸	599	3.1	35.9	39	51.7	9.3	61.0	100.0
대재 이상	470	6.2	31.4	37.5	51.9	10.6	62.5	100.0
무응답	2	0.0	44.6	44.6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6.4	26.4	55.9	17.8	73.6	100.0
자영업	260	2.0	35.2	37.2	55.2	7.6	62.8	100.0
블루 칼라	341	4.0	34.1	38.1	54.2	7.7	61.9	100.0
화이트칼라	230	6.6	34.9	41.5	48.2	10.3	58.5	100.0
전업 주부	222	6.6	34.7	41.3	46.2	12.6	58.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4	31.6	35.0	53.5	11.5	6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4	34.7	38.1	56.8	5.2	61.9	100.0
200~299만원	203	4.1	37.3	41.5	47.6	10.9	58.5	100.0
300~399만원	362	4.3	32.3	36.6	53.6	9.7	63.4	100.0
400만원 이상	500	4.8	34.3	39.2	50.8	10.1	60.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8	35.5	39.3	53.0	7.7	60.7	100.0
충청권	123	1.8	27.2	29.1	58.3	12.6	70.9	100.0
호남권	117	8.5	27.4	35.9	54.6	9.5	64.1	100.0
영남권	309	5.2	38.2	43.4	45.7	10.9	56.6	100.0
강원	35	4.6	29.1	33.7	49.2	17.1	66.3	100.0
제주	14	0.0	23.1	23.1	57.3	19.6	76.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5.4	33.7	39.1	50.0	10.9	60.9	100.0
중·소도시	521	3.1	36.0	39.1	52.6	8.3	60.9	100.0
읍/면	130	5.3	29.3	34.6	55.6	9.8	65.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1	37.7	41.8	48.1	10.1	58.2	100.0
중도	116	7.4	35.2	42.6	50.4	7.0	57.4	100.0
보수적	561	4.1	30.8	34.9	55.3	9.8	65.1	100.0
종교별								
불교	245	4.0	33.2	37.1	48.8	14.1	62.9	100.0
기독교	238	6.3	33.1	39.4	51.4	9.2	60.6	100.0
천주교	72	3.1	31.2	34.2	52.8	13.0	65.8	100.0
종교없음	625	4.2	34.5	38.7	53.7	7.7	61.3	100.0
모름/무응답	21	0.0	61.2	61.2	28.2	10.5	38.8	100.0

표34-4.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㉕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1.2	61.8	73.0	25.2	1.8	27.0	100.0
성별								
남자	607	9.6	63.9	73.6	24.5	1.9	26.4	100.0
여자	593	12.9	59.6	72.4	26.0	1.6	27.6	100.0
연령별								
19~29세	209	12.2	60.4	72.6	25.2	2.2	27.4	100.0
30대	237	11.0	58.4	69.5	28.5	2.1	30.5	100.0
40대	275	11.8	63.4	75.2	22.8	1.9	24.8	100.0
50대	261	9.9	61.6	71.5	27.6	1.0	28.5	100.0
60대 이상	218	11.5	64.8	76.3	21.8	1.9	23.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0.9	62.3	73.2	25.5	1.3	26.8	100.0
고졸	599	9.9	63.2	73.1	25.2	1.7	26.9	100.0
대재 이상	470	12.7	60.0	72.8	25.3	2.0	27.2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1	50.0	57.1	31.4	11.5	42.9	100.0
자영업	260	9.1	67.9	77.0	21.5	1.6	23.0	100.0
블루 칼라	341	8.0	65.5	73.5	25.3	1.2	26.5	100.0
화이트칼라	230	12.2	59.7	71.9	26.5	1.6	28.1	100.0
전업 주부	222	15.3	58.8	74.1	24.1	1.8	25.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1	50.1	66.2	31.3	2.4	33.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0.2	53.8	64.1	33.2	2.7	35.9	100.0
200~299만원	203	11.1	64.8	75.9	23.1	1.1	24.1	100.0
300~399만원	362	11.4	60.6	72.0	27.0	0.9	28.0	100.0
400만원 이상	500	11.2	63.7	74.9	22.7	2.4	25.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0.8	68.2	79.0	18.8	2.2	21.0	100.0
충청권	123	10.6	58.8	69.4	28.1	2.5	30.6	100.0
호남권	117	11.3	60.6	71.9	28.1	0.0	28.1	100.0
영남권	309	11.6	52.2	63.9	35.5	0.6	36.1	100.0
강원	35	17.3	54.7	72.0	21.2	6.7	28.0	100.0
제주	14	9.9	51.0	60.9	32.9	6.2	39.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4.6	63.0	77.6	20.6	1.8	22.4	100.0
중·소도시	521	7.3	61.3	68.5	30.0	1.5	31.5	100.0
읍/면	130	12.9	58.5	71.4	25.6	3.1	28.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9.1	62.8	71.9	25.6	2.5	28.1	100.0
중도	116	12.1	59.6	71.7	26.9	1.4	28.3	100.0
보수적	561	13.1	61.3	74.4	24.5	1.1	25.6	100.0
종교별								
불교	245	9.0	62.4	71.4	25.5	3.0	28.6	100.0
기독교	238	9.4	63.9	73.2	25.9	0.9	26.8	100.0
천주교	72	17.1	52.4	69.5	30.5	0.0	30.5	100.0
종교없음	625	12.5	62.4	74.9	23.3	1.7	25.1	100.0
모름/무응답	21	0.0	43.5	43.5	50.7	5.8	56.5	100.0

표3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73.8	5.2	10.8	9.7	0.4	0.1	100.0
성별	남자	607	74.4	4.5	11.3	9.2	0.4	0.2	100.0
	여자	593	73.1	5.8	10.4	10.2	0.5	0.0	100.0
연령별	19~29세	209	76.9	6.6	7.3	8.9	0.3	0.0	100.0
	30대	237	72.2	6.2	8.9	11.8	0.8	0.0	100.0
	40대	275	74.6	5.1	11.3	9.1	0.0	0.0	100.0
	50대	261	70.2	3.8	14.8	10.4	0.3	0.5	100.0
	60대 이상	218	75.8	4.3	11.1	8.1	0.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1.0	5.5	13.3	8.4	1.9	0.0	100.0
	고졸	599	74.5	4.0	12.6	8.7	0.2	0.0	100.0
	대재 이상	470	73.5	6.5	8.0	11.4	0.3	0.3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4.1	0.0	16.2	19.7	0.0	0.0	100.0
	자영업	260	69.4	4.8	15.8	9.7	0.3	0.0	100.0
	블루 칼라	341	74.4	4.1	10.3	10.3	0.8	0.0	100.0
	화이트칼라	230	76.5	6.4	8.3	7.6	0.6	0.6	100.0
	전업 주부	222	74.1	6.2	9.6	10.0	0.0	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7.2	5.5	7.9	9.5	0.0	0.0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74.0	6.3	10.6	8.5	0.7	0.0	100.0
	200~299만원	203	70.0	6.0	13.2	10.5	0.4	0.0	100.0
	300~399만원	362	78.4	3.7	9.6	7.9	0.4	0.0	100.0
	400만원 이상	500	71.9	5.6	10.9	11.0	0.4	0.3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79.8	3.8	9.9	6.1	0.2	0.2	100.0
	충청권	123	64.2	3.2	12.9	19.2	0.6	0.0	100.0
	호남권	117	62.2	3.9	19.0	12.3	2.7	0.0	100.0
	영남권	309	71.2	8.9	8.8	11.1	0.0	0.0	100.0
	강원	35	71.6	4.7	10.9	12.8	0.0	0.0	100.0
	제주	14	58.1	9.5	13.1	19.3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76.0	4.0	9.1	10.8	0.1	0.0	100.0
	중·소도시	521	74.0	6.0	10.6	8.4	0.8	0.2	100.0
	읍/면	130	63.6	6.9	19.3	10.2	0.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74.2	4.3	12.2	8.9	0.4	0.0	100.0
	중도	116	71.3	1.5	10.6	15.9	0.7	0.0	100.0
	보수적	561	73.9	6.8	9.6	9.1	0.4	0.2	100.0
종교별	불교	245	72.4	5.1	11.2	10.7	0.6	0.0	100.0
	기독교	238	74.0	5.9	10.6	8.3	1.2	0.0	100.0
	천주교	72	68.7	4.8	20.0	6.6	0.0	0.0	100.0
	종교없음	625	74.1	5.1	9.9	10.5	0.1	0.2	100.0
	모름/무응답	21	94.0	0.0	6.0	0.0	0.0	0.0	100.0

표3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모름/ 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4.7	10.0	66.7	16.8	1.7	0.1	100.0
성별	남자	607	3.9	10.0	66.0	19.6	0.6	0.0	100.0
	여자	593	5.6	10.1	67.4	14	2.8	0.1	100.0
연령별	19~29세	209	4.4	9.2	68.8	16.6	1.1	0.0	100.0
	30대	237	5.5	10.2	65.9	16.1	2.0	0.3	100.0
	40대	275	5.6	10.1	63.9	18.7	1.7	0.0	100.0
	50대	261	6.0	9.1	64.3	18.7	1.9	0.0	100.0
	60대 이상	218	1.6	11.6	72.0	13.2	1.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1	13.4	70.6	11.7	3.2	0.0	100.0
	고졸	599	4.6	9.2	66.4	17.9	2.0	0.0	100.0
	대재 이상	470	5.9	10.2	66.0	17.0	0.9	0.1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2	5.2	59.2	27.4	0.0	0.0	100.0
	자영업	260	5.0	9.7	67.4	17.9	0.0	0.0	100.0
	블루 칼라	341	4.7	10.2	67.6	16.0	1.6	0.0	100.0
	화이트칼라	230	5.3	10.4	67.0	16.2	1.2	0.0	100.0
	전업 주부	222	4.9	10.2	66.3	14.3	4.0	0.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4	9.8	64.4	20.8	2.5	0.0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2	12.0	70.9	10.2	4.8	0.0	100.0
	200~299만원	203	6.5	9.6	58.5	24.5	1.0	0.0	100.0
	300~399만원	362	3.8	7.7	70.9	16.0	1.7	0.0	100.0
	400만원 이상	500	5.4	11.4	65.8	16.1	1.2	0.1	100.0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4	6.0	74.0	14.7	1.8	0.0	100.0
	충청권	123	5.2	10.4	66.6	17.3	0.0	0.6	100.0
	호남권	117	9.9	20.7	48.0	21.5	0.0	0.0	100.0
	영남권	309	5.1	14.0	60.8	18.1	2.0	0.0	100.0
	강원	35	6.3	6.8	54.8	23.6	8.5	0.0	100.0
	제주	14	3.1	9.9	68.7	18.3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4.6	11.6	64.8	16.8	2.0	0.1	100.0
	중·소도시	521	4.3	9.4	70.5	14.1	1.7	0.0	100.0
	읍/면	130	6.9	6.0	59.6	27.5	0.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2	10.7	67.7	16.2	1.2	0.0	100.0
	중도	116	8.8	14.6	55.8	20.1	0.8	0.0	100.0
	보수적	561	4.4	8.4	68.1	16.7	2.3	0.1	100.0
종교별	불교	245	5.3	14.3	62.3	15.0	3.1	0.0	100.0
	기독교	238	3.5	11.0	65.9	18.4	1.1	0.0	100.0
	천주교	72	4.6	10.9	60.7	23.7	0.0	0.0	100.0
	종교없음	625	5.1	7.8	70.1	15.3	1.6	0.1	100.0
	모름/무응답	21	0.0	11.7	47.6	40.7	0.0	0.0	100.0

표37.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기타	계	
		%	%	%	%			
전 체	1200	46.9	16.6	16.2	20.2	0.1	100.0	
성별	남자	607	48.1	15.9	17.3	18.6	0.1	100.0
	여자	593	45.6	17.3	15.2	21.9	0.0	100.0
연령별	19~29세	209	35.9	19.3	15.9	28.9	0.0	100.0
	30대	237	44.4	16.8	15.2	23.3	0.3	100.0
	40대	275	50.6	13.3	19.1	17.0	0.0	100.0
	50대	261	49.9	15.1	17.8	17.2	0.0	100.0
	60대 이상	218	51.8	19.8	12.2	16.2	0.0	100.0
	중졸 이하	129	41.6	29.9	11.1	17.5	0.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50.1	12.5	16.8	20.5	0.1	100.0
	대재 이상	470	44.2	18.0	17.0	20.7	0.0	100.0
	무응답	2	55.4	44.6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9.0	28.9	5.2	16.9	0.0	100.0
	자영업	260	52.3	13.1	19.8	14.8	0.0	100.0
	블루 칼라	341	47.0	17.9	14.0	21.1	0.0	100.0
	화이트칼라	230	46.7	18.2	15.5	19.3	0.3	100.0
	전업 주부	222	48.3	14.1	15.2	22.4	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3.0	19.8	19.9	27.2	0.0	100.0
	200만원 미만	134	40.6	28.4	12.8	17.7	0.6	100.0
	200~299만원	203	53.2	13.6	16.3	16.9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44.8	13.2	19.3	22.7	0.0	100.0
	400만원 이상	500	47.6	17.0	14.9	20.5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46.5	12.4	18.2	23.0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46.3	32.8	10.0	10.8	0.0	100.0
	호남권	117	52.5	22.3	9.4	15.2	0.6	100.0
	영남권	309	43.6	15.5	18.5	22.4	0.0	100.0
	강원	35	60.5	23.8	11.1	4.6	0.0	100.0
	제주	14	60.7	15.7	6.8	16.8	0.0	100.0
	대도시	550	39.9	13.3	21.2	25.6	0.0	100.0
	중·소도시	521	53.6	17.9	12.8	15.7	0.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49.7	25.4	8.7	15.6	0.6	100.0
	진보적	522	48.1	16.2	17.0	18.6	0.0	100.0
	중도	116	49.5	20.9	15.1	14.5	0.0	100.0
	보수적	561	45.2	16.1	15.7	22.9	0.1	100.0
종교별	불교	245	49.2	17.8	13.5	19.5	0.0	100.0
	기독교	238	51.9	17.1	14.6	16.4	0.0	100.0
	천주교	72	49.3	8.7	19.0	23.0	0.0	100.0
	종교없음	625	44.2	17.3	17.4	21.0	0.1	100.0
	모름/무응답	21	35.6	4.3	21.2	38.9	0.0	100.0

표38-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81.2	11.9	6.6	0.3	100.0	
성별	남자	607	80.0	12.3	7.3	0.4	100.0
	여자	593	82.4	11.6	5.9	0.1	100.0
연령별	19~29세	209	80.8	14.0	5.2	0.0	100.0
	30대	237	83.1	8.9	7.7	0.3	100.0
	40대	275	78.3	12.8	8.6	0.3	100.0
	50대	261	81.4	11.9	6.1	0.6	100.0
	60대 이상	218	83.0	12.2	4.9	0.0	100.0
	중졸 이하	129	80.2	15.9	3.4	0.6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83.4	9.9	6.6	0.1	100.0
	대재 이상	470	78.6	13.5	7.5	0.4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86.3	6.0	0.0	7.7	100.0
	자영업	260	83.5	8.4	8.1	0.0	100.0
	블루 칼라	341	80.9	11.9	7.2	0.0	100.0
	화이트칼라	230	81.6	10.3	7.7	0.4	100.0
	전업 주부	222	80.3	14.9	4.4	0.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77.3	18.1	4.6	0.0	100.0
	200만원 미만	134	83.7	10.7	5.1	0.5	100.0
	200~299만원	203	78.8	14.3	6.9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79.7	13.1	6.8	0.5	100.0
	400만원 이상	500	82.6	10.5	6.7	0.2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87.4	6.9	5.7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80.5	14.1	4.8	0.7	100.0
	호남권	117	77.7	5.6	16.0	0.7	100.0
	영남권	309	71.2	23.4	5.1	0.3	100.0
	강원	35	78.0	11.1	8.9	2.0	100.0
	제주	14	79.0	11.7	9.3	0.0	100.0
	대도시	550	79.6	14.8	5.5	0.2	100.0
	중·소도시	521	84.0	9.6	6.2	0.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76.8	9.5	13.0	0.6	100.0
	진보적	522	83.1	10.6	6.1	0.3	100.0
	중도	116	76.6	11.0	12.3	0.0	100.0
	보수적	561	80.4	13.4	5.9	0.3	100.0
종교별	불교	245	75.5	16.8	7.3	0.4	100.0
	기독교	238	85.2	6.4	8.1	0.3	100.0
	천주교	72	84.6	7.8	7.6	0.0	100.0
	종교없음	625	81.4	12.9	5.5	0.2	100.0
	모름/무응답	21	84.4	3.8	11.8	0.0	100.0

표38-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30.0	39.4	27.6	2.9	100.0	
성별	남자	607	29.5	40.6	26.4	3.6	100.0
	여자	593	30.6	38.2	28.9	2.3	100.0
연령별	19~29세	209	28.8	33.6	34.2	3.4	100.0
	30대	237	31.3	45.7	19.4	3.6	100.0
	40대	275	23.9	40.8	32.0	3.3	100.0
	50대	261	34.7	38.3	24.7	2.2	100.0
	60대 이상	218	32.0	37.7	28.1	2.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7.3	35.8	25.4	1.5	100.0
	고졸	599	27.7	38.4	30.5	3.4	100.0
	대재 이상	470	30.7	41.8	24.7	2.8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9.2	29.8	11.0	9.9	100.0
	자영업	260	31.2	38.9	25.6	4.3	100.0
	블루 칼라	341	26.5	39.7	30.9	2.9	100.0
	화이트칼라	230	34.1	42.1	22.5	1.3	100.0
	전업 주부	222	29.8	39.9	27.9	2.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7.3	35.3	34.3	3.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2.0	35.3	30.9	1.8	100.0
	200~299만원	203	30.9	43.1	23.4	2.7	100.0
	300~399만원	362	23.4	39.7	33.7	3.1	100.0
	400만원 이상	500	34.1	38.6	24.1	3.2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0.0	37.4	29.6	3.0	100.0
	충청권	123	35.3	41.5	22.6	0.6	100.0
	호남권	117	28.2	33.4	36.4	2.0	100.0
	영남권	309	27.6	47.3	21.2	3.9	100.0
	강원	35	34.8	21.5	39.4	4.3	100.0
	제주	14	45.3	28.6	23.0	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4.7	43.9	27.2	4.2	100.0
	중·소도시	521	35.6	36.7	26.2	1.5	100.0
	읍/면	130	30.2	31.2	35.0	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3.1	36.7	27.3	2.9	100.0
	중도	116	23.3	41.2	31.7	3.9	100.0
	보수적	561	28.6	41.5	27.1	2.8	100.0
종교별	불교	245	28.6	43.0	23.7	4.8	100.0
	기독교	238	32.9	35.5	28.0	3.5	100.0
	천주교	72	30.7	35.1	31.2	3.1	100.0
	종교없음	625	29.9	40.2	28.2	1.7	100.0
	모름/무응답	21	18.2	30.8	39.4	11.6	100.0

표38-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㉕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16.4	41.0	33.9	8.8	100.0	
성별	남자	607	16.5	42.5	31.4	9.6	100.0
	여자	593	16.3	39.4	36.3	8.0	100.0
연령별	19~29세	209	16.0	37.4	35.2	11.3	100.0
	30대	237	16.5	41.6	33.3	8.6	100.0
	40대	275	15.1	42.2	33.3	9.3	100.0
	50대	261	19.8	42.6	30.1	7.6	100.0
	60대 이상	218	14.1	40.3	38.3	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4.6	41.8	34.0	9.6	100.0
	고졸	599	16.0	42.8	33.4	7.8	100.0
	대재 이상	470	17.4	38.3	34.6	9.8	100.0
	무응답	2	0.0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4.9	47.8	18.7	18.7	100.0
	자영업	260	17.9	37.3	36.1	8.7	100.0
	블루 칼라	341	11.4	42.7	37.4	8.5	100.0
	화이트칼라	230	20.3	40.7	30.5	8.5	100.0
	전업 주부	222	18.9	44.4	29.4	7.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5.1	37.7	35.8	11.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2.3	41.1	38.7	7.9	100.0
	200~299만원	203	15.4	46.1	29.6	8.9	100.0
	300~399만원	362	11.7	45.8	32.8	9.7	100.0
	400만원 이상	500	21.2	35.3	35.1	8.3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0.2	38.8	34.8	6.3	100.0
	충청권	123	12.8	48.4	29.4	9.4	100.0
	호남권	117	13.0	27.9	44.5	14.7	100.0
	영남권	309	11.2	47.9	31.0	9.9	100.0
	강원	35	17.4	38.8	23.9	19.9	100.0
	제주	14	24.4	36.1	33.2	6.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1.9	42.7	36.2	9.2	100.0
	중·소도시	521	21.3	40.6	30.9	7.2	100.0
	읍/면	130	15.3	35.5	35.5	13.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7.2	43.3	30.3	9.2	100.0
	중도	116	7.5	42.3	40.4	9.8	100.0
	보수적	561	17.4	38.6	35.8	8.2	100.0
종교별	불교	245	12.2	45.1	31.0	11.7	100.0
	기독교	238	19.8	38.3	32.9	9.1	100.0
	천주교	72	12.0	35.8	39.7	12.5	100.0
	종교없음	625	17.5	41.0	34.1	7.4	100.0
	모름/무응답	21	8.4	41.6	50.1	0.0	100.0

표38-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㉞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20.2	38.5	37.7	3.6	100.0	
성별	남자	607	21.0	39.9	35.3	3.9	100.0
	여자	593	19.4	37.1	40.3	3.2	100.0
연령별	19~29세	209	19.6	35.4	42.8	2.2	100.0
	30대	237	22.3	40.5	34.1	3.1	100.0
	40대	275	18.4	41.7	35.1	4.8	100.0
	50대	261	21.8	36.6	38.9	2.8	100.0
	60대 이상	218	19.0	37.5	38.8	4.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3.9	39.2	31.5	5.4	100.0
	고졸	599	18.5	38.9	38.3	4.3	100.0
	대재 이상	470	21.3	37.8	38.9	2.1	100.0
	무응답	2	44.6	55.4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0.8	35.4	30.8	12.9	100.0
	자영업	260	20.2	41.8	34.8	3.2	100.0
	블루 칼라	341	17.2	37.8	40.6	4.4	100.0
	화이트칼라	230	24.1	36.8	36.2	2.9	100.0
	전업 주부	222	20.5	39.4	37.3	2.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0.6	35.7	40.7	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8.3	38.3	39.9	3.6	100.0
	200~299만원	203	20.9	43.7	31.4	4.0	100.0
	300~399만원	362	14.8	39.7	42.0	3.5	100.0
	400만원 이상	500	24.3	35.6	36.7	3.4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1.9	36.1	37.5	4.5	100.0
	충청권	123	20.4	33.5	44.9	1.2	100.0
	호남권	117	20.7	31.7	44.7	2.9	100.0
	영남권	309	13.9	50.2	33.0	2.9	100.0
	강원	35	37.1	19.7	38.9	4.3	100.0
	제주	14	38.2	32.8	29.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6.0	44.1	36.8	3.2	100.0
	중·소도시	521	24.4	33.8	38.2	3.5	100.0
	읍/면	130	21.3	33.8	39.7	5.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2.2	37.6	37.3	2.9	100.0
	중도	116	16.4	40.5	40.3	2.8	100.0
	보수적	561	19.2	38.9	37.6	4.3	100.0
종교별	불교	245	15.5	43.3	36.9	4.3	100.0
	기독교	238	23.0	32.7	40.0	4.3	100.0
	천주교	72	15.7	35.0	45.8	3.5	100.0
	종교없음	625	21.9	39.0	36.0	3.1	100.0
	모름/무응답	21	8.4	47.2	44.4	0.0	100.0

표39-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㉞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	%		
전 체	1200	74.1	2.4	22.1	1.4	100.0	
성별	남자	607	74.7	2.6	21.7	1.0	100.0
	여자	593	73.4	2.3	22.5	1.8	100.0
연령별	19~29세	209	70.2	4.0	23.7	2.1	100.0
	30대	237	72.0	1.9	24.2	1.9	100.0
	40대	275	71.5	2.9	24.2	1.4	100.0
	50대	261	75.4	1.9	21.8	0.9	100.0
	60대 이상	218	81.5	1.6	16.2	0.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9.8	2.2	16.8	1.2	100.0
	고졸	599	76.5	2.3	20.4	0.8	100.0
	대재 이상	470	69.3	2.7	25.8	2.2	100.0
	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8.2	5.2	36.7	0.0	100.0
	자영업	260	76.6	0.9	22.2	0.3	100.0
	블루 칼라	341	73.2	2.4	23.3	1.2	100.0
	화이트칼라	230	73.2	3.5	22.0	1.2	100.0
	전업 주부	222	79.8	2.9	15.6	1.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65.2	2.5	28.2	4.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79.2	1.7	16.7	2.5	100.0
	200~299만원	203	72.9	3.8	23.3	0.0	100.0
	300~399만원	362	73.9	3.6	21.8	0.7	100.0
	400만원 이상	500	73.3	1.2	23.4	2.2	100.0
	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78.6	2.3	18.7	0.4	100.0
	충청권	123	74.6	1.4	24.0	0.0	100.0
	호남권	117	57.8	0.0	34.2	8.0	100.0
	영남권	309	70.1	4.1	24.4	1.4	100.0
	강원	35	82.4	2.3	13.3	2.0	100.0
	제주	14	78.4	0.0	21.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69.6	3.9	24.4	2.1	100.0
	중·소도시	521	80.3	1.5	17.5	0.7	100.0
	읍/면	130	67.9	0.0	30.7	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78.8	2.8	17.3	1.1	100.0
	중도	116	70.6	2.8	25.9	0.6	100.0
	보수적	561	70.3	2.0	25.8	1.9	100.0
종교별	불교	245	69.2	2.2	27.2	1.4	100.0
	기독교	238	80.5	0.6	17.6	1.3	100.0
	천주교	72	77.5	2.1	19.2	1.2	100.0
	종교없음	625	73.0	3.3	22.2	1.5	100.0
	모름/무응답	21	78.5	0.0	21.5	0.0	100.0

표39-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전 체	1200	5.3	46.0	42.9	5.9	100.0	
성별	남자	607	4.7	45.7	43.1	6.5	100.0
	여자	593	5.9	46.3	42.6	5.3	100.0
연령별	19~29세	209	5.0	42.7	48.0	4.3	100.0
	30대	237	7.8	46.3	39.3	6.5	100.0
	40대	275	5.3	44.1	45.3	5.3	100.0
	50대	261	3.9	48.8	40.3	7.0	100.0
	60대 이상	218	4.5	47.6	41.7	6.1	100.0
	중졸 이하	129	8.6	42.6	41.7	7.0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4.6	47.6	41.4	6.4	100.0
	대재 이상	470	5.3	44.8	45.0	4.9	100.0
	무응답	2	0.0	44.6	55.4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9	22.9	55.5	9.7	100.0
	자영업	260	2.4	49.9	42.4	5.3	100.0
	블루 칼라	341	4.8	44.4	43.8	7.0	100.0
	화이트칼라	230	4.5	46.2	42.1	7.3	100.0
	전업 주부	222	9.6	47.5	37.9	4.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4	42.5	49.4	2.7	100.0
	200만원 미만	134	8.4	38.3	47.8	5.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6.3	43.5	46.1	4.2	100.0
	300~399만원	362	4.9	49.7	40.9	4.6	100.0
	400만원 이상	500	4.4	46.3	41.8	7.6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수도권	602	2.5	53.2	40.5	3.9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9.6	40.8	45.6	4.0	100.0
	호남권	117	4.6	34.4	57.1	3.9	100.0
	영남권	309	9.5	37.7	42.1	10.8	100.0
	강원	35	2.3	53.7	34.9	9.1	100.0
	제주	14	10.6	38.5	40.9	1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0	44.9	46.7	5.5	100.0
	중·소도시	521	8.2	46.5	38.9	6.4	100.0
	읍/면	130	3.3	48.3	42.8	5.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7.8	46.3	38.2	7.7	100.0
	중도	116	4.4	47.1	45.1	3.4	100.0
	보수적	561	3.2	45.4	46.8	4.7	100.0
종교별	불교	245	5.6	43.2	43.4	7.8	100.0
	기독교	238	3.3	51.1	39.1	6.5	100.0
	천주교	72	1.9	51.6	44.0	2.5	100.0
	종교없음	625	6.4	44.3	44.1	5.3	100.0
	모름/무응답	21	4.8	50.6	39.5	5.1	100.0

표39-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전 체	1200	8.5	6.1	74.5	10.9	100.0	
성별	남자	607	9.4	5.8	72.6	12.1	100.0
	여자	593	7.5	6.4	76.5	9.6	100.0
연령별	19~29세	209	6.8	8.0	74.5	10.7	100.0
	30대	237	9.3	3.7	76.0	11.0	100.0
	40대	275	8.0	6.0	73.7	12.3	100.0
	50대	261	8.7	8.2	73.5	9.6	100.0
	60대 이상	218	9.7	4.4	75.3	10.5	100.0
	중졸 이하	129	14.4	5.8	73.1	6.8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7.4	6.5	74.3	11.8	100.0
	대재 이상	470	8.3	5.8	75.2	10.8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1.0	11.9	72.5	4.6	100.0
	자영업	260	5.2	5.8	77.8	11.1	100.0
	블루 칼라	341	6.6	5.6	76.1	11.7	100.0
	화이트칼라	230	10.1	4.2	73.2	12.6	100.0
	전업 주부	222	10.1	8.5	71.4	1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4.4	6.3	71.9	7.3	100.0
	200만원 미만	134	13.3	4.2	73.7	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9.0	5.6	76.5	8.9	100.0
	300~399만원	362	9.0	7.6	71.4	12.0	100.0
	400만원 이상	500	6.7	5.8	76.2	11.4	100.0
	무응답	1	0.0	0.0	100	0.0	100.0
	수도권	602	6.8	7.0	73.4	12.8	100.0
지역별	충청권	123	7.7	9.9	75.8	6.6	100.0
	호남권	117	9.9	1.3	84.7	4.1	100.0
	영남권	309	10.2	5.1	73.1	11.6	100.0
	강원	35	19.7	0.0	67.2	13.2	100.0
	제주	14	10.6	10.2	79.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6.0	8.1	73.5	12.4	100.0
	중·소도시	521	12.7	4.9	72.7	9.7	100.0
	읍/면	130	2.0	2.7	86.4	9.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0.0	7.5	70.4	12.2	100.0
	중도	116	7.3	9.3	73.8	9.6	100.0
	보수적	561	7.4	4.1	78.6	9.9	100.0
종교별	불교	245	7.7	5.6	77.1	9.5	100.0
	기독교	238	9.2	5.5	73.8	11.5	100.0
	천주교	72	6.7	2.3	72.7	18.3	100.0
	종교없음	625	8.9	7.2	74.3	9.7	100.0
	모름/무응답	21	4.8	0.0	67.7	27.6	100.0

표39-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㉔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전 체	1200	3.8	14.6	64.4	17.2	100.0	
성별	남자	607	2.9	15.8	62.7	18.6	100.0
	여자	593	4.8	13.4	66.1	15.7	100.0
연령별	19~29세	209	2.7	17.9	61.1	18.3	100.0
	30대	237	5.8	9.8	65.0	19.4	100.0
	40대	275	4.1	13.0	62.8	20.0	100.0
	50대	261	3.0	15.3	66.6	15.1	100.0
	60대 이상	218	3.6	17.7	66.0	12.7	100.0
	중졸 이하	129	8.2	11.8	64.6	15.4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2.7	15.2	62.3	19.8	100.0
	대재 이상	470	4.1	14.7	66.8	14.4	100.0
	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4	22.9	55.9	13.8	100.0
	자영업	260	1.7	14.0	69.0	15.3	100.0
	블루 칼라	341	3.8	10.9	63.9	21.4	100.0
	화이트칼라	230	3.5	16.9	63.7	15.9	100.0
	전업 주부	222	6.9	15.3	63.9	13.9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1	19.1	59.5	18.2	100.0
	200만원 미만	134	8.3	13.7	63.4	14.5	100.0
	200~299만원	203	5.0	14.4	63.1	17.6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3.3	15.6	60.4	20.6	100.0
	400만원 이상	500	2.5	14.1	68.1	15.3	100.0
	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7	15.3	66.3	16.7	100.0
	충청권	123	6.0	23.6	62.1	8.3	100.0
	호남권	117	4.7	15.7	70.0	9.7	100.0
	영남권	309	6.5	8.8	61.3	23.4	100.0
	강원	35	4.7	19.2	49.8	26.2	100.0
	제주	14	10.8	13.1	55.8	20.3	100.0
	대도시	550	2.5	13.9	70.1	13.4	100.0
	중·소도시	521	5.6	16.4	57.1	20.9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2.5	10.3	69.1	18.1	100.0
	진보적	522	4.8	14.7	60.8	19.6	100.0
	중도	116	3.1	15.3	56.5	25.1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3.1	14.3	69.3	13.3	100.0
	불교	245	3.5	13.0	66.1	17.4	100.0
	기독교	238	3.8	15.0	67.0	14.1	100.0
	천주교	72	2.2	13.1	64.0	20.8	100.0
	종교없음	625	4.1	15.8	63.0	17.1	100.0
	모름/무응답	21	4.8	0.0	56.3	38.9	100.0

표4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5.4	32.4	37.8	50.0	12.2	62.2	100.0	
성별	남자	607	4.4	30.6	35.0	52.0	13.0	65.0	100.0
	여자	593	6.4	34.2	40.7	48.0	11.3	59.3	100.0
연령별	19~29세	209	5.5	33.0	38.6	49.7	11.7	61.4	100.0
	30대	237	4.6	33.1	37.7	48.9	13.5	62.3	100.0
	40대	275	4.2	32.3	36.5	48.8	14.7	63.5	100.0
	50대	261	5.9	30.9	36.9	52.3	10.8	63.1	100.0
	60대 이상	218	7.3	32.7	40.0	50.4	9.6	60.0	100.0
	중졸 이하	129	6.9	31.2	38.1	53.0	9.0	61.9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5.6	33.3	38.9	48.0	13.1	61.1	100.0
	대재 이상	470	4.8	31.7	36.4	51.7	11.9	63.6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7	20.7	23.4	55.4	21.2	76.6	100.0
	자영업	260	2.7	33.3	36.1	54.5	9.4	63.9	100.0
	블루 칼라	341	3.9	31.4	35.3	50.7	14.0	64.7	100.0
	화이트칼라	230	5.9	33.1	39.0	50.0	11.0	61.0	100.0
	전업 주부	222	10.1	35.7	45.8	43.1	11.1	54.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6.5	27.7	34.2	50.5	15.3	65.8	100.0
	200만원 미만	134	5.8	32.0	37.8	53.6	8.6	62.2	100.0
	200~299만원	203	6.1	34.2	40.3	46.6	13.1	59.7	100.0
가구 소득 수준	300~399만원	362	6.4	31.1	37.5	50.8	11.6	62.5	100.0
	400만원 이상	500	4.1	32.7	36.9	50.0	13.1	63.1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6.1	30.5	36.6	55.2	8.2	63.4	100.0
	충청권	123	6.6	39.3	45.9	40.9	13.1	54.1	100.0
	호남권	117	6.7	30.4	37.1	42.9	20.0	62.9	100.0
	영남권	309	2.6	33.5	36.1	47.4	16.5	63.9	100.0
	강원	35	11.5	28.2	39.7	49.2	11.1	60.3	100.0
	제주	14	3.7	53.6	57.3	27.4	15.3	42.7	100.0
	대도시	550	5.9	30.9	36.8	49.5	13.8	63.2	100.0
	중·소도시	521	5.5	36.8	42.3	48.6	9.1	57.7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3.0	21.0	24.0	58.2	17.8	76.0	100.0
	진보적	522	6.6	33.9	40.5	49.6	9.9	59.5	100.0
	중도	116	5.2	29.1	34.4	56.3	9.3	65.6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4.4	31.6	36.0	49.1	14.9	64.0	100.0
	불교	245	4.6	24.7	29.3	55.4	15.3	70.7	100.0
	기독교	238	5.7	35.7	41.5	49.7	8.9	58.5	100.0
	천주교	72	6.8	31.9	38.7	46.7	14.5	61.3	100.0
	종교없음	625	5.5	35.0	40.5	48.1	11.4	59.5	100.0
	모름/무응답	21	3.8	6.7	10.5	60.3	29.2	89.5	100.0

표4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전 체	1200	0.5	14.5	14.9	60.0	25.1	85.1	100.0
성별								
남자	607	0.3	13.4	13.7	58.4	27.9	86.3	100.0
여자	593	0.7	15.5	16.2	61.7	22.1	83.8	100.0
연령별								
19~29세	209	0.0	14.5	14.5	62.6	22.9	85.5	100.0
30대	237	0.9	13.4	14.3	60.1	25.6	85.7	100.0
40대	275	0.7	10.0	10.7	60.3	29.1	89.3	100.0
50대	261	0.6	17.7	18.3	56.6	25.1	81.7	100.0
60대 이상	218	0.0	17.4	17.4	61.2	21.4	82.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6	17.1	17.7	62.7	19.6	82.3	100.0
고졸	599	0.7	14.4	15.1	57.9	27.0	84.9	100.0
대재 이상	470	0.1	13.9	14.1	61.8	24.2	85.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2.2	12.2	61.7	26.1	87.8	100.0
자영업	260	0.4	12.8	13.2	62.8	24.0	86.8	100.0
블루 칼라	341	0.3	12.5	12.8	57.7	29.5	87.2	100.0
화이트칼라	230	0.4	15.3	15.7	61.3	23.0	84.3	100.0
전업 주부	222	0.9	19.8	20.8	58.3	20.9	79.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0.5	12.6	13.2	60.9	26.0	86.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0.5	14.7	15.2	66.4	18.3	84.8	100.0
200~299만원	203	0.0	18.8	18.8	59.0	22.2	81.2	100.0
300~399만원	362	1.1	14.0	15.1	56.3	28.7	84.9	100.0
400만원 이상	500	0.2	13.0	13.2	61.3	25.5	86.8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2	14.5	14.7	59.5	25.8	85.3	100.0
충청권	123	1.5	22.8	24.3	59.3	16.3	75.7	100.0
호남권	117	0.6	9.5	10.1	62.9	27.0	89.9	100.0
영남권	309	0.3	13.2	13.5	59.1	27.4	86.5	100.0
강원	35	2.3	13.8	16.1	66.6	17.3	83.9	100.0
제주	14	0.0	10.8	10.8	67.6	21.6	89.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0.1	12.8	12.9	59.4	27.7	87.1	100.0
중·소도시	521	0.9	17.6	18.5	62.6	18.9	81.5	100.0
읍/면	130	0.0	9.2	9.2	52.2	38.7	90.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0.3	17.1	17.4	57.1	25.5	82.6	100.0
중도	116	0.0	16.7	16.7	57.6	25.7	83.3	100.0
보수적	561	0.7	11.6	12.3	63.2	24.5	87.7	100.0
종교별								
불교	245	0.0	14.3	14.3	61.4	24.3	85.7	100.0
기독교	238	0.9	18.0	18.9	59.4	21.7	81.1	100.0
천주교	72	0.9	14.1	15.1	50.6	34.3	84.9	100.0
종교없음	625	0.4	13.6	14.0	60.9	25.1	86.0	100.0
모름/무응답	21	0.0	3.8	3.8	57.3	38.9	96.2	100.0

표4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
전 체	1200	1.0	13.9	14.9	60.4	24.7	85.1	100.0
성별								
남자	607	0.9	13.5	14.4	60.2	25.4	85.6	100.0
여자	593	1.0	14.3	15.3	60.7	24.0	84.7	100.0
연령별								
19~29세	209	0.5	12.8	13.2	60.1	26.7	86.8	100.0
30대	237	1.5	13.7	15.1	58.7	26.2	84.9	100.0
40대	275	0.3	13.3	13.6	60.5	25.9	86.4	100.0
50대	261	1.4	14.5	15.9	60.4	23.7	84.1	100.0
60대 이상	218	1.1	15.3	16.4	62.5	21.1	83.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6	16.5	17.2	63.9	19.0	82.8	100.0
고졸	599	1.3	14.9	16.2	59.7	24.1	83.8	100.0
대재 이상	470	0.6	11.9	12.6	60.2	27.3	87.4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31.6	31.6	43.5	25.0	68.4	100.0
자영업	260	0.0	10.6	10.6	64.1	25.4	89.4	100.0
블루 칼라	341	1.0	14.0	15.0	56.0	29.0	85.0	100.0
화이트칼라	230	1.4	14.9	16.3	59.6	24.2	83.7	100.0
전업 주부	222	1.4	17.0	18.5	63.4	18.2	81.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5	10.5	11.9	63.7	24.4	88.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0.5	14.8	15.3	67.5	17.2	84.7	100.0
200~299만원	203	0.6	15.9	16.5	63.2	20.3	83.5	100.0
300~399만원	362	1.5	13.9	15.3	61.9	22.8	84.7	100.0
400만원 이상	500	0.8	12.9	13.8	56.2	30.0	86.2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0	17.1	18.1	62.6	19.3	81.9	100.0
충청권	123	0.0	14.1	14.1	58.9	26.9	85.9	100.0
호남권	117	0.6	6.7	7.3	63.8	28.8	92.7	100.0
영남권	309	1.3	9.8	11.1	55.8	33.0	88.9	100.0
강원	35	2.3	15.0	17.4	56.2	26.4	82.6	100.0
제주	14	0.0	20.2	20.2	61.1	18.7	79.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2	14.9	16.1	57.7	26.2	83.9	100.0
중·소도시	521	1.0	14.2	15.1	66.0	18.9	84.9	100.0
읍/면	130	0.0	8.6	8.6	49.5	42.0	91.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0	15.1	16.1	60.8	23.1	83.9	100.0
중도	116	1.9	13.6	15.5	60.5	24.0	84.5	100.0
보수적	561	0.7	12.9	13.6	60.0	26.4	86.4	100.0
종교별								
불교	245	0.9	12.9	13.8	59.4	26.8	86.2	100.0
기독교	238	1.5	15.2	16.7	64.4	18.9	83.3	100.0
천주교	72	0.9	4.7	5.7	65.7	28.6	94.3	100.0
종교없음	625	0.8	14.3	15.2	59.2	25.6	84.8	100.0
모름/무응답	21	0.0	28.6	28.6	44.4	27.0	71.4	100.0

표4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전 체	1200	0.6	15.1	15.8	66.5	17.7	84.2	100.0	
성별	남자	607	0.6	13.6	14.3	66.9	18.8	85.7	100.0
	여자	593	0.6	16.7	17.3	66.2	16.5	82.7	100.0
연령별	19~29세	209	0.5	13.9	14.4	68.6	17.0	85.6	100.0
	30대	237	0.9	13.7	14.7	68.2	17.2	85.3	100.0
	40대	275	0.5	16.2	16.6	61.8	21.6	83.4	100.0
	50대	261	1.2	17.1	18.3	64.0	17.7	81.7	100.0
	60대 이상	218	0.0	14.1	14.1	71.9	14.0	85.9	100.0
	중졸 이하	129	1.2	17.1	18.3	72.8	8.9	81.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0.7	14.9	15.6	66.1	18.3	84.4	100.0
	대재 이상	470	0.4	15.0	15.3	65.3	19.4	84.7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2	15.1	19.3	54.8	25.9	80.7	100.0
	자영업	260	0.0	12.7	12.7	73.4	13.9	87.3	100.0
	블루 칼라	341	0.9	13.4	14.4	64.0	21.7	85.6	100.0
	화이트칼라	230	0.0	15.5	15.5	65.8	18.7	84.5	100.0
	전업 주부	222	1.2	20.3	21.6	64.6	13.8	78.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0.5	15.1	15.6	65.9	18.5	84.4	100.0
	200만원 미만	134	0.5	13.1	13.6	75.7	10.7	86.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3	17.8	18.1	65.5	16.4	81.9	100.0
	300~399만원	362	1.5	13.7	15.1	68.7	16.2	84.9	100.0
	400만원 이상	500	0.2	15.7	15.9	62.9	21.2	84.1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6	15.5	16.1	67.9	16.0	83.9	100.0
	충청권	123	1.4	15.0	16.4	66.0	17.6	83.6	100.0
	호남권	117	1.2	8.2	9.3	70.5	20.2	90.7	100.0
	영남권	309	0.0	17.5	17.5	63.2	19.3	82.5	100.0
	강원	35	2.3	13.8	16.1	60.2	23.6	83.9	100.0
	제주	14	0.0	10.0	10.0	68.6	21.4	90.0	100.0
	대도시	550	0.4	18.3	18.8	61.3	19.9	81.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0	12.4	13.4	74.2	12.4	86.6	100.0
	읍/면	130	0.0	12.6	12.6	57.9	29.5	8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0.7	16.8	17.5	66.5	16.0	82.5	100.0
	중도	116	0.0	18.0	18.0	65.1	16.9	82.0	100.0
	보수적	561	0.7	13.0	13.7	66.9	19.5	86.3	100.0
종교별	불교	245	0.0	15.0	15.0	64.6	20.4	85.0	100.0
	기독교	238	0.8	15.8	16.6	69.7	13.7	83.4	100.0
	천주교	72	0.9	11.5	12.4	62.6	25.0	87.6	100.0
	종교없음	625	0.8	15.2	15.9	67.1	17.0	84.1	100.0
	모름/무응답	21	0.0	20.5	20.5	52.5	27.0	79.5	100.0

표41-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㉕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44.6	47.1	91.7	7.1	1.3	8.3	100.0	
성별	남자	607	46.8	44.6	91.4	7.3	1.3	8.6	100.0
	여자	593	42.3	49.6	91.9	6.8	1.3	8.1	100.0
연령별	19~29세	209	42.1	45.4	87.5	10.4	2.2	12.5	100.0
	30대	237	42.8	51.0	93.8	4.5	1.6	6.2	100.0
	40대	275	43.2	47.6	90.8	7.6	1.6	9.2	100.0
	50대	261	47.4	45.3	92.7	6.3	1.0	7.3	100.0
	60대 이상	218	47.1	46.0	93.1	6.9	0.0	6.9	100.0
	중졸 이하	129	40.5	49.4	89.9	9.5	0.6	10.1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599	48.1	44.9	93.0	5.6	1.4	7.0	100.0
	대재 이상	470	41.0	49.4	90.4	8.4	1.3	9.6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0.5	53.3	73.8	22.4	3.9	26.2	100.0
	자영업	260	51.1	42.6	93.7	4.9	1.3	6.3	100.0
	블루 칼라	341	44.4	46.8	91.3	7.7	1.0	8.7	100.0
	화이트칼라	230	43.7	46.7	90.4	8.2	1.5	9.6	100.0
	전업 주부	222	42.3	52.3	94.6	4.2	1.2	5.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0.7	47.6	88.3	10.3	1.4	11.7	100.0
	200만원 미만	134	35.2	59.8	95.0	5.0	0.0	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0.5	51.2	91.8	7.0	1.2	8.2	100.0
	300~399만원	362	49.1	44.3	93.4	5.3	1.3	6.6	100.0
	400만원 이상	500	45.3	44.1	89.4	8.9	1.6	10.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52.8	39.7	92.6	6.9	0.6	7.4	100.0
	충청권	123	27.1	65.3	92.4	6.3	1.3	7.6	100.0
	호남권	117	33.8	58.7	92.5	4.7	2.8	7.5	100.0
	영남권	309	40.7	48.8	89.5	9.0	1.5	10.5	100.0
	강원	35	35.3	57.7	93.0	2.3	4.6	7.0	100.0
	제주	14	38.6	43.0	81.6	12.5	5.9	18.4	100.0
	대도시	550	46.8	45.4	92.2	6.2	1.6	7.8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45.7	45.8	91.4	7.8	0.7	8.6	100.0
	읍/면	130	30.4	59.7	90.1	7.8	2.1	9.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8.1	43.7	91.8	7.0	1.2	8.2	100.0
	중도	116	40.8	47.4	88.2	11.1	0.7	11.8	100.0
	보수적	561	42.1	50.2	92.2	6.4	1.4	7.8	100.0
종교별	불교	245	42.3	48.3	90.7	6.4	2.9	9.3	100.0
	기독교	238	46.3	44.5	90.8	8.2	1.0	9.2	100.0
	천주교	72	52.7	37.1	89.8	10.2	0.0	10.2	100.0
	종교없음	625	43.0	49.7	92.7	6.4	0.9	7.3	100.0
	모름/무응답	21	69.4	18.8	88.2	11.8	0.0	11.8	100.0

표41-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28.1	54.8	82.8	15.0	2.2	17.2	100.0	
성별	남자	607	30.6	52.3	82.9	14.6	2.4	17.1	100.0
	여자	593	25.4	57.3	82.8	15.3	1.9	17.2	100.0
연령별	19~29세	209	25.4	52.0	77.5	17.6	4.9	22.5	100.0
	30대	237	26.4	57.6	84.0	14.2	1.8	16.0	100.0
	40대	275	27.2	55.3	82.5	15.1	2.4	17.5	100.0
	50대	261	31.1	52.5	83.6	15.4	1.0	16.4	100.0
	60대 이상	218	29.8	56.3	86.2	12.7	1.1	13.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6.1	56.3	82.4	17.0	0.6	17.6	100.0
	고졸	599	27.1	56.6	83.8	13.9	2.3	16.2	100.0
	대재 이상	470	29.5	52.2	81.7	15.8	2.4	18.3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5.6	53.5	69.1	27.0	3.9	30.9	100.0
	자영업	260	27.6	56.7	84.3	13.4	2.3	15.7	100.0
	블루 칼라	341	26.9	54.2	81.1	16.6	2.3	18.9	100.0
	화이트칼라	230	32.8	49.6	82.4	14.9	2.7	17.6	100.0
	전업 주부	222	27.8	58.6	86.3	13.2	0.4	13.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5.9	55.4	81.3	15.1	3.6	1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2.2	64.2	86.4	13.0	0.6	13.6	100.0
	200~299만원	203	26.5	57.1	83.5	13.8	2.7	16.5	100.0
	300~399만원	362	28.0	51.7	79.8	18.5	1.8	20.2	100.0
	400만원 이상	500	30.2	53.6	83.8	13.5	2.7	16.2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5.1	57.6	82.6	15.6	1.7	17.4	100.0
	충청권	123	15.2	70.7	85.9	12.0	2.1	14.1	100.0
	호남권	117	24.4	56.7	81.1	16.1	2.8	18.9	100.0
	영남권	309	39.6	42.9	82.5	14.8	2.7	17.5	100.0
	강원	35	35.1	53.8	88.9	8.9	2.3	11.1	100.0
	제주	14	27.6	43.7	71.3	22.8	5.9	28.7	100.0
	대도시	550	30.4	47.4	77.8	19.1	3.1	22.2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26.3	61.1	87.4	11.4	1.2	12.6	100.0
	읍/면	130	25.1	60.7	85.8	12.1	2.1	1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9.2	57.2	86.4	11.6	1.9	13.6	100.0
	중도	116	17.9	63.4	81.2	15.9	2.8	18.8	100.0
	보수적	561	29.1	50.7	79.8	17.9	2.3	20.2	100.0
종교별	불교	245	31.1	53.5	84.6	12.5	2.9	15.4	100.0
	기독교	238	26.0	58.7	84.7	13.2	2.1	15.3	100.0
	천주교	72	36.1	48.7	84.9	14.0	1.2	15.1	100.0
	종교없음	625	26.8	54.8	81.6	16.3	2.1	18.4	100.0
모름/무응답	21	25.2	45.5	70.7	29.3	0.0	29.3	100.0	

표41-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㉕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전 체	1200	12.1	46.3	58.4	33.7	7.9	41.6	100.0	
성별	남자	607	13.0	45.7	58.6	33.2	8.1	41.4	100.0
	여자	593	11.2	47.0	58.2	34.2	7.7	41.8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2	40.4	50.6	40.2	9.2	49.4	100.0
	30대	237	10.1	46.5	56.6	36.4	7.0	43.4	100.0
	40대	275	10.5	49.8	60.3	30.8	8.9	39.7	100.0
	50대	261	13.9	48.2	62.1	30.7	7.2	37.9	100.0
	60대 이상	218	15.9	45.2	61.1	31.7	7.2	38.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2.3	45.0	57.3	36.1	6.6	42.7	100.0
	고졸	599	11.7	45.6	57.2	35.3	7.4	42.8	100.0
	대재 이상	470	12.6	47.4	60.0	31.1	8.9	40.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7.3	41.2	48.5	42.9	8.6	51.5	100.0
	자영업	260	14.0	46.9	60.8	31.2	8.0	39.2	100.0
	블루 칼라	341	10.9	39.8	50.8	41.1	8.2	49.2	100.0
	화이트칼라	230	11.8	54.5	66.3	27.8	5.9	33.7	100.0
	전업 주부	222	12.9	49.7	62.7	30.1	7.2	37.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1.1	42.5	53.6	34.6	11.8	46.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9.0	55.5	64.4	31.3	4.2	35.6	100.0
	200~299만원	203	15.2	45.7	60.9	33.9	5.2	39.1	100.0
	300~399만원	362	9.0	45.8	54.8	39.2	6.0	45.2	100.0
	400만원 이상	500	13.7	44.6	58.3	30.3	11.4	41.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0.6	44.8	55.4	36.9	7.7	44.6	100.0
	충청권	123	4.9	43.2	48.0	41.4	10.5	52.0	100.0
	호남권	117	9.4	44.6	54.0	35.5	10.5	46.0	100.0
	영남권	309	18.7	49.9	68.6	25.6	5.8	31.4	100.0
	강원	35	11.3	57.6	68.9	22.0	9.1	31.1	100.0
	제주	14	18.1	46.3	64.4	22.3	13.3	35.6	100.0
	대도시	550	12.9	50.5	63.4	28.3	8.3	36.6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1.4	40.2	51.6	41.2	7.2	48.4	100.0
	읍/면	130	11.4	53.1	64.5	26.4	9.1	35.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2.8	49.8	62.6	31.3	6.1	37.4	100.0
	중도	116	4.7	48.5	53.2	40.5	6.3	46.8	100.0
	보수적	561	13.0	42.6	55.6	34.5	9.9	44.4	100.0
종교별	불교	245	11.8	45.1	56.9	32.8	10.3	43.1	100.0
	기독교	238	12.1	54.2	66.4	25.1	8.5	33.6	100.0
	천주교	72	13.9	43.0	56.9	27.7	15.4	43.1	100.0
	종교없음	625	12.0	44.2	56.3	38.2	5.5	43.7	100.0
모름/무응답	21	10.1	43.4	53.6	29.0	17.4	46.4	100.0	

표41-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12.3	48.0	60.3	33.4	6.2	39.7	100.0
성별								
남자	607	14.0	45.9	59.9	33.3	6.8	40.1	100.0
여자	593	10.7	50.1	60.8	33.5	5.7	39.2	100.0
연령별								
19~29세	209	9.1	44.7	53.7	40.1	6.2	46.3	100.0
30대	237	10.4	51.9	62.2	31.8	5.9	37.8	100.0
40대	275	10.6	51.5	62.1	30.0	7.9	37.9	100.0
50대	261	16.4	44.8	61.2	33.0	5.8	38.8	100.0
60대 이상	218	15.0	46.4	61.4	33.7	5.0	3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3.2	46.4	59.6	35.0	5.5	40.4	100.0
고졸	599	11.9	47.1	59.1	34.0	6.9	40.9	100.0
대재 이상	470	12.7	49.3	62.0	32.3	5.6	38.0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0.9	53.5	64.4	31.7	3.9	35.6	100.0
자영업	260	13.2	52.2	65.4	26.9	7.7	34.6	100.0
블루 칼라	341	10.7	43.0	53.7	41.3	5.0	46.3	100.0
화이트칼라	230	14.2	51.2	65.3	30.0	4.7	34.7	100.0
전업 주부	222	11.8	51.8	63.6	29.7	6.7	36.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3.0	39.4	52.4	38.8	8.7	4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1.9	52.5	64.4	32.1	3.5	35.6	100.0
200~299만원	203	11.7	53.2	64.9	28.4	6.7	35.1	100.0
300~399만원	362	11.1	46.0	57.2	36.5	6.4	42.8	100.0
400만원 이상	500	13.4	46.2	59.6	33.7	6.7	40.4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0.4	45.7	56.1	36.2	7.7	43.9	100.0
충청권	123	4.3	50.4	54.7	42.1	3.2	45.3	100.0
호남권	117	12.6	50.4	63.0	30.8	6.2	37.0	100.0
영남권	309	18.0	50.0	68.0	27.8	4.2	32.0	100.0
강원	35	19.8	53.8	73.6	17.6	8.8	26.4	100.0
제주	14	19.9	47.7	67.6	26.3	6.1	3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3.3	47.3	60.6	31.8	7.5	39.4	100.0
중·소도시	521	10.7	47.2	57.9	38.0	4.1	42.1	100.0
읍/면	130	14.6	54.1	68.8	21.9	9.3	31.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3.1	48.1	61.2	34.4	4.4	38.8	100.0
중도	116	5.9	51.7	57.6	36.5	5.9	42.4	100.0
보수적	561	12.9	47.2	60.1	31.9	8.0	39.9	100.0
종교별								
불교	245	12.0	44.1	56.0	37.1	6.9	44.0	100.0
기독교	238	12.5	54.5	67.1	25.5	7.5	32.9	100.0
천주교	72	16.2	48.7	64.9	25.7	9.5	35.1	100.0
종교없음	625	12.2	47.2	59.4	36.3	4.4	40.6	100.0
모름/무응답	21	5.1	42.5	47.6	23.4	29.0	52.4	100.0

표42.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	계
		%	%	%	%	
전 체	1200	34.9	26.1	7.0	32.0	100.0
성별						
남자	607	34.3	27.2	6.8	31.8	100.0
여자	593	35.5	24.9	7.3	32.2	100.0
연령별						
19~29세	209	36.4	21.0	6.7	35.9	100.0
30대	237	38.5	25.2	4.4	31.9	100.0
40대	275	33.7	26.3	7.4	32.6	100.0
50대	261	30.3	29.0	9.1	31.5	100.0
60대 이상	218	36.4	28.0	7.4	28.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9.6	27.2	5.5	27.7	100.0
고졸	599	29.1	30.3	8.9	31.8	100.0
대재 이상	470	41.1	20.3	5.2	33.4	100.0
무응답	2	0.0	44.6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5.1	29.7	0.0	45.3	100.0
자영업	260	26.3	30.3	9.0	34.4	100.0
블루 칼라	341	35.0	27.2	7.4	30.4	100.0
화이트칼라	230	40.5	20.9	6.8	31.9	100.0
전업 주부	222	38.4	26.3	5.8	29.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7.6	22.4	6.2	33.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42.6	15.8	5.8	35.8	100.0
200~299만원	203	35.9	22.7	7.3	34.1	100.0
300~399만원	362	31.9	29.3	7.4	31.4	100.0
400만원 이상	500	34.7	27.8	7.0	30.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2.6	28.4	7.8	31.1	100.0
충청권	123	24.6	29.3	9.1	36.9	100.0
호남권	117	50.8	12.7	2.0	34.5	100.0
영남권	309	37.9	26.0	6.5	29.5	100.0
강원	35	26.4	21.8	6.6	45.2	100.0
제주	14	42.9	20.0	10.7	26.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1.5	26.5	8.9	33.1	100.0
중·소도시	521	36.6	28.3	6.1	29	100.0
읍/면	130	42.6	15.2	2.9	3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7.5	29.0	5.7	27.9	100.0
중도	116	31.2	27.8	10.2	30.8	100.0
보수적	561	33.2	23.0	7.7	36.1	100.0
종교별						
불교	245	37.2	26.5	9.5	26.8	100.0
기독교	238	36.8	24.5	6.9	31.8	100.0
천주교	72	37.9	20.0	5.1	37.0	100.0
종교없음	625	33.3	27.2	5.8	33.7	100.0
모름/무응답	21	23.2	27.2	22.5	27.0	100.0

표43-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4.19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전 체	1200	13.1	53.9	66.9	14.6	7.7	22.3	10.8	100.0	
성별	남자	607	15.6	54.1	69.7	13.9	7.1	21.0	9.3	100.0
	여자	593	10.4	53.7	64.1	15.2	8.4	23.6	12.3	100.0
연령별	19~29세	209	13.9	41.5	55.4	18.2	8.6	26.7	17.9	100.0
	30대	237	12.8	54.0	66.9	12.3	7.6	19.9	13.2	100.0
	40대	275	14.6	54.9	69.5	14.1	8.7	22.8	7.7	100.0
	50대	261	9.1	62.9	72.0	15.6	6.2	21.8	6.2	100.0
	60대 이상	218	15.3	53.4	68.7	12.8	7.8	20.6	1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1.2	46.9	58.1	20.4	7.9	28.3	13.6	100.0
	고졸	599	11.7	59.6	71.3	12.5	7.2	19.7	9.0	100.0
	대재 이상	470	15.3	48.5	63.8	15.4	8.5	23.9	12.3	100.0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6	27.6	33.3	35.5	20.0	55.4	11.3	100.0
	자영업	260	15.7	58.8	74.5	10.0	5.1	15.1	10.3	100.0
	블루 칼라	341	11.4	53.0	64.4	17.8	8.5	26.3	9.3	100.0
	화이트칼라	230	12.1	51.5	63.6	17.0	9.1	26.1	10.3	100.0
	전업 주부	222	11.3	57.4	68.7	11.8	8.7	20.5	10.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7.9	48.3	66.3	12.2	5.1	17.4	16.4	100.0
		200만원 미만	134	8.3	51.3	59.6	14.2	9.4	23.5	16.9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3.0	54.5	67.5	15.8	6.8	22.6	9.8	100.0
	300~399만원	362	10.4	58.4	68.8	16.1	4.9	21.0	10.2	100.0
	400만원 이상	500	16.0	51.1	67.2	13.1	9.7	22.8	10.0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1.7	61.2	72.9	10.2	7.0	17.2	10.0	100.0
	충청권	123	15.4	47.9	63.3	25.2	7.1	32.3	4.5	100.0
	호남권	117	16.3	51.6	67.9	13.8	4.3	18.1	14.1	100.0
	영남권	309	12.3	44.6	56.9	19.2	11.1	30.3	12.8	100.0
	강원	35	21.8	47.7	69.4	15.2	4.6	19.8	10.8	100.0
	제주	14	17.4	31.4	48.8	11.4	9.9	21.3	29.9	100.0
		대도시	550	15.4	56.3	71.6	12.2	7.6	19.8	8.5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12.3	55.4	67.7	15.6	6.4	22.0	10.3	100.0
	읍/면	130	6.2	37.6	43.8	20.1	13.9	34.0	22.3	100.0
		진보적	522	13.9	55.0	68.8	14.2	8.5	22.6	8.5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0.3	46.6	56.8	20.9	9.3	30.2	13.0	100.0
	보수적	561	12.9	54.4	67.2	13.6	6.7	20.3	12.4	100.0
		불교	245	15.6	50.1	65.7	17.0	5.4	22.5	11.9
종교별	기독교	238	11.2	59.1	70.3	11.6	8.5	20.1	9.6	100.0
	천주교	72	21.9	47.7	69.6	12.2	8.4	20.7	9.8	100.0
	종교없음	625	11.8	53.6	65.4	15.3	8.4	23.7	10.9	100.0
		모름/무응답	21	11.0	67.7	78.7	3.8	5.9	9.7	11.5

표43-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5.16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전 체	1200	4.3	38.6	42.9	28.2	15.7	43.9	13.2	100.0	
성별	남자	607	5.3	39.3	44.6	28.3	15.3	43.6	11.8	100.0
	여자	593	3.3	37.9	41.2	28.1	16.1	44.2	14.6	100.0
연령별	19~29세	209	2.4	29.9	32.3	29.0	17.4	46.4	21.3	100.0
	30대	237	3.0	33.8	36.8	30.2	16.8	47.0	16.1	100.0
	40대	275	5.4	36.6	42.0	29.8	18.5	48.3	9.8	100.0
	50대	261	4.5	47.5	52.0	26.1	13.1	39.3	8.8	100.0
	60대 이상	218	6.0	44.1	50.1	25.7	12.3	38.0	1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3	45.9	48.2	27.0	9.5	36.5	15.3	100.0
	고졸	599	4.4	39.8	44.2	27.6	15.8	43.4	12.3	100.0
	대재 이상	470	4.8	35.0	39.7	29.2	17.3	46.4	13.8	100.0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6	13.1	16.7	38.0	33.9	72.0	11.3	100.0
	자영업	260	4.5	38.7	43.2	25.1	18.1	43.3	13.6	100.0
	블루 칼라	341	3.9	39.8	43.7	29.4	15.0	44.5	11.8	100.0
	화이트칼라	230	4.3	35.8	40.1	30.8	18.6	49.4	10.5	100.0
	전업 주부	222	4.7	45.5	50.2	27.9	9.0	36.9	12.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4	32.3	36.7	25.4	15.8	41.3	22.1	100.0
		200만원 미만	134	3.2	44.7	47.8	24.4	11.7	36.0	16.1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5	41.7	47.2	29.5	13.4	42.9	9.9	100.0
	300~399만원	362	3.2	41.6	44.9	29.9	11.9	41.8	13.3	100.0
	400만원 이상	500	4.9	33.6	38.5	27.5	20.2	47.8	13.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5	42.5	47.1	24.0	16.4	40.4	12.6	100.0
	충청권	123	3.1	24.2	27.3	45.0	18.7	63.7	9.0	100.0
	호남권	117	4.8	32.7	37.5	33.2	13.9	47.1	15.4	100.0
	영남권	309	4.1	39.2	43.3	28.3	14.0	42.3	14.4	100.0
	강원	35	6.6	39.2	45.7	28.3	9.0	37.3	17.0	100.0
	제주	14	0.0	32.2	32.2	17.7	27.1	44.8	23.0	100.0
		대도시	550	7.2	43.3	50.5	24.0	13.0	37.0	12.5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2.1	36.8	38.8	31.9	17.3	49.2	11.9	100.0
	읍/면	130	1.3	26.0	27.3	31.1	20.2	51.3	21.4	100.0
		진보적	522	6.4	42.8	49.2	25.2	14.5	39.7	11.1
정치적 성향	중도	116	1.4	31.6	33.0	38.4	14.9	53.3	13.7	100.0
	보수적	561	3.0	36.1	39.1	28.9	16.9	45.8	15.1	100.0
		불교	245	5.2	39.6	44.8	30.4	12.5	42.9	12.3
종교별	기독교	238	2.0	38.5	40.4	31.3	15.3	46.6	13.0	100.0
	천주교	72	1.1	43.5	44.6	21.9	23.7	45.6	9.8	100.0
	종교없음	625	5.2	37.8	43.0	27.0	16.7	43.7	13.3	100.0
		모름/무응답	21	5.1	35.3	40.4	24.8	0.0	24.8	34.8

표43-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10월유신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	%	%	%	%	%	
전 체	1200	3.4	31.7	35.1	33.1	18.1	51.2	13.7	100.0	
성별	남자	607	4.0	32.6	36.7	32.7	19.4	52.1	11.2	100.0
	여자	593	2.8	30.7	33.5	33.6	16.7	50.2	16.3	100.0
연령별	19~29세	209	2.4	23.2	25.6	31.3	21.6	52.9	21.6	100.0
	30대	237	4.3	26.2	30.5	35.1	16.7	51.8	17.7	100.0
	40대	275	4.1	33.0	37.1	34.1	19.5	53.7	9.2	100.0
	50대	261	2.4	37.9	40.3	33.3	16.3	49.6	10.1	100.0
	60대 이상	218	3.7	36.8	40.5	31.3	16.4	47.6	1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3.1	33.9	36.9	30.9	15.5	46.4	16.6	100.0
	고졸	599	2.4	33.9	36.2	36.0	15.4	51.4	12.4	100.0
	대재 이상	470	4.8	28.3	33.1	30.2	22.2	52.5	14.4	100.0
	무응답	2	0.0	55.4	55.4	0.0	0.0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4.6	24.6	18.7	38.1	56.7	18.7	100.0
	자영업	260	3.1	32.0	35.2	32.6	19.2	51.8	13.0	100.0
	블루 칼라	341	2.7	32.4	35.1	36.2	16.3	52.5	12.4	100.0
	화이트칼라	230	5.9	27.0	32.9	33.6	22.1	55.6	11.5	100.0
	전업 주부	222	2.6	36.9	39.6	35.1	11.5	46.6	13.8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1	29.6	32.7	24.0	21.5	45.5	21.8	100.0
	200만원 미만	134	1.7	34.6	36.3	29.3	14.8	44.2	19.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5.6	36.6	42.1	29.3	17.9	47.1	10.8	100.0
	300~399만원	362	2.7	30.4	33.2	36.8	15.4	52.2	14.6	100.0
	400만원 이상	500	3.5	29.9	33.4	33.2	20.7	53.9	12.7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7	32.0	35.7	34.0	18.4	52.4	11.9	100.0
	충청권	123	3.3	22.6	25.9	38.8	20.5	59.3	14.8	100.0
	호남권	117	3.4	25.0	28.4	30.3	21.0	51.3	20.3	100.0
	영남권	309	2.6	37.1	39.7	31.5	16.0	47.5	12.8	100.0
	강원	35	6.8	36.6	43.4	30.7	7.0	37.7	18.9	100.0
	제주	14	2.9	22.9	25.9	13.8	27.4	41.2	33.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4.5	33.8	38.3	32.7	16.2	48.9	12.8	100.0
	중·소도시	521	2.4	33.9	36.3	32.8	18.8	51.5	12.2	100.0
	읍/면	130	2.6	14.1	16.6	36.7	22.8	59.5	23.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2	35.3	39.6	31.4	18.2	49.6	10.8	100.0
	중도	116	0.0	27.6	27.6	34.6	19.7	54.3	18.1	100.0
	보수적	561	3.3	29.2	32.5	34.5	17.5	52.0	15.5	100.0
종교별	불교	245	3.4	37.0	40.3	28.3	18.1	46.4	13.3	100.0
	기독교	238	1.9	30.2	32.1	36.4	17.4	53.7	14.2	100.0
	천주교	72	2.9	30.2	33.1	25.5	29.3	54.8	12.1	100.0
	종교없음	625	4.2	30.4	34.6	35.1	17.3	52.4	13.0	100.0
	모름/무응답	21	0.0	29.2	29.2	19.7	10.5	30.2	40.6	100.0

표43-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㉕ 광주민주화운동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	%	%	%	%	%	
전 체	1200	17.9	42.1	59.9	19.1	14.0	33.2	6.9	100.0	
성별	남자	607	21.0	40.9	61.9	19.7	13.1	32.8	5.3	100.0
	여자	593	14.6	43.2	57.9	18.6	14.9	33.5	8.6	100.0
연령별	19~29세	209	19.8	40.8	60.5	14.2	12.9	27.2	12.3	100.0
	30대	237	19.7	39.2	58.9	20.3	14.8	35.1	6.0	100.0
	40대	275	20.5	41.2	61.7	16.5	18.2	34.7	3.7	100.0
	50대	261	13.6	45.0	58.6	24.7	10.0	34.7	6.7	100.0
	60대 이상	218	15.7	44.0	59.8	19.2	13.8	33.0	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1.2	42.9	54.2	23.9	13.2	37.0	8.8	100.0
	고졸	599	17.7	39.4	57.1	20.8	15.1	35.9	7.0	100.0
	대재 이상	470	19.9	45.1	65.1	15.6	13.0	28.6	6.3	100.0
	무응답	2	0.0	55.4	55.4	0.0	0.0	44.6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	46.9	49.0	7.2	28.6	35.8	15.2	100.0
	자영업	260	24.8	37.6	62.4	22.0	9.8	31.8	5.8	100.0
	블루 칼라	341	14.4	40.5	54.9	21.3	16.9	38.2	6.9	100.0
	화이트칼라	230	17.2	44.6	61.9	18.5	15.6	34.1	4.0	100.0
	전업 주부	222	13.9	46.7	60.6	16.6	14.3	30.9	8.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3.5	41.6	65.1	15.1	9.2	24.3	10.6	100.0
	200만원 미만	134	11.9	43.4	55.2	16.7	16.3	33.0	11.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17.3	46.5	63.8	20.1	8.8	28.9	7.3	100.0
	300~399만원	362	14.1	37.3	51.3	26.1	15.6	41.7	7.0	100.0
	400만원 이상	500	22.5	43.2	65.7	14.4	14.4	28.8	5.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7.4	40.3	57.7	21.5	15.3	36.7	5.6	100.0
	충청권	123	14.5	48.6	63.2	15.8	14.0	29.8	7.0	100.0
	호남권	117	40.3	44.4	84.7	7.7	4.1	11.8	3.5	100.0
	영남권	309	11.2	41.6	52.8	20.9	16.6	37.4	9.7	100.0
	강원	35	21.9	45.1	67.0	17.5	4.6	22.1	10.9	100.0
	제주	14	17.1	42.3	59.4	10.8	9.9	20.7	19.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9.7	41.2	60.8	17.7	14.9	32.6	6.6	100.0
	중·소도시	521	18.0	43.9	61.8	19.5	12.7	32.1	6.0	100.0
	읍/면	130	9.6	38.7	48.2	23.8	15.8	39.7	1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5.8	42.2	58.0	21.1	14.5	35.6	6.4	100.0
	중도	116	18.1	31.3	49.4	22.1	21.2	43.3	7.3	100.0
	보수적	561	19.7	44.2	63.9	16.7	12.1	28.7	7.4	100.0
종교별	불교	245	17.3	44.3	61.6	18.8	12.0	30.8	7.6	100.0
	기독교	238	15.5	45.7	61.2	18.3	16.1	34.4	4.3	100.0
	천주교	72	16.9	44.1	61.0	16.6	20.1	36.7	2.3	100.0
	종교없음	625	19.5	40.2	59.7	19.6	12.7	32.3	8.0	100.0
	모름/무응답	21	5.9	22.1	28.0	28.3	32.2	60.5	11.5	100.0

표43-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㉔ 6월항쟁(1987년)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①+②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	%	%	%		
전 체	1200	10.6	47.4	57.9	19.5	7.1	26.6	15.4	100.0	
성별	남자	607	12.7	47.9	60.6	20.5	5.8	26.3	13.1	100.0
	여자	593	8.3	46.9	55.3	18.5	8.4	26.9	17.8	100.0
연령별	19~29세	209	11.4	43.7	55.0	18.6	6.8	25.4	19.6	100.0
	30대	237	9.6	45.8	55.4	21.6	7.0	28.5	16.0	100.0
	40대	275	15.4	44.6	60.1	19.5	7.7	27.2	12.7	100.0
	50대	261	7.9	53.0	60.8	18.2	7.1	25.3	13.8	100.0
	60대 이상	218	7.9	49.4	57.3	19.6	6.8	26.5	1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8	40.6	48.4	24.4	6.5	30.9	20.7	100.0
	고졸	599	8.6	49.0	57.6	18.8	7.2	26.1	16.3	100.0
	대재 이상	470	13.9	47.2	61.0	18.9	7.2	26.0	13.0	100.0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1	16.8	21.0	13.3	24.2	37.5	41.5	100.0
	자영업	260	11.3	54.8	66.1	14.1	5.4	19.5	14.4	100.0
	블루 칼라	341	7.5	43.3	50.8	25.4	6.8	32.1	17.1	100.0
	화이트칼라	230	15.0	46.6	61.5	19.1	9.1	28.2	10.2	100.0
	전업 주부	222	7.1	51.5	58.7	18.1	8.5	26.6	14.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2	42.2	58.5	18.8	2.9	21.8	1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4.2	41.6	45.8	22.1	5.8	27.9	26.3	100.0
	200~299만원	203	10.6	46.9	57.6	20.8	4.5	25.3	17.1	100.0
	300~399만원	362	6.8	47.9	54.7	23.6	6.5	30.2	15.1	100.0
	400만원 이상	500	14.9	48.6	63.6	15.4	8.9	24.3	12.1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2	7.7	5.01	58.7	19.2	7.5	26.8	14.5	100.0
	충청권	123	12.9	49.3	62.2	15.8	10.9	26.7	11.1	100.0
	호남권	117	20.3	43.1	63.4	12.3	4.1	16.4	20.2	100.0
	영남권	309	11.0	43.2	54.2	24.0	6.5	30.5	15.2	100.0
	강원	35	10.7	37.1	47.8	22.1	2.3	24.5	27.8	100.0
	제주	14	20.1	29.9	49.9	17.2	7.0	24.2	25.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0.4	49.0	59.4	18.3	5.9	24.2	16.4	100.0
	중·소도시	521	11.7	50.0	61.7	20.5	7.3	27.8	10.5	100.0
	읍/면	130	6.7	30.1	36.8	20.3	11.7	32.0	31.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1.2	47.1	58.3	19.2	9.8	29.1	12.6	100.0
	중도	116	10.9	40.0	50.9	24.4	7.6	31.9	17.1	100.0
	보수적	561	9.8	49.2	59.1	18.7	4.5	23.2	17.7	100.0
종교별	불교	245	11.6	43.0	54.5	21.1	6.0	27.1	18.4	100.0
	기독교	238	6.4	55.7	62.1	16.6	9.0	25.6	12.3	100.0
	천주교	72	16.7	43.7	60.5	18.8	9.1	28.0	11.6	100.0
	종교없음	625	11.2	46.5	57.7	20.2	6.8	27.1	15.3	100.0
		모름/무응답	21	5.9	44.4	50.4	14.8	0.0	14.8	34.9

표43-6.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㉕ 남북 정상회담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③	④	③+④	잘 모름	계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①+②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	%	%	%		
전 체	1200	12.0	60.2	72.3	16.5	4.1	20.7	7.1	100.0	
성별	남자	607	13.8	60.6	74.3	15.7	4.4	20.1	5.6	100.0
	여자	593	10.2	59.9	70.1	17.4	3.9	21.3	8.6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2	52.9	63.0	20.7	5.6	26.4	10.6	100.0
	30대	237	10.8	61.7	72.4	16.4	3.5	19.9	7.7	100.0
	40대	275	13.5	61.8	75.3	14.3	4.4	18.7	6.0	100.0
	50대	261	12.7	63.5	76.2	15.3	3.4	18.7	5.1	100.0
	60대 이상	218	12.5	60.0	72.5	16.9	3.9	20.8	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8	58.2	66.0	19.5	5.3	24.8	9.2	100.0
	고졸	599	11.0	62.1	73.1	16.3	3.2	19.5	7.4	100.0
	대재 이상	470	14.5	58.3	72.8	16.1	5.0	21.1	6.1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7.6	41.3	58.9	19.3	12.6	31.9	9.2	100.0
	자영업	260	14.2	66.7	80.9	12.6	1.4	13.9	5.1	100.0
	블루 칼라	341	9.1	59.0	68.2	17.1	5.8	22.9	8.9	100.0
	화이트칼라	230	13.0	57.4	70.4	20.5	5.5	25.9	3.7	100.0
	전업 주부	222	9.4	65.0	74.3	14.7	3.3	18.0	7.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7.3	50.1	67.3	18.8	2.9	21.7	11.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9.1	54.3	63.4	19.9	3.8	23.7	12.9	100.0
	200~299만원	203	14.7	58.4	73.0	15.9	3.8	19.8	7.2	100.0
	300~399만원	362	8.6	64.0	72.7	15.8	3.6	19.4	7.9	100.0
	400만원 이상	500	14.2	59.8	74.0	16.4	4.7	21.1	4.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2	9.8	62.7	72.5	15.1	4.9	19.9	7.6	100.0
	충청권	123	16.0	52.7	68.7	23.8	3.6	27.4	3.9	100.0
	호남권	117	25.3	60.5	85.9	8.6	0.6	9.3	4.9	100.0
	영남권	309	8.4	59.9	68.4	20.1	4.4	24.5	7.1	100.0
	강원	35	21.6	49.5	71.1	11.5	2.3	13.8	15.1	100.0
	제주	14	15.1	54.0	69.1	17.1	3.2	20.4	10.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2.6	59.2	71.7	16.2	4.3	20.5	7.8	100.0
	중·소도시	521	12.6	62.5	75.1	17.0	2.2	19.2	5.8	100.0
	읍/면	130	7.5	55.7	63.2	16.0	11.2	27.2	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1.8	60.0	71.8	18.1	3.9	22.0	6.2	100.0
	중도	116	14.4	56.2	70.6	17.5	6.7	24.2	5.2	100.0
	보수적	561	11.7	61.3	73.0	14.9	3.8	18.7	8.3	100.0
종교별	불교	245	11.7	61.1	72.8	16.5	2.6	19.2	8.0	100.0
	기독교	238	12.4	68.7	81.1	11.5	4.0	15.5	3.4	100.0
	천주교	72	14.1	52.9	67.0	20.7	5.1	25.9	7.1	100.0
	종교없음	625	11.8	57.5	69.3	17.9	4.8	22.7	8.0	100.0
		모름/무응답	21	10.5	60.1	70.6	17.9	0.0	17.9	11.6

표44-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환경파괴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47.0	48.6	95.5	4.1	0.3	4.5	100.0
성별								
남자	607	47.5	48.2	95.8	3.8	0.5	4.2	100.0
여자	593	46.4	48.9	95.3	4.5	0.2	4.7	100.0
연령별								
19~29세	209	39.6	56.1	95.7	4.3	0.0	4.3	100.0
30대	237	50.6	45.9	96.4	2.5	1.1	3.6	100.0
40대	275	49.5	45.3	94.8	4.8	0.4	5.2	100.0
50대	261	44.6	52.1	96.8	3.2	0.0	3.2	100.0
60대 이상	218	49.8	44.1	93.9	5.8	0.3	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6.1	50.6	96.8	3.2	0.0	3.2	100.0
고졸	599	46.7	48.2	95.0	4.6	0.4	5.0	100.0
대재 이상	470	47.5	48.6	96.1	3.5	0.4	3.9	100.0
무응답	2	44.6	0.0	44.6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1.2	48.3	89.5	10.5	0.0	10.5	100.0
자영업	260	49.2	46.7	95.9	3.8	0.3	4.1	100.0
블루 칼라	341	48.1	46.3	94.4	5.0	0.7	5.6	100.0
화이트칼라	230	49.7	47.1	96.8	2.7	0.5	3.2	100.0
전업 주부	222	44.9	51.6	96.6	3.4	0.0	3.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9.1	55.8	94.9	5.1	0.0	5.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6.2	39.9	96.1	3.9	0.0	3.9	100.0
200~299만원	203	44.5	51.8	96.3	3.4	0.4	3.7	100.0
300~399만원	362	47.6	47.8	95.4	4.3	0.3	4.6	100.0
400만원 이상	500	45.0	50.2	95.2	4.3	0.5	4.8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7.5	48.8	96.3	3.3	0.4	3.7	100.0
충청권	123	33.0	57.7	90.7	9.3	0.0	9.3	100.0
호남권	117	57.0	38.8	95.9	4.1	0.0	4.1	100.0
영남권	309	44.1	52.3	96.5	3.2	0.3	3.5	100.0
강원	35	75.5	13.6	89.1	8.9	2.1	10.9	100.0
제주	14	52.8	47.2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46.6	50.1	96.7	3.1	0.2	3.3	100.0
중·소도시	521	46.9	47.6	94.4	4.9	0.6	5.6	100.0
읍/면	130	49.0	46.0	95.1	4.9	0.0	4.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9.5	45.0	94.5	5.3	0.1	5.5	100.0
중도	116	48.0	47.5	95.4	4.6	0.0	4.6	100.0
보수적	561	44.4	52.1	96.5	2.9	0.6	3.5	100.0
종교별								
불교	245	52.4	43.6	96.0	4.0	0.0	4.0	100.0
기독교	238	48.5	46.5	95.0	4.5	0.5	5.0	100.0
천주교	72	49.6	45.9	95.6	4.4	0.0	4.4	100.0
종교없음	625	44.5	51.1	95.5	4.0	0.5	4.5	100.0
모름/무응답	21	31.9	64.3	96.2	3.8	0.0	3.8	100.0

표44-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16.0	43.6	59.7	36.8	3.5	40.3	100.0
성별								
남자	607	17.7	41.9	59.6	35.7	4.6	40.4	100.0
여자	593	14.3	45.4	59.8	37.8	2.4	40.2	100.0
연령별								
19~29세	209	16.3	41.1	57.3	37.9	4.7	42.7	100.0
30대	237	20.8	38.0	58.7	38.3	2.9	41.3	100.0
40대	275	17.9	44.4	62.3	35.4	2.2	37.7	100.0
50대	261	12.3	45.5	57.8	39.6	2.6	42.2	100.0
60대 이상	218	12.8	49.1	61.9	32.2	5.9	38.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5.0	52.4	67.4	29.6	3.0	32.6	100.0
고졸	599	13.3	44.3	57.6	39.0	3.4	42.4	100.0
대재 이상	470	19.9	40.5	60.5	35.7	3.9	39.5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12.1	41.6	53.7	39.5	6.8	46.3	100.0
자영업	260	15.4	41.7	57.2	39.2	3.7	42.8	100.0
블루 칼라	341	15.4	39.5	54.9	41.3	3.8	45.1	100.0
화이트칼라	230	19.9	46.3	66.2	29.1	4.7	33.8	100.0
전업 주부	222	16.4	52.0	68.4	30.2	1.4	31.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1.9	39.7	51.7	44.6	3.7	48.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4.9	48.0	62.9	33.2	3.9	37.1	100.0
200~299만원	203	17.1	46.4	63.5	31.9	4.6	36.5	100.0
300~399만원	362	13.5	42.2	55.6	41.2	3.2	44.4	100.0
400만원 이상	500	17.8	42.5	60.3	36.3	3.3	39.7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4.9	41.1	56.0	40.2	3.8	44.0	100.0
충청권	123	16.9	50.8	67.7	26.1	6.3	32.3	100.0
호남권	117	24.3	48.0	72.3	27.7	0.0	27.7	100.0
영남권	309	14.6	43.6	58.2	38.9	2.9	41.8	100.0
강원	35	17.4	43.8	61.2	32.2	6.6	38.8	100.0
제주	14	16.7	54.6	71.2	23.0	5.8	28.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8.4	39.6	58.0	38.6	3.4	42.0	100.0
중·소도시	521	12.9	48.0	60.9	35.3	3.8	39.1	100.0
읍/면	130	18.6	43.2	61.9	34.7	3.4	38.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5.2	43.4	58.7	37.5	3.8	41.3	100.0
중도	116	17.0	47.7	64.7	30.8	4.6	35.3	100.0
보수적	561	16.6	43.0	59.6	37.3	3.1	40.4	100.0
종교별								
불교	245	18.8	42.8	61.5	36.6	1.8	38.5	100.0
기독교	238	17.6	45.0	62.6	33.3	4.1	37.4	100.0
천주교	72	11.8	48.2	59.9	38.9	1.2	40.1	100.0
종교없음	625	14.4	43.1	57.6	38.0	4.4	42.4	100.0
모름/무응답	21	29.1	39.0	68.1	31.9	0.0	31.9	100.0

표44-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빈부격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49.0	44.1	93.1	6.2	0.7	6.9	100.0	
성별	남자	607	48.2	45.1	93.3	5.9	0.7	6.7	100.0
	여자	593	49.7	43.2	92.9	6.5	0.6	7.1	100.0
연령별	19~29세	209	46.6	45.1	91.7	6.6	1.7	8.3	100.0
	30대	237	47.1	46.7	93.8	5.3	1.0	6.2	100.0
	40대	275	49.8	44.3	94.0	6.0	0.0	6.0	100.0
	50대	261	49.9	43.5	93.4	6.6	0.0	6.6	100.0
	60대 이상	218	51.2	40.9	92.2	6.9	0.9	7.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3.4	39.4	92.8	6.4	0.8	7.2	100.0
	고졸	599	49.1	43.2	92.2	7.4	0.4	7.8	100.0
	대재 이상	470	47.8	46.4	94.3	4.7	1.0	5.7	100.0
	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35.0	60.4	95.4	4.6	0.0	4.6	100.0
	자영업	260	49.0	46.5	95.5	4.5	0.0	4.5	100.0
	블루 칼라	341	51.5	41.7	93.2	6.8	0.0	6.8	100.0
	화이트칼라	230	48.8	44.4	93.2	5.8	1.0	6.8	100.0
	전업 주부	222	51.5	40.8	92.3	7.2	0.5	7.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0.2	48.6	88.8	7.6	3.6	11.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3.3	38.0	91.3	8.0	0.7	8.7	100.0
	200~299만원	203	49.2	41.6	90.9	7.5	1.6	9.1	100.0
	300~399만원	362	49.8	43.4	93.2	6.8	0.0	6.8	100.0
	400만원 이상	500	47.0	47.4	94.4	4.8	0.7	5.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7.4	47.5	95.0	4.3	0.8	5.0	100.0
	충청권	123	44.0	46.5	90.5	9.5	0.0	9.5	100.0
	호남권	117	57.9	39.3	97.2	2.8	0.0	2.8	100.0
	영남권	309	49.0	40.5	89.5	9.5	1.0	10.5	100.0
	강원	35	58.6	30.2	88.8	11.2	0.0	11.2	100.0
	제주	14	60.2	33.8	94.0	6.0	0.0	6.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52.6	41.9	94.5	5.1	0.4	5.5
	중·소도시	521	43.3	48.2	91.5	7.4	1.1	8.5	100.0
	읍/면	130	56.7	37.1	93.8	6.2	0.0	6.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6.9	44.7	91.7	7.7	0.6	8.3	100.0
	중도	116	54.8	37.4	92.2	6.8	1.1	7.8	100.0
	보수적	561	49.7	45.0	94.6	4.7	0.6	5.4	100.0
종교별	불교	245	49.7	42.6	92.2	7.4	0.4	7.8	100.0
	기독교	238	51.7	40.9	92.7	6.9	0.5	7.3	100.0
	천주교	72	50.1	42.1	92.2	6.1	1.7	7.8	100.0
	종교없음	625	47.8	45.8	93.6	5.6	0.7	6.4	100.0
	모름/무응답	21	40.0	56.2	96.2	3.8	0.0	3.8	100.0

표44-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실업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62.6	32.6	95.2	4.4	0.4	4.8	100.0	
성별	남자	607	62.2	31.8	94.0	5.4	0.6	6.0	100.0
	여자	593	63.0	33.4	96.4	3.4	0.2	3.6	100.0
연령별	19~29세	209	58.4	35.8	94.2	4.8	1.0	5.8	100.0
	30대	237	62.2	32.8	95.0	3.9	1.1	5.0	100.0
	40대	275	62.2	32.2	94.4	5.6	0.0	5.6	100.0
	50대	261	62.7	34.3	97.0	3.0	0.0	3.0	100.0
	60대 이상	218	67.2	27.9	95.1	4.9	0.0	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7.4	29.7	97.1	2.9	0.0	2.9	100.0
	고졸	599	60.3	34.3	94.5	5.2	0.2	5.5	100.0
	대재 이상	470	64.0	31.5	95.5	3.8	0.7	4.5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6.9	18.2	85.1	10.4	4.5	14.9	100.0
	자영업	260	64.6	31.9	96.5	3.5	0.0	3.5	100.0
	블루 칼라	341	61.5	34.7	96.2	3.4	0.4	3.8	100.0
	화이트칼라	230	62.3	31.9	94.2	5.3	0.5	5.8	100.0
	전업 주부	222	63.5	32.8	96.3	3.7	0.0	3.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9.2	32.0	91.2	7.8	1.0	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66.7	28.4	95.1	4.9	0.0	4.9	100.0
	200~299만원	203	59.0	35.6	94.6	5.4	0.0	5.4	100.0
	300~399만원	362	62.1	33.2	95.3	4.7	0.0	4.7	100.0
	400만원 이상	500	63.1	32.2	95.3	3.7	0.9	4.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56.1	39.6	95.6	3.7	0.6	4.4	100.0
	충청권	123	61.5	35.3	96.8	2.5	0.7	3.2	100.0
	호남권	117	80.1	18.4	98.5	1.5	0.0	1.5	100.0
	영남권	309	68.1	25.3	93.4	6.6	0.0	6.6	100.0
	강원	35	71.6	12.8	84.4	15.6	0.0	15.6	100.0
	제주	14	57.2	42.8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66.9	28.7	95.6	4.4	0.0	4.4
	중·소도시	521	55.3	38.2	93.5	5.6	0.9	6.5	100.0
	읍/면	130	73.2	26.8	100.0	0.0	0.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7.4	35.7	93.1	6.7	0.2	6.9	100.0
	중도	116	58.8	36.6	95.3	3.6	1.1	4.7	100.0
	보수적	561	68.1	28.9	97.1	2.5	0.4	2.9	100.0
종교별	불교	245	66.3	28.2	94.5	5.5	0.0	5.5	100.0
	기독교	238	67.5	27.7	95.1	4.0	0.9	4.9	100.0
	천주교	72	58.8	36.7	95.4	2.8	1.7	4.6	100.0
	종교없음	625	59.4	36.0	95.4	4.4	0.2	4.6	100.0
	모름/무응답	21	69.4	26.8	96.2	3.8	0.0	3.8	100.0

표44-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지역 간 불균형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전 체	1200	26.4	54.0	80.5	19.0	0.6	19.5	100.0	
성별	남자	607	26.2	54.8	81.1	18.2	0.7	18.9	100.0
	여자	593	26.6	53.3	79.8	19.7	0.5	20.2	100.0
연령별	19~29세	209	21.7	54.9	76.5	22.9	0.6	23.5	100.0
	30대	237	26.2	50.0	76.2	23.3	0.4	23.8	100.0
	40대	275	27.9	54.1	82.0	17.3	0.7	18.0	100.0
	50대	261	28.0	55.0	82.9	16.4	0.7	17.1	100.0
	60대 이상	218	27.5	56.5	83.9	15.6	0.5	1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9.1	57.9	87.1	12.9	0.0	12.9	100.0
	고졸	599	25.5	53.0	78.5	21.2	0.3	21.5	100.0
	대재 이상	470	26.8	54.2	81.0	17.8	1.1	19.0	100.0
	무응답	2	44.6	55.4	1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1.2	41.1	82.3	17.7	0.0	17.7	100.0
	자영업	260	24.4	54.0	78.4	21.6	0.0	21.6	100.0
	블루 칼라	341	26.5	52.6	79.1	20.3	0.7	20.9	100.0
	화이트칼라	230	31.3	54.2	85.5	14.5	0.0	14.5	100.0
	전업 주부	222	26.1	56.8	82.9	15.8	1.3	17.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9.6	55.0	74.6	23.8	1.6	25.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33.4	51.0	84.4	15.6	0.0	15.6	100.0
	200~299만원	203	28.1	53.7	81.8	17.2	1.0	18.2	100.0
	300~399만원	362	21.0	56.6	77.5	21.7	0.8	22.5	100.0
	400만원 이상	500	27.9	53.3	81.1	18.6	0.2	18.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1.7	55.3	77.0	22.4	0.6	23.0	100.0
	충청권	123	31.7	53.6	85.3	14.7	0.0	14.7	100.0
	호남권	117	42.9	51.7	94.6	5.4	0.0	5.4	100.0
	영남권	309	26.4	53.1	79.5	19.9	0.7	20.5	100.0
	강원	35	34.5	43.4	77.9	17.5	4.6	22.1	100.0
	제주	14	25.7	71.1	96.8	3.2	0.0	3.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4.7	51.8	76.5	22.7	0.8	23.5
	중·소도시	521	24.7	57.4	82.1	17.4	0.5	17.9	100.0
	읍/면	130	40.4	50.2	90.7	9.3	0.0	9.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5.2	55.9	81.1	18.6	0.3	18.9	100.0
	중도	116	23.9	51.6	75.5	23.5	1.1	24.5	100.0
	보수적	561	28.1	52.8	80.9	18.4	0.8	19.1	100.0
종교별	불교	245	33.1	47.0	80.2	18.6	1.2	19.8	100.0
	기독교	238	25.0	55.0	79.9	19.3	0.7	20.1	100.0
	천주교	72	27.5	53.4	80.9	17.4	1.7	19.1	100.0
	종교없음	625	23.9	56.3	80.2	19.6	0.2	19.8	100.0
	모름/무응답	21	35.2	61.0	96.2	3.8	0.0	3.8	100.0

표44-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저출산/고령화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전 체	1200	59.2	35.8	95.0	4.6	0.4	5.0	100.0	
성별	남자	607	59.4	34.3	93.7	5.6	0.7	6.3	100.0
	여자	593	59.0	37.4	96.4	3.6	0.0	3.6	100.0
연령별	19~29세	209	47.1	45.2	92.4	7.1	0.6	7.6	100.0
	30대	237	62.8	33.5	96.3	3.7	0.0	3.7	100.0
	40대	275	62.4	32.7	95.2	4.2	0.6	4.8	100.0
	50대	261	60.1	35.6	95.8	4.2	0.0	4.2	100.0
	60대 이상	218	61.8	33.5	95.2	4.2	0.6	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57.8	35.7	93.5	6.5	0.0	6.5	100.0
	고졸	599	60.8	34.1	94.8	4.8	0.4	5.2	100.0
	대재 이상	470	57.5	38.3	95.7	3.9	0.4	4.3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57.5	37.5	95.0	5.0	0.0	5.0	100.0
	자영업	260	60.6	35.5	96.0	3.5	0.5	4.0	100.0
	블루 칼라	341	60.2	33.7	93.9	5.8	0.3	6.1	100.0
	화이트칼라	230	57.8	37.3	95.1	4.9	0.0	4.9	100.0
	전업 주부	222	62.4	35.2	97.6	2.4	0.0	2.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50.7	40.6	91.3	7.1	1.6	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60.1	35.5	95.6	4.4	0.0	4.4	100.0
	200~299만원	203	60.6	33.1	93.7	6.3	0.0	6.3	100.0
	300~399만원	362	57.2	35.7	93.0	6.5	0.5	7.0	100.0
	400만원 이상	500	59.7	37.2	97.0	2.6	0.5	3.0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58.3	37.9	96.2	3.4	0.4	3.8	100.0
	충청권	123	60.2	37.1	97.3	2.7	0.0	2.7	100.0
	호남권	117	71.6	20.2	91.8	8.2	0.0	8.2	100.0
	영남권	309	55.4	38.2	93.6	6.1	0.3	6.4	100.0
	강원	35	60.3	28.5	88.8	9.0	2.3	11.2	100.0
	제주	14	67.1	32.9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59.2	37.1	96.4	3.5	0.2	3.6
	중·소도시	521	58.9	34.4	93.3	6.1	0.6	6.7	100.0
	읍/면	130	60.4	36.1	96.5	3.5	0.0	3.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9.7	35.0	94.7	5.0	0.4	5.3	100.0
	중도	116	64.4	32.2	96.6	2.3	1.1	3.4	100.0
	보수적	561	57.7	37.4	95.1	4.8	0.2	4.9	100.0
종교별	불교	245	61.3	35.1	96.4	2.7	0.8	3.6	100.0
	기독교	238	65.8	30.8	96.6	3.4	0.0	3.4	100.0
	천주교	72	68.5	29.8	98.3	0.0	1.7	1.7	100.0
	종교없음	625	55.3	38.2	93.5	6.3	0.2	6.5	100.0
	모름/무응답	21	45.2	51.0	96.2	3.8	0.0	3.8	100.0

표44-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이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	
전 체	1200	22.8	50.0	72.8	25.6	1.6	27.2	100.0	
성별	남자	607	23.0	48.4	71.5	26.7	1.8	28.5	100.0
	여자	593	22.5	51.6	74.1	24.5	1.4	25.9	100.0
연령별	19~29세	209	21.4	50.5	71.8	26.6	1.5	28.2	100.0
	30대	237	23.5	46.5	70.0	28.0	2.0	30.0	100.0
	40대	275	23.5	48.4	71.9	26.0	2.1	28.1	100.0
	50대	261	20.6	53.6	74.2	25.2	0.5	25.8	100.0
	60대 이상	218	25.2	51.0	76.2	22.0	1.8	23.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5.7	47.7	73.4	24.4	2.2	26.6	100.0
	고졸	599	19.8	54.8	74.6	24.1	1.3	25.4	100.0
	대재 이상	470	25.8	44.5	70.4	27.8	1.8	29.6	100.0
	무응답	2	0.0	44.6	44.6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7.6	44.9	72.5	27.5	0.0	27.5	100.0
	자영업	260	21.2	53.3	74.5	23.7	1.8	25.5	100.0
	블루 칼라	341	19.9	53.0	72.9	25.4	1.7	27.1	100.0
	화이트칼라	230	28.0	45.5	73.5	25.5	1.1	26.5	100.0
	전업 주부	222	21.7	50.7	72.4	25.7	1.9	27.6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5.8	42.7	68.5	29.9	1.6	31.5	100.0
	200만원 미만	134	26.8	49.5	76.3	22.6	1.2	23.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32.1	43.3	75.4	24.0	0.6	24.6	100.0
	300~399만원	362	21.0	54.5	75.5	22.5	2.0	24.5	100.0
	400만원 이상	500	19.1	49.7	68.7	29.4	1.9	31.3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1.2	54.7	75.9	22.1	2.0	24.1	100.0
	충청권	123	22.7	53.3	76.0	24.0	0.0	24.0	100.0
	호남권	117	24.3	48.8	73.1	26.1	0.7	26.9	100.0
	영남권	309	23.9	40.1	64.0	34.2	1.8	36.0	100.0
	강원	35	35.1	43.1	78.2	19.5	2.3	21.8	100.0
	제주	14	25.2	61.9	87.1	12.9	0.0	12.9	100.0
	대도시	550	21.1	47.9	69.0	28.7	2.3	31.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23.9	54.3	78.2	20.8	1.0	21.8	100.0
	읍/면	130	25.3	41.6	66.9	32.2	1.0	33.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6.3	46.2	72.5	26.4	1.1	27.5	100.0
	중도	116	15.3	54.5	69.8	27.1	3.1	30.2	100.0
	보수적	561	21.1	52.5	73.6	24.6	1.8	26.4	100.0
종교별	불교	245	26.1	46.3	72.4	25.7	1.8	27.6	100.0
	기독교	238	17.7	57.8	75.4	23.5	1.0	24.6	100.0
	천주교	72	24.8	44.0	68.8	27.8	3.4	31.2	100.0
	종교없음	625	23.0	49.0	72.1	26.3	1.6	27.9	100.0
	모름/무응답	21	27.8	52.7	80.5	19.5	0.0	19.5	100.0

표44-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부정부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	%	%	%	%	%	
전 체	1200	44.1	46.2	90.2	9.1	0.6	9.8	100.0	
성별	남자	607	42.2	46.5	88.7	10.3	1.0	11.3	100.0
	여자	593	46.0	45.8	91.8	8.0	0.2	8.2	100.0
연령별	19~29세	209	39.5	47.3	86.9	12.6	0.6	13.1	100.0
	30대	237	46.1	44.2	90.3	8.1	1.6	9.7	100.0
	40대	275	44.4	47.2	91.5	8.2	0.2	8.5	100.0
	50대	261	44.2	46.9	91.0	8.7	0.3	9.0	100.0
	60대 이상	218	45.8	45.0	90.8	8.6	0.6	9.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4.1	45.8	89.9	10.1	0.0	10.1	100.0
	고졸	599	43.9	46.2	90.1	9.1	0.7	9.9	100.0
	대재 이상	470	44.2	46.3	90.5	8.9	0.7	9.5	100.0
	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40.0	42.7	82.7	17.3	0.0	17.3	100.0
	자영업	260	51.4	38.3	89.8	9.0	1.2	10.2	100.0
	블루 칼라	341	41.8	47.2	89.1	10.4	0.6	10.9	100.0
	화이트칼라	230	44.0	48.6	92.6	6.9	0.5	7.4	100.0
	전업 주부	222	40.0	52.5	92.5	7.5	0.0	7.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43.0	44.3	87.3	11.7	1.0	12.7	100.0
	200만원 미만	134	53.6	37.3	90.9	9.1	0.0	9.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48.3	41.8	90.0	10.0	0.0	10.0	100.0
	300~399만원	362	37.2	51.3	88.5	11.0	0.5	11.5	100.0
	400만원 이상	500	44.7	46.7	91.4	7.5	1.1	8.6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45.6	46.2	91.8	7.2	1.0	8.2	100.0
	충청권	123	39.2	53.4	92.5	7.5	0.0	7.5	100.0
	호남권	117	53.2	42.0	95.3	4.7	0.0	4.7	100.0
	영남권	309	36.0	47.9	83.8	15.7	0.4	16.2	100.0
	강원	35	64.7	26.4	91.2	8.8	0.0	8.8	100.0
	제주	14	73.6	26.4	100.0	0.0	0.0	0.0	100.0
	대도시	550	45.6	45.4	91.0	8.8	0.2	9.0	100.0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39.5	49.5	89.0	10.0	1.0	11.0	100.0
	읍/면	130	56.3	35.9	92.2	6.8	1.0	7.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43.3	46.0	89.3	10.0	0.7	10.7	100.0
	중도	116	34.4	56.2	90.7	8.3	1.1	9.3	100.0
	보수적	561	46.8	44.2	91.0	8.5	0.4	9.0	100.0
종교별	불교	245	43.9	45.8	89.7	9.5	0.8	10.3	100.0
	기독교	238	45.9	45.9	91.9	7.1	1.0	8.1	100.0
	천주교	72	44.4	45.1	89.5	8.8	1.7	10.5	100.0
	종교없음	625	43.5	46.4	89.9	9.8	0.3	10.1	100.0
	모름/무응답	21	42.2	48.0	90.2	9.8	0.0	9.8	100.0

표45.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문)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전 체	1200	0.4	17.8	18.2	61.9	20.0	81.8	100.0	
성별	남자	607	0.3	17.5	17.8	60.7	21.5	82.2	100.0
	여자	593	0.4	18.1	18.5	63.1	18.4	81.5	100.0
연령별	19~29세	209	0.4	17.4	17.9	63.6	18.5	82.1	100.0
	30대	237	0.4	17.1	17.4	65.1	17.5	82.6	100.0
	40대	275	0.3	18.1	18.4	57.6	24.0	81.6	100.0
	50대	261	0.3	16.4	16.7	64.3	19.0	83.3	100.0
	60대 이상	218	0.4	20.2	20.7	59.3	20.1	7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7	19.1	19.8	59.8	20.5	80.2	100.0
	고졸	599	0.1	17.2	17.4	62.2	20.4	82.6	100.0
	대재 이상	470	0.5	18.2	18.8	62.0	19.2	81.2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100.0	100.0
	농/수/축산업	20	4.6	21.5	26.1	41.6	32.3	73.9	100.0
	자영업	260	0.0	13.7	13.7	61.9	24.4	86.3	100.0
	블루 칼라	341	0.0	16.5	16.5	63.0	20.5	83.5	100.0
	화이트칼라	230	0.4	18.3	18.7	62.6	18.7	81.3	100.0
	전업 주부	222	0.7	19.3	20.0	64.9	15.1	8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0.6	25.6	26.2	55.3	18.4	73.8	100.0
	200만원 미만	134	0.7	17.6	18.3	59.7	21.9	81.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8	21.4	22.2	59.1	18.7	77.8	100.0
	300~399만원	362	0.2	20.0	20.2	59.5	20.4	79.8	100.0
	400만원 이상	500	0.2	14.9	15.1	65.4	19.5	84.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2	14.4	14.6	67.7	17.7	85.4	100.0
	충청권	123	0.0	26.8	26.8	51.1	22.1	73.2	100.0
	호남권	117	0.6	13.0	13.6	57.4	28.9	86.4	100.0
	영남권	309	0.6	22.2	22.7	58.0	19.3	77.3	100.0
	강원	35	2.3	16.8	19.0	52.5	28.5	81.0	100.0
	제주	14	0.0	32.0	32.0	52.1	15.9	68.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0.3	20.6	20.9	59.4	19.6	79.1	100.0
	중·소도시	521	0.3	15.5	15.8	65.3	19.0	84.2	100.0
	읍/면	130	0.7	15.3	16.0	58.6	25.4	84.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0.5	18.7	19.2	62.1	18.7	80.8	100.0
	중도	116	0.0	21.0	21.0	65.0	14.0	79.0	100.0
	보수적	561	0.3	16.4	16.6	61.0	22.4	83.4	100.0
종교별	불교	245	0.7	16.2	16.9	58.9	24.2	83.1	100.0
	기독교	238	0.3	16.1	16.4	67.6	16.0	83.6	100.0
	천주교	72	0.0	14.5	14.5	65.9	19.6	85.5	100.0
	종교없음	625	0.3	19.5	19.8	59.9	20.3	80.2	100.0
	모름/무응답	21	0.0	16.8	16.8	77.5	5.7	83.2	100.0

표46.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문)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	
전 체	1200	14.8	56.8	71.7	26.7	1.6	28.3	100.0	
성별	남자	607	17.7	52.6	70.3	27.6	2.0	29.7	100.0
	여자	593	11.9	61.2	73.1	25.8	1.1	26.9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7	58.0	68.7	29.0	2.2	31.3	100.0
	30대	237	9.9	56.4	66.3	32.1	1.6	33.7	100.0
	40대	275	13.6	55.7	69.4	29.2	1.5	30.6	100.0
	50대	261	17.4	57.1	74.5	23.3	2.2	25.5	100.0
	60대 이상	218	22.7	57.2	79.8	19.8	0.3	2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3.9	58.8	82.7	15.6	1.8	17.3	100.0
	고졸	599	14.9	59.0	73.9	25.0	1.1	26.1	100.0
	대재 이상	470	12.4	53.5	65.9	32.0	2.1	34.1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100.0
	농/수/축산업	20	31.3	36.4	67.6	32.4	0.0	32.4	100.0
	자영업	260	15.8	57.1	72.9	26.0	1.1	27.1	100.0
	블루 칼라	341	13.8	56.0	69.8	28.1	2.1	30.2	100.0
	화이트칼라	230	14.6	53.1	67.7	29.9	2.4	32.3	100.0
	전업 주부	222	13.4	66.3	79.6	19.6	0.8	20.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2	52.0	68.2	30.5	1.3	31.8	100.0
	200만원 미만	134	21.7	50.1	71.8	24.7	3.5	28.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20.8	55.5	76.3	22.9	0.7	23.7	100.0
	300~399만원	362	10.0	62.5	72.5	26.2	1.3	27.5	100.0
	400만원 이상	500	13.9	55.2	69.1	29.3	1.6	30.9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2.3	58.5	70.8	28.5	0.8	29.2	100.0
	충청권	123	18.4	53.8	72.2	25.2	2.5	27.8	100.0
	호남권	117	16.0	45.6	61.6	31.6	6.7	38.4	100.0
	영남권	309	16.3	60.4	76.7	22.8	0.5	23.3	100.0
	강원	35	22.7	49.5	72.2	23.4	4.4	27.8	100.0
	제주	14	31.2	47.1	78.3	21.7	0.0	21.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4.2	52.7	66.8	31.3	1.9	33.2	100.0
	중·소도시	521	13.5	62.3	75.8	22.9	1.3	24.2	100.0
	읍/면	130	23.4	52.2	75.7	23.2	1.2	24.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7.2	60.6	77.8	21.2	1.0	22.2	100.0
	중도	116	16.8	57.8	74.5	23.3	2.1	25.5	100.0
	보수적	561	12.3	53.1	65.4	32.6	2.0	34.6	100.0
종교별	불교	245	18.0	57.7	75.8	22.9	1.3	24.2	100.0
	기독교	238	16.1	56.9	73.0	25.4	1.6	27.0	100.0
	천주교	72	14.4	62.1	76.5	21.3	2.2	23.5	100.0
	종교없음	625	13.5	55.6	69.1	29.4	1.5	30.9	100.0
	모름/무응답	21	5.7	64.0	69.7	26.5	3.8	30.3	100.0

표47.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계	평균 점	
		%	%	%	%	%	%	%	%	%	%			
전 체	1200	0.4	0.4	1.9	3.4	11.3	22.6	29.9	22.4	6.7	1.0	100.0	6.7	
성별	남자	607	0.4	0.2	2.6	3.7	14.1	21.1	29.9	20.6	6.5	1.0	100.0	6.6
	여자	593	0.4	0.6	1.3	3.0	8.6	24.0	30.0	24.2	6.9	1.0	100.0	6.8
연령별	19~29세	209	0.0	0.6	2.8	4.7	10.5	27.1	31.8	19.9	2.7	0.0	100.0	6.5
	30대	237	0.7	1.1	2.2	5.2	11.4	18.9	31.0	23.5	5.5	0.5	100.0	6.6
	40대	275	0.6	0.3	2.1	3.0	13.4	21.6	27.6	23.7	7.2	0.5	100.0	6.7
	50대	261	0.3	0.0	2.4	3.0	10.4	22.7	32.0	19.1	8.9	1.2	100.0	6.8
	60대 이상	218	0.2	0.0	0.2	1.0	10.6	23.3	27.5	25.7	8.8	2.8	100.0	7.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6	0.0	0.0	2.9	11.1	20.1	26.5	22.4	13.1	3.2	100.0	7.0
	고졸	599	0.1	0.3	1.1	3.2	10.1	22.8	30.0	24.5	7.0	0.8	100.0	6.8
	대재 이상	470	0.7	0.6	3.5	3.7	12.8	23.0	30.7	19.7	4.6	0.6	100.0	6.5
직업별	무응답	2	0.0	0.0	0.0	0.0	44.6	0.0	55.4	0.0	0.0	0.0	100.0	6.1
	농/수/축산업	20	0.0	0.0	2.3	2.1	21.7	17.1	17.6	27.6	9.2	2.2	100.0	6.8
	자영업	260	0.2	0.3	2.9	4.4	11.0	20.3	30.5	20.1	9.0	1.4	100.0	6.7
	블루 칼라	341	0.0	0.3	0.6	2.7	12.7	24.7	29.8	24.3	3.9	1.0	100.0	6.7
	화이트칼라	230	1.1	0.0	2.2	4.4	14.7	21.6	27.2	21.5	6.6	0.7	100.0	6.6
	전업 주부	222	0.4	0.8	0.8	2.4	8.1	21.2	30.6	24.5	10.1	0.9	100.0	6.9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0.6	1.0	5.1	2.8	6.4	26.6	34.9	18.5	3.5	0.6	100.0	6.5
	200만원 미만	134	0.6	0.0	3.0	3.2	14.3	27.9	16.3	19.6	13.3	1.9	100.0	6.7
	200~299만원	203	0.0	0.0	1.2	4.9	13.0	22.4	28.5	18.8	9.8	1.4	100.0	6.8
	300~399만원	362	0.4	0.5	1.6	2.7	8.8	23.2	31.1	25.2	5.8	0.7	100.0	6.8
	400만원 이상	500	0.4	0.6	2.3	3.3	11.7	20.8	33.4	22.4	4.4	0.8	100.0	6.7
지역별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8.0
	수도권	602	0.2	0.2	1.2	2.3	12.3	25.4	33.7	18.6	5.3	0.7	100.0	6.7
	충청권	123	0.0	2.1	3.8	5.5	15.4	21.9	21.5	24.6	3.5	1.8	100.0	6.4
	호남권	117	0.7	0.8	5.6	12.4	16.9	30.0	21.2	7.6	3.4	1.5	100.0	5.9
	영남권	309	0.0	0.0	1.0	1.3	5.7	14.8	29.4	35.6	11.7	0.6	100.0	7.3
	강원	35	4.5	0.0	2.3	0.0	10.6	20.2	29.5	19.5	11.3	2.1	100.0	6.7
지역 크기	제주	14	5.8	0.0	9.5	9.0	13.6	20.4	27.9	4.3	3.2	6.1	100.0	5.8
	대도시	550	0.0	0.0	1.7	3.1	10.7	20.8	28.8	27.4	6.3	1.3	100.0	6.9
	중·소도시	521	0.7	0.9	2.2	3.4	10.5	24.3	31.6	18.5	7.3	0.6	100.0	6.6
정치적 성향	읍/면	130	0.6	0.0	2.1	4.3	17.8	22.9	28.1	16.6	6.5	1.0	100.0	6.5
	진보적	522	0.4	0.2	2.3	2.4	9.1	24.0	28.9	21.9	8.8	1.9	100.0	6.8
	중도	116	0.3	0.0	2.9	2.3	12.5	28.8	33.1	17.0	3.0	0.0	100.0	6.5
종교별	보수적	561	0.4	0.7	1.5	4.5	13.2	20.0	30.2	23.9	5.5	0.3	100.0	6.7
	불교	245	0.3	0.0	2.6	2.0	11.5	19.7	27.5	26.5	8.9	1.0	100.0	6.9
	기독교	238	0.0	0.3	2.5	3.7	11.7	24.5	29.9	20.1	5.3	2.2	100.0	6.7
	천주교	72	0.6	1.1	2.6	3.5	9.5	21.3	32.9	21.2	7.2	0.0	100.0	6.7
	종교없음	625	0.5	0.5	1.5	3.9	11.8	22.5	31.2	21.4	6.0	0.7	100.0	6.7
모름/무응답	21	0.0	0.0	0.0	0.0	0.0	39.1	10.5	34.1	16.3	0.0	100.0	7.3	

표48.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무응답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도 없다	전혀 없다	모름/무응답				
		%	%	%	%	%	%	%	%	
전 체	1200	5.5	42.6	48.1	42.4	9.4	51.8	0.1	100.0	
성별	남자	607	7.0	42.3	49.3	39.8	10.9	50.7	0.0	100.0
	여자	593	4.0	42.9	46.9	45.0	7.8	52.9	0.2	100.0
연령별	19~29세	209	10.3	41.7	52.0	40.6	7.3	48.0	0.0	100.0
	30대	237	4.2	47.6	51.8	38.4	9.7	48.2	0.0	100.0
	40대	275	4.4	43.9	48.3	45.4	6.3	51.7	0.0	100.0
	50대	261	4.9	42.5	47.5	39.1	12.9	52.1	0.5	100.0
	60대 이상	218	4.5	36.4	40.9	48.4	10.7	59.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6	39.2	41.7	46.5	11.8	58.3	0.0	100.0
	고졸	599	4.4	41.5	45.9	43.9	10.0	53.9	0.2	100.0
	대재 이상	470	7.8	45.1	52.9	39.0	8.1	47.1	0.0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농/수/축산업	20	7.0	33.6	40.6	51.5	7.9	59.4	0.0	100.0
	자영업	260	4.2	44.4	48.7	40.6	10.3	50.9	0.5	100.0
	블루 칼라	341	2.7	41.7	44.4	44.3	11.3	55.6	0.0	100.0
	화이트칼라	230	7.7	44.6	52.3	38.6	9.2	47.7	0.0	100.0
	전업 주부	222	5.1	39.7	44.8	47.9	7.3	55.2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무직/기타	127	12.4	44.2	56.6	36.6	6.8	43.4	0.0	100.0
	200만원 미만	134	9.4	35.0	44.4	47.6	8.1	55.6	0.0	100.0
	200~299만원	203	5.6	44.5	50.2	40.3	8.9	49.2	0.6	100.0
	300~399만원	362	3.7	46.5	50.2	42.3	7.6	49.8	0.0	100.0
	400만원 이상	500	5.6	41.1	46.7	42.0	11.3	53.3	0.0	100.0
지역별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5.2	43.7	49.0	41.1	9.8	50.8	0.2	100.0
	충청권	123	8.0	53.1	61.1	32.9	5.9	38.9	0.0	100.0
	호남권	117	11.4	32.1	43.5	45.6	10.9	56.5	0.0	100.0
	영남권	309	0.9	39.6	40.4	49.4	10.2	59.6	0.0	100.0
	강원	35	17.4	48.5	65.9	29.7	4.4	34.1	0.0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19.9	41.3	61.2	32.2	6.6	38.8	0.0	100.0
	대도시	550	6.8	42.6	49.4	42.4	7.9	50.4	0.2	100.0
	중·소도시	521	4.6	44.4	49.0	40.6	10.4	51.0	0.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4.1	35.2	39.2	49.1	11.7	60.8	0.0	100.0
	진보적	522	5.4	41.6	46.9	43.6	9.5	53.1	0.0	100.0
	중도	116	5.0	43.9	48.9	41.8	8.4	50.1	1.0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5.8	43.3	49.1	41.4	9.5	50.9	0.0	100.0
	불교	245	5.0	37.9	42.9	48.3	8.3	56.6	0.5	100.0
	기독교	238	7.4	38.0	45.4	45.2	9.4	54.6	0.0	100.0
	천주교	72	7.7	45.8	53.5	31.6	14.9	46.5	0.0	100.0
	종교없음	625	5.0	46.1	51.1	40.2	8.7	48.9	0.0	100.0
모름/무응답	21	0.0	33.1	33.1	43.5	23.3	66.9	0.0	100.0	

표49.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문)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	%	%	%	%	%	%		
전 체	1200	5.6	33.5	39.1	48.6	12.4	60.9	100.0		
성별	남자	607	7.6	37.0	44.6	44.9	10.5	55.4	100.0	
	여자	593	3.6	29.8	33.4	52.4	14.2	66.6	100.0	
	연령별									
	19~29세	209	5.7	28.4	34.1	47.8	18.1	65.9	100.0	
	30대	237	4.5	33.1	37.6	47.9	14.5	62.4	100.0	
	40대	275	4.8	34.3	39.0	49.7	11.2	61.0	100.0	
	50대	261	6.7	33.6	40.3	49.1	10.6	59.7	100.0	
	60대 이상	218	6.5	37.6	44.0	48.0	8.0	5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3	37.4	41.7	45.1	13.3	58.3	100.0	
	고졸	599	5.0	31.4	36.3	50.5	13.2	63.7	100.0	
	대재 이상	470	6.8	35.2	42.0	46.9	11.1	58.0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29.6	29.6	62.2	8.2	70.4	100.0	
	자영업	260	7.3	39.2	46.5	44.6	8.8	53.5	100.0	
	블루 칼라	341	3.5	30.3	33.8	53.3	12.9	66.2	100.0	
	화이트칼라	230	7.0	38.3	45.3	44.1	10.7	54.7	100.0	
	전업 주부	222	3.0	28.6	31.6	52.6	15.7	68.4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0.5	30.7	41.2	42.8	16.0	5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3	40.4	45.7	38.0	16.3	54.3	100.0	
	200~299만원	203	6.9	40.9	47.7	44.4	7.8	52.3	100.0	
	300~399만원	362	3.1	35.9	39.0	47.6	13.4	61.0	100.0	
	400만원 이상	500	7.0	26.7	33.7	53.9	12.4	66.3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6.5	32.5	39.0	50.3	10.8	61.0	100.0	
	충청권	123	6.8	34.9	41.7	51.1	7.2	58.3	100.0	
	호남권	117	6.0	39.6	45.6	44.3	10.1	54.4	100.0	
	영남권	309	2.1	33.0	35.0	47.1	17.9	65.0	100.0	
	강원	35	15.4	24.0	39.4	41.2	19.4	60.6	100.0	
	제주	14	5.9	48.4	54.2	39.4	6.3	45.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8.0	33.4	41.4	45.9	12.8	58.6	100.0
		중·소도시	521	4.0	34.2	38.3	49.5	12.2	61.7	100.0
읍/면		130	1.7	30.8	32.5	56.2	11.3	67.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9	42.6	48.4	43.9	7.6	51.6	100.0	
	중도	116	6.1	34.4	40.5	51.5	8.0	59.5	100.0	
	보수적	561	5.2	24.8	30.1	52.3	17.7	69.9	100.0	
종교별	불교	245	6.7	28.5	35.2	52.2	12.6	64.8	100.0	
	기독교	238	5.2	34.7	39.8	47.2	13.0	60.2	100.0	
	천주교	72	7.9	27.9	35.8	50.6	13.7	64.2	100.0	
	종교없음	625	5.1	35.9	41.1	47.5	11.4	58.9	100.0	
	모름/무응답	21	3.8	23.9	27.7	45.3	27.0	72.3	100.0	

표50.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	%	%	%	%	%	%	%	
전 체	1200	2.7	23.0	25.7	51.4	19.9	3.0	22.9	100.0	
성별	남자	607	3.0	23.3	26.3	50.5	19.6	3.6	23.3	100.0
	여자	593	2.4	22.7	25.1	52.5	20.1	2.3	22.5	100.0
연령별	19~29세	209	2.6	32.6	35.2	53.4	9.4	2.0	11.3	100.0
	30대	237	3.7	30.7	34.5	54.1	10.8	0.7	11.4	100.0
	40대	275	2.3	21.1	23.5	54.0	20.7	1.9	22.5	100.0
	50대	261	2.4	15.6	18.0	53.2	25.1	3.7	28.8	100.0
	60대 이상	218	2.4	16.7	19.0	41.3	32.6	7.1	39.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0	18.5	20.5	38.1	34.1	7.4	41.5	100.0
	고졸	599	1.5	19.9	21.4	54.5	21.6	2.5	24.1	100.0
	대재 이상	470	4.4	28.2	32.6	51.4	13.7	2.4	16.1	100.0
	무응답	2	0.0	44.6	44.6	0.0	55.4	0.0	55.4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17.6	17.6	45.5	36.9	0.0	36.9	100.0
	자영업	260	2.5	19.1	21.6	47.2	28.1	3.0	31.2	100.0
	블루 칼라	341	1.6	21.4	23.0	56.0	16.4	4.7	21.0	100.0
	화이트칼라	230	5.0	28.6	33.6	51.2	13.4	1.7	15.1	100.0
	전업 주부	222	1.9	20.3	22.2	52.1	23.8	1.9	25.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3.7	30.6	34.3	48.1	14.5	3.1	1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3	17.9	20.2	44.9	27.8	7.1	34.9	100.0
	200~299만원	203	1.7	24.2	25.9	49.2	22.2	2.7	24.9	100.0
	300~399만원	362	2.4	21.9	24.4	53.5	19.5	2.6	22.1	100.0
	400만원 이상	500	3.4	24.7	28.1	52.5	17.1	2.3	19.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7	23.3	26.0	54.0	17.2	2.8	20.0	100.0
	충청권	123	3.3	25.0	28.3	48.1	21.9	1.7	23.6	100.0
	호남권	117	4.0	23.3	27.3	40.7	25.1	6.9	32.0	100.0
	영남권	309	1.4	21.3	22.7	52.8	22.2	2.4	24.5	100.0
	강원	35	6.4	23.9	30.2	41.1	24.0	4.6	28.7	100.0
	제주	14	2.9	26.1	29.0	57.7	13.3	0.0	13.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7	21.4	25.1	51.5	20.8	2.7	23.5	100.0
	중·소도시	521	2.0	26.2	28.3	52.3	16.3	3.1	19.4	100.0
	읍/면	130	1.3	16.8	18.1	47.7	30.2	4.0	3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3.1	26.2	29.4	41.8	24.6	4.3	28.9	100.0
	중도	116	5.3	35.3	40.6	46.6	12.1	0.7	12.8	100.0
	보수적	561	1.7	17.5	19.2	61.4	17.1	2.3	19.4	100.0
종교별	불교	245	2.6	18.2	20.8	46.7	29.4	3.1	32.5	100.0
	기독교	238	1.1	25.3	26.4	49.8	21.2	2.6	23.8	100.0
	천주교	72	6.2	18.9	25.1	52.7	18.8	3.4	22.2	100.0
	종교없음	625	3.0	24.5	27.6	53.6	15.8	3.0	18.9	100.0
	모름/무응답	21	0.0	21.6	21.6	57.3	17.3	3.8	21.1	100.0

표51. 지지정당

문)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사례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계	
		%	%	%	%	%		
전 체	1200	27.0	16.5	9.7	1.1	45.7	100.0	
성별	남자	607	25.9	16.0	10.1	1.3	46.7	100.0
	여자	593	28.2	17.0	9.3	0.9	44.7	100.0
연령별	19~29세	209	9.5	15.3	12.7	1.2	61.3	100.0
	30대	237	15.7	21.0	12.8	1.6	48.9	100.0
	40대	275	20.5	19.2	8.9	2.1	49.3	100.0
	50대	261	41.7	12.9	6.8	0.0	38.6	100.0
	60대 이상	218	46.9	13.7	7.8	0.4	31.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7.4	11.3	7.6	0.6	33.2	100.0
	고졸	599	29.9	16.2	7.8	0.7	45.4	100.0
	대재 이상	470	17.9	18.1	12.6	1.7	49.7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55.4	44.6	0.0	0.0	100.0
	농/수/축산업	20	40.2	9.7	0.0	0.0	50.1	100.0
	자영업	260	30.4	14.6	9.1	0.8	45.2	100.0
	블루 칼라	341	23.7	16.2	11.2	0.4	48.5	100.0
	화이트칼라	230	20.5	19.4	10.1	2.9	47.1	100.0
	전업 주부	222	39.8	16.8	7.0	0.7	35.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6.6	16.4	12.4	1.0	53.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40.0	14.9	3.7	0.6	40.8	100.0
	200~299만원	203	31.4	15.2	9.2	0.6	43.6	100.0
	300~399만원	362	26.2	17.6	12.0	0.3	43.9	100.0
	400만원 이상	500	22.5	16.6	9.9	1.9	49.1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28.4	15.1	10.9	1.4	44.2	100.0
	충청권	123	15.8	23.1	9.2	0.7	51.2	100.0
	호남권	117	4.7	34.5	16.1	2.1	42.5	100.0
	영남권	309	35.6	9.5	6.2	0.2	48.5	100.0
	강원	35	48.2	17.5	2.0	0.0	32.3	100.0
	제주	14	13.0	18.1	6.1	2.9	59.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3.9	16.3	11.3	1.3	47.2	100.0
	중·소도시	521	31.6	16.3	8.6	1.0	42.5	100.0
	읍/면	130	22.1	18.1	7.2	0.3	5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08	18.6	31.2	15.3	1.9	33.0	100.0
	중도	617	23.9	11.5	8.8	1.1	54.7	100.0
	보수적	274	43.7	11.2	5.4	0.0	39.6	100.0
종교별	불교	245	38.6	14.7	7.6	0.3	38.8	100.0
	기독교	238	25.9	19.2	11.5	1.7	41.8	100.0
	천주교	72	28.6	21.8	17.0	0.0	32.6	100.0
	종교없음	625	22.8	15.7	9.1	1.3	51.1	100.0
	모름/무응답	21	27.9	11.7	5.9	0.0	54.5	100.0

표52.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문)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3.1	40.0	43.0	40.3		16.7
성별	남자	607	2.5	38.4	40.9	40.3	18.8	59.1	100.0
	여자	593	3.7	41.5	45.2	40.3	14.5	54.8	100.0
연령별	19~29세	209	0.0	26.3	26.3	51.5	22.2	73.7	100.0
	30대	237	5.1	26.6	31.8	45.7	22.5	68.2	100.0
	40대	275	2.4	34.6	37.0	42.8	20.2	63.0	100.0
	50대	261	2.9	55.1	58.0	31.2	10.8	42.0	100.0
	60대 이상	218	4.8	56.2	61.0	31.3	7.7	3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7.1	52.5	59.6	30.1	10.3	40.4	100.0
	고졸	599	2.3	46.7	49.0	37.2	13.9	51.0	100.0
	대재 이상	470	3.0	27.9	30.9	47.0	22.1	69.1	100.0
직업별	무응답	2	0.0	55.4	55.4	44.6	0.0	44.6	100.0
	농/수/축산업	20	4.6	41.1	45.6	34.2	20.2	54.4	100.0
	자영업	260	2.2	43.6	45.8	40.8	13.5	54.2	100.0
	블루 칼라	341	3.5	39.2	42.7	40.4	16.9	57.3	100.0
	화이트칼라	230	3.9	29.9	33.8	43.3	22.9	66.2	100.0
	전업 주부	222	2.8	52.0	54.8	33.1	12.1	45.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5	31.6	34.1	47.0	18.9	65.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5.4	49.8	55.2	30.2	14.6	44.8	100.0
	200~299만원	203	2.4	46.4	48.8	37.3	13.8	51.2	100.0
	300~399만원	362	3.1	43.9	46.9	37.3	15.8	53.1	100.0
	400만원 이상	500	2.7	31.7	34.5	46.5	19.0	65.5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3.3	38.2	41.5	41.9	16.6	58.5	100.0
	충청권	123	1.9	31.4	33.3	47.2	19.5	66.7	100.0
	호남권	117	0.7	17.1	17.8	46.4	35.8	82.2	100.0
	영남권	309	3.7	53.4	57.1	33.1	9.8	42.9	100.0
	강원	35	6.4	58.8	65.1	30.4	4.4	34.9	100.0
	제주	14	3.1	37.9	41.1	40.4	18.6	58.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3.9	36.4	40.3	42.4	17.2	59.7	100.0
	중·소도시	521	1.6	44.6	46.2	37.3	16.5	53.8	100.0
	읍/면	130	5.2	36.5	41.7	43.3	14.9	5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5.3	53.1	58.3	28.0	13.6	41.7	100.0
	중도	116	2.1	31.7	33.8	47.6	18.6	66.2	100.0
	보수적	561	1.2	29.5	30.7	50.2	19.1	69.3	100.0
종교별	불교	245	4.6	51.6	56.1	30.6	13.3	43.9	100.0
	기독교	238	2.4	38.4	40.8	44.7	14.5	59.2	100.0
	천주교	72	2.2	38.9	41.1	39.6	19.3	58.9	100.0
	종교없음	625	2.7	36.7	39.4	42.1	18.5	60.6	100.0
	모름/무응답	21	5.7	24.1	29.8	52.4	17.8	70.2	100.0

표53-1.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전 체	1200	11.2	38.6	49.8	38.4	10.8	1.0	11.8	100.0
성별									
남자	607	13.3	37.6	50.9	38.3	9.9	0.9	10.8	100.0
여자	593	9.0	39.7	48.7	38.4	11.8	1.1	12.9	100.0
연령별									
19~29세	607	13.3	37.6	50.9	38.3	9.9	0.9	10.8	100.0
30대	593	9.0	39.7	48.7	38.4	11.8	1.1	12.9	100.0
40대	275	14.9	40.2	55.1	31.3	12.7	1.0	13.6	100.0
50대	261	8.6	38.0	46.6	42.0	10.1	1.3	11.4	100.0
60대 이상	218	9.1	32.7	41.9	43.4	13.9	0.9	1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6.7	32.5	39.3	47.5	13.3	0.0	13.3	100.0
고졸	599	10.9	40.0	50.9	36.7	11.4	1.0	12.4	100.0
대재 이상	470	12.8	38.5	51.3	37.9	9.4	1.3	10.7	100.0
무응답	2	0.0	44.6	44.6	55.4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1	40.2	42.3	47.0	10.8	0.0	10.8	100.0
자영업	260	14.9	36.9	51.8	37.8	10.4	0.0	10.4	100.0
블루 칼라	341	10.4	38.0	48.4	39.7	11.1	0.7	11.9	100.0
화이트칼라	230	12.3	42.0	54.3	34.3	8.5	2.9	11.4	100.0
전업 주부	222	6.2	42.2	48.3	37.4	13.2	1.1	14.3	100.0
학생/무직/기타	127	14.0	31.1	45.1	43.6	10.9	0.5	11.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14.1	26.8	40.9	44.0	14.6	0.6	15.2	100.0
200~299만원	203	10.3	38.3	48.6	40.1	9.9	1.4	11.3	100.0
300~399만원	362	8.9	40.1	48.9	39.9	10.7	0.5	11.2	100.0
400만원 이상	500	12.3	40.9	53.2	35.1	10.3	1.4	11.7	100.0
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1.5	43.9	55.4	33.4	10.3	0.9	11.1	100.0
충청권	123	15.6	41.4	56.9	31.9	9.9	1.2	11.2	100.0
호남권	117	15.5	33.2	48.7	35.0	13.6	2.7	16.2	100.0
영남권	309	4.0	30.2	34.1	52.8	12.5	0.6	13.1	100.0
강원	35	28.6	35.0	63.6	34.0	2.3	0.0	2.3	100.0
제주	14	35.8	29.3	65	27.7	2.9	4.3	7.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12.9	36.4	49.4	38.8	10.4	1.5	11.9	100.0
중·소도시	521	10.8	42.9	53.6	38.3	7.9	0.2	8.0	100.0
읍/면	130	5.6	30.8	36.4	36.6	24.7	2.3	2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1.2	36.2	47.4	42.1	9.4	1.1	10.5	100.0
중도	116	6.7	46.8	53.5	36.5	10.0	0.0	10.0	100.0
보수적	561	12.2	39.2	51.3	35.2	12.3	1.1	13.5	100.0
종교별									
불교	245	6.5	40.8	47.3	41.9	10.2	0.6	10.8	100.0
기독교	238	15.8	40.0	55.8	31.8	10.5	1.8	12.4	100.0
천주교	72	22.1	30.8	52.9	32.0	15.1	0.0	15.1	100.0
종교없음	625	9.6	37.9	47.5	40.7	10.7	1.0	11.7	100.0
모름/무응답	21	23.4	45.6	68.9	21.7	9.4	0.0	9.4	100.0

표53-2. 다문화 관련 인식 - ㉕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전 체	1200	6.2	26.8	33.0	50.2	15.4	1.5	16.9	100.0
성별									
남자	607	6.1	27.0	33.1	49.1	15.9	1.9	17.8	100.0
여자	593	6.3	26.5	32.8	51.3	14.8	1.2	15.9	100.0
연령별									
19~29세	209	5.6	25.0	30.5	47	20.9	1.6	22.5	100.0
30대	237	6.9	21.0	27.9	51.4	17.9	2.8	20.7	100.0
40대	275	4.5	23.8	28.3	57.4	13.6	0.7	14.3	100.0
50대	261	5.9	30.2	36.1	49.4	13.4	1.1	14.5	100.0
60대 이상	218	8.5	34.5	42.9	43.6	11.9	1.6	13.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10.2	33.3	43.5	44.3	12.3	0.0	12.3	100.0
고졸	599	5.2	24.1	29.3	53.7	15.9	1.1	17.1	100.0
대재 이상	470	6.2	28.3	34.5	47.5	15.5	2.5	18	100.0
무응답	2	44.6	55.4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9.0	61.7	70.7	15.1	10.0	4.3	14.3	100.0
자영업	260	6.1	26.2	32.3	50.5	16.4	0.8	17.3	100.0
블루 칼라	341	7.5	26.2	33.7	50.2	14.4	1.8	16.1	100.0
화이트칼라	230	6.3	24.3	30.6	55.6	11.5	2.3	13.8	100.0
전업 주부	222	3.7	29.1	32.8	51.7	15.5	0.0	15.5	100.0
학생/무직/기타	127	6.6	24.3	30.9	42.4	23.5	3.2	26.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7.1	36.2	43.2	43.9	10.5	2.4	12.9	100.0
200~299만원	203	6.2	29.8	36.0	51.6	10.0	2.4	12.4	100.0
300~399만원	362	4.9	24.5	29.4	53.6	16.7	0.2	16.9	100.0
400만원 이상	500	6.9	24.7	31.6	48.8	17.9	1.7	19.6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6.5	20.4	26.9	54.5	17.2	1.4	18.6	100.0
충청권	123	6.3	32.4	38.7	44.5	15.5	1.3	16.8	100.0
호남권	117	8.4	39.8	48.2	38.5	9.1	4.1	13.2	100.0
영남권	309	5.0	32.9	37.9	47.8	14.0	0.3	14.3	100.0
강원	35	6.4	21.2	27.6	57.7	12.6	2.1	14.8	100.0
제주	14	0.0	20.4	20.4	43.7	23.9	12.1	36.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8.3	27.1	35.4	47.0	16.9	0.7	17.5	100.0
중·소도시	521	4.4	23.1	27.5	55.1	15.6	1.7	17.3	100.0
읍/면	130	4.2	39.9	44.1	43.5	7.9	4.4	12.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7.0	27.3	34.3	52.9	11.9	1.0	12.8	100.0
중도	116	10.0	25.2	35.1	51.3	12.9	0.7	13.6	100.0
보수적	561	4.7	26.6	31.3	47.4	19.1	2.2	21.3	100.0
종교별									
불교	245	7.7	29.3	37.0	48.0	13.2	1.8	15.0	100.0
기독교	238	6.2	25.9	32.0	51.2	15.7	1.1	16.8	100.0
천주교	72	9.2	16.7	26.0	51.6	18.9	3.5	22.4	100.0
종교없음	625	5.3	27.9	33.1	50.0	15.4	1.4	16.8	100.0
모름/무응답	21	5.9	9.4	15.3	62.2	22.5	0.0	22.5	100.0

표53-3.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전 체	1200	7.9	39.0	47.0	37.5	12.0	3.5	15.5	100.0	
성별	남자	607	8.2	39.2	47.4	36.1	11.9	4.5	16.5	100.0
	여자	593	7.6	38.9	46.5	39.0	12.0	2.5	14.5	100.0
연령별	19~29세	209	7.1	41.0	48.1	36.0	12.6	3.3	15.9	100.0
	30대	237	8.9	34.2	43.2	38.5	15.5	2.8	18.3	100.0
	40대	275	10.0	37.1	47.2	39.4	9.5	4.0	13.4	100.0
	50대	261	7.4	42.7	50.1	34.4	11.8	3.7	15.5	100.0
	60대 이상	218	5.7	40.3	45.9	39.5	10.7	3.9	14.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4.1	39.8	43.9	43.8	11.1	1.2	12.2	100.0
	고졸	599	7.4	40.1	47.5	36.2	12.7	3.5	16.2	100.0
	대재 이상	470	9.7	37.6	47.3	37.4	11.1	4.2	15.3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44.6	0.0	44.6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6.4	45.9	52.3	36.3	5.7	5.6	11.3	100.0
	자영업	260	10.2	37.4	47.7	34.2	14.7	3.4	18.1	100.0
	블루 칼라	341	5.8	41.3	47.2	37.9	12.4	2.5	14.9	100.0
	화이트칼라	230	10.5	34.7	45.2	36.9	13.9	3.9	17.9	100.0
	전업 주부	222	5.9	40.7	46.5	40.7	9.8	3.0	12.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8.0	40.0	48.0	39.3	6.2	6.5	12.7	100.0
		200만원 미만	134	4.7	41.4	46.1	36.6	10.4	6.9	17.3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7.9	42.0	49.9	37.3	7.9	4.9	12.8	100.0
	300~399만원	362	6.4	39.0	45.4	40.9	12.4	1.3	13.7	100.0
	400만원 이상	500	9.9	37.3	47.2	35.6	13.7	3.4	17.2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9.8	43.2	53.0	32.3	11.6	3.1	14.7	100.0
	충청권	123	5.5	38.1	43.6	36.4	15.5	4.4	20.0	100.0
	호남권	117	11.2	42.4	53.6	35.5	8.2	2.7	10.8	100.0
	영남권	309	2.6	29.9	32.5	51.3	13.0	3.3	16.2	100.0
	강원	35	15.4	43.5	58.9	19.2	11.2	10.6	21.9	100.0
	제주	14	18.7	31.1	49.8	34.0	5.8	10.4	16.3	100.0
		대도시	550	8.9	36.6	45.4	37.7	11.5	5.3	16.9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6.0	41.1	47.1	37.6	13.1	2.3	15.4	100.0
	읍/면	130	11.7	41.3	53.0	37.0	9.1	0.9	1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6.7	40.2	46.9	38.2	11.5	3.4	15.0	100.0
	중도	116	9.1	36.7	45.9	38.1	13.6	2.5	16.1	100.0
	보수적	561	8.9	38.4	47.3	36.9	12.0	3.9	15.9	100.0
종교별	불교	245	6.3	36.6	42.9	43.5	9.2	4.4	13.6	100.0
	기독교	238	9.5	41.1	50.6	32.3	11.5	5.7	17.2	100.0
	천주교	72	13.4	40.0	53.4	33.0	11.4	2.3	13.6	100.0
	종교없음	625	7.6	38.8	46.4	37.8	13.2	2.6	15.8	100.0
	모름/무응답	21	0.0	48.9	48.9	35.9	15.1	0.0	15.1	100.0

표54.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렵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중간보다 훨씬 높다	중간보다 약간 높다	%	중간과 비슷하다	중간보다 약간 낮다	중간보다 훨씬 낮다	%		
전 체	1200	1.0	6.3	7.3	51.0	34.6	7.1	41.7	100.0	
성별	남자	607	1.2	6.6	7.8	48.9	36.1	7.3	43.4	100.0
	여자	593	0.8	6.0	6.8	53.2	33.0	6.9	40.0	100.0
연령별	19~29세	209	0.6	9.2	9.8	56.6	30.3	3.3	33.6	100.0
	30대	237	2.0	7.3	9.4	54.2	30.7	5.7	36.4	100.0
	40대	275	0.6	7.6	8.2	55.3	30.9	5.5	36.4	100.0
	50대	261	1.6	4.5	6.1	47.8	38.7	7.3	46.0	100.0
	60대 이상	218	0.0	2.9	2.9	40.6	42.5	14.0	5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0	2.4	2.4	30.6	47.2	19.8	67.0	100.0
	고졸	599	0.8	4.2	5.0	47.8	39.4	7.8	47.2	100.0
	대재 이상	470	1.5	10.1	11.6	60.5	25.1	2.8	27.9	100.0
	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0.0	0.0	34.6	51.6	13.8	65.4	100.0
	자영업	260	1.3	5.4	6.7	50.3	37.6	5.3	42.9	100.0
	블루 칼라	341	0.7	5.1	5.8	46.4	38.7	9.1	47.8	100.0
	화이트칼라	230	0.4	9.5	9.9	55.5	31.3	3.3	34.6	100.0
	전업 주부	222	0.9	5.2	6.1	52.7	33.3	8.0	41.2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6	8.6	11.2	56.2	22.6	10.0	32.6	100.0
		200만원 미만	134	0.6	2.2	2.8	21.3	43.6	32.4	75.9
가구 소득 수준	200~299만원	203	0.4	2.8	3.2	38.7	47.4	10.7	58.1	100.0
	300~399만원	362	0.0	2.2	2.2	52.1	41.7	4.0	45.7	100.0
	400만원 이상	500	2.1	11.8	13.9	63.3	21.8	0.9	22.8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1.2	7.0	8.2	49.7	35.5	6.6	42.1	100.0
	충청권	123	0.7	8.4	9.1	65.4	21.1	4.4	25.5	100.0
	호남권	117	0.7	8.2	8.9	40.8	35.9	14.3	50.2	100.0
	영남권	309	0.6	3.7	4.3	51.3	38.0	6.4	44.4	100.0
	강원	35	2.3	4.6	6.9	52.3	36.8	4.0	40.8	100.0
	제주	14	3.1	3.2	6.4	56.1	19.2	18.3	37.5	100.0
		대도시	550	1.1	6.4	7.5	47.6	37.8	7.1	44.8
지역 크기	중·소도시	521	0.9	6.3	7.2	55.9	30.8	6.2	36.9	100.0
	읍/면	130	1.0	5.8	6.8	45.8	36.1	11.2	4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1.3	7.0	8.3	51.2	32.6	7.8	40.5	100.0
	중도	116	0.9	5.8	6.7	49.8	36.3	7.2	43.5	100.0
	보수적	561	0.8	5.7	6.5	51.1	36.0	6.4	42.4	100.0
종교별	불교	245	0.7	6.7	7.4	50.3	35.9	6.4	42.3	100.0
	기독교	238	0.8	6.0	6.8	53.8	31.6	7.8	39.4	100.0
	천주교	72	5.2	10.2	15.4	52.9	28.4	3.3	31.7	100.0
	종교없음	625	0.7	5.4	6.1	49.7	36.6	7.6	44.3	100.0
	모름/무응답	21	0.0	20.7	20.7	60.7	12.8	5.8	18.5	100.0

표55. 사회 계층

문)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⑤	⑥	⑤+⑥	계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	%	%	%	%	%	%	%	%	%	
전 체	1200	0.1	1.5	1.6	27.0	49.9	77.0	17.2	4.2	21.4	100.0	
성별	남자	607	0.1	1.7	1.8	26.2	50.2	76.4	16.7	5.1	21.8	100.0
	여자	593	0.0	1.4	1.4	27.9	49.7	77.5	17.8	3.3	21.1	100.0
연령별	19~29세	209	0.0	2.2	2.2	34.1	47.9	82.0	14.3	1.5	15.8	100.0
	30대	237	0.0	0.9	0.9	30.8	50.1	81.0	15.7	2.4	18.1	100.0
	40대	275	0.0	1.7	1.7	25.2	56.8	82.0	14.6	1.7	16.3	100.0
	50대	261	0.0	2.3	2.3	26.9	48.9	75.8	16.0	6.0	22.0	100.0
	60대 이상	218	0.4	0.6	0.9	18.7	44.1	62.8	26.5	9.7	3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0.6	0.6	1.2	10.6	39.6	50.2	31.0	17.6	48.5	100.0
	고졸	599	0.0	0.8	0.8	23.0	51.8	74.7	20.9	3.6	24.4	100.0
	대재 이상	470	0.0	2.7	2.7	36.7	50.4	87.1	8.9	1.4	10.2	100.0
	무응답	2	0.0	0.0	0.0	44.6	55.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0.0	0.0	0.0	13.5	29.1	42.6	32.5	24.9	57.4	100.0
	자영업	260	0.3	1.9	2.2	29.6	48.8	78.3	17.7	1.8	19.5	100.0
	블루 칼라	341	0.0	1.0	1.0	22.2	50.8	72.9	21.5	4.6	26.1	100.0
	화이트칼라	230	0.0	2.4	2.4	33.6	52.3	85.9	9.7	2.0	11.7	100.0
	전업 주부	222	0.0	1.6	1.6	21.4	53.4	74.7	20.0	3.7	23.7	100.0
	학생/무직/기타	127	0.0	1.0	1.0	35.2	42.9	78.1	11.1	9.8	20.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0.0	0.6	0.6	8.5	24.8	33.3	39.5	26.6	66.1	100.0
	200~299만원	203	0.0	0.0	0.0	15.3	51.8	67.2	28.0	4.8	32.8	100.0
	300~399만원	362	0.2	0.3	0.5	20.3	59.5	79.8	18.3	1.4	19.7	100.0
	400만원 이상	500	0.0	3.3	3.3	41.7	49.0	90.7	5.9	0.0	5.9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2	0.0	2.6	2.6	30.7	48.6	79.3	15.7	2.3	18.1	100.0
	충청권	123	0.0	0.0	0.0	34.0	53.2	87.2	11.0	1.8	12.8	100.0
	호남권	117	0.7	0.7	1.4	23.4	45.9	69.3	17.2	12.1	29.3	100.0
	영남권	309	0.0	0.6	0.6	18.6	52.9	71.5	22.5	5.4	27.9	100.0
	강원	35	0.0	0.0	0.0	21.5	54.8	76.2	19.4	4.4	23.8	100.0
	제주	14	0.0	0.0	0.0	37.8	34.5	72.3	16.1	11.6	27.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0.0	2.2	2.2	24.9	51.8	76.7	18.2	2.8	21.1	100.0
	중·소도시	521	0.2	0.7	0.9	29.7	49.3	78.9	14.9	5.3	20.2	100.0
	읍/면	130	0.0	2.0	2.0	25.4	44.6	70.0	22.2	5.8	28.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0.2	1.8	2.0	29.0	45.5	74.5	18.0	5.5	23.5	100.0
	중도	116	0.0	1.1	1.1	32.8	43.7	76.5	18.0	4.5	22.4	100.0
	보수적	561	0.0	1.4	1.4	24.0	55.3	79.3	16.4	2.9	19.3	100.0
종교별	불교	245	0.0	2.4	2.4	22.8	51.9	74.7	18.1	4.9	22.9	100.0
	기독교	238	0.3	0.7	1.1	29.4	47.5	76.9	19.7	2.3	22.0	100.0
	천주교	72	0.0	5.3	5.3	38.3	43.7	82.0	7.0	5.7	12.8	100.0
	종교없음	625	0.0	0.9	0.9	26.0	51.2	77.1	17.5	4.4	21.9	100.0
		모름/무응답	21	0.0	5.9	5.9	43.2	39.3	82.5	5.8	5.8	11.5

표56. 생활 수준 개선도

문)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⑤	④+⑤	잘 모르겠다	계
		훨씬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약간 나빠졌다		훨씬 나빠졌다			
		%	%	%	%	%	%	%	%	%	%
전 체	1200	20.9	42.2	63.1	25.0	8.8	2.2	11.0	0.9	100.0	
성별	남자	607	19.9	41.4	61.4	26.5	8.7	2.8	11.5	0.7	100.0
	여자	593	21.9	42.9	64.8	23.5	8.9	1.7	10.6	1.1	100.0
연령별	19~29세	209	19.5	36.3	55.8	30.8	8.8	2.3	11.0	2.3	100.0
	30대	237	19.0	40.7	59.6	28.9	9.0	1.4	10.4	1.0	100.0
	40대	275	21.5	46.3	67.8	21.6	8.7	1.5	10.2	0.4	100.0
	50대	261	21.8	42.5	64.3	21.9	9.5	3.8	13.3	0.5	100.0
	60대 이상	218	22.6	43.8	66.4	23.2	7.9	2.2	10.0	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9	22.9	37.7	60.6	24.8	7.8	4.7	12.5	2.1	100.0
	고졸	599	18.7	43.5	62.2	25.4	9.2	2.5	11.7	0.6	100.0
	대재 이상	470	23.0	41.7	64.7	24.6	8.6	1.2	9.8	0.9	100.0
	무응답	2	44.6	55.4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20	25.9	43.0	68.9	19.9	6.5	4.7	11.2	0.0	100.0
	자영업	260	22.1	54.2	76.4	17.5	5.3	0.0	5.3	0.8	100.0
	블루 칼라	341	18.0	33.3	51.3	33.7	10.9	3.4	14.2	0.7	100.0
	화이트칼라	230	26.1	38.5	64.6	20.9	11.7	1.8	13.6	0.9	100.0
	전업 주부	222	17.4	45.8	63.3	24.8	8.9	1.9	10.8	1.1	100.0
	학생/무직/기타	127	21.9	41.6	63.4	25.4	5.2	4.8	9.9	1.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34	20.8	32.2	53.1	27.8	7.6	10.3	17.9	1.2	100.0
	200~299만원	203	16.6	39.3	55.9	33.7	7.8	2.0	9.7	0.6	100.0
	300~399만원	362	16.0	43.3	59.3	27.3	11.4	1.1	12.6	0.9	100.0
	400만원 이상	500	26.2	45.1	71.3	19.1	7.7	1.0	8.6	0.9	100.0
		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602	15.5	43.5	59.0	28.1	10.7	1.2	11.9	1.0	100.0
	충청권	123	26.5	54.4	80.9	12.8	5.1	1.2	6.3	0.0	100.0
	호남권	117	24.6	47.0	71.5	11.4	7.7	6.1	13.8	3.3	100.0
	영남권	309	27.6	32.6	60.2	29.7	7.6	2.5	10.1	0.0	100.0
	강원	35	19.7	49.9	69.6	21.6	2.1	6.6	8.8	0.0	100.0
	제주	14	27.5	30.9	58.4	15.6	12.3	7.3	19.5	6.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50	24.8	40.5	65.3	23.2	8.9	1.6	10.5	1.0	100.0
	중·소도시	521	18.5	43.3	61.8	27.0	8.0	2.4	10.4	0.8	100.0
	읍/면	130	13.6	45.1	58.7	24.7	11.6	4.3	15.9	0.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522	23.7	39.6	63.3	25.4	8.5	2.4	10.9	0.4	100.0
	중도	116	18.5	33.8	52.3	29.7	15.2	2.7	17.9	0.0	100.0
	보수적	561	18.8	46.3	65.1	23.6	7.8	2.0	9.8	1.5	100.0
종교별	불교	245	22.1	42.2	64.4	25.9	6.8	2.1	8.9	0.8	100.0
	기독교	238	26.3	44.0	70.4	22.4	4.3	2.0	6.3	0.9	100.0
	천주교	72	19.6	41.6	61.2	28.4	6.8	3.6	10.4	0.0	100.0
	종교없음	625	18.5	42.1	60.6	24.6	11.5	2.3	13.8	1.0	100.0
		모름/무응답	21	20.7	24.9	45.5	43.8	10.7	0.0	10.7	0.0

표57.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전 체		1200	18.3	7.3	3.8	5.7	1.7	2.5	1.3	13.4	3.8
성별	남자	607	20.2	7.0	3.6	5.4	2.3	2.5	1.5	13.6	4.4
	여자	593	16.3	7.5	4.0	6.1	1.1	2.5	1.2	13.2	3.2
	19~29세	209	23.6	8.3	4.6	7.7	2.6	2.8	1.4	20.4	2.9
연령별	30대	237	23.7	7.8	3.0	5.4	1.3	3.6	0.9	16.6	2.1
	40대	275	20.8	7.0	4.0	5.5	2.3	2.4	2.0	9.6	3.7
	50대	261	13.5	6.4	5.0	5.5	1.3	1.9	1.1	11.6	6.1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18	9.8	7.1	2.2	4.9	1.1	1.9	1.3	10.1	4.0
	중졸 이하	129	2.6	7.0	3.6	3.2	2.3	0.0	1.1	12.8	4.5
	고졸	599	20.0	5.8	3.1	5.4	0.5	1.9	1.4	14.2	3.8
직업별	대재 이상	470	20.5	9.3	4.8	6.9	3.0	4.0	1.3	12.4	3.7
	무응답	2	0.0	0.0	0.0	0.0	0.0	0.0	0.0	44.6	0.0
	농/수/축산업	20	2.2	0.0	0.0	0.0	0.0	0.0	0.0	0.0	10.9
가구 소득 수준	자영업	260	21.0	4.0	1.5	6.7	1.3	1.9	0.3	12.4	4.9
	블루 칼라	341	17.5	9.6	5.4	4.9	1.3	2.5	2.3	14.3	1.8
	화이트칼라	230	24.0	8.0	5.1	5.8	2.8	3.5	1.3	13.6	1.5
지역별	전업 주부	222	11.9	8.7	2.9	6.0	1.4	2.2	1.5	11.6	5.2
	학생/무직/기타	127	18.1	5.1	4.2	6.1	2.5	2.8	1.1	17.8	7.6
	200만원 미만	134	7.0	4.9	2.7	5.1	3.0	2.5	0.5	12.1	6.1
지역 크기	200~299만원	203	13.7	4.1	3.5	6.9	1.5	1.4	1.5	9.0	6.5
	300~399만원	362	20.1	8.3	3.4	6.5	0.7	1.3	1.4	10.9	4.0
	400만원 이상	500	21.9	8.4	4.6	4.9	2.2	3.9	1.4	17.3	2.0
정치적 성향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도권	602	33.9	1.0	0.8	11.0	0.2	1.2	0.4	25.1	2.8
	충청권	123	4.0	1.3	0.0	2.1	0.8	17.7	0.0	3.9	0.6
종교별	호남권	117	0.7	1.3	0.6	0.0	15.8	0.7	0.0	1.5	0.7
	영남권	309	0.9	24.9	12.8	0.0	0.0	0.0	4.4	0.0	0.9
	강원	35	14.8	0.0	2.3	0.0	0.0	0.0	0.0	6.5	69.6
정치적 성향	제주	14	13.1	9.5	0.0	0.0	0.0	3.2	0.0	6.7	0.0
	대도시	550	23.8	13.5	7.7	8.4	3.0	3.7	2.5	7.5	2.1
	중·소도시	521	15.5	2.2	0.6	3.9	0.6	1.8	0.5	18.3	6.1
종교별	읍/면	130	5.9	1.0	0.0	2.0	0.7	0.4	0.0	18.7	1.9
	진보적	522	17.9	5.8	2.1	6.5	0.9	2.4	2.4	11.6	4.1
	중도	116	20.1	6.1	1.6	8.6	6.9	4.4	1.2	10.2	2.7
종교별	보수적	561	18.2	8.8	5.9	4.5	1.4	2.2	0.3	15.7	3.8
	불교	245	6.2	15.7	4.1	4.9	0.6	1.9	1.5	6.8	3.2
	기독교	238	22.1	2.9	3.4	8.0	1.6	2.0	0.0	14.1	3.5
종교별	천주교	72	19.2	2.6	4.8	5.2	4.1	3.7	1.8	16.6	10.4
	종교없음	625	20.3	6.1	3.8	5.5	2.0	2.9	1.6	15.6	3.4
	모름/무응답	21	52.2	9.6	0.0	0.0	0.0	0.0	6.0	5.9	3.8

		시례수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외국	계
			%	%	%	%	%	%	%	%	%
전 체		1200	3.9	6.5	6.0	8.0	7.6	9.1	0.8	0.2	100.0
성별	남자	607	3.7	6.3	4.6	7.5	7.3	9.2	0.7	0.2	100.0
	여자	593	4.1	6.7	7.5	8.5	7.9	9.0	0.9	0.2	100.0
	19~29세	209	1.7	4.9	2.6	4.8	5.5	5.2	1.1	0.0	100.0
연령별	30대	237	2.2	5.4	5.5	5.5	7.7	8.2	0.6	0.5	100.0
	40대	275	3.9	8.4	5.2	8.2	7.2	8.9	0.9	0.0	100.0
	50대	261	4.0	6.9	7.1	10.3	7.9	10.3	0.8	0.5	100.0
교육 수준별	60대 이상	218	7.5	6.5	9.6	10.6	9.7	12.8	0.8	0.0	100.0
	중졸 이하	129	6.0	3.6	10.1	12.9	12.0	16.6	0.8	0.9	100.0
	고졸	599	4.0	7.7	5.2	9.4	7.2	9.7	0.6	0.0	100.0
직업별	대재 이상	470	3.2	5.8	6.0	4.6	6.9	6.3	1.1	0.3	100.0
	무응답	2	0.0	0.0	0.0	55.4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20	4.2	13.0	0.0	18.6	23.3	20.7	7.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자영업	260	7.2	8.2	6.2	6.8	9.8	6.8	1.0	0.0	100.0
	블루 칼라	341	3.7	5.8	4.2	9.8	6.7	8.7	0.8	0.7	100.0
	화이트칼라	230	3.7	5.7	7.2	5.8	7.5	4.4	0.2	0.0	100.0
지역별	전업 주부	222	2.3	6.3	8.1	10.4	6.9	14.1	0.6	0.0	100.0
	학생/무직/기타	127	0.5	5.8	5.8	3.5	4.6	13.0	1.3	0.0	100.0
	200만원 미만	134	1.1	4.2	13.0	9.4	12.8	13.6	2.0	0.0	100.0
지역 크기	200~299만원	203	2.8	6.6	5.0	12.0	11.4	12.6	0.8	0.6	100.0
	300~399만원	362	4.5	7.2	5.7	8.5	6.6	10.1	0.4	0.3	100.0
	400만원 이상	500	4.6	6.6	4.8	5.3	5.5	5.8	0.9	0.0	100.0
정치적 성향	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수도권	602	2.2	4.9	5.5	6.2	2.6	1.6	0.2	0.4	100.0
	충청권	123	24.9	36.6	5.5	0.0	1.3	1.4	0.0	0.0	100.0
종교별	호남권	117	0.7	1.3	27.8	48.3	0.0	0.7	0.0	0.0	100.0
	영남권	309	0.3	0.6	0.0	0.3	23.8	31.2	0.0	0.0	100.0
	강원	35	2.3	0.0	0.0	0.0	2.3	2.1	0.0	0.0	100.0
지역 크기	제주	14	0.0	0.0	0.0	5.8	0.0	0.0	61.7	0.0	100.0
	대도시	550	2.3	4.6	3.9	7.1	4.0	5.5	0.0	0.2	100.0
	중·소도시	521	5.1	7.6	8.2	6.8	10.0	11.5	1.1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130	5.6	10.2	6.2	16.0	13.3	14.8	3.4	0.0	100.0
	진보적	522	3.9	6.5	7.2	7.6	9.1	11.3	0.7	0.0	100.0
	중도	116	0.7	5.8	7.6	12.2	4.9	5.9	0.0	1.1	100.0
종교별	보수적	561	4.5	6.6	4.6	7.4	6.8	7.8	1.1	0.2	100.0
	불교	245	5.7	5.5	5.0	8.3	9.5	19.4	1.5	0.0	100.0
	기독교	238	3.1	7.8	10.9	9.8	4.8	5.0	0.4	0.5	100.0
종교별	천주교	72	1.0	4.6	7.4	5.1	7.4	6.0	0.0	0.0	100.0
	종교없음	625	3.9	6.7	4.6	7.5	7.9	7.3	0.8	0.2	100.0
	모름/무응답	21	0.0	4.3	0.0	5.9	9.8	0.0	2.3	0.0	100.0

SNUIRB No. E1606/002-002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 3702-2100 / FAX (02)3702-2121 / E-mail info@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Gallup2016-166-014

2016 통일의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2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정근식 교수이며, 이 자료는 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될 예정입니다. 단, 이 조사결과가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식별 가능한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장용석 책임연구원(02-880-5235)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동의함 □에 √ 표기를 해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언제든지 이 조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결정이 귀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정근식

■ 동의함 □ (귀하의 개인정보(식별정보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본 연구 자료가 사회과학자료원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 안에 √ 표기를 해주십시오)

연구 주관 기관 :



2016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익
 담당연구원 장은혜
 (☎ 02-3702-2119)
 실사연구원 정슬기
 (☎ 02-3702-2689)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원장 : 정 근 식 ☎ : 02-880-4052

- ☐ 지 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필요하다
- 2. 약간 필요하다
- 3. 반반 / 그저 그렇다
-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 되는 것이 좋다
-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 3. 현재대로가 좋다
-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 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㉑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㉒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㉓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㉔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㉕ 대북제재와 압박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㉑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㉒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㉓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㉕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1	2	3	4
㉖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같은 민족이니까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3.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6. 기타 (적을 것 : 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㉑ 빈부격차	1	2	3	4	5
㉒ 부동산투기	1	2	3	4	5
㉓ 실업문제	1	2	3	4	5
㉔ 범죄문제	1	2	3	4	5
㉕ 지역갈등	1	2	3	4	5
㉖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 3.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3)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 이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8)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 선군정치	1	2	3	4
㉡ 주체사상	1	2	3	4
㉢ 천리마운동	1	2	3	4
㉣ 고난의 행군	1	2	3	4
㉤ 정미당	1	2	3	4
㉥ 모란봉 악단	1	2	3	4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있다	없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나 본 경험	1	2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1	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문 21)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은요?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사회복지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족중시	1	2	3	4

문 22)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3)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4) (보기카드 7 제시)○○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간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2.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3.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4. 북한 핵종단을 위한 국제협력
5. 평화협정체결

문 25)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남북경제협력의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7)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8)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대북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문 30)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북한의 책임	1	2	3	4	5
㉡ 한국의 책임	1	2	3	4	5
㉢ 미국의 책임	1	2	3	4	5
㉣ 중국의 책임	1	2	3	4	5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1)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 조선족 (중국동포)	1	2	3	4	5
㉢ 동남아인(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	2	3	4	5
㉣ 미국 유럽인	1	2	3	4	5
㉤ 아랍인	1	2	3	4	5
㉥ 아프리카인	1	2	3	4	5

문 32)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네 이웃'은요?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3)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 정부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5)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1. 미국 4. 중국
- 2. 일본 5. 러시아
- 3. 북한

문 36) (보기카드 9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미국 4. 중국
- 2. 일본 5. 러시아
- 3. 북한

문 37)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 북한 팀 2. 미국 팀
-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38)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39) (보기카드 10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북 간 협력 2. 한미 간 협력
- 3. 한중 간 협력 4. 모두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3)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 4.19	1	2	3	4	5
㉡ 5.16	1	2	3	4	5
㉢ 10월 유신	1	2	3	4	5
㉣ 광주민주화 운동	1	2	3	4	5
㉤ 6월 항쟁 (1987년)	1	2	3	4	5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4)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환경파괴	1	2	3	4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 빈부격차	1	2	3	4
㉣ 실업문제	1	2	3	4
㉤ 지역 간 불균형	1	2	3	4
㉥ 저출산·고령화	1	2	3	4
㉦ 이념갈등	1	2	3	4
㉧ 부정부패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45)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6)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47) (보기카드 11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문 48)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49)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0)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 3. 중도 4. 약간 보수적
- 5. 매우 보수적

문 51)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 1. 새누리당 2. 더불어민주당
- 3. 국민당 4. 정의당
- 5. 지지정당 없음

문 52)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3)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㉞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㉟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㊱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1	2	3	4	5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

- 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 9. 가정주부
-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11. 군인/경찰
- 12. 무직
- 13. 기타(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다가?

- 1. 미혼 3. 이혼/별거
- 2. 기혼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불교
- 2. 기독교 (개신교)
- 3. 천주교 (가톨릭)
- 4. 기타(적을 것 : _____)
- 98. 종교 없음
-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월 49만원 이하 | 2. 월 50~99만원 |
| 3. 월 100~149만원 | 4. 월 150~199만원 |
| 5. 월 200~249만원 | 6. 월 250~299만원 |
| 7. 월 300~349만원 | 8. 월 350~399만원 |
| 9. 월 400~499만원 | 10. 월 500~599만원 |
| 11. 월 600~699만원 | 12. 월 700만원 이상 |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덕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2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상의 상 | 2. 상의 하 |
| 3. 중의 상 | 4. 중의 하 |
| 5. 하의 상 | 6. 하의 하 |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훨씬 좋아졌다 | 2. 약간 좋아졌다 |
| 3. 차이가 거의 없다 | 4. 약간 나빠졌다 |
| 5. 훨씬 나빠졌다 | 6. 잘 모르겠다 |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 | |
|-----------|-----------|
| 1. 서울 | 2. 부산 |
| 3. 대구 | 4. 인천 |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경기도 |
| 9. 강원도 | 10. 충청 북도 |
| 11. 충청 남도 | 12. 전라 북도 |
| 13. 전라 남도 | 14. 경상 북도 |
| 15. 경상 남도 | 16. 제주도 |
| 17. 북한 | 18. 외국 |

면접 후 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2. 휴대폰	
	□□□□-□□□□-□□□□	□□□□-□□□□-□□□□	□□□□-□□□□-□□□□
조사 일시	___월 ___일 ___시 ___분부터 ___시 ___분까지 (분간) <small>(만드시 적어주세요)</small>		
협조 정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100-104	

Supervisor	검 증 원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